36p

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外部委囑共同 研究報告書임
Ⅱ.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國際情勢研究

韓半島 周邊國際情勢의 長期展望

The Longterm Prospect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研究責任 :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長
(盧 在 鳳)

刊行責任 : 補佐官 申 英 俊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総 目 次

要 約 3

1. 美·蘇의 世界戰略 99

- 80年代의 美·蘇競争相의 展望的 考察 - 金 洪 喆

2. 美·蘇関係의 現況과 展望 李 基 遠 159

3. 中·蘇関係 展望 鄭 埈 昊 199

4. 1980年代의 日本의 軍事態勢 吉 昇 欽 261

- 軍事拡張論을 中心으로 -

5. 中共軍의 近代化 崔 明 325

- 外交戰略上의 意味를 中心으로 -

6. 日·中共 経済協力의 現況과 展望 呂 井 東 363

7. 시베리아開発政策 展望 金 容 九 395

8. 東北亜의 資源問題와 그 展望 鄭 鍾 旭 446

9. 東北亜의 四強関係와 그 展望 金 宗 輝 .. 507

10. 東北亜秩序 変動에 따르는

이데올로기変化의 展望 崔 相 竜 555

要　　約

『美蘇의 世界戰略』~八〇年代 美蘇競争相의 展望的 考察~

(金 洪 喆)

要 約

(一) 研究目的과 研究方向

이 研究는 다음 事項들을 留意하면서 80年代에 展開될 美蘇의 世界外交戰略의 基本方向과 그 展開樣相의 展望的 考察을 試図하고 本研究主題内容의 問題意識을 処理해 나갔다.

(1) 이제 世界秩序는 적어도 時期的으로는 70年代를 清算하고 80年代를 指向하는 世界情勢変動의 소용돌이 속에 処해 있다. 美蘇를 包含한 이른바 四強의 利害関係가 直接間接으로 複雑하게 얽혀있는 世界政治上의 問題地域이 바로 韓半島이다. 이 韓半島 안에 南北이 対決한 두개의 韓国이 存在하고 있다. 말하자면 韓半島는 美蘇의 世界戰略上의 可変数的 要因과 常数的 要因들이 민감하게 投映되는 가운데 対内的으로는 南北韓의 共同努力에 依한 韓半島平和定着의 民族的 中興事業을 成就시켜 祖国의 平和的 統一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国力拡大化作業의 어려운 試鍊속에 直面해 있다. 이같은 与件속에 韓国은 富国自強과 自主安保努力을 為해 国民的 精力을 쏟고있는 마당에 있다.

따라서 이 研究의 根本目的은 美蘇의 世界外交戰略의 長期展

望的 側面을 分析考察하여 이것을 韓半島周辺情勢変動의 基本方向을 把握하고 理解하는 일에 연계지으며 아울러 80年代를 指向한 韓国의 富国自強과 自主安保를 為한 実践努力을 펴가는 長期的 政策構想・立案에 寄与하는데 있다.

(2) 本 研究는 美・蘇의 世界外交戦略의 実相把握에 우선 焦点을 모아 検証하고, 그 結果事項들이 韓半島事態 転変에는 어떻게 投影돼갈 것인가를 総体的으로 鳥瞰해 보는 立場을 取했다.

(3) 그리하여 이 研究에 있어서는 80年代의 世界政治秩序의 運営方式도 70年代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말하자면 美蘇間의 世界覇権競争의 時代相의 展開로 把握하고 理解하였다.

(4) 現段階의 世界政治秩序는 如前히 「超強大国秩序」로서의 美蘇의 世界外交戦略이 世界政治를 料理하고 推進力으로 行勢하는 支配的 存在이다. 그 속에서 現実的으로는 「世界覇権」(world-hegemony) 掌握을 為해 美蘇는 競争하고 있으며, 名分論上으로는 現代科学・武器革命이 齊来한 무서운 破壊力의 発揚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個別国家利益 (national interest) 을 人類의 共同安全과 繁栄・利益으로 転移시켜 가야한다는 점을 強調的으로 내세우는 「普遍主義」(universalism) 가 抬頭된 가운데 共存과 対決・競争的 協力・互恵的 安全을 為한 世界戦略目標 속에 公約数를 찾으면서 世界政治를 指導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 論文은 이같은 美蘇의 世界外交戦略의 実践的 局面과 倫理・名分論的 側面을 다같이 留意하고 剔決해 둠으로서 美蘇의

世界戰略의 総体的 모습을 鳥瞰하는 方便으로 看做하고 処理하였다.

(5) 때문에 이 研究는 위와 같은 美蘇의 世界戰略을 「世界支配」를 為한 戰略展開의 스타일로 看做하였으며, 이를 立証할 目的으로 먼저 現段階의 軍事的 国際環境変化의 真面目과 実相把握을 集約的으로 誘導해 나갔다. 그리하여 美蘇가 共히 圧倒的인 「世界支配」圈을 拡大·争奪·保全키 為한 戰略目標達成의 実践命題인 Pax Americana와 그 安全保障策 및 Pax Sovietskaya와 그 安全保障策의 個別的 考察을 묶어 본 것이 이 論文의 主要内容이다.

(二) 世紀的 軍事環境変化의 몇가지 実相

現今世界는 바야흐로 戰争과 平和의 갈등속에 살고 있다. 世界平和를 為한 「正義의 戰争」(bellum justum)名分은 一国의 安全保障(national security)에 帰依하고, 戰争을 準備(軍備競争)하는 世界平和名分의 야누스(Janus)神은 「平和를 願하거든 戰争을 準備하라」(Si vis pacem,para bellum)를 万国의 諸国民에게 自己正当化시켜 주고 있다. 実로 平和의 파라독스(paradox)속에 昏迷하는 現今世界秩序요 時代相이다. 여기에 Pax Americana와 西方世界圈이 自我生存을 為해 「共同防衛」(common defense)의 名分과 現実의 틀속에 묶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Pax Sovietskaya와 共産世界圈이 亦是 같은 論理에 依하여 自己守護의 集団

防衛体制속에 結束의 힘줄을 늦추지 않으면서 雙方은 共히 「地上平和」(Pacem in Tenis)建楽을 指向하는 代表的 闘士라고 自処하고 나섰다. 오늘의 이같은 알궂은 時代相의 소용돌이 속에 과연 누구를 為하여 平和의 鍾은 울리는 것이냐고 自問하면서 설땅을 찾아 自己蘇生의 물결을 헤치고 있는 것이 「第 3 世界의 平和」(Pax du Tiers Monde)를 強調하는 群像들이다. 極東平和, 即世界平和의 「場」(locus in quo)으로서의 Pax Koreana 問題도 바로 이 속에 있다. 그만큼 韓半島平和定着과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立国의 諸問題는 現今의 世界政治 및 특히 美蘇의 世界戦略上의 무거운 責任比重을 차지하는 課題라는 事実을 이 論文内容은 깊이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今日의 이와 같은 世紀的 与件変動의 推進体이고 同時에 状況転移의 活力素로서의 決定的인 役割을 다해온 것은 다름아닌 世界的 規模의 軍事環境 変化이다.

世紀的 軍事環境変化의 主役을 맡고 있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이 美国과 蘇聯 両超強大国이다. 軍事環境変化의 具体的 様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武器体系의 革命的 改変이고, 둘째는 天頂不知의 高潮一路에 있는 軍事科学技術을 包含한 質量軍備競争이며, 셋째로는 武器通商戦争의 激化로 因한 武器販売競争을 통해 「世界武装化」를 促進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其実을 따진다면 이러한 軍事環境変化는 곧 世界의 軍事環境 自体를 包含한 其他 政治・経済・外交上의 国際環境까지도 変化를 促進시켜 주는

결정적 要因이라는 점을 指摘해두지 않을 수 없다. 武器体系의 革命은 普通 다음 세가지를 들어 說明한다. 첫째는 破壞力의 革命이고 둘째는 運搬手段의 革命이며 셋째는 通信電子武器의 革命이다. 破壞力의 革命은 原子核武器의 登場으로 비롯했다. 특히 美蘇를 主軸으로한 武器革命競争은 치열하다. 核破壞力의 代表的 存在는 核弾頭이다. 지금부터 10年前인 1968年의 美国이 保有했던 核弾頭数는 4,300個였고 .蘇聯의 그것은 1,300個였는데 現在는 美国이 11,000個를, 蘇聯이 4,500個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記録된다. 오늘날의 標準核弾頭는 1메가噸級이다. 美蘇가 保有하고 있는 核弾頭를 合치면 1萬5千5百個인데 이것을 TNT로 換算하면 무려 155億噸의 TNT破壞力에 該当한다. 世界人口를 大略 40億으로 잡는다면 約4噸에 가까운 TNT를 毎個人에게 配分할 수 있는 計算이 된다. 人類를 全滅하고도 남을 무서운 破壞力이다. 核弾頭를 運搬하는 ICBM만 해도 美国이 1,054基이고 蘇聯이 約1,400基이다. 그리고 通信電子武器体系에 있어서는 各種의 誘導武器体系에 革命을 가져왔으며 同時에 諜報衛星을 비롯한 各種 機能의 衛星体系는 世界戰略遂行의 「場」을 宇宙化하였다.

이같은 武器革命은 美蘇의 世界戰略 遂行上의 共通分母를 낳게 하였다. 말하자면 人類共滅의 核大戰争慘禍로 부터 彼此가 「살아남기」(survival) 為한 目的으로 国際環境変化促進의 共同努力을 強調하는 名分論的 레파토리를 만들어 내는데 共通分母를 찾고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政治的 局面에서는 潜定的으로 이데올로기의 鈍

化現象을 促求하고 個別的 또는 集団的인 平和共存속의 和解時代秩序形成을 標榜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因하여 이른바 緊張緩和다 現状維持(status quo post bellum)다 또는 勢力均衡体制의 重要性을 더욱 強調하게 되었다. 経済的으로는 資源戦争에 投入하는 精力的 努力은 継続하면서도 東西間의 交易拡大増進과 技術・資本・金融上의 協力의 振幅을 拡大하는 일에 共通利害를 갖고 있다. 한편 軍事的 局面에서는 大局的인 見地에서 長期的 軍事安定均衡策을 図謀하는 일에 努力하고 있다. 이 일은 美・蘇双方이 共히 超強大国 勢力으로서의 核戦略能力 및 一般目的兵力面에 있어서 軍事的・戦略的 同等位置(military-strategic parity)를 保全維持하고 君臨하여야 한다는 点에서 競争속의 共同歩調를 取하고 있다. 이때문에 自然히 Pax Americana와 Pax Sovietskaya를 為해 決定的인 損害를 가져올지도모를 群少国家間의 国際紛争事態에 対하여는 国際介入을 公公然하게 벌이는것이 보통이다. 要컨대 美・蘇双方의 共同利益을 為하여 紛争地域国家間의 対決状態와 世界軍事秩序 全般의 現状凍結 및 長期的 軍事安定을 促求하는 立場이 美・蘇에 共通된다. 위와같은 몇가지 共同歩調 및 共通立場에 서서 美・蘇는 각기의 世界戦略外交 및 地域戦略目標를 세워 遂行해 나가는 共通分母를 暗黙的으로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双方은 共히 相対方에 対하여 優越한 超強大国임을 立証하기 為한 実践目標를 두고 軍事科学技術 및 武器体系의 質的인 改善増進을 늦추지 않으며, 武器通商競争을 통해 世界武器需給支援国家로서

의 最高頂上을 自負하면서 특히 第3世界의 武裝化를 促進하고 있는 代表勢力이라는 点에서도 美·蘇는 막상막하를 겨루고 있는 형편이다. 外交的인 면에서는 비록 制限的인 要素가 多分히 介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第3世界国家群을 包含한 既往의 盟邦眷属国家들에게 각기의 外交的 選択裁量権의 振幅拡大를 종용 乃至는 引導해주는 努力도 美·蘇의 世界戦略上의 共通된 特色이다.

(三) 美·蘇의 世界支配戦略과 安全保障 実践目標

(1) 蘇聯의 世界戦略과 安全保障策——지금 蘇聯은 蘇聯이 主導하는 世界支配戦略을 通한 「最後의 勝利」를 為해 이른바 「平和時代戦略態勢」(Peacetime Strategy)를 確立·展開하고 있다. 蘇聯의 世界外交戦略의 基本原則은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政治理念에 立脚한 世界革命戦略의 完遂라고 하는 伝統的 遺産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世界革命戦略의 伝統的 遺産은 자연히 諸般局面의 影響圏拡大를 비롯한 膨脹主義路線과 間接浸透 目的의 策略을 実践하는 일에 「平和時代戦略」의 特徵으로 表出시켜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蘇聯의 世界戦略目標는 모두 地球上에 「永遠한 Pax Sovietskaya」를 建築한다는데 集約되고 있다. 그리하여 社会主義外交様式과 社会主義国際法秩序를 支柱로 하여 現代의 国際関係秩序의 生理에 実用主義的으로 対処하면서 適応해 나가는 国際政治観을 形成해 가는 가운데 西方世界国家 및 第3世界国家들과의 協力

的 競争과 対決속의 共存을 維持하기 為한 関係改善을 図謀増進하고 있다. 때문에 蘇聯의 世界戦略遂行에 있어서는 目標達成의 具体的 実践手段으로서 政治的으로는 이데올로기上의 푸로레타리아国際主義와 反帝·反資本主義闘争目標를 標榜하면서 自身의 安全保障策을 担保하는 方便으로서 軍事力 増強·武器体系 発展改善·経済基盤 拡充·資源保全을 為해 엄청난 政策努力을 投入하면서 「힘에 의한 交渉의 手段」을 무엇보다도 重要視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世界平和綱領이라는 것을 設하여 푸로파간다戦争에 精力을 쏟으며, 「世界革命勢力」들에 対한 諸般支援을 具現하면서 데땅뜨政策의 名分論과 実際論의 간격을 넓히는 가운데 西方世界를 弱勢의 窮地로 몰고 가려는 것이 蘇聯의 世界戦略 遂行의 当面課題이고 地域戦略目標의 長期命題이다.

(2) 美国의 世界戦略과 安全保障策——美国의 世界戦略의 基本目標와 原則的 課題도 窮極的으로는 世界秩序를 美国이 主導하는 Pax Americana를 建設하는데 있음은 蘇聯의 그것과 相対的인 意味에서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美国은 蘇聯보다 優越한 「超強大国」의 地位와 実力과 体面을 維持保全하면서 西方自由民主主義 및 資本主義社会秩序의 守護保全을 為해 이른바 「共同防衛」(Common defeure)의 政治名分을 標榜하고 国家聯合結束의 튼튼한 基礎를 強調한다. 다만 世界制覇戦略遂行의 힘줄로서 物理的 힘을 交渉의 効果的인 手段으로 看做하고 対蘇牽制의 軍事力을 重要視하는 점에

서는 蘇聯의 世界戰略遂行의 패턴과 類同이다. 그러기 때문에 美·蘇間의 世界平和共存政策 実施의 外形은 世界国民을 説得하기 為한 名分論의 싸움으로 一貫하면서 그 内面的 実相은 軍備競争을 暗黒的 実践事項으로 諒解되고 있는 実情이다.

어떻든 美国의 世界戰略遂行上의 名分과 具体的 手段은 一次的으로 「美国의 安全保障」을 為하고 다음으로는 「共同防衛責任分担」을 強調하는 가운데 西方世界를 結束시켜 나가는 方向에 焦点을 두고 있다. 이를 為하여 政治이데올로기上의 反蘇-対共産圏闘争에 力点을 두는 한편 協力的 경과 共存속의 対決戰略을 並進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勿論 安全保障政策上의 内実化를 為한 対蘇軍備競争의 比重은 가장 으뜸가는 世界戰略遂行의 方便으로 삼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西方世界国家 全般에 対하여는 이들 諸国民이 美国의 影響圏과 発言権을 離脱 乃至는 軽視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実証手段으로서 経済援助와 軍事支援 및 武器販売·需給政策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非同盟·第3世界国家에 対하여는 叙上의 経援·軍援·武器販売政策등을 통해 이른바 「매질과 당근」(stick and canat)政策을 並行하는 가운데 圧力과 介入을 疎忽히 하지않는 점도 美国의 世界戰略上의 看過해서 안될 主要課題라는 事実을 想起해둘 必要가 있다. 그러니까 美国의 世界戰略上의 諸課題는 政治的·経済的·軍事的 및 外交的 課題들로 集約되는 것인데 이 모두의 課題解決 実践方向 定立에 있어서는 窮極的으로 Pax Americana를 為한 対蘇戰略比重을 最優先하

는 것이고, 対共産圏 견제전략을 基礎로한 各地域 戦略目標를 達成 完遂해가는 過程에서 対蘇競争 및 世界支配戦略을 展開하는 것이다.

美蘇関係의 現況과 展望

(李 基 遠)

要 約

(1)

美소関係의 現況과 展望을 検討함에 앞서 美国과 소聯의 外交政策을 比較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外交政策의 比較研究를 위한 frame work에 관한 프랑켈 (Frankel) 맥크리디스 (Mac riclis) 및 위일킨손 (Wilkinson)等의 業績이 있는바 여기에서는 이들의 研究業績을 考慮하면서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즉

첫째, 外交政策의 諸要因

(1) 地 理

(2) 国力－人的, 天然資源, 経済, 軍事, 技術水準

(3) 国内政治. 経済体系

둘째, 政策決定過程

(1) 政府部門－行政府, 立法府

(2) 非政府部門－政党, 圧力団体, 매스콤, 与論

세째, 外交스타일의 特徵

要컨대 比較外交政策의 主要한 変数는 첫째 外交政策을 規定하는 諸要因, 둘째 外交政策의 決定過程, 세째 外交스타일이다. 外交政策의 諸要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比較的 永續的인 要因으로서 一国의 外交政策의 特徵을 規定하는 地理国的 및 政治 経済体系 等

이다. 政策決定過程은 政府部門과 非政府部門으로 区分되는바 前者는 行政部와 立法府, 後者는 政党, 压力国体, 매스콤 및 与論 等이 分析된다. 끝으로 外交스타일은 一国의 歷史, 伝統 또는 国民性에 関聯되는 要素로서 그 나라外交에 있어 가장 特徵的인 것이다.

以上과 같은 frame work을 前提로 하여 美소 両国의 外交政策을 分析했다. 그 結果를 要約한다면 美国의 경우는 그 外交政策決定過程이 自由民主主義政策, 経済体系의 特徵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으며 外交스타일에 있어서는 道德的 아프로치나 実用主義的(Pragmatic) 아프로치가 併用되고 있음을 指適할 수 있다. 冷戰時代의 美国外交는 原則的으로 道德的 approach였으나 그 行動은 比較的 Pragmatic한 面을 露呈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的인 面보다는 어디까지나 実利的 要素—国家利益—가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聯의 外較政策決定過程은 社会主義政治·経済体系의 特徵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는바 즉 一党独戰体制의 性格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外交스타일은 이데올로기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2)

이러한 状況을 바탕으로 하여 展望된 美소関係는 才2次大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첫째, 冷戰関係, 둘째, 競争的 共存関係, 세째, 協力的 共存関係, 네째, 対決的 共存関係 等으로 進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美소関係展開에서 보면 現存및 앞으로의 短期的 期間을 展望해 볼때 <対決的 共存>関係라 하겠다. 카터大統領은 同盟関係를 굳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힘을 背景으로 하여 소聯과 交涉하여 SALT II 等과 같은 問題에 있어 소聯의 讓步를 얻어내려는 公算인 것 같다. 그러나 소聯은 讓步는 커녕 오히철 軍事力을 增強시켜 対美威脅을 高潮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聯의 威脅은 소聯指導者의 交替問題와 関聯시켜 볼때 더욱 增大될 可能性이 있다. 78年 5月初에 브레즈네프가 西独을 訪問했을 때 그의 健康이 매우 悪化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美国으로으로서는 소聯의 対外政策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後継者問題가 큰 関心事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소聯의 軍事力增強에 많은 影響을 미친 軍指導者의 地位向上이다. 브레즈네프의 시베리아訪問時 国防相이 随行했다던가 美소外相会議에 参謀総長이 参席했다던가 하는 事実은 이것을 말해 주는 例라 하겠다.

아무쪼록 브레즈네프以後의 소聯의 指導者가 누가되던지간에 軍部의 強力한 影響을 받게될 것이라는 것은 予測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聯의 対外面에서의 強硬路線의 持続이 不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소聯対外政策의 強硬性은 美・中共関係・日・中共関係의 進行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될것이다.

이에 対하여 美国은 소聯의 軍事的 威脅과 膨張을 阻止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카터大統領은 우先 対소柔軟姿勢로서 소聯의 威脅을 緩和시켜 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카터大統領은 軍部의 反対에도 不拘하고 B-1生産의 中止 中性子運의 生産延期, 新型MX 미사일開発計画実施의 遅延 等을 決定했음에도 소聯은 強硬路線을 굽히지 않았다.

카터大統領은 次期選挙를 크게 意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状況에서 그 以上 対소譲歩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美·中共国交正常化는 対소関係의 一断面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美国은 中共과의 条交로써 소聯脅力을 견제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対소囲網形成에 대하여 소聯은 積極的으로 非難하고 나왔을뿐만 아니라 印支半島에서의 代理戦을 激化시키고 이 地域에 대한 影郷을 높혔다. 이란事態도 美소関係를 左右하는 要素로 展望된다. 美소両国은 서로 相対方에게 이란事態에 干渉해서는 안된다고 警告하고 있으나 이란事態에 대한 美소両国의 対決도 不可避한 것이다.

SALT II를 둘러 싼 美소関係도 매우 유동적이다. SALT I는 美소両国의 〈協力的 共存関係〉의 代表的 例였다. 즉 이것을 바탕으로 美소関係는 앞으로 継続的으로 協力関係가 維持될 것으로 期待되었으나 SALT II에 있어서는 그러한 期待가 水泡化되는 状態가 되었다. 오랜 時日 동안에 迂回曲折을 거듭하면서 美소両国은 SALT II를 進行하여 거의 마무리 段階에 이르러 最終段階에 이르고 있으나 妥結을 보지 못하고 있다. 勿論 武器体系의 高度의 発展에 따른

技術的인 問題에 異見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보다도 여기에는 政治的인 問題가 더욱 큰 要素로 되어있다. 즉 美소両国의 政治的 対決이 深化되고 있는 状況下에서 軍事面에서 SALT Ⅱ가 合意되었다 하더라도 最終的 妥結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当然한 일인지도 모른다.

카터大統領이 79年에 즈음하여 議会에 提出한 年頭教書에서 SALT Ⅱ가 世界平和에 寄与할 것이나 自身은 美国이 圧倒的 核軍事力을 保有하지 않은 限, 이 協定에 著名하지 않을 것이라고 宣言했던 것이다.

아무조록 美소関係는 対決的 共存関係가 維持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렇다고 해서 50年代의 冷戰状況에서의 対決과 같은 것으로 되돌아 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美소両国은 바야흐로 美소関係뿐만 아니라 国際政治 속에서 比重을 높혀가고 있는 中共및 才3世界諸国의 存在 等 諸要素를 감안한 새로운 次元의 和解를 摸索할 것이다.

이러한 美소関係는 韓半島에 어떠한 影鄕을 미치게 될것인가? 韓半島는 바야흐로 4強의 利益関係가 더욱 鋭敏하게 交叉되는 地域으로 登場하고 있다. 즉 소聯은 美·中共条交에 따라 北傀와의 接近을 拡大해 나가는 한편 韓国에 대해서도 매우 慎重하게 接近을 試図함으로 対中共包囲網形成에 努力하려할 것이다. 한편 이 地域에 있어서의 中共의 接近이 拡大된다면 北傀로 하여금 緊張을

造成해 나갈 公算도 排除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美国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위하여 韓国과 中共과의 関係改善을 비롯하여 中共의 対北傀説得 協調에 努力하면서 操心스러운 対北傀接触을 試図할 可能性이 있다. 바야흐로 韓半島는 새로운 転換期에 접어들고 있고 있다 하겠다.

中・蘇紛争 展望

(国防大学院 副教授 鄭埈昊)

要 約

1. 中・蘇関係의 紛争要因과 그 実質的 側面

中・蘇関係 一般의 変遷過程은 대체로 ①友好 또는 蜜月의 時期(1949-56年), ②友好関係로부터 対立에의 過渡期(1956年 - 59年), ③対立時期(1959年 - 64年), 그리고 ④抗争時期(1965年以後) 等으로 区分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展開過程上의 時期区劃이야 어떠하든간에 問題의 出発点은 対立 또는 紛争関係에서 求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多数의 專門家들에 의해 分析・整理된 結果에 따르면 첫째, 理念紛争의 局面과 둘째, 帝政로시아以来 未決로 남아 있는 領土紛争의 局面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両者間의 現実的 利害의 衝突状況이 追加的으로 考慮되고 있다. 具体的인 争点과 契機에 있어서는 蘇聯의 平和共存問題 및 1956年 第20次党大会에서의 스타린格下問題에 대한 中共側의 반발로 비롯된 것이었으며 其他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態度, 戦争可避論에 대한 是非問題로 激烈히 対立되어 있는 바 이와같은 後者의 事項들은 前者의 平和共存問題와 더불어 結局 世界赤化를 위한 両者間의 戦略・戦術의 方法論的 見解差인 것이다. 그리고 領土問題를 除外하고 볼때 스타린格下問

題나 社会主義社会 一般의 内部統制를 企図하는 蘇聯의 一元的 支配에 対応한 中共의 多様性에 立脚한 内部的 団結 即, 一種의 一元論的 接近 対 多元論的 接近 態度間의 対決 等은 双方이 各己処한 対内的 諸与件과 社会主義社会内에서의 立場 및 位置에서 縁由된 것들이다. 뿐만아니라 広意로 拡大하면 以上의 諸争点들이 例外없이 이와같은 現実的 範域을 脱皮할 길이 없는 性質의 것이다.

理念紛争만하드래도 初期에는 各者가 共産主義이데오로기의 解釈과 適用問題를 둘러싼 純粋理論論争으로 発端이 되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正統的 맑스·레닌主義者임을 競争的으로 誇示해야할 그들의 背後에는 哲学的, 思想的 理念의 世界가 아닌 現実的, 国家的 次元의 対決이라고 하는 実質的 利害衝突의 具体像이 깔려 있다. 勿論, 論者의 立場에서 両者間의 理論論争的 側面을 全的으로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範囲와 限界가 極히 모호하다는 事実이 重要할 뿐이다. 이렇게 볼때 이제는 両者間의 対立에 있어 理念의 比重과 그 絶対性은 再考되어야만 할 것 같다. 뿐만아니라 理念은 紛争의 本質的 側面으로서 보다는 両国間에서의 国家的 競争과 各自의 政策路線의 合理化 또는 名分的 側面으로서 그 意味가 부각될 수 밖에 없는 実情에 있다.

領土問題에 있어서도 中共側이 이미 1969年 10月8日 発表된 外務省文書에서 明白히 했듯이 旧領土의 返還에만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닌것 같다. 이 問題는 차라리 両国間의 歴史的, 感情的,

非友好的인 対立이요 蘇聯의 軍事的 圧力 및 示威에 대한 中共側 意思表示이기도 하다. 結局 中·蘇紛争은 理念못지않은 国家的, 政策的 対決이며 이 境遇, 理念은 対決行為의 名分으로서 作用하는 面도 뚜렷이 나타난다. 要컨데 一国家社会主義 対 社会主義的 民族主義間의 闘争으로서 国家利益 追求의 面이 強力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中·蘇関係에 대한 作用変数로서의 中共의 政策과 能力

中·蘇関係에 関한限, 中共의 政策과 路線은 그 어느 것보다도 両国関係에 絶対的으로 影響을 미칠것은 再論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要素別로는 特히 経済政策的 側面이 主変数要因이 될 것이며 軍事政策·戦略의 側面이 이에 補完関係로서의 役割을 担当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経済政策과 能力을 主流로 하는 中共의 立場과 態度를 軍事面과 結付시켜 가면서 意図, 能力(또는 力量) 및 与件上에 나타나는 変数要因들을 中心으로 整理해 보는 것은 重要한 일이다.

먼저 中共이 指向하는 窮極的인 目標는 역시 世界赤化에 있으며 理想的인 共産社会建設이 그들의 終着点이란 事実에는 変함이 없다. 이 最終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中共은 西紀 2000年代를 겨냥한 国家建設(Nation-Building)을 長期目標로 設定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実践方案으로서는 77年 8月12日~18日間에 걸친

11全大会에서 華国鋒党主席이 밝힌 四個現代化 即, 農業, 工業, 国防 및 科学技術의 現代化로 集約될 수 있다. 이와같은 政策的인 採択은 高度의 均衡成長을 基調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経済面에서는 農工併進을 追求하고 있으나 農業의 機械化에 必要한 最少限의 資本과 技術을 除外하고서는 大部分을 工業部門에 投入할 것으로 생각된다. 軍事面에 있어 国防政策은 人民解放戦争概念과 核抑止概念 等 両面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戦略上으로는 従深戦略을 基本으로 하여 対蘇防衛에 臨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人民武装力의 強化 ②全国土의 戦略基地化 ③装備의 現代化를 推進하고 있으며 核抑止力에 있어서는 蘇聯으로 부터의 核攻撃에 対備한 最少限의 地域的 核抑止力保有를 当面課題로 하고 있다.

다음 推進能力面에 있어서는 本文에서 分析提示한대로 農業, 工業 및 国防現代化課題 全般에 걸쳐 目標達成을 극히 어렵게 하는 制約要因과 難題들을 안고 있다. 目標達成을 판가름하게 될 変数로서는 人口(労動力), 技術, 資本, 天然資源, 地理的·自然的 条件 等을 列挙할 수 있으나 그중 技術과 資本의 海外依存度는 거의 絶対的이어서 相当한 不安要因이 되고 있다. 以外에도 国内政治的으로 紅과 専의 相衝関係가 政策推進에 크게 影響을 주고 있다. 따라서 与件上으로는 現在 華国鋒体制와 指導力이 不安定状態에 있으며 前述한 海外依存度에 따른 異質文化(技術文化)의 流入과 国民의 意識構造上의 新気運, 近代化進行에 따른 不平等現象 等의 対備를 위하여 中共 特有의 새로운 社会主義的 民族主義 理念의 定

立이 要求되고 있는 実情이다. 그 위에 対外的으로 蘇聯의 軍事的 圧力과 아프리카, 東南亜에서의 蘇聯과의 対決로 莫重한 圧迫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日・中共間의 友好条約締結이 이루워졌고 美国과의 関係改善이 一歩前進되어 있어 外国資本 및 先進科学技術의 導入線을 確保해 가고 있는 実情에 있다.

3. 中・蘇関係에 대한 作用変数로서의 蘇聯의 政策과 能力

兩国関係에 있어 蘇聯의 政策中에서는 軍事政策과 戦略이 主関心事가 되고 있다.

우선 1966年 第23次党大会以来 브레즈네프가 提示한 国防政策의 目標와 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全面戦争에 対備한 核抑止力에 있어 対美優位 確保

둘째, 世界的 規模의 機動性 追求

셋째, 均衡된 通常能力의 強化

넷째, 精神戦力의 強化

다섯째, 生存力의 確保 等이 있다.

軍事戦略은 持久消耗戦略, 殲滅戦略, 스타린戦略과 大量報復戦略時代를 거쳐 오늘날에는 柔軟反応戦略을 根幹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中・蘇関係와 関聯하여 現実的 目標는 ①対中共包囲網 構築 ②中共側 国家建設目標에 대한 牽制 또는 遅延으로 集約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軍事力 配備는 알려진대로 40餘個師団을 中・蘇国境

에 配置하고 있어 全兵力의 ⅓을 亜細亜地域에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現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経済政策目標는

첫째, 리벨만方式의 導入에 의한 経済改革의 実施와 経済効率의 提高

둘째, 経済의 構造的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하여 農業生産 및 消費財 生産에 注力

셋째, 工業管理構造의 改革을 위하여 国民経済会議를 廃止하고 工業関係省 設置 等을 통한 諸般努力

넷째, 西方先進国과의 通常拡大 및 経済協力의 増進과 国民生活水準의 向上 等에 두고 있다.

그러나 能力과 与件上으로 蘇聯 또한 相当한 고충과 制限要因들을 안고 있다.

먼저 軍事面에서 볼때 戦略上으로 全世界를 対象으로 하면서 美国과의 軍備競争, 特히 軍事力의 欧洲 그리고 中・蘇国境地帯 및 시베리아開発에 따른 戦略的 配備로 인한 分割로서 最大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地上軍의 補給問題가 提起되고 있으며 海軍力의 活動範域으로 보아 充分한 空軍力이 카바리지 못하고 있고 海上活動의 要衝地인 基地들도 自然的 条件과 地理的 결함으로 制約을 받고 있다.

経済面에서도 労動力의 質, 資本, 科学技術, 天然資源 및 地理的, 自然的 条件과 国土上으로 그렇게 有利한 能力과 与件을 갖지 못

하고 있다. 大体의 西方専門家들의 見解에 따르면 社会主義経済의 内面的 矛盾과 취약성으로 経済成長이 둔화되고 있으며 80年代 以後부터는 石油와 鉱物資源의 輸入国으로 転換될 것이 予想되고 生産 코스트나 資本 및 技術의 不足으로 国際競争力이 弱化되고 있는 立場에 있다. 軍事部面을 除外한 一般的 科学技術水準의 未洽, 技術人力의 不足 等이 역역하여 資本導入의 必要性과 아울러 海外에 相当한 部門을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브레즈네프의 3大革命이 뜻데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 実情이다. 対内的 与件만해도 独裁体強化에 따른 副作用과 브레즈네프의 後継者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国際的인 面에서는 特히 美·中共, 日·中共間의 関係改善과 中·蘇和解에 대한 中共側의 不応으로 困境에 処해 있다.

4. 両国関係의 模型, 妥当性検討 및 韓半島와의 関係

가. 両国関係의 몇가지 模型

前述한 中·蘇両国의 意図, 能力과 与件 等 6가지 事項과 其外의 考慮要素들을 勘案하면서 悪化, 和解 및 現状維持의 順으로 模型을 만들어 보았다.

먼저 悪化의 境遇는 ① 蘇聯側의 一方的인 大規模 軍事行動에 따른 関係 ② 中共側이 現代以上으로 反蘇·西方密着行動을 意図的으로 明示함에 따른 関係 ③ 蘇聯의 一時的, 条件附 軍事衝突誘発

에 의한 暫定的·過渡期的 対決関係 ④ 偶発的 事態発生에 따른 暫定的·過渡期的 悪化関係를 想定하였다. 和解의 境遇는 ① 蘇聯主導型 ② 中共主導型 ③ 対等型 ④ 第3의 衝撃에 의한 和解 等을 中心으로 区分·展開하였다. 끝으로 現状維持는 便宜上 한개 模型으로 構成하되 現状維持의 性格, 内容, 範囲 및 水準과 이와같은 状況을 可能케 하는데 考慮될 수 있는 諸条件을 提示하였다.

나. 妥当性 検討

前項에서 提示된 몇가지 模型들을 適合性(意図 또는 目標), 可能性(能力) 그리고 容納性(与件 또는 客観的 状況)의 側面을 中心으로 分析·検討하고 最少限 向後 10年間의 予想되는 方向을 論証하여 그중 가장 妥当性있는 関係様相을 検出해 낸 것이다. 現時点에서는 앞으로 相当한 期間 完璧한 和解나 極端的인 悪化関係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判断된다. 特히 中共側의 意図로 보아 和解나 悪化가 劃期的인 도움이 되지 않는限 国家建設을 一定水準으로 이룰때 까지는 最少限 現状維持로 기울것이며 国内伸張이 達成된 후에 힘을 받침으로한 両国問題解決에 나설 것 같다. 그때까지는 一種의 遅延策을 쓸 것이다. 勿論, 蘇聯도 이에 대한 逆作用을 企図하고 때로는 緊張造成을 통한 中共의 成長을 牽制하려 들것이나 美·日에 影響을 주게 될것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美·日도 中共이 一定限界 以上으로 急成長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임으로 蘇聯의 対中共牽制行動은 多少의 振幅을

가질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現狀維持를 主軸으로한 混合型 또는 一種의 "統制된 対立"形態가 展望된다.

다. 韓半島와의 関係

本文에서는 細部的으로 分析해 놓았으나 紙面上 一切를 省略하고 그중 極少部分 한가지 事項만을 例示하기로 한다.

最近 紙上을 통하여 報道된 바에 따르면 中共은 台湾이 中共의 一部로 統合될 境遇에도 台湾本然의 体制維持가 可能할 것이라고 示唆한 바 있다. 萬一 이것이 事実이고 또 政策的으로 採択이 된다면, 中共은 다음 3가지 面에서 考慮했으리라는 推測이 간다.

첫째는 現 中·蘇関係를 勘案하여 蘇聯의 台湾接近 可能性 또는 台湾의 対蘇接近 可能性을 事前에 排除한다는 意図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美·日 等 西方과의 協力을 통한 資本·技術導入과 관련하여 있을지도 모를 中共 自身의 政治体制와 理念에 대한 直接·間接的인 変化要求를 内外的으로 予防하고 이와 같은 自己保護行為의 合理的 根拠 또는 名分으로서의 事例를 남길 수 있는 利点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셋째로는 西方勢力과 一定水準의 関係를 維持하면서도 이와 併行하여 北傀의 対南革命戰略을 支援할 길을 터놓는 意味도 되는 것이다.

日本軍事態勢의 展望

(서울大学校政治学科教授 吉昇欽)

1980年代의 日本의 軍事態勢를 展望함에 있어서 本稿에서는 「Hard」面과 「soft」의 両面을 考慮의 対象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Hard」面이란 日本의 防衛庁 및 軍事戦略家들이 立案하고 있는 軍事政策을 意味하고, 「soft」面이란 以上과 같은 防衛庁 및 軍事戦略家 以外의 政策樹立家에 의해서 立案되고 있는 防衛政策을 意味한다. 両者의 差異点은 前者가 日本의 防衛政策을 樹立함에 있어서 軍事上의 必要性에 바탕을 두고 防衛政策을 세워나아가고 있는데 反해서, 後者는 軍事上의 必要性보다는 환경적인 요소(即 Environment factors)를 더 重要視하기 때문에 때로는 軍事政策的인 面에서 犠牲이 생긴다고 해도 国内政策(Domestic policy) 또는 対外政策(Externally-derived policy)上 利益이 생긴다면 이에 더 置重한다는 것이다. 以下, 以上과 같이 日本의 防衛政策 樹立家들을 両分 比較하므로써 日本의 軍事態勢에 対한 展望을 내리기로 하겠다.

I. 日本의 防衛政策 - 「Hard」面: 日本의 防衛庁 및 軍事戦略家들의 防衛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고려의 対象은 美・蘇間의 軍備競争이다.

周知의 사실이지만 美・蘇間의 軍備競争은 両国의 絶対額의 国防費를 가지고 견주어 볼때, 美国이 1975年度

以後 蘇聯에게 뒤지기 始作했다. 이것은 日本의 防衛政策 樹立上 重且大한 意味를 갖는다.

지나간 二次大戦以後의 美・蘇間의 軍備競争을 보면, 蘇聯은 美国에 比해서 軍事的으로 열세에 있을 때에는 그의 防衛力을 「바르샤바」軍事同盟体의 強化에 集中的으로 投入해서 「나토」와의 対決体制를 마련했고, 이것이 일단락이 된후에는 蘇聯의 北極圏에서 美国의 核侵攻 対備体制를 集中的으로 強化했고, 이것이 끝난후 蘇聯은 蘇聯의 南쪽에 対中共防衛体制를 強化했고, 이것마저 끝난 現在 蘇聯의 関心은 蘇聯의 東쪽인 極東地域의 開発과 極東海上艦隊의 強化에 있다.

이에 比해서 美国의 防衛政策은 国内政治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기때문에 蘇聯과 같이 軍備拡張을 計劃대로 着実하게 遂行할 수 없다. 거기에 美国은 自国의 国家利益上 우선권을 「나토」 및 中東地域에 두고 있기때문에 極東地域의 防衛態勢는 점차 美国의 能力으로는 감당하기가 困難하게 된다. 여기서 궁여지책으로 美国이 採択한 政策은 極東地域의 防衛를 中共과 日本에게 떠맡긴 것이다. 즉 美国은 中共을 接近하고 또 日本으로 하여금 中共과 国交를 맺게끔 圧力을 加해서 日・中条約을 맺게해서 中共의 軍事力을 키워 이를 対蘇牽制用으로 삼았고, 이런 政策은 美国이 곧 美・中共善隣友好条約을 맺어 더욱 뚜렷해질 展望이다. 그리고 現在 美国은 日本에게 西太平洋地域의 防衛를 떠맡기려고 종용중이다. 종전과 같이 軍備競争에서 美国이 蘇聯에게 継続 뒤지게 되면 蘇

聯의 極東艦隊가 美国의 第7艦隊에 比해서 우세해지게 될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結局에 가서는 蘇聯이 美国의 太平洋의 防衛線을 차단하게 되는때가 불원한 장래에 올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등장하면 美国의 西太平洋防衛路線은 지금의 것보다 훨씬 後退해서 日本마저 美国의 防衛路線에서 除外될 것이다. 이것은 日·美安保体制를 基盤으로 하고 있는 日本의 防衛政策上 大打擊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日本은 不可避하게 西太平洋의 Sea Lane을 스스로 保護해야 할 立場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日本의 防衛庁및 軍事戰略家들이 現在 構想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構想에 의하면 日本의 防衛費는 종전의 対GNP比 1%線未満에서 1%線以上으로 增加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것은 以上과 같은 日本의 防衛構想이 그대로 政策化해서 実践될 것인가이다. 이를 보기 為해서 日本의 文人政治人들의 防衛態勢를 보자.

Ⅱ. 日本의 文人政治人들의 防衛態勢 —— 「soft」面: 以上에서 보인바와 같이 순전히 防衛政策上의 必要에 따라서 보면 日本은 美国의 脱亜細亜政策에 対備 軍備를 拡大해야 되고, 그 힘의 空白을 메꿔야 할 立場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日本의 文人政治人들의 防衛態勢는 이에 対処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日本은 美国이 自己에게 도전한 어제의 敵国을 「스위스」化하려는 目的으로 만들어 놓은 「平和憲法」을 개정 (amendment)

한번 않고 保持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의 例에서와 같이 「有事立法」마저 拒否하고 있는 나라이다. 거기에 日本의 政治体制는 文人支配体制이다. 防衛庁長官職, 日本自衛隊의 3軍幕僚職 모두 文人에게만 맡기게끔 되어 있으며, 日本의 防衛庁은 美国의 国防省, 韓国의 国防部와는 달리 総理府의 外廓機関에 不過하다. 日本의 国会内에는 美国의 軍事委員会 따위도 없다. 거기에 日本의 政治指導者들은, 行政府側의 閣僚(거의 모두가 国会議員으로 構成)들을 包含해서, 모두가 長期眼目을 要求하는 防衛政策에 보다는, 自己들에게 더 時急한 選挙에서의 得票에 執着한 나머지 防衛費를 깍아가면서까지 社会保障費따위, 社会開発費따위에 더 熱意를 보이고 있는 実情이다. 昨今의 일이지만, 日本의 自民党内에서 比較的 防衛政策에 熱誠派인 右派 福田赳夫같은 政治人들이 살아남기가 힘들고, 대신 大平正芳같은 비둘기派가 得勢하는 것이 日本의 政治実情이다. 이와같이 日本의 「soft」面, 즉 平和憲法이라던가, 文人支配의 政治体制라던가, 또는 防衛政策에는 눈이 어두운 選挙民 為主의 政治体制의 立場에서 생각하면, 1980年代에도 日本의 防衛費는 対GNP比 1%線을 넘기가 힘든다고 展望을 내릴 수 있다.

III. 結語: 以上에서 検討를 통해서 보았지만, 純全히 防衛政策的인 面에서 보면 「Hard Line」을 종용하고 있는 日本의 防衛庁 및 軍事戦略家들의 政策은 合理主義에 立脚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比해서 「soft line」을 따르고 있는 一般 日本政治人

들의 防衛政策은 非合理主義에 立脚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두가지 Line을 가지고 1980年代의 日本의 防衛政策에 対한 展望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될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즉 「Hard Line」과 「Soft Line」間에 妥協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困難하다. 왜냐하면 以上 보인 바와 같이 「Hard Line」派가 日本에서는 政治的으로 너무나도 弱한 立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rd Line」派가 最近 主張하고 있는 日本의 軍備拡張論은 政策化되기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軍事政策上 日本은 새로운 事態에 適応해가는 힘이 欠如되어 있다. 適応力이 弱하기 때문에 防衛政策上의 必要(Need)와 現実政治間에 차가 점점 벌어진다. 그러다가는 이 차(gap)가 極大化될때 쯤해서 갑짜기 이 차를 메꾸려고 하는 때가 올것이다. 日本의 政策決定과정에서는 이와같이 종종 非合理性이 歷史的으로 커다란 役割을 한때가 많았다. 政党内閣이 한창 発達했던 1920年代, 日本의 政治는 派閥政治, 政党政治에 너무나 左之右之되다가 関東軍에 의해서 満洲事変으로 끌려들어갔고, 진주만공격도 事前에 어떠한 치밀한 判断과 計劃을 거쳐서 거사된것이 아니고 非合理主義的이고 即興的인 政策의 所産이라는 것은 東京大学校의 著名한 丸山教授에 의해서 論証된 바가 있다. 이런 観点에서 보면, 日本은 「Soft Line」派가 防衛政策上의 必要性을 外面하고 가다가 그 必要性이 極大化될때 급선회해서 日本의 防衛政策을 「Hard Line」으로 끌

고가지 않을까 展望된다.

× × ×

以上이 予備報告이다. 最終報告文에서 多少 修正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충 以上과 같은 内容으로 最終報告書가 꾸며지리라고 생각된다.

中共軍의 近代化

- 過程，課題，展望 -

(崔　　明)

中国에 있어서 軍의 近代化 問題는 中共이 韓国動乱에 参与했을 때부터 重要한 軍事政策上의 이슈로서 登場하여，허다한 우여곡절을 거쳐왔다. 그러다가 1975年 1月 第4期 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周恩来 前首相이 農業·工業·軍事 및 科学技術의 4個部門에서의 소위 「四個現代化」를 主唱함으로서 다시 이제는 現代化라는 이름 아래 脚光을 받게 되었다.

「中華人民解放軍(以下 中共軍)」의 近代化 或은 現代化는 軍自体의 発展이란 側面에서 分析될수도 있지만，여기서는 그것이 外交政策上에 지니는 意味와 연관시켜 考察하려고 한다. 그런데 国際政治에 대한 中国共産主義者들의 接近을 分析함에 있어서는 具体的인 政策에 影響을 주는 여러가지 要素에 대한 복합적인 考慮를 必要로 한다. 사실 現実이란 항상 複雑하기 마련이고，따라서 그 複雑性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中共指導者들이 成就하려고 하는 政策上의 優先的 目標가 무엇이고，外交政策의 変化에 있어서 一次的인 決定素가 무엇인가를 発見하는 것이 어떤 意味에서 보다 더 重要할지도 모른다.

지난 30여년동안 中共의 外交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라든지，指導者들이 갖는 世界秩序에 대한 認識이라든지，国内의 政治·経済的

変数라든지, 또는 国際環境의 変化와 같은 要素들이 重要한 決定素로 作用했을 것이지만, 가장 重要한 外交政策上의 決定素는 軍事安保의 要素라고 筆者는 보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 하나의 仮説이지만, 이러한 仮説이 妥当하다면 軍事安保와 直結된 軍의 近代化·現代化의 問題는 단지 中共軍의 発展의 問題가 아니라, 오히려 軍事安保라는 外交政策上의 優先的 問題에 대한 国内政治上의 対応이란 点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1951年 4月 中共軍이 韓国動乱의 春季攻勢作戦에서 失敗한 後부터 中共의 指導者들은 軍의 全般的인 姿勢를 検討하고, 軍의 近代化의 必要性을 認識하기 始作했다. 그로부터 韓国動乱의 休戦에 이르는 二年餘의 期間동안 中共軍은 蘇聯의 援助에 힘입어 近代化作業에 着手했다. 軍의 近代化는 装備, 訓練, 兵站, 戦術, 戦略의 諸側面에서 現代戦에 対備할 수 있는 能力을 배양하는 作業이라고 할 수 있으며, 韓国動乱이 그 近代化作業의 促進的 役割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国防相이던 彭德懐는 中共軍이 近代的인 革命軍으로 転換될 것을 強調하고, 近代化의 目的은 帝国主義侵略을 粉砕하고, 中国의 安保를 守護하는 것이라고 力説한 바가 있다.

中共軍의 初期의 近代化는 그 正規化가 뒷받침이 되었다. 軍의 正規化計劃에 따라서 中共軍은 종전의 志願兵制에서 徵集兵制로 바뀌고, 階級制度가 新設되고, 軍人의 服装이 統一되고, 将校들의 俸給이 現金으로 支給되기 始作하였다. 中共軍의 近代化 및 正規化

過程을 여기서 詳述할 餘裕는 없다. 다만 우리가 注意해야 될 것은 軍이 近代化되면서, 軍의 職業化 現象이 대두되었고, 이것은 軍事政策 全般에 있어서 소위 近代化와 革命化의 路線上의 対立을 가져왔다는 事実이다. 1950年代末부터 대두된 唯武器論争, 軍의 思想教育強化, 階級制度廃止등은 這間의 事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革命化와 近代化가 반드시 또 항상 対立되는 路線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革命化의 路線이 優先視되던 時期에도 軍事安保上의 理由에서 軍의 戦力強化는 継続되었고, 中共이 核戦力을 開発하게 된 것도 路線闘争과는 直接的인 関係없이 進行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中共外交政策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決定素가 軍事安保의 要素라고 指摘했다. 이것은 現在 蘇聯과의 軍事的 対立에서 不可避한 現象이지만, 그 起源을 소급하자면 1950年代 中期부터 始作된 中·蘇紛争이며, 蘇聯의 援助에 의하여 近代化의 作業에 着手한 中共軍의 歴史를 想起할 때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軍事安保라는 側面에서 中共軍의 近代化를 論議할 때 中·蘇対立의 歴史를 일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中·蘇紛争을 여기서는 편의상 세개의 중요한 転換点으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1957-59年의 時期인데, 이 時期에는 美国에 対한 中共과 蘇聯의 戦略差異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당시 蘇聯은 平和共存을 표방하였고, 中共은 그것이 中共의 国家利益을 沮害하는 것으로 看做했던 것이다. 특히 1958年의 台湾海峡에서의 危機는 한편 中共으로 하여금 中·蘇同盟의 限界를 인식하게

했고, 다른 한편 蘇聯으로 하여금 美国과의 紛争可能性의 危険을 조성하였으며, 1959年 蘇聯이 中共에 대한 核開発援助計劃을 중단하자 中·蘇関係에는 緊張이 점차로 高潮되었던 것이다.

第二의 転換点은 1962-63年이다. 이時期의 中·蘇対立은 다시 核의 問題였다. 蘇聯은 美国과 制限核実験禁止条約을 締結하려고 하였고, 中共은 이에 反対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蘇聯이 中共의 要求에 応하지 아니하자, 中共은 軍事同盟의 中·蘇関係가 종식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第三의 転換点은 中共과 蘇聯사이의 政治的 対立에서 軍事的 対決로 発展된 1960年代 후반의 일련의 事件과 연관된다. 中共의 立場에서 보면, 1965年頃부터 始作된 国境地方의 蘇聯의 軍事力増強, 1968年의 蘇聯의 체코슬로바키아 侵攻, 1969年의 国境衝突등의 事件은 蘇聯의 中共에 대한 軍事的 侵攻의 可能性을 배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判断케 하였으며 적어도 中共에 대하여 軍事力을 배경으로 한 圧力을 加重하는 政策을 蘇聯이 取한다고 認識하게 했던 것이다. 요컨데, 中·蘇間의 緊張状態는 中共으로 하여금 外交政策目標의 優先이 蘇聯의 攻撃을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으며, 적어도 東亜細亜에 있어서 蘇聯의 影響力에 相応하는 軍事力의 増強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中共이 美国과 日本과의 関係改善을 摸索한 결과 四個現代化에서 軍事의 現代化를 強調하게 된것도 모두 国家安保의 側面에서 考慮된 수 있는 中共外交政策의 変化라고 할 수 있는 것

1969年 우수리江에서의 衝突以後 中·蘇国境에의 兵力은 両側에서 모두 增強推勢를 보이고 있어, 現在 蘇聯은 43個師団(約 40萬名), 中共은 72個師団(約 126萬名)을 投下하고 있으며, 이것은 蘇聯의 戰闘師団兵力의 26%, 中共의 戰闘師団兵力의 約 52%에 해당된다. 이것은 地上軍의 配置現況이지만, 海軍, 空軍, 核戰力에서도 両側의 対備가 注目된다. 그러나 問題는 中共이 蘇聯의 우수한 軍事力에 対備하여 어떠한 水準까지, 어느 時期까지 近代化의 目標를 達成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軍全般에 있어서 近代化의 속도가 느린 中共은 華国鋒体制의 安定化와 더불어, 通常兵力, 核戰力의 両方을 모두 近代化하는 努力을 보이고 있으며, 中共軍의 建軍 50周年(1977年 8月 1日)紀念日에서 葉劍英은 「軍의 近代化에는 強力한 陸海空軍 및 미사일과 核兵器를 包含한 近代的 兵器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力説함으로서, 近代化의 具体的方向을 提示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近代化는 결국 対蘇戰闘力의 強化에 一次的 目標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中共 第十一全大会의 政治報告에서 華国鋒은 ①戰闘에 対備한 軍隊의 建設強化 ②強大한 陸軍은 勿論이지만, 強大한 空軍과 海軍의 保有 ③装備의 近代化·民兵建設의 強化를 強調하는 등의 国防第一優先政策에 軍의 近代化를 결부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中国이 軍事技術面에 있어서 蘇聯과의 격차를 짧은 時日内에 좁히기 위하여는 緊急을 必要로 하는 兵器를 중점적으로 開

発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西方諸国의 技術導入을 促進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中国이 最新의 兵器体系를 取得하고, 더구나 現在의 農民의 生活水準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莫大한 対外借款을 必要로 하고 있다.

또한 近代化의 推進에 따르는 国防費의 増大는 必然的이기 때문에 経済建設을 最優先的 政策目標로 삼는 限, 軍의 近代化를 조속한 時日内에 達成하기는 不可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対蘇戦闘力強化라는 側面에서 中共軍의 近代化의 要点은 大略 아래와 같다. 첫째, 陸軍의 경우를 보면 ①機甲師団의 増設과 歩兵師団의 装甲化에 의한 機動力의 向上 ②対戦車能力, 특히 誘導미사일의 開発 ③T-59를 包含한 中型戦車의 開発 ④SA-2 地対空미사일의 약점을 補充하는 中低空用미사일의 開発 등이다. 둘째 空軍의 경우는 ①MIG 25에 대항할 수 있는 新鋭戦闘機의 開発 ②早期警戒機의 装備化 ③새로운 防空体系網의 確立 ④全天候型遊撃機의 増加 ⑤空対地미사일의 開発 ⑥遊撃미사일의 開発 등이다. 세째 海軍의 경우에는 大型 미사일艦, 原子潜水艦의 建設 및 SLBM의 開発等이 要求되며, 네째 戦略미사일 面에서는 ①IRBM의 基地의 増加와 完全싸이로化 ②精密誘導用 電子装置命中精度의 向上 ③ICBM의 実戦配備등이 要求된다고 展望된다.

그러나 中共의 現情勢로 보아 莫重한 国防費의 支出도 問題이거니와 科学技術의 落後를 감안컨데 위에서 列挙한 近代化는 한마디로 요원할수 밖에 없다. 더구나 最近의 中共의 国内政治가 相当

히 流動的인 事実로 미루어 보건데, 비록 実用主義的 政策이 継続된다고 해도, 軍의 近代化가 計劃대로 推進된다고 보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中共은 美国과 日本을 위시한 西方과의 関係改善에 主力하면서 国際政治의 現象維持를 피할 것이며, 그러한 状況속에서 時間을 벌면서 近代化의 課業을 徐徐히 推進하리라고 予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軍事安保上의 威脅이 배제되리라는 展望——예컨데 中·蘇의 데땅트——도 어둡고 보면, 軍의 近代化의 問題는 難題로 継続될것만은 틀림없다.

日·中共経済協力의 現況과 展望

呂 井 東 (서울大)

I 日·中共経済協力의 背景

日·中共経済協力은 1978年 2月 日·中 長期貿易協定의 締結과 1978年의 8月의 平和友好条約의 締結로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대폭 拡大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日·中共関係의 展開는 対日経済依存度가 대단히 큰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諸国과 世界経済秩序에도 큰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됨으로써 각별한 関心과 이에대한 研究検討가 必要할 것이다.

日·中共間의 経済交流는 両国의 国内政治 및 対外政策과 밀접한 相関関係를 갖고 추구되어 왔지만 両国間 経済協力強化의 보다 具体的이고 実質的인 背景으로는 "中共의 現代化計画"의 推進을 들 수 있다. 즉 中共은 2000年 까지 世界水準의 工業国家로 부상키 위해 年平均経済成長目標를 7%로 한 "経済開発10個年計画(1976-85)"을 樹立, 推進하고 있는데 이의 成功的인 目標達成을 위해서는 막대한 外国資本과 技術의 導入이 불가피한 実情이다. 実際로 経済成長率이 가장 높았던 期間은 1953～57年의 第一次 経済開発計画期間과 1971～75年의 第四次経済開発計画期間으로 各各 年平均 6%와 6.5%를 記録한바 있는데 이 両計画期間에 있어서 政治的安定과 함께 外資및 技術의 導入이 経済開発의 主要 原動力이 되

었다.

한편 現在의 経済開発計劃에 나타난 工業建設의 規模와 経済成長目標가 대단하기 때문에 国内資原과 技術만으로는 不充分하다. 따라서 計劃期間中 高度経済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外国의 資本과 技術導入이 必要한 데 現在 推進되고 있는 現代化計劃을 위해서는 3千億弗이 所要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立場에서 볼때 対日経済交流의 深化내지 拡大는 対蘇견제를 위한 中共의 政治 軍事 戦略에서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보다 根本的으로는 中共의 現代化計劃에 따른 経済発展과 보다 밀착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日本側으로서도 中共으로 부터 原油 石炭等 原資材를 確保할 수 있음은 물론 中共의 工業化에 필요한 프랜트等 資本財를 輸出할 수 있기 때문에 금후 日·中共間의 経済協力은 이와같은 中共의 現代化計劃의 推進을 바탕으로 하여 拡大되어 나갈 것이다.

II 最近의 日·中共貿易推移와 経済協力現況

1. 貿易推移

戦後 日·中共貿易은 1962年 北京에서 이른바 LT貿易覚書를 교환하여 민간무역을 점차 拡大해 나갈 것을 천명함으로써 본격화하였으나 67年의 文革으로 정체되다가 다시 72年 9月의 양국간의 国交正常化, 74年 1月의 日·中共貿易協定締結等을 통하여 日·中共貿易은 다시 本軌道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制度的 뒷받침에 힘입어 日·中共貿易은 70年代에는 크게 伸張되어 1960年만하더라도 中共貿易의 65%가 社会主義国家와 행해졌으나 70年代에 와서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그친 反面에, 対日本貿易比重은 74年에 28·3%, 75年에 31·5%를 記録하기에 이르렀다. (〈表 1 〉参照)

〈表 1 〉

中共의 対日本貿易額및 比重 (1971-77)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世界全体(A)	3,830.0	4,805.0	8,414.2	11,885.3	12,285.5	11,245.7	13,130.2
日 本(B)	928.6	1,134.3	3,367.2	3,367.2	3,874.3	3,080.3	3,568.5
比 重(B/A)	24.2%	23.6%	28.3%	28.3%	31.5%	27.4%	27.2%

註) 이 表의 貿易額은 中共의 交易相対国의 統計로 作成된것임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1971-77, 1978

한편 日本貿易에서 차지하는 対中共貿易의 比重 역시 계속 増加하여 75年에는 日本総貿易高의 3.3%를 占하였다.

그러나 76年에 들어서서 日·中共貿易은 2.3% (前年対比 80% 水準)로 격감했는데 그 理由는 中共의 輸入이 점증함에 따른 貿易収支의 悪化와 이른바 四人幇勢力의 資源輸出과 資本財等 工業製品및 技術의 対外依存에 대한 비판으로 中共의 対外貿易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76年 毛死後 4人幇의 축출等의 政治的 소요를 거치면서 鄧小平을 위시한 葉劍英, 李先念과 같은 実用主義者들이 対外経済政策의 実権을 장악함으로써 다시 한번 中共의 対外 経済面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다. 그 結果, 77年의 日·中共間 交易総額은 35億弗로 76年에 비해 15%가 増加하였으며, 中共貿易에서 차지하는 対日本貿易의 比重이 27.2%로 70年代를 통해 계속 日本이 中共의 第1의 貿易対象国임을 알 수 있다.

한편 77年 日本의 対中共輸出은 日本総輸出高의 2.4%를 점하였으나 금년 8月現在 日本의 対中共輸出은 前年同期에 비해 무려 42.3%, 輸入은 28.1%가 増加하여 유례없는 発展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금년 2月에 締結된 日·中共長期貿易協定에 힘입은 바 크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拡大되리라 予想되고 있다. 特히 日本의 対中共貿易이 対共産圏 貿易全体에 차지하는 比重이 1977年의 경우 42.4%로 対蘇貿易比重 40.8%보다 높아 日本의 対中共貿易의 程度를 알 수 있다. (〈表2〉参照)

다음으로 日.中共貿易의 商品内容을 살펴보면 日本의 対中共輸出의 거의 大部分인 86%가 化学肥料, 鉄鋼, 機械類等의 重化学工業製品인데 비해 輸入은 原油, 毛糸等 原材料가 절반以上을 차지하였다. (〈表 3, 4〉参照)

〈表 2 〉 日本의 対共産圏 貿易現況(1977)

(単位：千달러, %)

	輸出		輸入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中共	1,938,643	39.5	1.547,344	46.6
蘇聯	1,933,877	39.4	1,421,875	42.9
東欧諸国	736,326	15.0	209,334	6.3
北韓	125,097	2.5	66,618	2.0
其他	176,064	3.6	73,369	2.2
計	4,910,007	100.0	3,318,540	100.0

資料：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表 3〉 日本의 対中共輸出現況

(単位：千달러)

	1970	1975	1976	1977	構成比
計	568,878	2,258,577	1,662,568	1,938,643	100,0
食料品	−	7	7	64	…
原料및然料	7,338	18,198	7,132	13,714	0.7
経工業品	27,597	185,538	184,140	238,085	12.3
維製品	21,232	122,694	161,926	198,240	10.2
重化学工業製品	533,520	2,038,759	1,464,401	1,665,419	85.9
化学製品	138,280	452,666	205,021	342,531	71.7
金属製品	276,076	890,171	866,694	1,105,660	57.0
機械製品	119,164	695,923	392,685	217,228	11.2
再輸出・特殊取扱品	423	16,074	6,888	21,361	1.1

資料：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78, 東京, 1978

〈表 4 〉 日本의 対中共輸入現況

(単位：千달러)

	1970	1975	1976	1977	構成比(%)
計	253,818	1,531,076	1,370,915	1,547,344	100.0
食料品	66,975	202,037	247,471	252,457	16.3
原料品	110,067	248,327	249,187	281,015	18.2
繊維原料	35,540	90,010	107,868	129,570	8.4
鉱物性燃料	6,422	763,609	591,469	684,518	44.2
石炭	4,439	17,463	12,045	19,895	1.3
原油	—	740,154	568,063	654,687	42.3
加工製品	63,154	306,312	276,167	319,961	20.7
化学製品	23,181	39,490	44,665	48,466	3.1
繊維製品	25,757	197,239	163,981	179,929	11.6
雑製品		40,536	34,600	55,028	3.6
再輸入・特殊取扱品		10,791	6,622	9,392	0.6

資料：通商産業省，通商白書 1978，東京，1978.

따라서 日·中共貿易의 基本패턴은 中共이 日本에 原油等 原資材를 販買하는 댓가로 経済開発및 工業発展에 필요한 資本財를 導入하고 있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한편 日·中共貿易은 中共의 経済与件과 日·中共間의 国際情勢의 推移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며 또한 中共主導型의 交易이고, 市場메카니즘에 의한 것보다는 政治的条件에 좌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에 일정한 限界속에서 行해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2. 経済協力現況

中共은 伝統的으로 "自力更生"을 対内外経済政策의 基本目標로 追追求해 왔기 때문에 借款導入에 依한 資本協力은 없었다. 따라서 日,中共間의 経済協力은 資本協力으로써 日本의 対中共 延払輸出에 依한 貿易信用의 供与와 技術協力으로써는 프랜트輸出에 따른 日本의 対·中共技術提供이 全部였다. 延払輸出의 경우 77年3月 現在 総 11億弗로 그 具体的 内訳은 <表5>와 같다.

〈表 5 〉 日本의 對中共, 北傀, 韓国 延払輸出現況

(承認베이스) (78 年 3 月現在)

(単位 : 千달러)

	船舶	鉄道車輛	自動車	産業機構	其他	計
中共	3,607	-	-	986,511	117,798	1,107,916
北傀	-	2,217	19,061	300,778	64,285	386,341
韓国	114,253	5,207	29,070	1,233,171	479,169	1,860,698

資料 : 日本 通商産業省, 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 1977

또한 技術協力의 具体的 内容은 알 수 없으나 対中共技術供与에 따른 로열티 受取額을 살펴보면 76年의 경우 総受取額의 9%인 75億円으로 韓国으로 부터의 受取額보다도 많은 것으로 보아 技術導入에 있어서도 中共이 日本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6 参照)

<表 6 > 日本의 東南亜諸国 技術供与推移 (로열티受取領基準)

(単位 : 億円)

	1972	1973	1974	1975	1976	構 成 比
中 共	…	47	42	…	75	9.0
台 湾	…	…	27	29	47	5.6
인도네시아	…	36	20	48	45	5.4
필 리 핀	…	…	…	13	12	1.4
韓 国	…	34	52	47	70	8.4
計	322	415	541	666	834	100.0

註) 東南亜国家外는 省略

資料 : 日本科学技術庁計劃局編, 科学技術要覧 1978, 東京, 1978.

III. 日・中共長期貿易協定의 内容 및 経済協力 展望

76年 2月 日本과 中共은 長期貿易協定을 締結하고 1978-85年의 8年間 両国間 貿易을 200億弗 水準으로 增大할 것을 合意한 바 있는데 最近에 와서는 協定期間을 1990年까지 延長하고 貿易額도 1,000億弗로 할 것을 協議할 정도로 日・中共貿易은 急進的으로 拡大되어 가고 있다.

이 協定의 締結로 中共은 経済開発의 推進에 必要한 技術, 플랜트建設用資材 및 機械를 確保하게 되었고 反面에 日本은 中共의

에너지를 確保하게 되었다.

이 協定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① 協定期間은 78～85年의 8年間으로 하고 貿易規模는 合計 200億弗로 하며,

② 1978～82年의 5年間에 日本은 中共에 技術 및 플랜트 70～80億弗과 建設用資材, 機械 20～30億弗에 相当한 輸出을 하되 이것은 原則的으로 延払方式으로 하며

③ 中共은 1978～82年의 5年間에 原油를 総 4,710萬톤을 日本에 輸出하되 特히 1982年에는 종전의 배가 되는 1,500萬톤으로 拡大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河本日本通産相은 지난 9月 中共을 訪問하여

① 長期貿易協定을 1990年까지 延長하고 貿易規模도 크게 拡大하며(800～1,000億弗程度로),

② 貿易拡大를 위해 閣僚級의 定期的 政府間協議機構를 新設하며,

③ 中共의 電力, 油田, 非鉄金属(金, 알미늄)等의 開発에 日本이 積極協力하며,

④ 科学技術協定을 締結하기로 合意하였다.

長期貿易協定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바와 같이 日·中共間 経済協力은 中共의 経済開発 및 工業発展에 必要한 重化学工業部門의 플랜트 및 技術導入에 따른 延払輸出이 크게 拡大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問題는 技術과 施設의 導入에 따른 外貨需

要의 解決이다. 外貨收入의 拡大를 위해 中共은 石油探査 및 開発에 주력하고 있으나 日·中共間의 合意内容만큼 中共의 対日本石油輸出이 可能할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中共의 石油는 中東産에 비해 유황성분은 적으나 重質油이기 때문에 莫大한 施設費를 들여 別途의 重質油分解施設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

Ⅳ. 日·中共経済協力이 韓国에 미치는 影響 및 対策

앞으로 日·中共関係가 経済的으로 緊密히 展開됨으로써 우리나라는 直接·間接으로 相当한 影響을 받을 것이다.

우선 輸出과 資本導入面에서 競争関係에 놓이게 되고, 反面에 中共이 資源의 輸出国이면서 技術의 導入国의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資源이 不足하고 中共에 比해 技術이 다소 앞서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또한 協力関係를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받게 될 不利한 影響을 살펴보면

첫째, 日·中共間 経済協力의 進展으로 日本市場에서 中共商品과의 競争이 不可避하며 特히 労動集約的 輸出商品에서 이러한 様相은 훨씬 두드러질 것이다.

둘째, 資本導入面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進出한 日本企業이나 資本들이 광활한 中国市場에 눈을 돌려 投資対象을 転換할 危険性이 크게 内包되어 있다.

더우기 以上 두 要因은 비단 日本市場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日·中共経済協力強化가 美国을 위시한 西欧諸国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이러한 不利한 影響은 보다 폭넓게 展開될 것으로 予想됨으로써 問題는 훨씬 심각하다.

셋째, 이러한 経済的이고 直接的인 影響外에 間接的인 影響으로는 中共의 国際的 地位가 보다 向上됨으로써 北傀가 中共으로부터 얻게 될 反射的 利益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肯定的인 側面도 없지는 않다. 日·中共経済協力의 推進은 中共内에서의 実用主義路線의 産物이므로 이러한 指導路線이 持続될 경우 窮極的으로 東亜細亜의 緊張緩和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中共 역시 東南亜諸国, 特히 ASEAN을 包含한 새로운 経済協力体制의 구축이 不可避함을 알게 될것이므로 経済的으로도 우리가 先進工業国에 比해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労動集約的 軽工業플랜트部門 및 建設部門等의 技術을 中共에 提供하는 댓가로 特定한 原資材를 導入하는 方式과 같은 長期的인 経済協力을 摸索하는 것도 반드시 不可避한 것만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보다 根本的인 協力方案을 念頭에 두면서 中共과 競争力을 強化하기 위해 現在 推進하고 있는 重化学工業部門의 成長을 加速化시킴은 勿論 우리의 輸出市場을 보다 다변화시켜 対日依存度를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特히 이 問題와 관련해서는 東欧와의 協力関係를 強化하는 것도 貿易拡大는 勿論 우리의 国際的 地位의 向上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베리아開発 政策展望

(金 容 九)

要 約

(I)

本 研究의 対象地域인 시베리아는 西시베리아, 東시베리아 및 蘇聯의 極東地域으로 区分된다. 面積은 全体 57%인데 反하여 人口는 11% 内外로서 蘇聯経済開発의 将来 中心地라고 볼 수 있다.

시베리아開発은 広範囲한 概念으로서 여러 側面에서 다뤄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経済開発에 重点을 두되 그 中에서도 에네르기 資源開発問題를 본다.

燃料資源中 특히 石油, 天然까스, 石炭을 中心으로 보고 시베리아開発에 있어서 将次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게 될 BAM鉄道問題를 研究対象으로 삼는다.

이런 問題들을 検討하는데 있어서 蘇聯의 全体 経済開発에 있어서 시베리아가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고 왔으며 이런 点에서 将次 시베리아開発은 어떠한 方向으로 推進될 것인가를 보고자 한다. 勿論 시베리아開発의 方向이 東北亜国際政治 秩序에 如何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 하는것이 問題의 基底에 있다.

(II)

全蘇聯의 燃料資源의 規模와 構造에는 몇가지 重要한 特徵이 있다.

첫째 燃料資源의 埋蔵量이 방대할 뿐 아니라, 그 94 % 程度가 石・褐炭이란 点이며 石油는 4 % 内外이다.

두째 이 全体 埋蔵量에서 東, 西시베리아, 極東이 차지하는 比率이 87 % 内外라는 点이며 이 地域의 大宗 또한 褐炭이란 点이다.

그러나 埋蔵量과 経済開発의 推進과는 勿論 同一한 것이 아니다.

첫째 시베리아와 極東의 燃料資源은 北緯 45° 로 부터 75° 사이에 分布되어 있고 그 北部地域의 開発은 가까운 将来 期待할 수 없다.

두째 北緯 60° 는 経済開発의 限界線으로 보는 경우 石・褐炭의 分布는 北地域이 63 %, 南地域이 37 %이며, 시베리아와 極東의 主要한 炭田은 그 大部分이 北部에 位置하고 있다. 특히 Tiumen 洲를 中心으로 하는 西시베리아의 石油와 天然가스, Yokutia의 天然가스도 모두 北緯 60° 以北에 位置하고 있다. 끝으로 炭種類에 의한 分類도 問題点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困難에도 不拘하고 蘇聯経済의 에네르기需要増加 蘇聯의 欧洲地域의 燃料需給에 있어서 시베리아開発은 時急한 것이다. 蘇聯의 欧洲地域은 우랄을 包含하여 現在 蘇聯 全体의 70 %의 燃料推進을 하고 있으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그 需給의 問題가 있다.

(III)

第10次5個年計劃(1976-1980)에 보면 蘇聯経済에 에네르기集中은 增加되고 있으며 에네르기消費量은 継続 增加할 추세에 있음은 分明하다.

이런 에네르기消費에 対処하는 解決은 두가지가 있다. 즉 蘇聯의 東部地域의 開発을 促進하는 것과 核에네르기開発이 그것이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 Beloyarsk에 建設中인 600MN의 高成能原子炉(Uranum을 Plutonium으로 転換시키는)가 있을 뿐이며 아직 将次의 事業에 属하고 있다.

1975年 現在 蘇聯의 全体 에네르기生産에 있어서 核에네르기가 차지하는 比率은 0.4%였으며 10次5個年計劃에 의하면 1980年에는 그 比率은 4倍 增加하여 1.7%의 計劃이고 1990年에는 5%로 增加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9次5個年計劃의 一次年度인 1971年의 予測에 의하면 1980年에는 核能力을 30 Gigawatts로 보고 있었는데 反하여, 10次5個年計劃에서는 1980年度의 그것을 19-21 GW로 낮추고 있다.

(IV)

核에네르기開発은 무엇보다 시베리아資源開発에는 방대한 資本과 아울러 그에 必要한 労動人口動員에 問題点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베리아開発에 日・蘇協力問題가 대두되는 것이다. 労動人口의 動員도 큰 問題이며, 더우기 이 地域에서 다른 地域으로의

移住가 두드러져서 1964-1973年 10年間 거의 百萬의 移住民이 発生하고 있다.

하여간 에네르기消費増加에 対処하기 위하여는 시베리아開発은 蘇聯의 欧洲地域보다 急速히 進展되지 않을 수 없으며 10次5個年計劃에 의하면 蘇聯 全体의 工業生産量의 増加率을 1975年의 36%인데 比하여 시베리아의 그것을 50%로 잡고 있다. 主要品目에 대한 蘇聯의 生産量에서 시베리아가 차지하는 比率은 다음과 같다.

	1970	1975	1980
電　力	18	19	20
石　油	10	30	49
石　炭	32	34	38
鋼　鉄	8	10	12
天然가스	6	13	35

(V)

시베리아開発에는 그 開発을 위한 鉄道網建設에 所要되는 資本으로 큰 困難点을 안고 있다. 9次5個年計劃의 90,000km의 鉄道建設은 超過達成되었고 따라서 10次5個年計劃에는 65,000km로 낮게 計劃하고 있다.

이 鉄道計劃中 가장 主要한 것이 東시베리아에서 太平洋을 連結하는 시베리아横断鉄道比率의 BAM鉄道建設이다.

이것은 이미 戦前에도 計劃이 있었으나, 1956年에 다시 그 計

劃이 復活되었던 것으로서 9次5個年計劃期間(1971-1975)에야 着工되어 計劃目標를 達成하였으나 그러나 10次5個年計劃期間에 完工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BAM과 시베리아 横断鉄道를 連結하는 鉄道도 建設計劃이 確定되어 있다.

하여간에 BAM鉄道建設로서 南Yakutia의 石炭開発이 可能하여 졌으며 東北시베리아가 木材 및 製紙工業의 中心地로 될 것이다.

資源問題와 東北亜의 新国際経済 秩序

서울大学校外交学科 鄭 鍾 旭

(一) 序 論

資源問題는 東北亜의 国際秩序에 重大한 要因으로 登場했다. 石油開発을 둘러싼 日本, 中共, 韓国 및 台湾의 紛争이 그렇고 漁労問題를 둘러싼 日本과 蘇聯의 紛争이 그렇다. 石油開発을 둘러싸고는 中共과 越南이 역시 紛争状態에 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状況에 처해있다.

70年代 初半의 石油波動以後 資源은 国際政治의 要因으로 그 重要性이 再認識되게 되었고 東北亜의 경우 中共의 近代化計劃의 推進에 있어 石油가 主要한 戦略資源으로 登場하므로서 資源의 国際政治的 意義는 더한층 高潮되고 있다.

이러한 観点에서 本 論文은 東北亜에서 資源이 갖는 国際政治的 重要性을 評価하고 이것이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치는 影響을 政策的 見地에서 長期展望하려는 것이 그 主된 目的이다.

좀더 具体的으로 말하면 첫째 資源을 石油資源과 漁業資源으로 제한하고 둘째 이들 두가지 資源의 開発에 대한 当事国들의 政策을 検討하고 셋째 이들 資源의 開発을 둘러싼 各国間의 紛争 可能性을 分析하고 넷째 이러한 紛争 可能性이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칠 影響을 展望하려고 한다.

(二) 中共의 近海油田 開発政策

1976年 9月 毛沢東의 死後 登場한 中共의 新指導層이 推進하고 있는 이른바 四個 近大化計劃은 近海油田의 積極的인 開発을 不可避하게 만들고 있다. 西紀 2000年까지 中共을 世界의 先進隊列에 끌어올리겠다는 四個 近代化計劃은 莫大한 外国의 資本과 技術의 導入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華国鋒·鄧小平 政権이 1978年 3月의 第五期 全国人民代表大会 以後 外資導入을 加速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理由때문이다.

四個 近代化計劃에 所要되는 総経費는 正確히 推計하기 어렵지만 西方側의 推定에 의하면 3千億달러가 必要하다고 한다. 이것은 現在의 中共의 推定 国民総生産(GNP)와 맞먹는 것으로 이러한 莫大한 費用을 内資動員에만 依存할 수는 없는게 明白하다.

1978年 8月에 締結된 日·中共友好条約에 즈음하여 報道된 日·中共間의 交易量은 1990年까지 800~1,000億달러의 規模에 달하리라고 한다. 中共은 上海부근의 宝山製鉄所와 河北의 冀東製鉄所의 建設을 비롯해 주로 日本의 프랜트를 輸入하고 이를 原油의 輸出에 의해 支払하려고 計劃하고 있다. 1990年에는 中共이 日本에 5千萬噸의 原油(時価 約 50億달러)를 輸出하게 될 것이라고 鄧小平이 말한 바 있다. 1977年의 中共의 対日本原油輸出이 8百萬噸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考慮하면 앞으로 13年後에 6倍以上을 輸出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수 있다.

中共이 近海油田의 開発을 必要로하는 理由는 이와 같이 原油輸

出必要量의 급격한 增加에도 있지만 그밖에 技術的인 理由도 있다.

現在 中共의 石油는 全量이 內陸 (onshore) 油田에서 生産되고 있으며 이중 약 절반가량이 東北의 大慶油田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地理的 位置 때문에 大慶에서 나오는 原油는 긴 輸送管에 의해 港口로 輸送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內陸油田에서 原油生産이 增加한다고 해도 이는 주로 国内消費에 使用되게 되며 輸出을 위해서는 莫大한 資金을 投入하여 輸送管을 新設해야 한다는 難点을 안고 있다.

그대신 近海油田을 開発하는 경우 現在의 油田技術上 바로 現場에서 油槽船에 옮겨 싣게되므로 輸送管의 新設이 必要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中共은 日本의 몇몇 石油会社와 渤海湾 近海油田 共同開発을 위해 協商을 벌리고 있으며 (일부 報道는 이미 共同開発을 위한 協定이 締結되었다고 함) 美国의 石油会社들도 渤海湾과 珠江下流의 共同開発을 위해 비슷한 協商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日本이나 美国의 石油会社들과 共同開発을 協商하고 있는 近海油田地域이 現在로는 中共海岸線 가까히 붙어있어 国際的 紛争의 可能性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近代化計劃의 推進에 따라서는 領有權에 관한 紛争이 일고있는 地域으로 開発을 拡大할 可能性이 全無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三) 油田開発을 둘러싼 紛争可能地域

近海油田開発을 둘러싸고 東北亜에서 紛争이 가장 可能한 地域으로는 우선 센가구 (中国名 : 釣魚島) 列島問題를 들수 있다. 台湾과 中国本土 및 유구列島의 中間地点에 位置하고 있는 센가구列島는 1960年代末 유엔機構가 構成해서 파견한 이 地域의 石油埋蔵量을 調査하기 위한 特別委員会가 이 地域의 石油埋蔵量이 世界에서 가장 클지도 모른다고 推定하므로서 그 経済的 重要性이 급격히 높아졌다.

国際政治的으로 여러가지 不利한 立場에 있는 台湾은 形式的으로 이 地域에 대한 領有権을 主張하고 있으나 사실상 競争国의 地位에서 脱落했으며 日本과 中共間의 領有権 競合이 問題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現在 이 地域에 대해 油田開発活動이 別無한 状態이기 때문에 日本과 中共間의 紛争이 表面化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 1978年 6月의 경우처럼 제한된 規模의 紛争은 항상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日・中共友好条約에서도 이 地域의 領有権에 대한 言及이 없어 이 問題는 未解決状態에 있다. 日本과 中共間의 経済協力関係를 考慮하면 가까운 将来에 이 問題 때문에 日・中共間의 大規模 紛争이 発生하리라고 予測하기 힘들고 日・中共間의 共同開発의 可能性도 있긴하다.

그러나 日・中共間의 経済協力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밖의 다른 예기하지 힘든 事態発展이 이 地域에 대한 領有権 紛争을 야기시킬 可能性은 언제나 있다고 보겠다.

(四) 台湾海狹問題

台湾海狹은 近海에는 상당량의 石油埋蔵이 推定되고 있다. 그러나 이 地域의 開発問題는 中共과 台湾間의 政治的 紛争 때문에 매우 미묘한 性格을 띄고 있다. 自由中国은 이미 1960年 末부터 이 地域의 開発準備에 着手하여 美国의 石油会社들과 提携, 近海油田의 探査作業을 進行시켜 왔다.

1970年末 中共의 反応을 꺼린 美国政府가 台湾近海에서 石油探査作業을 벌리고 있던 美国石油会社所属의 探査船에 대한 保護를 拒否했고 (gulfrex 決定 또는 페카드決定 (packard Decision) 이라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中国本土에 가까운 台湾近海에서 油田探査作業을 벌리던 美国의 油田探査船이 撤収한 바 있다. 그후 台湾政府의 近海油田開発作業이 鈍化되어 당분간 中共과의 直接的인 衝突事態는 그 可能性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도표 5 参照)

그러나 中共과 台湾間의 紛争의 可能性은 언제나 남아있으며 中共이 福建省 또는 広東省 近海油田을 開発하게 되거나 台湾이 美国이 아닌 第三国의 協調를 얻어 油田開発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 紛争의 可能性은 훨씬 높아진다. 특히 美・中共国交正常化의 進行에 따라 이 問題가 紛争化할 可能性도 상당하다고 하겠다.

(五) 黄海近海開発問題

黄海는 水深이 낮고 水幅이 좁아 領海法上 많은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図表 7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韓・日 両国이 公

同開発하기로 合意한 一部地域에 中共이 領有権을 主張하고 있어 이 地域開発을 둘러싼 紛争은 3国間의 国際的 紛争으로 発展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第七鉱区에 該当하는 이 地域은 石油埋蔵의 可能性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紛争의 可能性이 더욱 높은 곳이다.

日本政府는 이미 議会에 韓日共同開発協定을 통과시켰으면서도 中共의 反応을 우려해서 小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中共은 黄海의 領有権에 대해 大陸棚自然延長論을 내세우고 両国間에 領海権에 관한 紛争이 있을 경우 中間線을 採択해야 한다는 国際海洋法을 無視한 채 3마일 領海를 除外한 黄海의 거의 모든 地域에 대한 領有権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의 이러한 立場은 公式的인 것 뿐이며 실제 黄海開発에 관해서 極히 애매한 態度를 취하고 있다. 1977年 1月부터 8月까지 中共의 이 問題에 관한 言及을 分析한 美国学者의 論文에 따르면 中共은 黄海油田開発에 韓国参与의 문호를 完全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問題는 中共의 対韓政策과 緊密히 関聯되어 있어 極히 複雑性을 띄고 있다.

(六) 日・蘇漁撈紛争

日本과 蘇聯과의 漁撈紛争은 両国間의 다른 政治的 問題와 密接히 関聯되어 단순한 経済的 紛争의 範囲를 넘어 複雑性을 띄고 있다. 日本의 立場에서 보면 北洋漁場에서 日本 全体 漁獲高의

절대다수를 依存하고 있으므로 그 重要性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現在까지 여러 차례 協商을 통해 北洋에서의 日本의 漁撈活動은 各種 制限을 받게되었고 蘇聯의 北洋漁場進出이 활기를 띰에 따라 蘇聯과의 協定이 더욱 必要하게 되고 있다.

日本은 그동안 수차례 代表団을 派遣 蘇聯政府와 交涉을 벌렸으나 別다른 進展이 없는 것으로 報道되고 있다. 그 理由는 蘇聯이 対日漁撈協定을 日本에 대한 圧力의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어 日本의 지나친 対中共接近에 대한 牽制策으로나 北方 四個島嶼를 둘러싼 紛争을 일괄 타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七) 海上輸送路의 問題

東北亜에서 資源問題를 論함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重要한 問題는 海上輸送路問題이다. 이 問題는 蘇聯海軍의 급속한 成長, 특히 蘇聯極東艦隊의 增強과 이와 対照的으로 美国의 影響力이 東北亜에서 後退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海上輸送路의 問題는 매우 심각하다. 資源이 貧弱한 日本은 大部分의 自然資源을 輸入해야 하며 특히 石油의 경우 中東에서 대형 油槽船에 의해 海上輸送되어야 하므로 海上輸送路의 確保는 決定的인 重要性을 갖는다. 또한 日本은 勿論 韓国과 台湾등의 経済成長이 交易에 크게 依存하게 되므로서 이 問題는 重要性이 더욱 高潮되고 있다.

海上輸送路에 있어 台湾은 日本의 中東石油나 인도네시아産石油의 輸入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고 있으며 따라서 台湾地域의 確保는 海上輸送路의 立場에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印度의 경우 우도 비슷한 理由로 그 重要性이 增加하고 있다.

韓国의 경우 특히 蘇聯極東艦隊의 大韓海峡通過가 必要하게 되므로서 大韓海峡은 東北亜에서 主要한 海上輸送路가 되고 있다.

(八) 結　語

東北亜에서의 資源問題는 日·中友好条約등 最近의 事態로 그 重要性이 더욱 增加하고 있다. 最近 紙上에 報道되고 있는 아시아 経済協力機構 또는 아시아共同市場에 관한 提案도 이러한 資源問題의 重要性에 関聯지어 解釈해 볼 수 있다.

앞으로 10年을 資源政策的 見地에서 보면 여러가지 可能한 事態発展을 仮定할 수 있겠으나 그중 가장 可能性이 높은 것은 東北亜와 東南亜諸国들 사이에 経済協力体制가 強化될 것이 予想되고 따라서 日本이나 韓国의 輸出은 아시아域外보다 域内 国家들에 대한 상대적인 比重이 높아질 것으로 予測된다.

石油輸出国家機構(OPEC)과 같은 資源에 의한 経済協力機構가 아시아 또는 東北亜나 東南亜에 생길 것이라는 사실은 充分히 予想할 수 있으며 域外 強大国들 間의 競争 또는 域内 強大国과 域外 強大国 間의 資源이나 海上輸送路 確保를 위한 競争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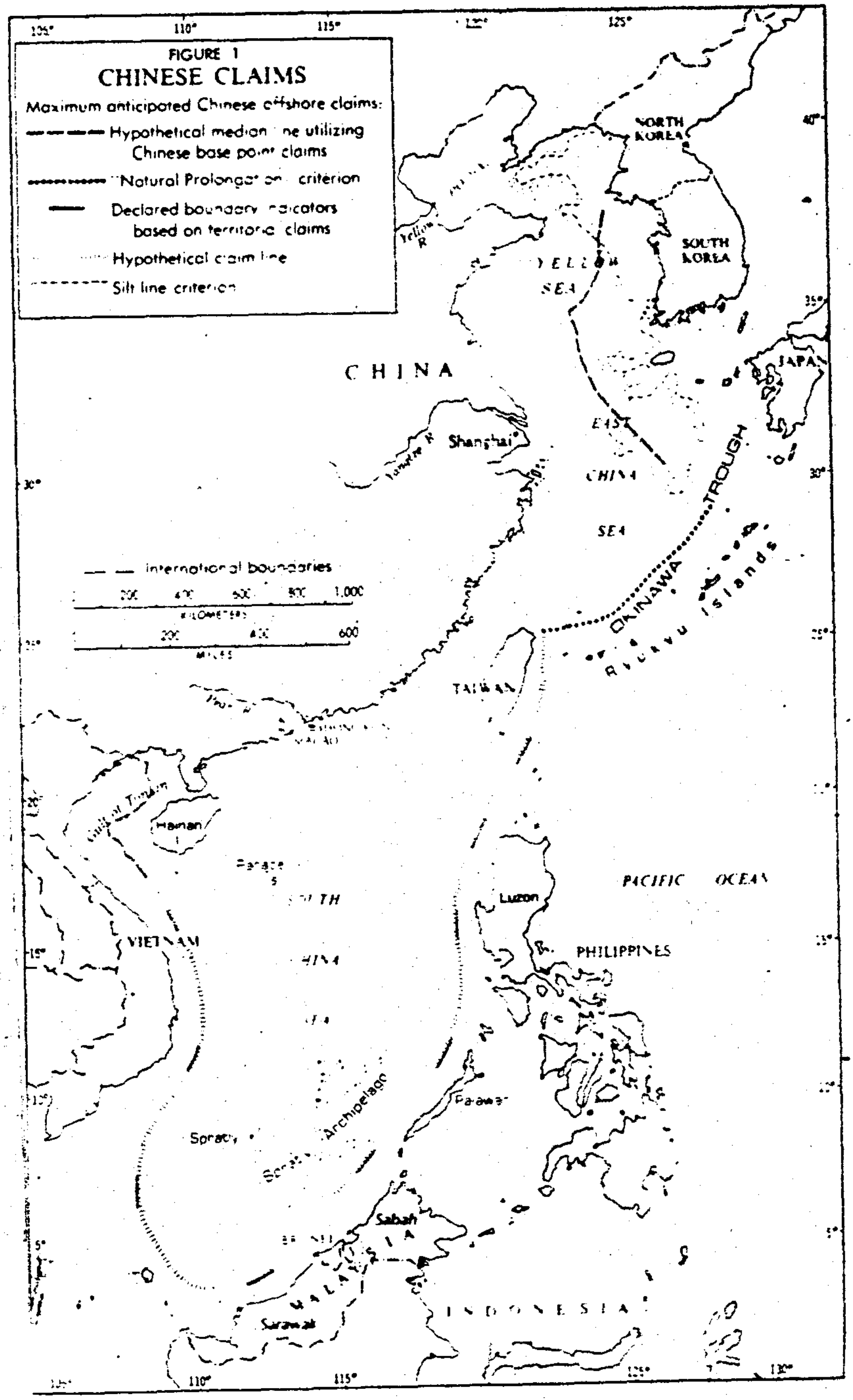


FIGURE 1
CHINESE CLAIMS
Maximum anticipated Chinese offshore claims:
Chinese base point claims
Declared boundary
based on territorial claims
Silt line criterion
CHINA
NORTH KOREA
SOUTH KOREA
SEA
JAPAN
Shanghai
CHINA
SEA
TROUGH
OKINAWA
TAIWAN
Hainan
Luzon
PHILIPPINES
PACIFIC OCEAN
VIETNAM
Archipelago
Spratly
Sabah
Sarawak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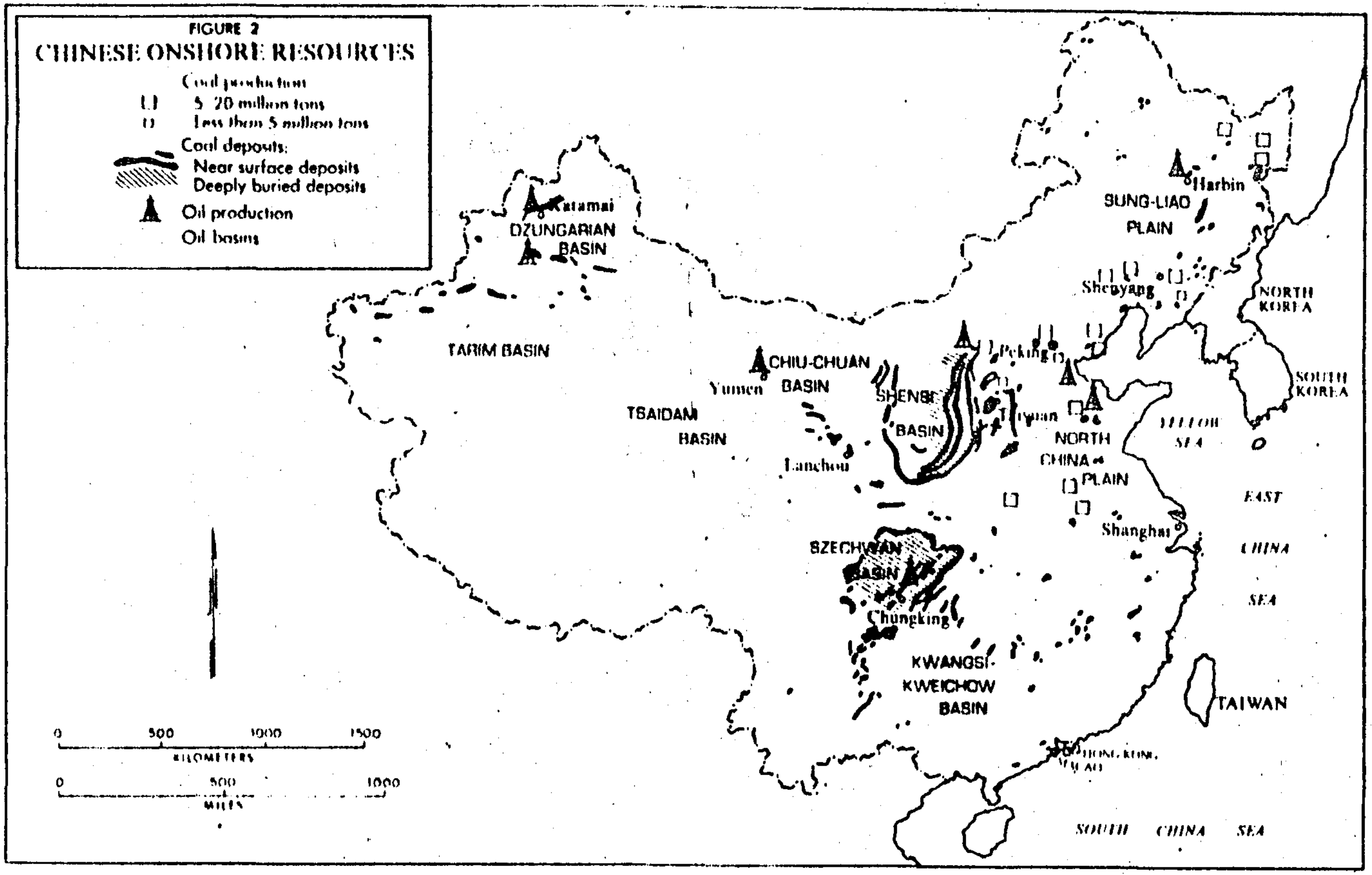


FIGURE 2
CHINESE ONSHORE RESOURCES
Coal production
5-20 million tons
Less than 5 million tons
Coal deposits:
Near surface deposits
Deeply buried deposits
Oil production
Oil basins
Karamai
DZUNGARIAN BASIN
TARIM BASIN
TSAIDAM BASIN
Yumen
CHIU-CHUAN BASIN
Lanchou
SHENSI BASIN
Peking
Taiyuan
SUNG-LIAO PLAIN
Harbin
Shenyang
NORTH KOREA
SOUTH KOREA
YELLOW SEA
NORTH CHINA PLAIN
EAST CHINA SEA
Shanghai
SZECHWAN BASIN
Chungking
KWANGSI-KWEICHOW BASIN
TAIWAN
SOUTH CHINA SEA
0 500 1000 1500
KILOMETERS
0 500 1000
M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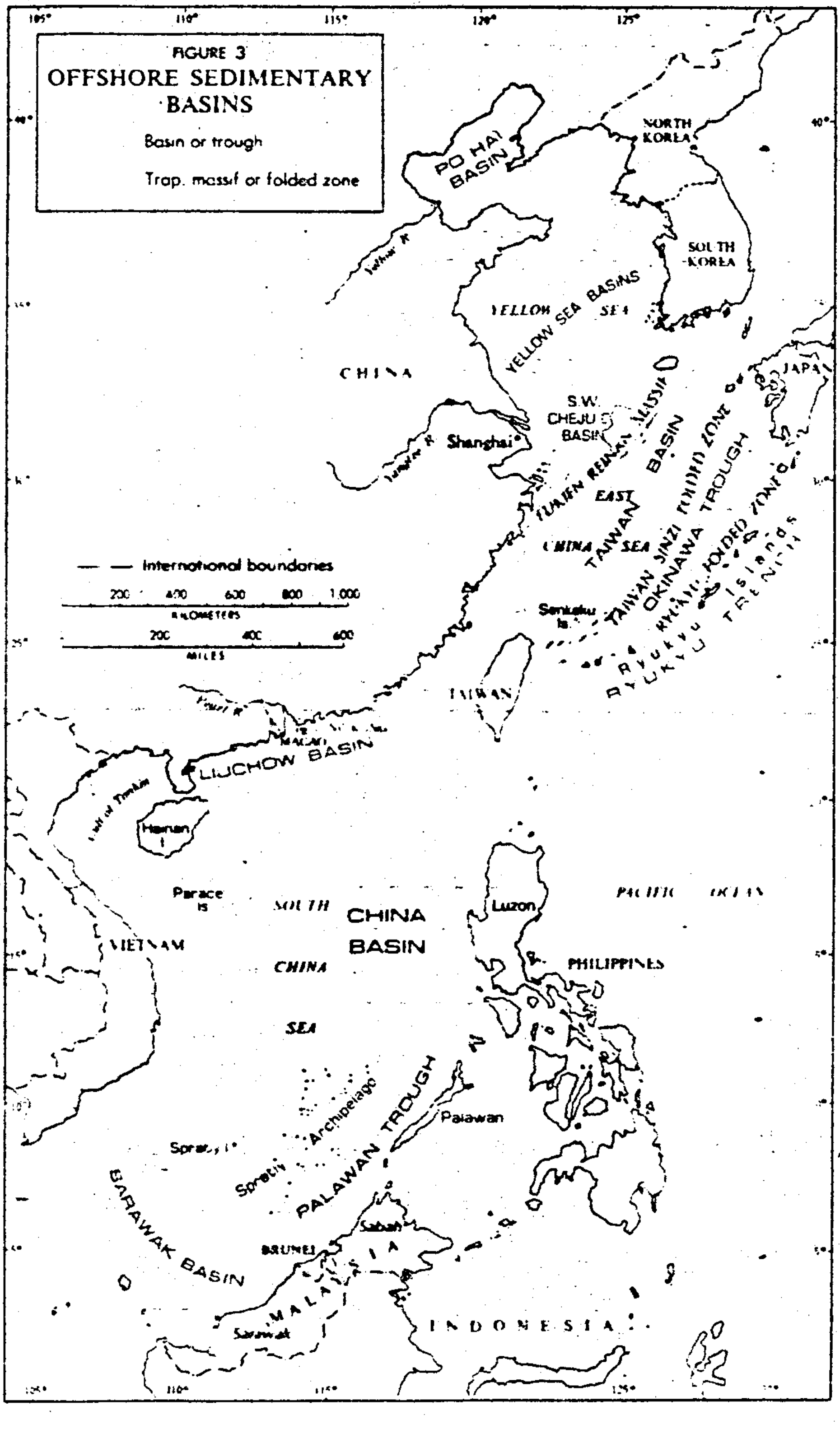


FIGURE 3
OFFSHORE SEDIMENTARY BASINS
Basin or trough
Trap, massif or folded zone
International boundaries
KILOMETERS
MILES
PO HAI BASIN
NORTH KOREA
SOUTH KOREA
YELLOW SEA BASINS
YELLOW SEA
CHINA
Shanghai
S.W. CHEJU BASIN
EAST CHINA SEA
TAIWAN BASIN
OKINAWA TROUGH
Senkaku Is.
TAIWAN
JAPAN
LIUCHOW BASIN
Hainan I.
Paracel Is.
VIETNAM
SOUTH CHINA SEA
CHINA BASIN
Luzon
PHILIPPINES
PACIFIC OCEAN
Palawan
PALAWAN TROUGH
Spratly Archipelago
BARAWAK BASIN
Sabah
BRUNEI
MALAYSIA
Sarawak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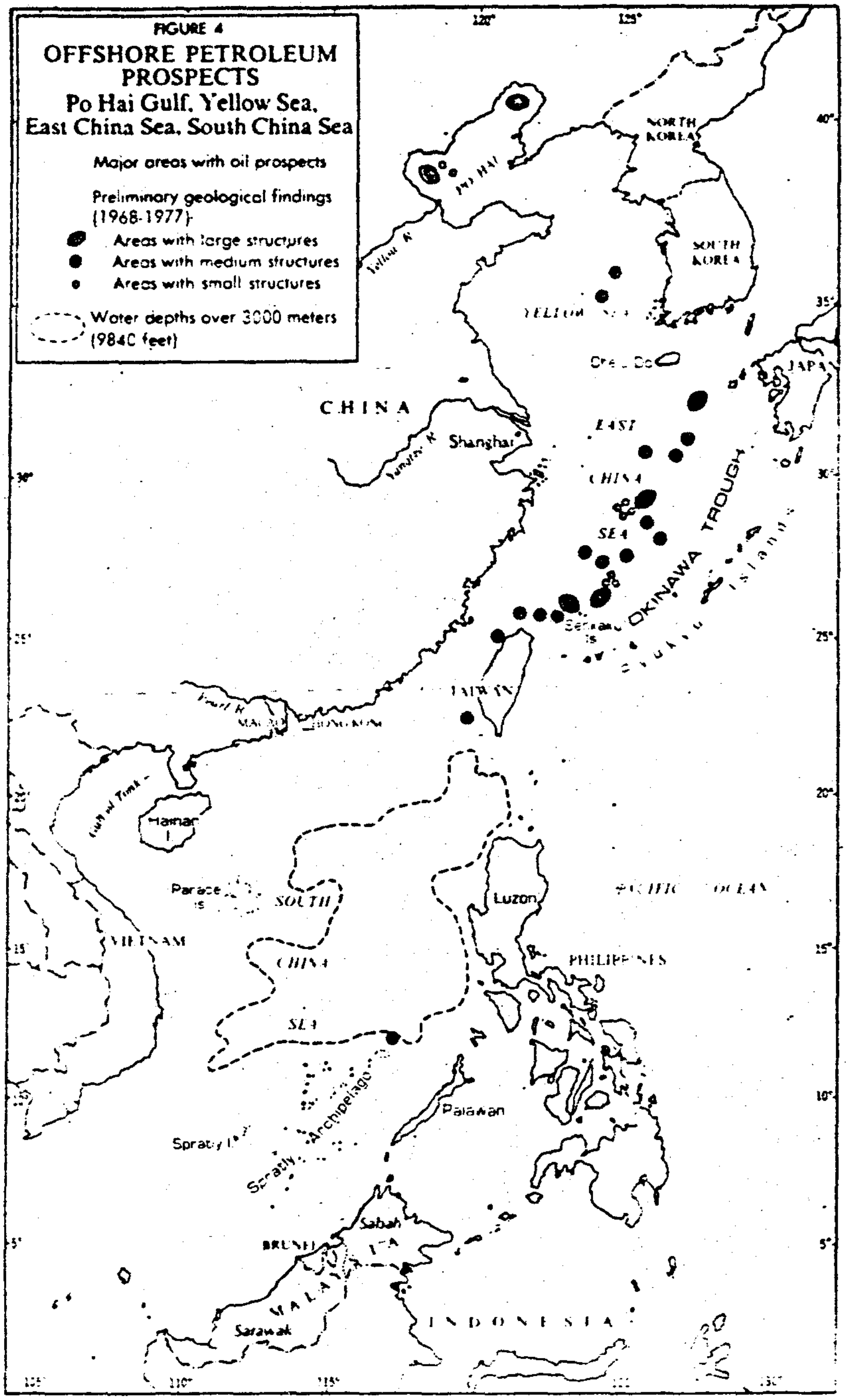


FIGURE 4
OFFSHORE PETROLEUM PROSPECTS
Po Hai Gulf, Yellow Sea, East China Sea, South China Sea
Major areas with oil prospects
Preliminary geological findings (1968-1977)
Areas with large structures
Areas with medium structures
Areas with small structures
Water depths over 3000 meters (9840 feet)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Shanghai
EAST
CHINA
SEA
OKINAWA TROUGH
TAIWAN
Hainan I.
Paracel Is
SOUTH
CHINA
SEA
VIETNAM
Luzon
PHILIPPINES
Palawan
Spratly Archipelago
Sabah
BRUNEI
Sarawak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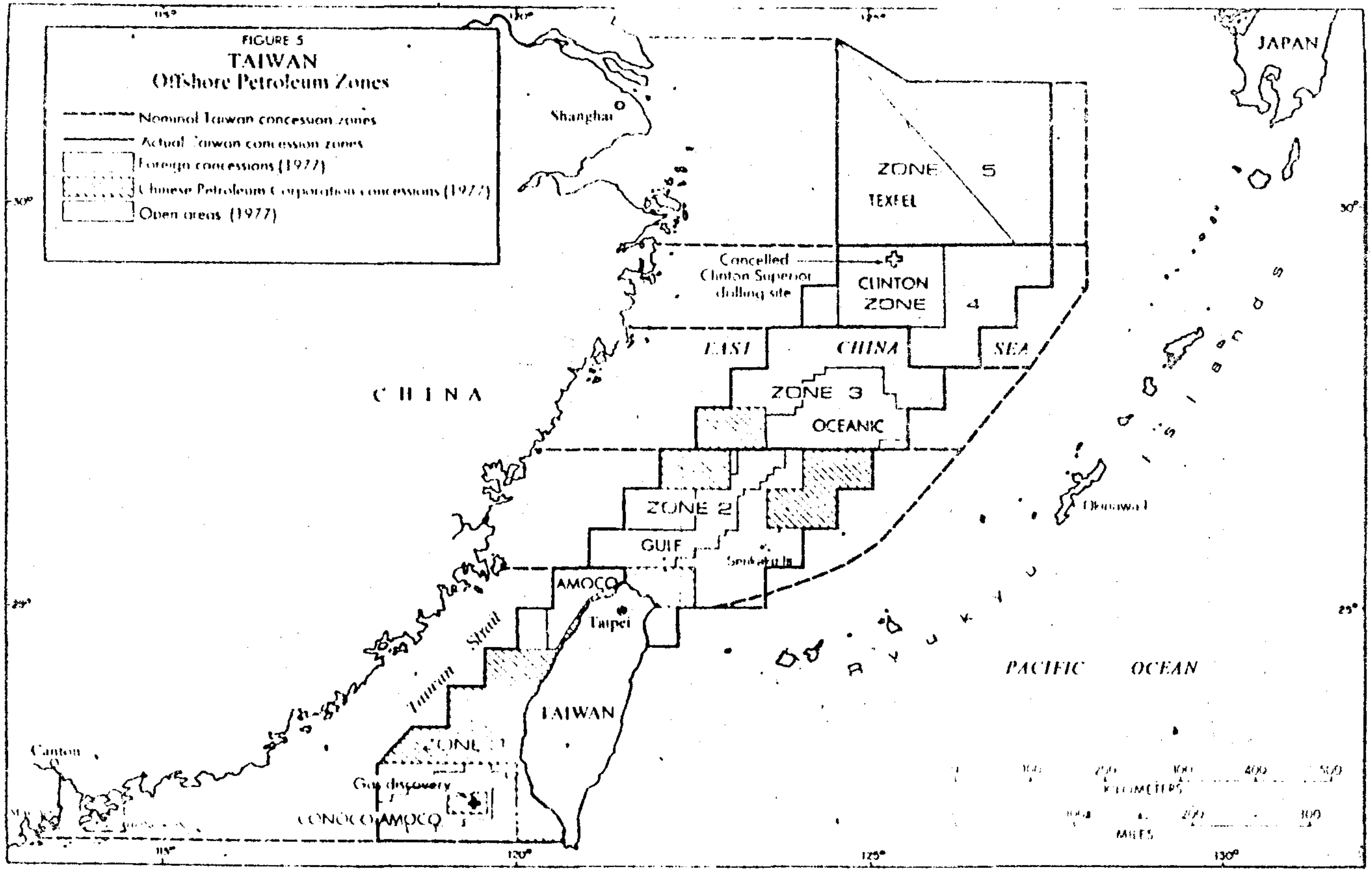


FIGURE 5
TAIWAN
Offshore Petroleum Zones
Nominal Taiwan concession zones
Actual Taiwan concession zones
Foreign concessions (1977)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 concessions (1977)
Open areas (1977)
JAPAN
Shanghai
CHINA
EAST CHINA SEA
ZONE 5
TEXFEL
Cancelled Clinton Superior drilling site
CLINTON ZONE
4
ZONE 3
OCEANIC
ZONE 2
GULF
Senkaku Is
AMOCO
Taipei
TAIWAN
Taiwan Strait
Gas discovery
CONOCO AMOCO
Canton
Okinawa
PACIFIC OCEAN
KILOMETERS
MILES
115°
120°
125°
130°
3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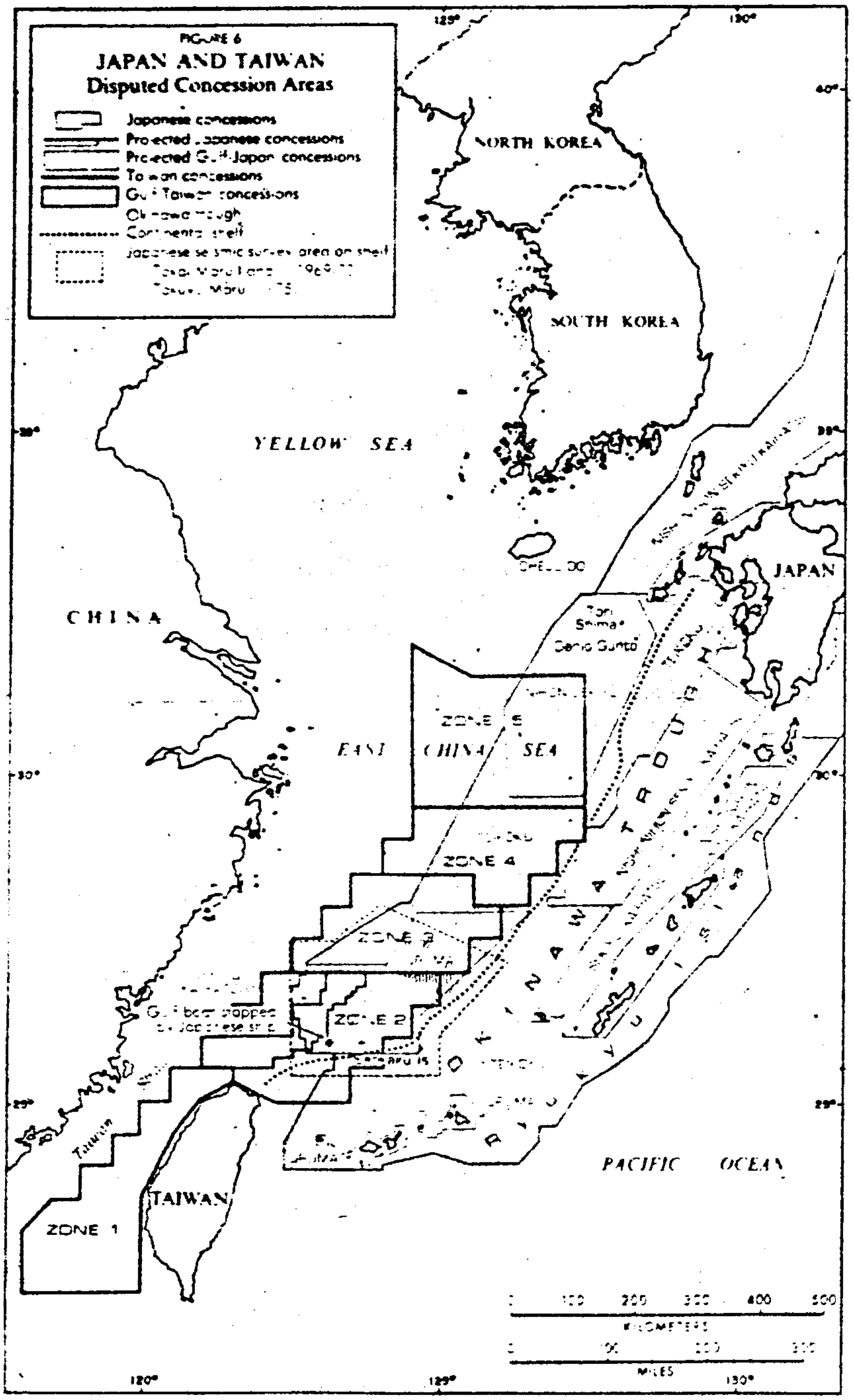


FIGURE 6
JAPAN AND TAIWAN
Disputed Concession Areas
Japanese concessions
Projected Japanese concessions
Projected Gulf-Japan concessions
Taiwan concessions
Gulf-Taiwan concessions
Continental shelf
NORTH KOREA
SOUTH KOREA
YELLOW SEA
CHINA
EAST CHINA SEA
ZONE 5
ZONE 4
ZONE 3
ZONE 2
ZONE 1
TAIWAN
JAPAN
PACIFIC OCEAN
KILOMETERS
M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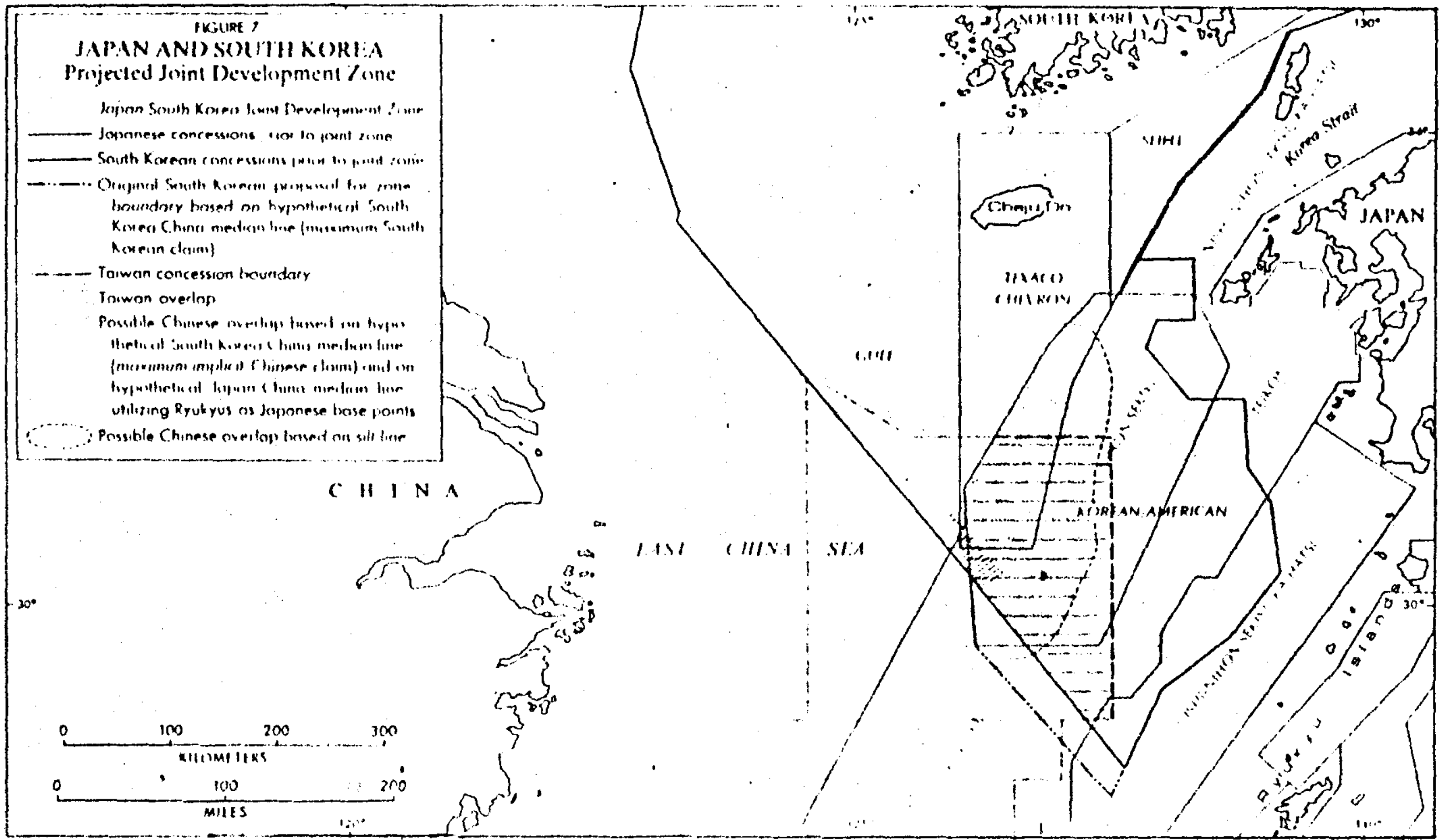


FIGURE 7
JAPAN AND SOUTH KOREA
Projected Joint Development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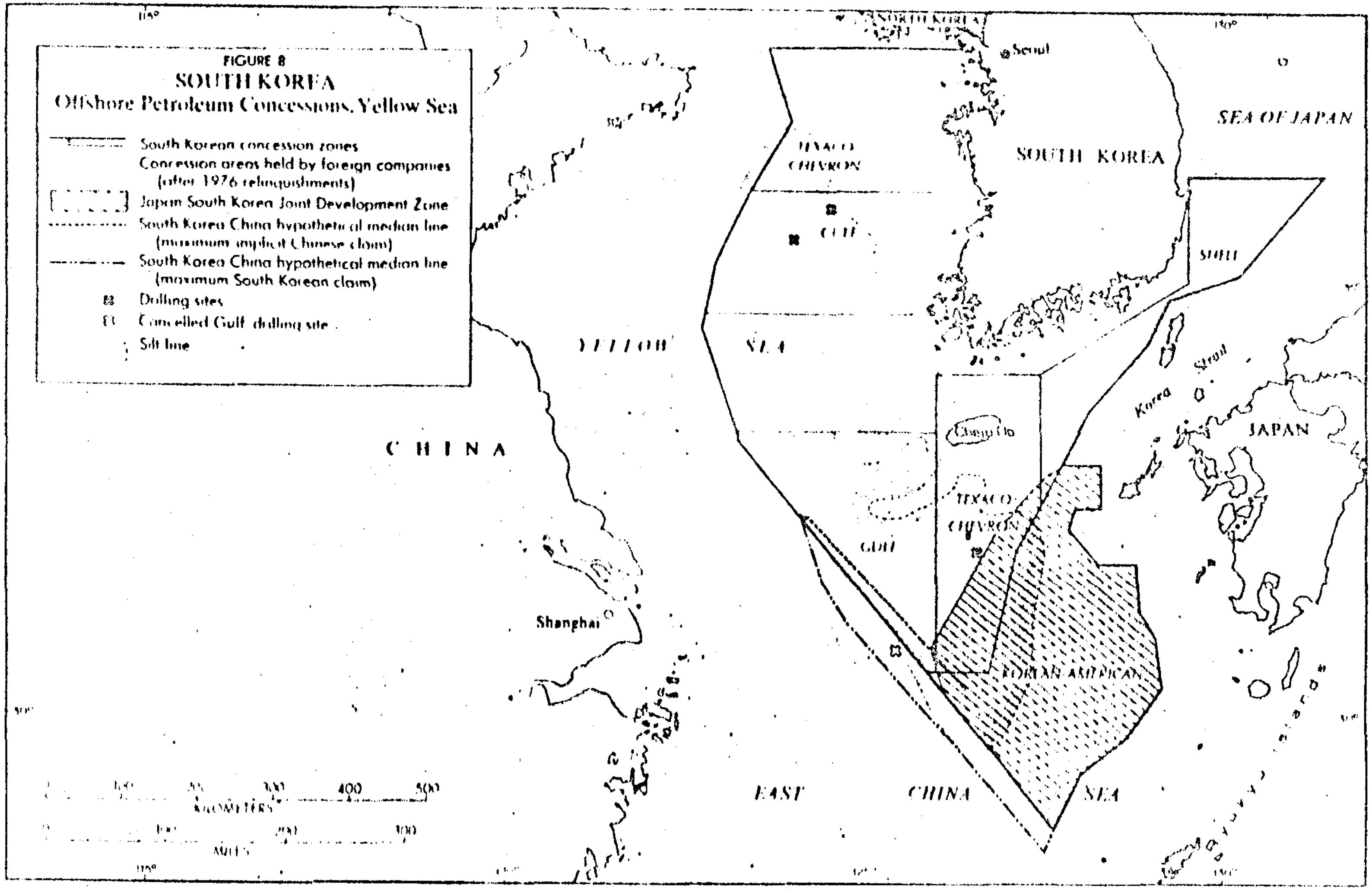


FIGURE 8
SOUTH KOREA
Offshore Petroleum Concessions, Yellow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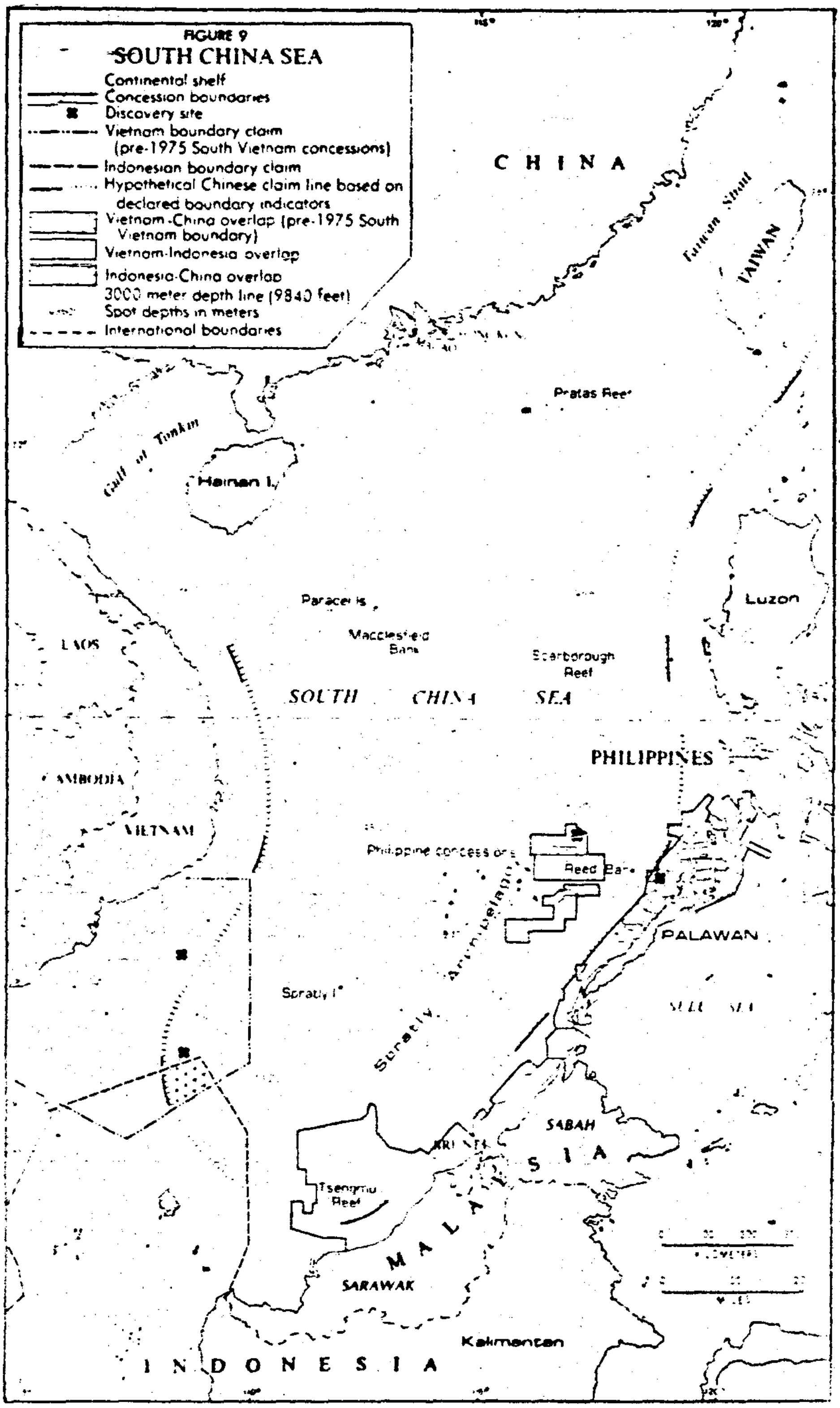


FIGURE 9
SOUTH CHINA SEA
Continental shelf
Concession boundaries
Discovery site
Vietnam boundary claim (pre-1975 South Vietnam concessions)
Indonesian boundary claim
Hypothetical Chinese claim line based on declared boundary indicators
Vietnam-China overlap (pre-1975 South Vietnam boundary)
Vietnam-Indonesia overlap
Indonesia-China overlap
3000 meter depth line (9840 feet)
Spot depths in meters
International boundaries
CHINA
Taiwan Strait
TAIWAN
Pratas Reef
Gulf of Tonkin
Hainan I.
Paracel Is
Macclesfield Bank
Scarborough Reef
Luzon
LAOS
SOUTH CHINA SEA
PHILIPPINES
CAMBODIA
VIETNAM
Philippine concessions
Reed Bank
PALAWAN
Spratly I.
Spratly Archipelago
SULU SEA
SABAH
BRUNEI
MALAYSIA
Tsengmu Reef
SARAWAK
Kalimantan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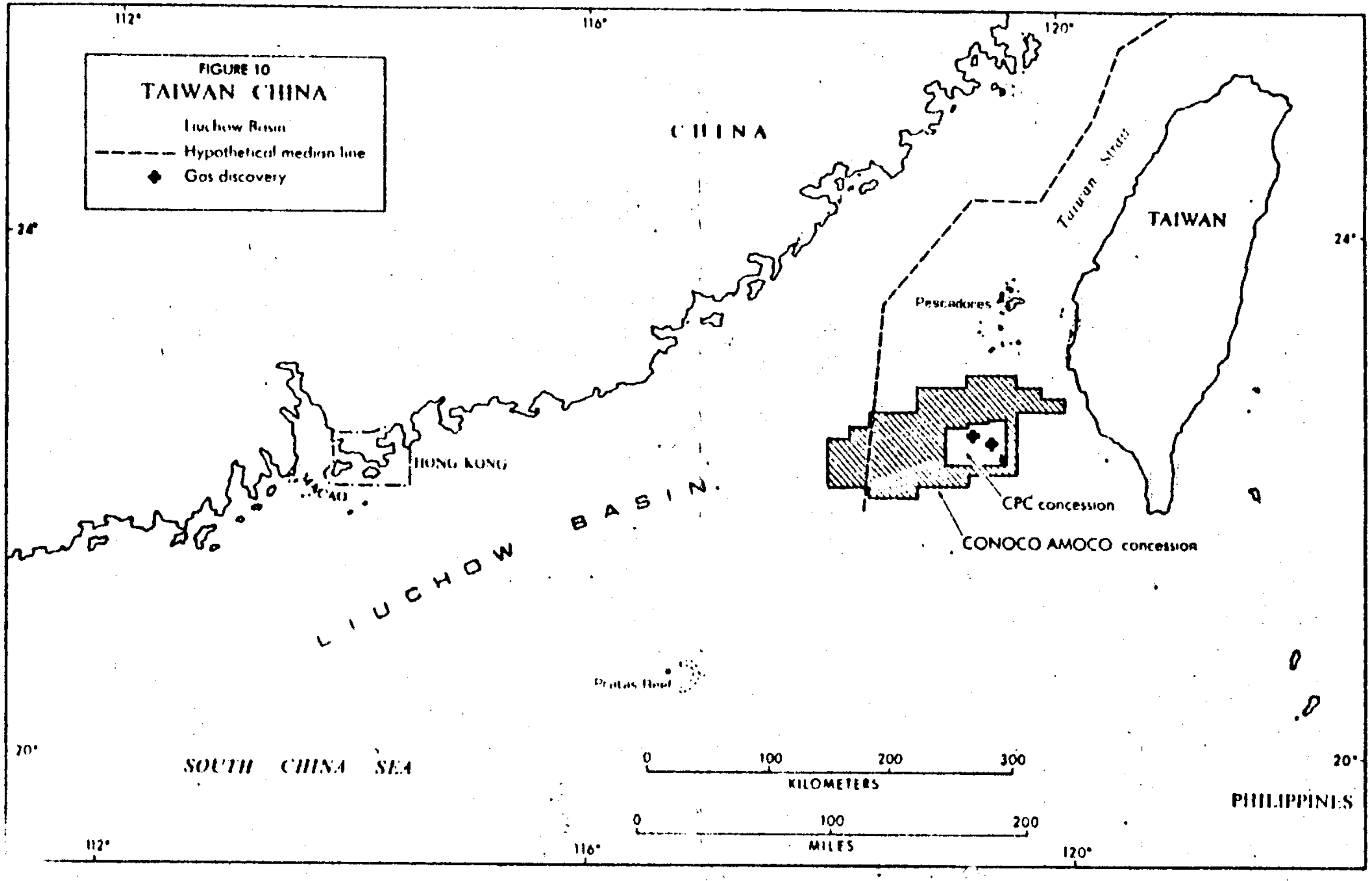


FIGURE 10
TAIWAN CHINA
Liuchow Basin
Hypothetical median line
Gas discovery
CHINA
TAIWAN
Taiwan Strait
Pescadores
CPC concession
CONOCO AMOCO concession
HONG KONG
MACAO
LIUCHOW BASIN
Pratas Reef
SOUTH CHINA SEA
PHILIPPINES
KILOMETERS
0
100
200
300
MILES
0
100
200
112°
116°
120°
2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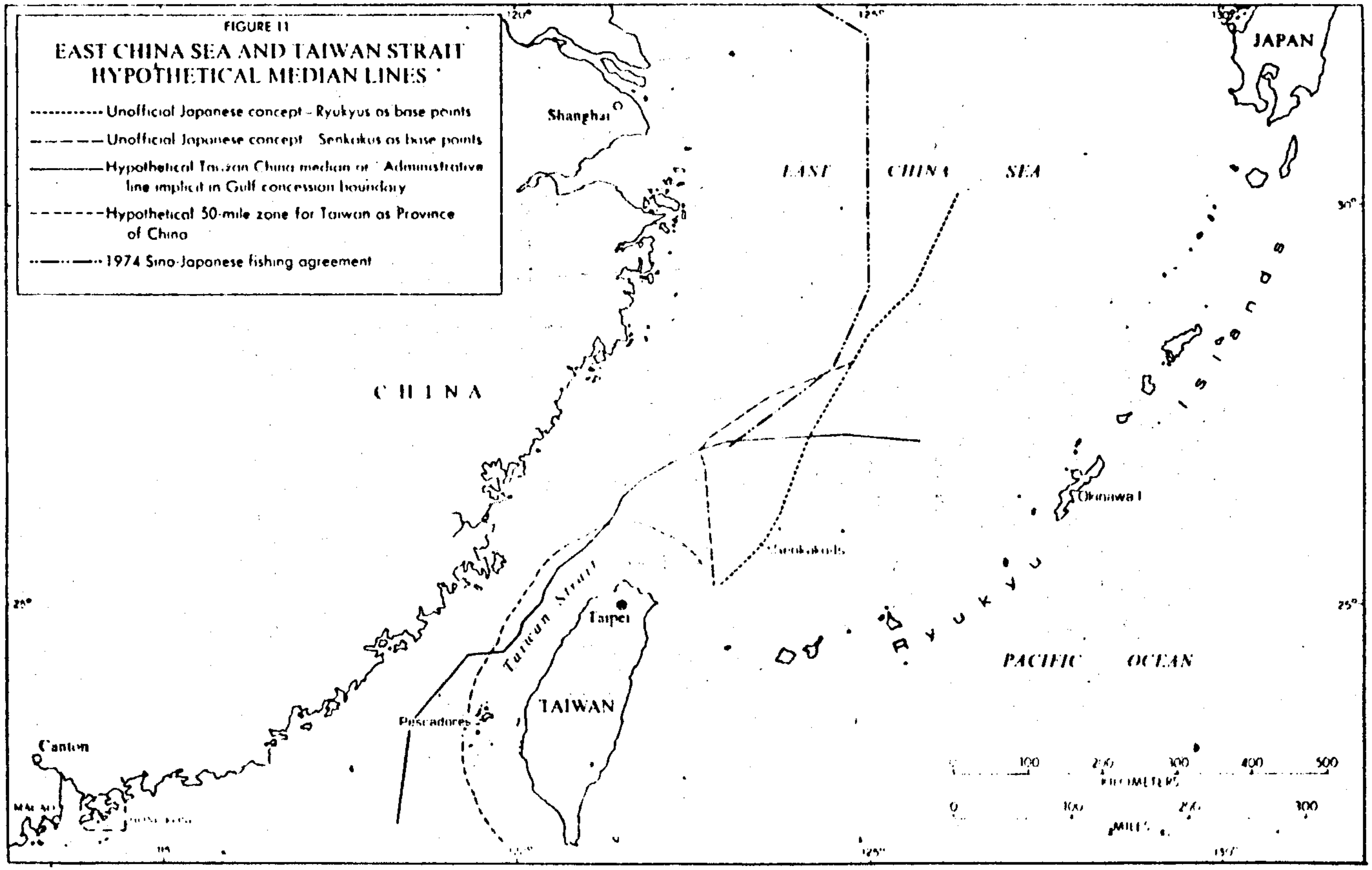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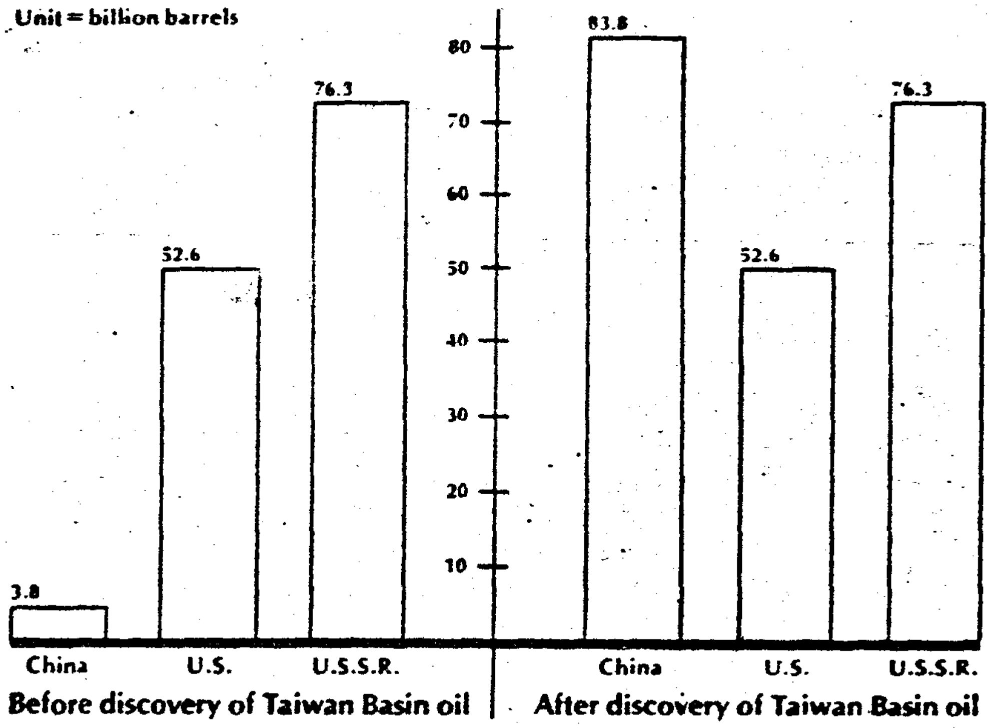


FIGURE 11
EAST CHINA SEA AND TAIWAN STRAIT HYPOTHETICAL MEDIAN LINES

Figure 12: A Chinese View: Offshore Oil And Taiwan

Comparative Estimates of Oil Deposits of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Before and After Discovery of Taiwan Basin



Adapted from Ming Pao, an independent Hong Kong monthly, May, 1971.

東北亜에 있어서의 四強関係의 展望

金 宗 輝

(1) 世界基本秩序와 東北亜

오늘날에 있어도 軍事的으로는 美・蘇를 中心으로한 両極関係는 持続되고 있지만 1970年代에 접어든 以来 政治的 그리고 経済的 多極化는 더욱 拡大되고 있다.

오늘날 世界에는 美国, 蘇聯, 西欧, 中共 및 日本으로 構成되는 다섯個의 힘의 中心이 있다. 그러나 政治・軍事面으로 보면 美・蘇 中共의 3角関係가 있고 経済的으로는 美・西欧・日의 3強関係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北亜에 있어서는 西欧가 除外된 美・蘇・中・日의 4強関係가 1970年代初 以来 展開되고 있다.

(2) 東北亜 4強関係의 展開要因

現実的으로 4大国은 存在하였으나 4強関係의 展開는 1970年代부터 始作된다. 이러한 関係가 発展되게 된 것은 다음 要因의 作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美・蘇共存体制의 展開와 発展

㉯ 軍事力의 効果과 作用限界性의 抬頭

㉰ 西方諸国의 対共観의 変質

㉱ 越南戰

㉲ 「닉슨·닥트린」

㉳ 美·中共和解와 그 影響

㉴ 経済大国 日本의 登場

(3) 4強関係의 特徵

㉮ 相互交流 및 対話의 拡大

1950年代는 美·日; 中·蘇의 2個의 関係 밖에 없었고, 1960年代는 美·日, 美·蘇의 두 関係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4強関係의 可能한 6個의 関係中 5個의 関係가 可能해졌고 現実的으로 展開되고 있다.

㉯ 힘의 不均衡

政治, 軍事, 経済面에서 文字 그대로 超強大国이라 할 수 있는 것은 美·蘇 두나라 뿐이며, 中共은 政治大国 그리고 日本은 経済大国에 不過하다.

㉰ 相互依存

1960年代 까지만 하더라도 依存関係는 限定되었으나 政治, 経済, 軍事面에서 依存関係는 拡大되고 있다.

㉱ 相互牽制

従前에는 陣営内의 牽制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는 時間, 場所, 条件에 따라 変化하는 牽制関係로 発展되고 있다.

㉲ 相互競争

이 또한 政治, 経済, 軍事面으로 多辺化되었다.

㉯ 美・日同盟

理論上 '完全히' 均衡된 4強関係에는 激甚한 対立이나 同盟이 없어야 할 것인데 美・日同盟関係가 存在하며, 現在의 経済的인 対立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関係는 政治, 軍事 및 経済的인 理由로 相当期間 存続될 것이다.

㉴ 中・蘇対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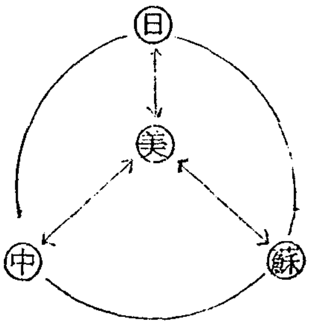
限定的 和解 및 戦争도 可能하겠지만 現在의 対立関係는 相当期間 持続될 것이다.

㉵ 日本의 対蘇 및 対中共接近의 限界性

日本의 中・蘇, 특히 中共과의 接近可能性이 相当히 論及되고 있으나 政治, 経済 및 軍事的인 理由로 接近에는 相当한 制約이 따를 것이다.

(4) 4強関係의 形態와 秩序

㉮ 形 態



㉰ 秩 序

① 現状維持의 秩序

② 軍事力 使用의 限界性을 보이는 秩序

③ 直接介入이 抑制되는 秩序

④ 友邦에 대한 支援(비록 制限되더라도)이 持続되는 秩序

⑤ 美・中・日이 提携하는 秩序

⑥ 弱小 Player(例:韓国, 北傀)이 限定的인 拒否権을 行使할 수 있는 秩序

(5) 現関係의 変化要因과 展望

㉮ 美・蘇関係의 悪化

㉯ 美・日関係의 悪化

㉰ 美・日・中同盟関係의 展開

㉱ 日本의 再武装

㉲ 中共의 好戦略線追求

㉳ 中・蘇関係의 好転

㉴ 中・蘇戦争

㉵ 蘇聯의 対亜細亜進出의 劇的 拡大

㉶ 韓国戦争

(6) 4強関係와 韓半島

(가) 全般的 関係와 韓半島

(나) 4強国의 雙務的 関係와 韓半島

(다) 4強의 韓半島戦略

(라) 韓半島의 位置

(마) 韓国에 미치는 影響

(바) 韓国의 可能한 選択

東北亜秩序再編成에 따르는 이데올로기變化의 展望

최 상 용

1. 序

第2次世界大戰後 33年, 그동안 東北亜를 中心으로 하는 国際関係는 놀라우리만큼 変模했다. 그동안 이러한 東北亜情勢의 変化를 「힘」의 側面에서 分析한 研究는 많으나 이데올로기의 側面에서 說明, 解釈하는 試図는 퍽 부진한 감이 든다. 이데올로기를 힘의 단순한 外交로 보든, 그 独自的 機能을 중시하든간에 前後美蘇冷戦이 集中的으로 반영된 東北亜国際政治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脈絡을 完全히 배제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小論은 東北亜秩序再編成에 따르는 이데올로기変化를 展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戦後 東北亜国際政治에 나타난 몇가지 挑戦내지 딜레마의 意味를 解読해 둘 必要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이른바 核의 逆説의 問題이다. 核은 史上 空前의 殺傷力을 가지고 있는 武器로서 1975年 現在 美国이 保有하고 있는 核만해도 「히로시마」型原子弾의 61萬倍 以上의 威力을 가지고 있으며 蘇聯도 이와 거의 맞먹는다고 하는 그야말로 論理的 説明의 限度를 넘는 核의 逆説状況 속에서 우리가 生存하고 있다는 점이다. 韓半島를 核心으로 하는 戦後 東北亜国際秩序 形成의 장본인인 美国과 蘇聯이 바로 이 核武器를 使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딜레머속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자 恐怖의 均衡상태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이 現狀이다.

둘째 体制이데올로기의 不毛性이다.

東北亜국제질서형성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西側의 미국과 일본 한국등은 자국내부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중공, 소련등 사회주의국에 수반되는 자유의 억압, 관료화 비능률등의 약점을 비판함으로서 자국의 체제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는 정당화하고 있고 소련 중공 북한등은 자국내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있지못하면서 자본주의에 따르는 인푸레生産, 不況등의 약점을 비판함으로써 자국의 체제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東北亜국제정치의 주요행동자인 미국·일본·한국과 소련 중공 북한은 그 어느 편도 전면적인 호소력이 있는 体制이데올로기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이 現狀이다.

세째 민족주의의 범람현상이다. 오늘날 東北亜국제정치에 있어서 미·소·중·일등 주요국가들은 人類를 상징으로하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자국의 특수한 이익에 바탕을 둔 다양한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들 선진국들이 최근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하여 公海를 분할하려고하는 행위는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아시아·아프리카 영토분할전에 참가한 19세기 구라파 제국주의제국들의 행동양식을 방불케한다. 이러한 대국주의

적 민족주의에 대응하여 中·小国 특히 남북한은 그 나름의 민족주의적 주의·주장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2. 東北亜 国際体制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変化

1) 東·西의 両極化――그 이데올로기적 의미―

제2차세계대전후 미소냉전은 「힘」의 대립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국제정치를 권력정치로 파악했을때의 힘이며 군사력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도 인식론상의 범주인 이른바 정치적이데올로기에 한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전후 2개의 보편적 신념체계인 자본주의·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즉 정치체계에 가치와 근거를 부여하는 신념체계인 것이다.

물론 힘과 이데올로기의 二重対立의 성격을 지닌, 이른바 국제적 내전(S·Neumann)을 16·7세기의 종교전쟁이나 18세기말 나포레옹과 원체제의 대립에서도 나타나나 제2차대전후의 미소냉전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역사적 선례에 없는 特質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군사력의 세계적(global)인 양극화란 점이다. 사실 소련은 1945年 후반부터 核병기개발을 개시했고, 1949年 처음으로 核을 보존하기이전에도 강대한 육로만으로 미국과 대항할수있는 유일한 대국이었다. 이점이 바로 전후 동서냉전이 국제적 양극화로 나타난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그래서 미소냉전에 의한 군사력의 양극화는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고정화되어 각국의 정치권력이 이 두개의 極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던 것이다.

둘째 군사력에 의한 세계적 양극화가 이데올로기의 전체적(to-tal)인 조직화와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미소가 다같이 인류전체와 해방을 이념으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대립이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었다. 이 점은 특정한 정치적이데올로기와 무관했던 공산주의시대 군세유럽제국에서 볼 수 있었던 無이데올로기적인, 적나라한 힘의 대립, 갈등과는 그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미주는 자유민주주의, 정확히 말하면 미국식민주주의만이 세계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소련은 공산주의만이 인류해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다같이 전체적 이데올르기에 기반을 둔 메시아니즘이었다.

2) 東·西陣營內部의 이데올로기적 多元化

그런데 군사력에 의한 국제적 兩극化과정에는 애당초부터 중대한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다. 미·소의 힘의 양극화는 미소와 다른 동맹국과의 사이에 군사력의 압도적인 차이 다시말하면 核병기가 존재함으로서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核병기는 그 파괴력때문에 군사동맹도 결코 방위를 보장할수 없게 되어 군사동맹의 내부관계가 점점 이완되었던것이다. 이처럼 미·소의 核의 보유가 방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는 조건하에서는 동맹의 조직화가 긴밀할수록 미소의 대국주의에 대한 동맹내 여러 나라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동맹내긴장은 이를테면 드골이 위싱톤으로부터 독립하고, 서독이 東方정책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東北亜국제정치와의 관련에서 보면 그 전형적인 형태가 中蘇理念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군사블럭의 이완내지 붕괴는 동맹국의 민족주의로 나타났고 이 민족주의는 東·西진영내부로부터 이데올로기의 多元化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제 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민족주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 공산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심지어 국내에서 공산당을 탄압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해서도 경제원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도 동맹국의 민족주의를 공인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미국의 반공정책에 동조하지 않은 나라는 무조건적으로 간주한 이데올로기의 一元的 조직화를 수정하고 共産主義이데올로기의 다원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東·西間의 多元化 組織化

50년대후반부터 진행된 東·西양진영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다원화는 70년대에 들어와 美·中 화해를 기점으로 하여 日中平和友好条約의 체결에 이르러 東·西진영 상호간의 다원적 조직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50년대말에서 60년대까지는 40년대말에서 50년대중반까

지의, 양극화체제가 一方의 核 또는 一方의 진영內部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다원화 즉 공산진영내부와 서방진영내부의 다양한 민족주의의 전개로 나타났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와서는 60년대까지의 다원적 민족주의에로의 이행으로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極과極陣營과 陳營間의 多元化 조직화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있는 미국과 일본이 제각기 공산국가 중공과 화해 또는 조약체결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때 日中平和友好条約을 東·西冷戰이 힘및 이데올로기의 양면에서 붕괴해버린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됨으로써 금후 점차적으로 東北亜状序形成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選択의 混迷를 가져오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3. 結語東北亜속의 韓国

우선 힘(Power)레벨에서 보면 東·西진영內部, 또는 陣営 相互間의 多元化 조직화에따라 冷戰型權力対立에서 南北韓의 両 regime 間의 적나라한 權力 (힘의 경쟁)의 양상을 띨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불안정하여 一時的으로 局地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정책방향설정여하에 따라서는 冷戰時代보다는 対話와 交涉의 可能性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데올로기의 레벨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南韓의 정치이념의 北韓에로의 확대나 북한의 공산주

의이념에 의한 한반도 變化전략의 대립이라기보다 민족주의의 상징이나 가치를 어느쪽이 先取하여 실현하느냐하는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深化될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東北亞秩序形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 소 일 중등 강대국이나 한반도의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택하는 이데올로기는 국가이성, 국가이익에 토대를 둔 민족주의에로의 경향이 농후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蘇의 世界戰略－80年代의 美·蘇競爭相의 展望的 考察

The Global Strategies of the U.S. and the Soviet Union.

－ the Prospect of the U.S. － Soviet Competition in the 1980s －

研究執筆責任：金 洪 喆

（略歷） 서울大文理大政治学科 卒業

및 同大学院 碩士（1959年）

및 同大学院 博士（1976年）

現在 漢陽大法政大 政治外交学科長

（1973年부터）

目　　　次

(一) 研究目的과 研究方向 - 序章에 붙여서 103

(二) 現段階의 国際還境変化様相 - 특히 世紀的 軍事環境 変化与件에 沿하여 106

(1) Si vis pacem, para bellum 의 時代相 106

(2) 美蘇의 世界戦略과 現段階의 国際環境 変化実相 - 政治・経済・外交的 局面 112

(3) 美蘇의 世界戦略과 軍事的 国際環境変化의 意味賦与 123

(三) 美蘇의 世界戦略과 安保政策 128

(1) 蘇聯의 世界戦略과 安保政策 128

(2) 美国의 世界戦略과 安保政策 139

註 147

(一) 研究目的과 研究方向

- 序章에 붙여서 -

本主題의 硏究는 다음에 記述하는 몇가지 事項들을 留意하면서 나의 문제의식을 処理하였다. 이 研究의 主目的은 韓半島周辺情勢의 長期展望分析의 一環으로서 80年代에 展開될 美蘇의 世界外交戦略의 基本方向과 그 展開様相·類型의 展望的 考察을 試図해 둠으로서 美蘇世界戦略의 総体的 스타일과 島瞰図를 把握하여 그것들이 장차의 韓半島事態転変에는 어떤 방식으로 投映되올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独自的인 韓半島의 位置意識을 再確認하고, 80年代를 貫通하게될 韓国의 生存·繁栄·安全保障을 為한 長期政策構想과 当面政策立案·樹立에 寄与하고 参考的 考慮事項으로 資코자 하는데 있다.

現時点의 世界秩序는 적어도 時間的으로는 이제 70年代를 서서히 清算하면서 다가오는 80年代를 指向하는 世界情勢変動의 소용돌이 속에 処해 있는 것이다. 이같은 状況속에 美蘇를 포함한 이른바 周辺列強의 利害関係가 직접간접으로 複雑하게 얽혀있으면서 世界政治上의 非常한 関心·問題地域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韓半島이다. 이 韓半島 안에는 南北韓이 対決하고 있는 事実上의 두개의 韓国이 存在하고 있다. 말하자면 韓半島는 美蘇의 世界政治外交戦略上의 常数的 要因과 可変数的 要因들이 민감하게

投映되는 가운데 対内的으로는 南北韓이 対決秩序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南北韓間의 共同努力을 前提로한 韓半島平和定着建設의 民族的 中興事業을 이룩하여 祖国의 平和的 統一課業을 成就시켜야할 기틀마련의 어려운 試錬을 겪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与件속에서 韓国民은 平和的 祖国統一의 実質的 基盤造成을 為해 国力極大化作業을 통한 富国自強과 名実相符하는 自主独立的 自我安全保障을 構築하려는 国民的 精力을 쏟고있는 마당에 있다.

때문에 이 研究는 美蘇의 世界外交戦略의 長期展望的 側面을 分析考察하여 이것을 韓半島周辺情勢 변동의 基本方向을 把握하고 理解하는 일과 聯関지으며, 아울러 80年代를 指向한 韓国의 富国自強과 自主安保를 為한 実践努力을 펴가는 長期的 정책구상・立案에 寄与될 것을 希望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研究를 為한 方向摸索의 立場으로서 다음 事項들을 留念한 것이다.

① 이 研究는 우선 美蘇의 世界戦略의 実相把握에 焦点을 모아 検討分析하고, 그 結果事項들이 韓半島事態転変에는 어떻게 投映돼 갈 것인가를 間接的 方法으로 示唆해주는 総体的 鳥瞰図를 엮어보는 立場을 取했다.

② 이 研究에 있어서는 80年代의 世界政治秩序의 運営方式도 基本的으로는 70年代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말하자면 美蘇間의 世界覇権 争奪競争의 時代相의 展開로 把握하고 理解하였다.

③ 現段階의 世界政治秩序는 如前히 「超強大国秩序」로서의 美蘇의

世界外交戰略이 秩序의 스타일을 決定하고 推進하는 支配的 存在라는 事実을 먼저 認識하였다. 그 속에서 現実的으로는 自己中心的인 世界覇権」(world hegemany) 掌握을 為해 美国과 蘇聯은 競争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名分論上으로는 現代科学文明과 武器革命이 齊来한 무서운 核破壊力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派生된 諸般局面展開를 勘案하여 人類共益의 普遍主義(universalism)를 強調的으로 내세우면서 필경은 美蘇中心의 철저한 個別国益(natinal-interst)観念에 没頭하는 가운데 共存과 対決, 競争的協力, 互恵的 安全을 為한 世界政治를 指導하고 経営하는 판국에 있다. 이 研究는 이같은 美蘇의 世界国交戰略의 実践的 局面과 論理, 그리고 名分論的 側面을 다같이 留意하고 剔抉해 둠으로써 美蘇의 世界戰略의 総体的 모습을 鳥瞰하는 方便으로 看做하고 処理하였다.

④때문에 이 研究는 위와같은 美蘇의 世界戰略을 「世界支配」를 為한 戰略展開의 競争的 스타일로 看取하였으며, 이를 立証할 目的으로 먼저 現段階의 軍事的 国際環境変化의 真面目과 実相把握을 為해 集約的으로 誘導해 나갔다. 그리하여 美蘇가 共히 각기의 「世界支配圈」을 拡大·争奪·保全키 為한 戰略目標 達成의 実践命題라 할 수 있는 Pax Americana 와 그 安全保障策 및 Pax Societskaya 와 그 安全保障策의 個別的 모습을 묶어서 考察해 본 것이 이 研究論文의 主要内容이다.

(二) 現段階의 國際環境變化様相

-특히 世紀的 軍事環境変化与件에 沿하여-

(1) Si vis pacem, para bellum 의 時代相

今世紀에 접어든 世界国民들은 両次의 世界大戦争을 体験하였으며 두서운 戦争의 惨禍를 만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国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할 目的으로 国際聯合이 創設됐으며, 実로 「우리 世代동안에 두번이나 人類에게 未曾有의 悲哀를 가져다준 戦争의 惨禍로 부터 다가오는 다음 世代들을 救出하기 위하여 国際聯合国民들은 決議」(註1)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以後의 世界国民들은 如前히 戦争과 平和의 갈등속에 30餘年을 살아왔다. 특히 冷戦이라고 하는 「平和的 熱戦」속에 戦争事端과 国際紛争은 끊일 날이 없었다. 가령 1945年에서 1970年까지 25年동안만을 두고 볼때 이 동안에 벌어졌던 国際的 規模의 戦争事端들은 無慮 50回種을 記録했다. 적어도 1年에 2回의 戦争事端이나 国際紛争事態가 이 地球上의 어디에선가는 벌어졌다는 計算이 된다. 50年代의 韓国戦争도 이 동안에 있었던 戦争事端의 代表的인 하나이다. 이 경우 특히 指摘해 두어야할 것은 위의 대부분의 戦争事端이나 国際紛争들은 這間의 冷戦史를 主導的으로 料理해온 美国과 蘇聯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関係되지 않은 것은 거의 皆無하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美蘇의 強力한 영향력이 世界政治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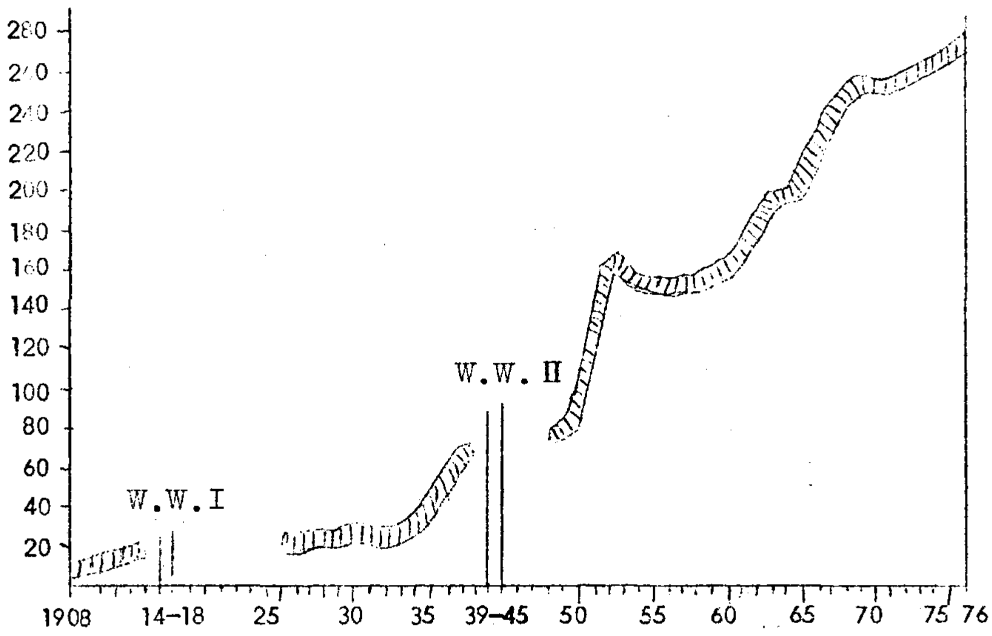
석구석에 波及되고 뿌리를 박아왔다는 事実이라 하겠다. (註 2)

그러는 사이에 現代史는 엄청난 軍備增強의 競争史로 点綴됐다. 軍備競争의 量的 測定은 投入軍事費 (国防費)의 計算을 통해 把握하게 되는 것인데, 1976年의 世界軍事費 総計는 約 3천 3백 40억 $이고 보면 이는 経常価格으로 따져서 1900年 以来로 無慮 3,000%나 增加된 数字인 것이다. 다음 表 1 은 世界軍事費의 增強推移 (軍備競争 強度)를 一目瞭然하게 보여주고 있다. (註 3) 특히 表 2 에서 보는 바와같이 美蘇가 盟主로 돼있는 主要集団防衛体制인 NATO 와 WTO 의 軍事費는 1976 年度 世界軍事費의 約 70%를 차지한다는 事実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리고 美国과 蘇聯은 世界各国의 国防費支出比較에 있어서만 보드라도 그 絶対額은 단연 首位競争圏内에 있는 唯一한 両超強大国임을 알 수 있다. (註 4)

이같은 状況속의 世界環境에 있어서 결국 大小強弱国間의 치열한 軍備実力增強競争은 각자의 安全保障과 生存을 為한다는 「正義의 戦争名分」 (bellum justum)論으로 自己正当化하고 모든 手段을 動員하여 追求하는 「国家利益과 安全」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으로 帰依하고 만다. 그리하여 実로 「만약에 그대가 平和를 願하거든 모름지기 戦争을 準備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고 외친 古代先人의 実践論的 標語가 現今時代에 通行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自我生存(survival)의 手段으로서 막강한 威力을 発揮하는 時代相 속에 우리는 살고

<表1>　　　世界軍事費　1908 ～ 1976（1973経常価格）

単位：10億US$



Source: Warld Armaments-The Nuclear Threat, SIPRI, 1977, P.6 (table) 에서.

<表 2>　世界軍事費， 1956 - 1976　単位：100萬US$, 1973 価格 및 換率

年度 / 区分	1956	1960	1965	1970	1975	1976
USA	66,234	68,130	72,928	89,065	75,068	77,373
Total NATO	97,479	99,180	110,085	127,450	120,719	124,232
USSR	31,600	32,700	44,900	63,000	61,100	61,100
Total WTO	34,200	35,658	49,498	70,498	71,307	72,107
World Total	152,292	158,086	198,845	254,130	268,220	276,031

Source: World Armaments - The Nuclear Threat, P.7 (table) 에서.

있다. 그야말로 平和의 「파라독스」만이 판을 치는 事実上의 戰争状態(state of war)속에 昏迷한 日常을 経営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人間들의 모습이고 時代相이며 強大国世界政治 秩序이다. 말로는 多根化니 多元化時代다. 또는 世界平和요 和解時代이며 平和共存과 緊張緩和의 要請時代라고 떠들어대지만 現今時代의 根本을 따지고 들자면 究竟은 Pax Americana를 為한 美国의 世界戰略時代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Pax Sovietskaya를 為한 蘇聯의 世界戰略이 支配하는 両超大国의 全盛時代로 圧縮되는 따름이다. 말하자면 美国과 蘇聯은 如前히 現今時代秩序의 政治環境・経済環境・軍事環境 및 外交環境을 主導的으로 変化시키고 이끌고 가는 으뜸가는 存在이고 그야말로 竜虎相搏의 美蘇競争時代이다. 「戰略」이란 本是 戰争에 있어서 相対方 敵에게 勝利하기 為하여 我方의 모든 軍事手段을 運用하는 術인데, 그 軍事手段의 가장 実質的인 現在的 要素는 軍事力이고 武器体系인 것이다. 美蘇間의 競争時代는 바로 이 戰略運用手段의 自己発展的 競争相으로 代辯할 수 있다. 이 일을 立証하는 것이 다음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은 這間의 美蘇 両国間 戰略武器 実力競争対決相으로 나타났다.(註 5)

그 競争속에는 각기의 経済発展과 번영을 為하여, 그리고 軍事科学技術을 비롯한 防衛力整備強化 目的의 質量軍備競争, 武器販売通商競争의 激化 등이 빼놓을 수 없는 主要競争事項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世界武装化」를 促進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연한 国際干渉을 図謀하는 大国主義・覇権主義로서 世界政治를 経営해가는

<表 3>　美・蘇戦略　核武器保有競争推移：　1968 ~ 77.7월 1일　現在

区分	年度別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総爆撃機数	美国	642	592	545	545	496	496	456	435	414	414
	蘇聯	15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総核潜艦数	美国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蘇聯	11	17	22	29	35	42	50	53	55	60
総 SLBM 数	美国	656	656	656	656	656	656	656	656	656	656
	蘇聯	59	155	248	360	456	564	664	700	732	812
総 ICBM 数	美国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蘇聯	900	1,200	1,498	1,527	1,527	1,547	1,567	1,587	1,552	1,452
総爆撃機 및 미사일数	美国	2,352	2,302	2,255	2,255	2,206	2,206	2,165	2,145	2,124	2,124
	蘇聯	1,109	1,495	1,886	2,027	2,123	2,251	2,371	2,427	2,424	2,404
爆撃機 및 미사일 核弾頭総数	美国	4,200	4,200	4,000	4,600	5,700	6,784	7,650	8,500	8,400	8,500
	蘇聯	1,100	1,350	1,800	2,100	2,500	2,200	2,500	2,500	3,300	4,000

Source: World Armaments-The Nuclear Threat, SIPRI, Stockholm, 1977, P.19.

(table)

雙頭走者馬車이다.

(2) 美蘇의 世界戰略과 現段階의 国際環境変化 実相

(政治, 経済, 外交的局面)

먼저 政治・経済・外交上의 環境変化 実相을 点検해 둔다. 勿論 이 일은 美蘇의 世界支配戰略(global policy) 具現의 基本構想과 連結되고 同時에 両超強大国의 世界戰略 実践目標上의 相対的인 意味의 共通分母와도 直結되는 문제이다.

우선 政治的・外交的 諸局面의 환경변화 実相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美蘇는 共히 非戰非和의 基本実践目標를 두고 平和的인 方法과 手段을 動員한 각기의 個別的인 政治이데올로기의 汎世界化 및 伝播・拡散・移植競争을 통해 窮極的인 自己勝利를 争取하려는 試図努力面에서는 冷戰時代의 実践努力과 共通되고 現在와 未来의 共通分母로 作用하고 있다. 다음은 각기의 政治体制中心主義의 世界化実現과 어디까지나 美蘇両国이 主導하는 超強大国中心의 각기의 個別的인 世界政治舞台에서의 影響圏拡大発展・図謀에 熱中하고 있는 事実을 들 수 있다. 勿論 이 과정에서도 美蘇는 각기 Pax Americana 와 Pax Sovietskaya 를 為하여 때로는 国際干渉을 断行하고 때로는 선택적으로 強制力을 発動하여 集団的 또는 雙務個別的 協力体制를 育成強化하고 第3世界圏의 諸国들을 자기편으로 吸収団合시킬 수 있는 交渉努力을 増進・競争하게 된다. 그리하여 世界政治의 経営戰略에 있어서 互恵的 実利(Parallelism

of interest)主義를 強調하면서 權益의 均配指向的 政策競争속에 美蘇関係의 虛虛実実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저러한 問題들은 다음 몇가지의 世界政治的 国際環境変化속의 時代的 要請事項으로 浮刻되었으며 美蘇의 世界戦略 運営上의 共通分母로 集約돼 왔다. 첫째가 東西体制間의 平和共存 追求이다. 이는 冷戦的 体質改善을 為해 標榜되는 名分인데 現実的으로는 「冷戦的 平和秩序」(Cold peace)라는 意味가 底辺에 깔려있는 것이기도 하다. 政治이데올로기 戦争의 過渡的 概念(transctional concept)을 導入하여 이데올로기의 감정적 鈍化現象을 強調하는 가운데 비록 이데올로기上의 「共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冷戦時代처럼 이데올로기를 雙方이 共히 世界政治의 最前面에 내세우지 않으며 互恵的 実利를 担保하는 名分的 性格이 強烈하다. 때문에 実際的으로는 치열한 軍備競争現象에서 立証되고 있는바와 같이 如前히 Si ois pacem, Para bellam 의 時代感覚이 支配的이다. 둘째는 美蘇覇權競争을 為한 勢力均衡策의 図謀이다. 이 世界에서는 각기의 勢力圏의 拡大保全原則과 각기의 体制秩序의 頂上国家로서의 地位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基本原則 固守態度가 共通点이다. 勢力均衡策은 곧 平和共存과 데땅뜨時代秩序 具現의 現実的이고도 実用的인 手段으로 看做하는 것이 美蘇의 立場이다. 이 문제는 또한 美蘇가 共히 世界支配戦略運営의 実践意志로 標榜되는 이른바 世界戦略독트린 - 例컨대 닉슨·독트린 등으로 代表되는 바와 같이 - 을 遂行하는 補弼手段으로 作用하는 것인데 自己의 実

践意志를 世界政治局面에서 実現시키기 為한 強制措置로서 各種의 国際干渉(international intervention)을 自己正当化 乃至는 我田引水格으로 諒解하는 일이 通例이다. 이 勢力均衡策을 図謀하는 속에는 相対方의 世界政治上의 決定的 利益(vital interest)이 関係된 紛争地域問題나 事案에 対해서는 이를 無理한 方法으로 그리고 根本的으로 相対方의 権益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争奪独占하는 일은 지극히 삼가는 相対的인 政策考慮를 하는 것이 相互競争의 特徴이기도 하다. 따라서 窮極的으로는 自己中心的 最後勝利를 為한 信念과 目標設定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互恵実利를 追求하는 策略이 勢力均衡策이다. 세째로는 「現状維持」의 문제이다. 이 현상유지는 Status guo post bellum 을 意味한다. 말하자면 諸種의 戦後処理問題들에 関하여 這間에 美蘇가 中心이 되어 해결해 보려고 努力해온 結果事項을 놓고 그것들이 이미 解決状態이건 아니면 未決状態이건 간에 적어도 現時点에 処해 있는 現状을 物理的으로 変更하지 않고 당분간 維持해 간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美国과 蘇聯의 国際責任이 決定的으로 作用하였던 分断国家問題処理 方向에 直接的이고도 至大한 영향을 주는 世界経営方式의 標語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美蘇가 直接 충돌하는 事態로 問題処理가 発展・拡散되지 않는 範囲内에서 世界의 紛争地域에 있어서의 「局地制限的」인 基本原則에 立脚하여 最少限度의 軍事的 措置(military confrontation)를 配慮하는 일은 美蘇雙方이 共히 排除하지 않는다. 大局

的으로는 世界地域紛争問題를 平和的 方法 즉 外交的 交渉方法을 통해서 処理·妥結해 나간다는 基本方向에 基礎하여 現状維持政策을 具現하는 일이 原則的인 諒解事項으로 돼있는 것이다. 네째로는 緊張緩和策의 図謀라는 점에 있어서도 美蘇가 世界戦略에 臨하는 共通된 態度이다. 이 문제는 叙上한 바와 같은 平和共存·勢力均衡·現状維持 및 데땅뜨時代背景 具現의 必要充分 条件으로 看做하는 것이다. 要컨데 「緊張高潮」的이었던 冷戦秩序의 体質改善과 名実相符한 和解時代를 구축하기 為해서는 理論的으로나 実際的으로나 緊張緩和만이 現実的 要請을 充足시킬 수 있는 手段方便으로 強調되는 理由이다. 말하자면 軍事的 方法의 世界紛争問題 解決指向方式은 非現実的이라는 事実을 立証해주는 때문이다. 緊張緩和策이 강조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자연히 実用主義的 実利優先을 世界政治·外交의 前面에 내세워 強調하게 되며, 때문에 政治이데올로기의 過渡期的 鈍化現状을 暗黙的으로 諒解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軍備競争에 있어서 防衛産業이라든가 武器体系·軍事科学技術등 所謂 「軍備의 質的 競争」은 꾸준히 持続한다는 相互的 立場이 前提돼 있다. 緊張緩和를 통해 経済協力·技術協力·文化交流増進도 拡大 増幅할 수 있는 것으로 諒解되고 있다. 그리고 緊張緩和策을 図謀하는 政策努力이 支払되는 가운데 나타난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美蘇間의 오랜 懸案問題인 SALT協商過程에서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互恵的 安保概念 및 雙務的(bi-lateral) 하고 각기의 특수한 事情과 形便을 勘案(Sui generis原則)한

協力에 基礎 「自律的 軍備統制」方式을 合理的으로 模索하려는 努力이 꾸준히 支払돼가고 있는 事実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緊張緩和를 진정으로 促進하기 為하여는 世界紛争問題를 解決模索하는 마당에 있어서 関係当事者間의 直接対話와 交涉方式을 바탕으로한 関係列強間의 協調가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게 됐으며, 나아가서는 기왕의 冷戦時代와는 달리 群少国家의 外交的 裁量権을 拡大賦与하며 外交活動舞台의 拡大를 為한 選択幅을 넓혀주는 환경여건 조성에 幅넓은 아량을 베풀고 있는 점이 美蘇의 공통된 世界経営 戦略이다. 이 점은 확실히 冷戦時代에는 도저히 想像할 수 없었던 現今의 外交的 국제환경 변화의 焦点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같은 外交的 환경변화의 傾向은 80年代에 접어들어서는 더욱 活性化해갈 것이 展望되는 일이다. 끝으로 言及해둘 일은 美蘇가 共히 그들의 世界支配経営戦略을 서로 競争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일이 可及的이면 安定된 与件속에 進展되기 為하여서는 世界局面의 「長期的 軍事安定과 均衡」策을 図謀하는 일이 彼此의 利益이고 相互的 安全을 担保하는 길이라고 看取하고 있는 점인 것이다. 美蘇間의 이른바 「軍事的・戦略的 均衡」(military & Strategic parity)의 成就를 위한 조치가 적극 強調되고 있는 理由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일이 成就되기 為한 구체적 方案으로 다음 몇가지의 共通된 努力이 集約되고 있음을 注目하게 되는 것이다. 즉 NATO와 WTO등 所謂 代表的인 集団防衛体制의 軍事目的 優先의 冷戦的 存在機能을 데땅뜨時代에 符合하고 政治目的 우선의

活性化를 為한 体質改善으로 方向転換시키려는 試図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은 対決状態에 있는 紛争地域 国家間의 軍備競争을 相互的으로 自制하도록 종용하는 일도 美蘇의 紛争地域 経営의 共通된 態度이다. 그러기 때문에 각기의 友邦国家에 対한 각종형태의 軍事援助라든가 武器需給策을 競争的으로 実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각기의 軍事支援이나 武器需給이 美蘇間의 本質的인 均衡을 破壞할 만큼의 모험은 되도록 회피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自動的으로 紛争当時国間의 軍事的 均衡措置를 念頭한 政策配慮를 하는 것이 特色이다. 특히 이 일에 관한 一例를 韓半島의 경우에 본다면 這間의 美蘇의 競争的인 対韓半島(南北韓)武器需給 実態에서 위의 일이 立証되는 것임을 注意해둘 必要가 있다(註 6)

다음은 世界核政策問題이다. 이 문제는 다음 事実傾向이 重要하다. 비록 1970年3月부터 発効段階에 들어간 「核武器拡散禁止条約」(NPT)이 健在함에도 不拘하고 実際에 있어서는 해마다 核保有可能潜在国家数가 増加一路에 있는 형편에 있다.(註 7) 그렇기는 하지만 美蘇의 世界核戦略上의 必要에 依해서 核武器의 横的인 無限定 拡散은 禁制하려 드는 것이 基本原則이다. 「核으로부터의 保護」(nuclear safeguards)라는 名目下에 NPT의 実効性있는 援用을 強調하면서 核物質의 拡散과 生産의 統制・監視・그리고 国際協約의 遵守를 強要하는 가운데 核拡散禁止를 종용하는 판국에 있다. 이로 因하여 結果的으로는 群少国家의 独自的인 核

能力開発政策에 制動을 加하는 일이 昨今의 国際通例로 浮刻되고 있다(註8) 그러면서 美蘇는 共히 核戰略能力面에 있어서나 一般目的兵力(general purpose forces)面에 있어서 世界에 으뜸가는 超強勢力으로 君臨하려는데에 共同歩調를 取하는 競争関係인 것이다. 때문에 美蘇는 雙方間의 戦略的 均衡·安定基調를 確立하기 為하여 「戦略的 合意」(strategic agreements)에 到達하기 為한 政策努力이 支払되고 있는 것도 事実이다. 這間의 SALT 문제는 그 代表的 例라고도 말할 수 있다. 勿論 国家間의 協定에 依한 「合意」라는 것은 「不合意의 合意」(agreement to disagree)라는 意味가 함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SALT가 당장 어떤 合意를 成就시켰다고 前提하드라도 그것이 언제 어느때 破棄돼 버릴 것인지는 아무도 豫測不許의 事端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SALT 妥結에의 動機와 目的은 어떤 형태로든지 美蘇間의 戦略的 均衡을 確立해 놓아야만 彼此의 利益이 된다는데서 出発한 것이었다. 즉 相互抑制力의 均衡된 安定基盤造成이 急先務이며 이 安定基盤이 적정시기에 구축되지 못할 때는 서로 開発競争을 서둘르고 있는 새로운 武器体系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戦略的 均衡이 一時에 깨질 可能性이 多分히 있는 것이고, 현저하게 発展돼가는 中共의 核能力을 견제할 길이 莫然해질 것이며, 超強大国으로서 美蘇가 核軍備競争의 自制措置를 통한 장차의 核軍縮의 方向과 基礎를 다져놓지 않을 경우 増加一路에 있는 核能力国家들에 対한 効果的인 統制의 길이 막히게 될지도 모를 일을 우려해서 結局

SALT 妥結의 軌道가 부설되고 結末의 時期가 臨迫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美蘇에게 共通되는 SALT 妥結에의 動機賦与는 곧 実効있는 相互抑制가 可能한 安定된 均衡의 維持, 이 均衡을 破壞할지도 모를 武器開発의 防止, 防空 및 戰略武器開発・製作生産에 所要되는 莫重한 軍備費・財政負担의 逓減을 実現할 수 있다는 몇가지 점으로 圧縮되는 것이다(註9) 어떻든 美蘇는 核-通常武器 軍備競争政策上의 諸般 딜렘마를 克服하기 為해 多方面에 걸친 軍縮政策努力을 強調하는 가운데 長期的 軍事安定과 均衡策을 図謀하는 일이 곧 叙上한바 있는 平和共存・現状維持・緊張緩和 및 勢力均衡策 具現의 基礎로 看做하면서 現在와 向後의 世界戰略을 짜나가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美蘇의 世界戰略이라는 視角에서 본 経済的 環境変化의 圧縮된 一断面을 分析해본 것이다. 本是 世界経済와 世界政治는 軍事를 포함해서 不可分離의 相互関係에 얽혀 있는 것인데, 今世紀의 世界資源戰争은 世界経済의 환경변화를 促進하는 要因의 하나로 浮刻됐으며 資源戰争은 곧 世界政治問題化되고 있는 것이다. 世界의 人口는 날로 增加되는 마당에 있고 資源의 消費性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相対的으로 世界의 資源埋蔵量은 날로 줄어드는 형편이고 어떤 것은 不遠하여 바닥이날 推定埋蔵量이 提示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資源내쇼날이즘」이 盛行하고 있는 今日에 있어서는 치열한 資源戰争으로 因하여 国際的 安全保障 秩序를 뒤흔들어 놓는 軍事的 충돌과 戰争事端들이 끊일 사이없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中東-아프리카 등 各種의 天然資源宝庫地域에 있어서의 資源戦争은 더욱 치열하다. 이같은 資源戦争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가장 密接한 関聯을 갖고있고 또 主動的 役割担当者는 如前히 美国과 蘇聯이다. 그런데 資源問題의 大宗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資源이고 그중에도 石油資源은 石炭과 더불어 今世紀의 에너지資源의 主軸을 이루는 것이다. 이 資源戦争이 날로 激甚해가는 理由는 단적으로 말해서 需要와 供給의 不均衡 때문이다. 이 不均衡은 또한 世界需要가 無限大幅으로 늘어나는데 比해서 世界埋蔵量은 有限이기 때문이다. 가령 世界의 主要鉱物의 경우 1970年 現在의 消費量 水準을 基準삼아 볼때, 亜鉛의 世界埋蔵量은 앞으로 10年 乃至 15年이면 동이날 것이고, 銅은 23年内에, 石油는 20年 乃至 30年内에 고갈될 것이며, 鉄鉱의 경우는 現在의 年間消費量 水準만을 勘案한다 하여도 앞으로 50年이면 世界埋蔵量은 바닥날 것으로 豫測할 정도이다(註10) 어떻든 世界의 에너지·갭은 날로 벌어져가고 있는 때문에 특히 에너지資源戦争은 激甚해갈 公算을 안고 있는 것이며, 그 정도가 격심해지면 그럴수록 美蘇間의 世界資源을 둘러싼 競争과 갈등은 深化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資源戦争이라는 視角에서 생각한다면 특히 石油資源의 集中的 宝庫地域인 中東·아프리카 地域은 장차 美蘇가 介入된 世界資源戦争의 中心的 火薬庫라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世界石油資源埋蔵量의 地域別 分布比에서 볼때 1973年12月31日現在의 世界石油確認埋蔵量에 있어서 第1位인 中東은 世界全埋蔵量의

55.2%이고, 美国을 포함한 北美地域은 世界의 4位로서 겨우 8.1%이며, 第2位는 蘇聯을 포함한 東欧地域(13%)인데, 美蘇가 포함되지 않은 아프리카地域은 第3位로서 世界分布比에서는 10.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겠다. 極東은 5位로서 겨우 5.6%를 차지할 뿐이다(註 11)

그런데 한가지 特記해둘 일은 世界의 武器需給을 都給맡고 있는 나라는 美蘇를 主軸으로한 西유럽의 先進産業国들인데 中東의 四大主要産油国인 이란-이락,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諸国들의 軍事費(主로 武器購入費가 大宗을 이루는데)가 해를 거듭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事実은 昨今의 資源戦争이 몰고온 産油国의 軍備增強 競争을 부채질 해왔음을 示唆해주는 立証資料이다. 가령 이란의 경우 1969年의 軍事費가 約 8억 3천 6백만$ 이던 것이 1973年의 그것은 무려 約18억 2천 9백만$가 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70年의 군사비가 不過 4억 1천 2백餘萬$였는데 73年의 그것은 10억 8천 2백餘萬$를 記録한 것이다(註 12)

다음은 美蘇의 世界戦略上의 経済的 局面에 있어서 冷戦時代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의 환경변화 양상을 指摘해 두고 넘어가야겠다. 그것은 한마디로 通商貿易·資本·技術 등의 諸分野에 있어서 美国을 포함한 西方世界와 蘇聯을 포함한 東欧世界間의 東西交流幅이 특히 70年代 以後부터는 엄청난 速度로 增大해 가고 있다는 事実인 것이다. 특히 蘇聯을 為始한 東欧諸国의 対西方国 負債依存度 및 貿易赤字(入超)의 增大현상은 장차의 東西関

係 定立改善의 스타일을 決定해 가는데도 중요한 영향요소를 作用될 可能性이 至大한 점에서 注目되는 일인 것이다. 우선 단적인 数字上에 나타난 蘇聯 및 東欧諸国의 対西方 負債一覧이다. 먼저 蘇聯을 除外한 東欧의 경우 1970年末의 対西方国 負債(불가리아 첵코슬로바키아-東独-항가리-폴랜드·루마니아)는 58억$였는데 76年末의 그것은 総2백 70億(推定)$였으며, 蘇聯만은 70年末의 그것이 25億$였지만 76年末이 되면 1백 40억(推定)$였다. 거기에 蘇聯 및 東欧·코메콘銀行(CMEA)를 合한 対西方負債는 70年末의 그것이 83억$였지만 76年末의 그것은 무려 4백 53억$로 増大했다(註 13) 그런가 하면 蘇聯의 対西方貿易에 있어서의 入超는 70年의 그것이 4億$에 不過했는데 75年에는 무려 48억$로 增幅했다. 뿐만 아니라 西方諸国으로 부터의 특히 機械類 및 装備類의 輸入実績을 보면 西独·프랑스·美国·日本·이태리 및 英国의 6個国 総計가 1970年에는 7억 9천 4백만$였는데 1975年에는 무려 37억 2천 3백만$을 記録할 정도로 急増해 갔다. 그 중에서도 西独은 首位(1975年度만 13억 4천 5백만$)이고 다음이 美国(같은 해의 美国으로 부터의 機械装備輸入額은 6억 6백만$)인데 美国과의 이 分野의 交易量은 70年에는 겨우 2천 6백만$에 不過하던 것이 75年의 위와같은 急増推勢는 괄목할만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註 14) 뿐만 아니라 특히 美国은 蘇聯에게 技術 및 資本供与支援등을 통해 蘇聯으로 하여금 그 経済的 落後性을 克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支援態勢를 取

해오고 있음은 매우 興味있는 関心事가 아닐 수 없다. 一例로 1973年3月에서 1974年3月 사이에 美国의 輸出入銀行(Exim Bank)과 체이스·만하탄銀行 및 뱅크·오브·아메리카등 私金融機関들이 直接的으로 나서서 大体로 5年~12年 償還期間의 年利6% 条件으로 対蘇技術支援措置(肥料工場·피스톤生産·石油化学工場 등등)를 取한 額数가 総額 約5억$에 肉迫하고 있는 事実을 보여주고 있는 実情이다. 무엇보다도 穀物類를 비롯한 美国의 対蘇輸出増大傾向은 특히 1972年 以来로 美国이 蘇聯으로 부터의 輸入実績에 比해 엄청난 拡大를 보여주었음을 아울러 指摘해 둘 수 있다. (註15) 勿論 이같은 蘇聯의 西方世界와의 経済協力·交流増進의 急変해진 推勢는 大体로 1970年을 分水嶺으로 하여 蘇聯의 対西方経済政策에 있어서 적극적인 「門戸開放政策」의 具現에서 結果된 것이었다(註16) 어떻든 위의 몇가지 事実들은 앞으로도 美国을 비롯한 西方世界 全体와 蘇聯을 비롯한 東欧圏 諸国間의 東西経済協力·技術協力 交流 및 通商貿易関係의 増進努力이 約束돼있는 推勢임을 立証하는 好例들이다.

以上은 美蘇의 世界戦略 속에 깔려있는 経済的 局面의 국제환경변화·推移展望을 別抉해본 것이다.

(3) 美蘇의 世界戦略과 軍事的 국제환경변화의 意味賦与 ――――――

事実을 따지고 본다면 앞에서 点検해본 世界的 規模의 政治的 経済的·外交的 諸局面의 국제환경변화의 決定的 要因인 同時에 状

況転移의 推進体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다름아닌 軍事的 국제환경 변화이다. 그리고 이같은 世紀的 군사환경변화의 推進勢力인 同時에 主動役割을 담당해온 存在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美国과 蘇聯 両超強大国이라는 事実도 우선 留意해 두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今世紀의 군사환경변화를 促進하는 核心的 要因은 바로 現代武器体系의 革命的 異変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武器革命에는 먼저 破壊力의 혁명, 武器運搬手段의 革命, 通信電子武器의 혁명 등으로 크게 分類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른바 中性子弾이라든가 또는 光線武器 및 化学·生物·放射能武器類의 質量改変을 들 수 있다. 本是 世界의 兵器史를 돌이켜 보면 武器体系의 혁명적 발전은 곧 世界政治史의 転変·起伏을 促進하는 決定的인 動因으로 作用해 왔다(註 17)

먼저 破壊力의 혁명에 있어서는 恐怖와 戦慄의 神話를 만들어낸 核破壊力의 登場을 들 수 있다. 原子·核爆弾은 그 代表的 存在이다. 現今時代는 核破壊力의 총아로서 核弾頭를 말한다. 標準核弾頭는 TNT 100萬톤에 해당하는 1메가톤級을 基準 삼는다. 現代를 메가톤時代(megaton age)라고도 呼称한다. 현재 美国과 蘇聯 両超強大国만이 保有하고 있는 実質메가톤 量은 모두 約8천3백메가톤 以上으로 公式集計하고 있다. 世界人口를 約40億으로 잡는다면 美蘇가 保有하는 核메가톤은 TNT로 무려 83억톤이

計算되는데 이는 1人当 TNT 約2톤 以上의 破壊力을 配当可能한 数字이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国과 蘇聯은 共히 계속해서 하루에 数個골의 核弾頭를 生産・製造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実로 人類는 죽음의 火薬더미 위에 올려 놓인채 日常을 営為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에 挙示해둔 表(参照-本稿註5의 美蘇 核戦力比較表)에 보면 지금부터 10年前인 1968年 현재 美国이 保有했던 核弾頭数는 4천3백個였고, 蘇聯의 그것은 1천3백個였는데 1978年 현재는 美国이 1만1천개를 蘇聯이 4천5백개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記録된다.

이 数字를 기준해 본다면 美蘇의 核破壊力은 TNT로 155억톤이 되어 世界人口 毎人当 TNT 約4톤에 가까운 配分量을 算出해 준다.

이렇듯 무서운 核破壊力의 혁명적 改変때문에 全人類의 生存(survival)을 為하여서는 核大戦争과 같은 죽음의 巨大한 墓地위에 永久히 잠자는 「平和」를 건설하는 일 보다는 되도록 大戦争을 피하고, 通常在来式 戦争事態라 하드라도 이것을 局地制限戦争으로 処理하는 일이 世界政治・外交의 主要任務요 課題라고 強調하게 됐다. 그리하여 世界問題의 「軍事的 方式」에 의한 해결방식을 止揚하고 脱冷戦的 새로운 国際政治環境의 気流形成을 為해 努力하는 世界戦略 経営方式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한편 武器運

搬手段으로서의 각종의 미사일의 혁명적 政変과 通信電子武器類의 혁명으로 因한 誘導武器体系의 発展, 人工軍事諜報衛星의 活用은 実로 美蘇가 主軸이 되어 展開하는 世界戦略의 「場」을 宇宙化하기도 했다. 특히 무서운 核弾頭破壊武器를 정확하게 目標에 打擊시킬 수 있는 이른바 着弾命中誤差率 (circular error probability = CEP)의 技術革命은 눈부신 精密成果를 보여주게 되었다. 一例로 美国의 超現代的인 ICBM의 경우 1만3천Km의 距離에서 発射된 核弾頭를 目標物의 3백 50미터 半径内에 着弾시킬 수 있고, 이것이 80年代의 중반쯤 가면 CEP를 不過 30미터로 좁혀질 수 있다는 計算이 나올 정도이다. (註 18) 그러면서도 美国과 蘇聯은 雙方이 共히 武器体系에 있어서나 軍事科学技術分野에 있어서 相対方에 対하여 언제나 우월하고 「우월한 超強大国」임을 立証하기 為하여 엄청난 軍事研究・発展費를 競争的으로 投入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온 세계가 「技術上의 軍備競争」(technological arms race)의 소용돌이 속에 処해 있는 셈이다. 最近 年間의 世界軍事研究発展 (R&D)費의 年間規模는 約2백 50억$인데 人間의 生命을 구제하기 為한 目的의 医学研究発展費는 겨우 60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이다. 実로 現代 世界軍備競争相의 戯画的인 一断面을 보여주는 一種의 아이로니이기도 하다. 勿論 이같은 軍事研究発展費를 投入하는 巨額投資順位도 美国과 蘇聯이 단연 頂上級을 차지한다. 특히 美国의 경우는 西方 先進産業国家들의 軍事研究開発費의 85%를 차지할 정도이다. 한마디로 世界

의 軍備類型이나 武器体系에 있어서도 一次的으로는 美国과 蘇聯의 武器体系에 依해서 両大主流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両超強大国을 포함한 先進軍需産業国家들의 武器体系가 餘他의 群少諸国의 軍備類型 및 武器体系를 決定해주는 実相임을 말해준다(註19) 뿐만 아니라 美蘇는 共히 武器道商競争을 통해 世界武器의 需給支援国家로서의 最高頂上임을 自負하면서 특히 第3世界의 武装化를 促進하고 있는 代表勢力이라는 점에서 両超強大国은 막상막하를 겨루고 있다(註20)

以上과 같은 美蘇의 世界戰略 속의 政治・経済・外交・軍事上의 世紀的인 国際環境変化의 実相把握을 基礎로 해서 美蘇의 각기의 世界戰略 経営의 基本様相을 다음에 剔抉해 두는 것이다.

(三) 美蘇의 世界戰略과 安保政策

(1) 蘇聯의 世界戰略과 安保政策

蘇聯이 展開遂行하려는 世界戰略의 基本 체제는 마르크스-레닌 主義的 伝統과 遺産을 守護保全하면서 共産社会主義的 世界革命戰略을 完遂·成就하는데 두고 있다. 이같은 基本原則에 立却한 世界革命戰略 実践過程에 있어서 가장 힘겨운 競争相対者로 看做하는 것은 美国과 西方先進国家이다. 이들을 相対로한 世界戰略展開의 実践手段으로서 軍備를 계속 強化하고 힘에 의한 交渉手段으로서 軍事力을 重視하는 한편 푸로파간다戰争을 치열하게 벌이는 가운데 이른바 反帝·反資本主義闘争을 展開하는 일에 力点 두면서 西方世界에의 침투와 교란작전을 계속 企図하고 努力하는 것이다. 아울러 第3世界를 포함한 世界革命勢力을 규합하고 世界革命戰略의 主要事業으로서 東西各国의 共産党勢力을 結束시키고 나아가서는 비록 草緑同色이기는 하지만 蘇聯의 世界戰略과 国家利益에 決定的인 挑戰을 加해오고 있는 中共의 世界的인 勢力膨脹을 막는 일이 蘇聯의 世界戰略 展開上의 焦眉의 当面政策課題들이다. 이같은 世界戰略的 課題를 処理해가는 過程에서 世界外交戰略上의 地域別 戰略目標가 設立이 되고 政策路線의 方向이 決定되어 政治·経済·軍事的으로 取해야할 策略의 比重이 決定되고 있다.

「世界革命戰略課業」(The World Revolutionany Process) 遂行을 為해 蘇聯이 目標하는 바를 Boris Ponomarev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바 있다. 즉 資本主義体制는 社会一経済的인 自体矛盾에 의하여 많은 試錬을 겪고 있는데 이 마당에 있어서는 資本主義体制의 弱化를 為해서 全力을 投球하여 「美帝国主義闘争」을 벌여야 하며 이 闘争은 특히 「美国에 의하여 創導된 政治一軍事블럭体制의 弱化를 図謀하는 重要한 要因」이라고 천명했다. 또 蘇聯의 外交政策과 社会主義 諸国間의 友誼는 엄청난 反帝勢力의 結果임을 強調하는 한편 이들은 모두가 「온 世界에 걸친 革命闘争勢力의 膨脹을 為한 国際環境改善에 寄与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美国의 帝国主義的 政策遂行은 곧 「帝国主義의 反革命·反共産主義의 堡塁」라고 규탄했다. 데탕트에 관하여도 이것은 결국 국제権力闘争의 치열함을 防除하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資本主義 諸国内에 있어서의 革命課業의 発展을 為해 有利」하게 状況을 이끌어갈 수 있는 方便으로 看做하고 있다. 그리고 所謂 「新左派(New Left) 운동에 대하여는 이들의 모험주의(adventurism)를 날카롭게 批判하면서도 蘇聯共産党은 이들과의 反動統一戦線形成과 協力関係의 維持를 為해 努力할 것임을 力説하고 아시아一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서의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할 것이라는 태도를 明示했다.[21]

애당초 現代蘇聯의 世界外交戦略의 「基本方向」은 蘇聯外交의 「社会主義的 本性」을 살리면서 「社会主義外交의 主要任務는 社会主義와 共産主義의 建設을 為해 가장 便利하고 適合한 条件을 保障하는 일」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蘇聯外交의 指導 原理

로서 「푸로레타리아国際主義와 社会制度가 相異한 国家와의 平和的 共存」을 反映하고 있다고 看做하는 「레닌的 原則」에 立脚하여 蘇聯外交의 「主導的 指導」役割을 蘇聯共産党에 依持하면서 世界 社会主義의 영향력 増大를 発展保全하는 일에 重点 두고 있다. 한편 蘇聯外交는 国際法秩序와 国際関係의 새로운 秩序와 틀에 適応하면서 蘇聯과 社会主義諸国間의 関係를 調整하고 西方資本主義 諸国 및 第3世界国家를 포함한 이른바 発展途上諸国과의 関係改善을 통해 「유럽의 平和와 安全」 그리고 「아시아와 中東에 있어서의 帝国主義的 侵略에 反対」하는 闘争을 為해 自己強化 하는 것이 蘇聯의 世界戦略外交의 基本方向이요 実践目標이다.[22] 以上에서 言及된 蘇聯外交의 諸原則과 基本方向 定立 및 実践目標設定의 蘇聯의 「世界政策」(globol policy)的 視角에서 理論的 根拠를 찾는다면 다음의 3大主要原則으로 圧縮된다.

즉 첫째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따르고 모스코의 指導体制에 承服하는 「社会主義体制」(socialist system)의 守護保全(不可侵神聖化)이요, 둘째는 国際共産主義運動의 統合을 復活・保全하는 일이며, 세째는 非共産諸国과의 「平和的 共存」의 基礎를 다지는 일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特記해 둘 일은 蘇聯이 보는 「平和共存」(Peaceful co-existence)은 위의 두가지 다른 原則에 比해 永久的인 政策目標가 아니라 本質的으로는 하나의 「過渡的 概念」(a transitional concept)으로 看取하고 있는 事実을 注意해 둘 일인 것이다.[23]

蘇聯은 이같은 長期的인 世界戦略目標를 成就하기 為하여 그 具体的 実践手段으로서 対美競争 優越의 軍事力과 軍備増強策으로 계속 図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탕트의 時代背景을 十分 活用하여 全世界에 걸친 「平和的 푸로파간다」(Peaceful Propaganda) 戦争을 策略図謀하는 일에 重点 두면서 蘇聯의 安全保障策을 講構하고 있다.

먼저 蘇聯의 戦略態勢 및 建軍政策과 国防 軍備政策의 大綱을 整理해 본다. 이것들은 大体로 蘇聯의 国防豫算・武略体系・兵力水準의 增減推勢를 통해서 全般的 性向을 点検・計算할 수 있다. 蘇聯은 現在 3백 60余萬의 総武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1977年 現在의 推定GNP는 5천 1백 60억 루불인데 76年度의 公式国防豫算은 1백 74억 3천만루불로서 이는 蘇聯国家豫算의 8%를 意味하고 GNP比는 3.6%에 해당한다. 그런데 西方世界의 計算($貨)에 따르면 1975年度의 蘇聯国防豫算은 1천 2백 40억 $이고 個人当 国防費負担額은 4백 90 $이며 1974年에서 1977年까지의 GNP에 対한 国防費의 占有率은 11%에서 13%로 증집고 있다. 그리고 77年의 国防豫算은 1천 3백 30億 $로 增加하였다.[24] 다음 表들은 蘇聯의 国防費와 武器体系 및 兵力水準 등의 增加率을 一目瞭然하게 보여주는 判断資料들이다. 적어도 위의 表4에서 보면 蘇聯이 武器体系에 있어 重点開発増強項目은 第一順位가 海洋에서 発射할 수 있는 미사일(SLBM)이고 다음 順位는 戦車이며 3位는 ICBM 4位는 核潜水艦分野이다. 특히 SLBM의 增強開発力点과 在来式潜艦

<表 3>　　蘇聯의 國防費動向 1970-1977

Source		価格 基準年度	국방비			1970-1977	
			1970	1975	1977	年增率(%)	GNP 比 負担 (%)
10億루블							
CIA	(1)	1970	40-45	50-55	53-58	4.5	11-13
Lee	(2)	1970	43-49	72-79	84-93	8-10	14-15
Lee	(2)	現年度	43-49	67-76	81-91	—	—
中共	(3)	現年度	49	72.5	85.5	8.26	157
USSR	(4)	現年度	17.9	17.4	17.2	na	n.a
10億$							
CIA	(5)	1977	105	120	130	4.5	—
CIA	(6)	現年度	66-99	105-108	130	—	—
Lee	(7)	1970	80-105	97-133	110-142	5	—

Source: Military Balance 1978-1979, P.11 table 에서

※ (1)~(7)은 算出根拠資料의 明示임

<표 4>　　蘇聯 公式国防豫算・武器体系・兵力増加率比較表

1968—1975(1968 = 100)

	1968 年 度	増加率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国防豫算(10億루블)	16.7	100	106	107	107	107	101	106	104	104
海洋発射미사일	130	100	123	215	338	431	483	554	603	699
ICBM	300	100	131	163	189	191	191	199	202	191
MRBM	725	100	97	97	97	83	83	83	83	83
兵力(〇〇〇)	3,220	100	102	103	105	105	106	109	111	114
戦車	7,100	100	131	732	163	163	165	199	194	225
戦術空軍潜水艦	4,000	100	100	100	108	108	113	113	113	113
디젤	330	100	99	88	71	71	87	53	58	39
核추진	50	100	120	120	120	120	130	140	150	176

Source: Survival, September/October 1978, p.211 table 1에서 作成

의 退潮傾向은 注目해둘 일이다. 왜냐하면 70年代 以後의 蘇聯의 海運政策과 海軍力增強政策에 있어서 괄목하고도 눈부신 変化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떻든 蘇聯은 武器体系의 새로운 発展을 為한 科学技術의 改善과 研究発展(R&D)努力을 集中하면서 Pax Sovietica를 為해 国防安保政策의 기틀을 「超強大」하는데 突進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이 軍事力量의 超強化를 支柱로 하여 「超強大国의 役割」(superpower role)을 担保하고 유럽地域의 安保문제 安定을 第1主義로 삼으면서 中東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 등지에 걸쳐서 번지고 있는 世界的 規模의 紛争拡散(Proliferation of conflict)에 介入対処해 나가는 가운데 美国과의 競争的 協力密度를 增進하려는 世界戦略基調를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25) 이렇듯 蘇聯은 「힘에 의한 交渉의 手段」(negotiating from Strength—negotiation by force)으로서 超大型軍事力量을 가장 重要視하는 것이다.

한편 蘇聯은 위와같은 軍事関係 力量 增強에 뒤지않게 「平和綱領」이라는 것을 標榜하여 푸로파간다戦争을 展開하는 일에 精力을 쏟고 있다. 말하자면 軍事力量의 対美優越・超強大化가 蘇聯의 世界戦略遂行上의 当面・短期政策課題라고 한다면 平和的인 푸로파간다戦争은 世界戦略遂行 및 地域戦略目標 成就의 長期命題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푸로파간다戦争은 여러가지 형태의 戦略戦術로 나타나는데 가령 西方先進諸国과의 経済協力・技術 交流・通商協定을 대

대적으로 締結하여 対内的으로는 蘇聯의 発展에 寄与하고 밖으로는 이들 協定締結国과의 紐帯増進 및 外交関係改善을 통해 푸로파간다 戦争遂行의 발판과 터전을 마련하고 이 通路를 利用해서 蘇聯의 대대적인 「反美主義」(anti-Americanism) 푸로파간다를 展開할 수 있는 戦線形成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이를 為하여 集中的인 策略을 図謀하는 일이 世界到処地域에 걸친 이른바 「侵透」(Subversion) 作戦을 펴는 것이고 諜報活動을 強化増幅하는 일인 것이다. 蘇聯의 国家情報機関인 KGB(The Commissarrat for State Security)는 푸로파간다戦争 및 政治・経済・軍事・産業・科学技術分野의 諜報戦争遂行의 中枢神経인 것이다. 이런 일에 従事하기 為하여 蘇聯이 世界各国에 보내서 常駐케 하는 「官吏」(officier)数는 約 7천 5백명의 数字로 推算하였는데 그 傾向은 해마다 늘어나는 動態를 立証해 주고 있다.[26]

그런데 蘇聯이 푸로파간다戦争의 主武器로 내세운 「平和綱領」은 1971年 3月의 第24次 蘇聯共産党全党大会에서 브레즈네프에 依해 처음 提唱 됐으며, 1976年 2月의 第25次党大会에서는 「新平和綱領」을 標榜함으로써 브레즈네프時代의 成熟된 対外政策上의 時代背景과 実用主義的 立場에선 方向感覚을 脊刻시켰다. 前者(旧平和綱領)와 後者의 줄거리는 大同小異이지만 前者의 경우는 한마디로 데탕트時代에 접어든 国際환경변화 속의 蘇聯의 世界戦略外交路線의 方向転換을 表出한 것이었고 後者(新平和綱領)는 80年代를 指向한 蘇聯世界国交戦争의 実用主義的 実利追求를 置重하는 새로운 方

向感覚을 浮刻提示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新平和綱領」의 要諦는 「今後의 闘争綱領」이라는 副題的 意味가 含畜된 다음과 같은 要旨로 集約된다. 즉 ① 社会主義国家間의 団結強化 및 平和強化 共同寄与増加, ② 平和를 為하여 軍備競争中止, 貯蔵武器減少 및 軍備縮少転換努力(美蘇間 SALT協定 国際条約 유럽地域에서의 軍事的 緊張緩和・各国의 軍事費支出減縮 등), ③ 国家間의 軍事紛争의 根源的 清算 특히 近東에 있어서의 軍備競争의 中止後進, ④ 国際緊張緩和를 深化하기 為한 各国의 協力的 努力과 相互協力関係 계속발전, ⑤ 아시아大陸에서의 集団努力에 依한 아시아集団安保事業推進, ⑤ 国際関係에 있어서의 武力不行使에 관한 国際条約締結, ⑥ 植民主義抑圧体制의 清算, ⑦ 国際貿易에 있어서의 任意・人為的인 障碍物除去와 国際経済関係의 모든 不平等現象과 独裁・搾取의 清算努力을 強調한 점으로 간추려진다.[27)]

끝으로 叙上한 第25次党大会報告에 収録된 内容 속에는 蘇聯의 国際情勢判断 및 時代感覚을 反映하는 要旨가 담겨져 있는데 나는 여기서 蘇聯의 地域別 戦略目標 및 政策路線方向만을 우선 要領해 두기로 한다. 다만 몇가지 간결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할 대목들이 発見되었기에 지적해 두겠다. 먼저 第2次世界大戦時와 以後의 유럽에 있어서의 重要한 結果로서 「国境線의 安定・不可侵」性이 成就된 점을 들고 있다. 다음은 「国際会議」를 통해 世界問題해결의 基礎를 다지는 일과 「2国間」의 協定의 重要性을 示唆하는 맥락을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NATO블럭등 西方世界一般이 軍

備蔵争을 지속하는 限 蘇聯도 WTO 등과 더불어 「軍事·政治聯合体를 強化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다짐하였다. 社会主義共同体의 「物質的 基礎를 強化」하는 일도 장차의 重要한 課業임을 강조한다.[28]

解放된 国家들과의 協力強化·世界発展에 있어서의 이들 国家의 役割의 向上」이라는 章題속에 묶어놓은 「発展途上国家」들에 대한 地域戦略目標로서 먼저 言及한 것은 아프리카地域이다. 특히 「앙골라의 闘争은 全世界의 進歩的인 勢力의 支持를 받게 되었다」면서 아프리카諸国에 対한 蘇聯의 은근한 声援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 「蘇聯은 新生国이 正当하게 指向하는 바와 帝国主義의 搾取로 부터 完全하게 解放되려는 決心 그리고 自己들의 国家資源을 享有하려는 努力을 全的으로 支持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蘇聯이 世界資源戦争에 뛰어들어 소련의 權益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何時라도 国際 介入과는 干渉도 서슴없이 具現하리라는 강경태도의 表出의 一断面으로 看取된다.

다음은 近東地域의 아랍諸国에 関하여 言及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시리아와의 관계에 対하여는 「훌륭한 相互理解関係가 設定」되었음을 認定하고 이락과는 「関係発展의 図謀에 바탕을 둔 友好協力条約」이 締結된 事実을 重要視하였으며 알제리 및 南예멘과의 協力이 拡大·深化되었음을 지적했다. 리비아와의 関係도 「顕著한 発展을 이룩」하였다고 다짐하면서 팔레스타인解放機構와의 「友好的인 接触이 強化」되었음을 是認하였다. 특히 蘇聯―에집트間의 관계에

対하여는 「・・・関係를 強化하려는 確固한 原則的인 路線을 지키고 있다」를 強調하고 이같은 路線은 에집트에 対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아랍世界의 利益에 부합되는 条約関係의 基礎로 간주」한다고 宣言했다.[29] 이어서 印度와의 関係는 蘇—印間에 締結된 「平和・友好 및 相互協力条約」을 挙示하고 이것은 両国関係 및 南아시아—大陸全般에 安定的 要素로서의 役割이 至大하다는 점을 想起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諸国과의 一般的인 関係에 言及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의 善隣関係의 設定을 맨먼저 指摘하고 半世紀 동안 지속되어 온 「中立 및 相互不可侵条約」이 延期되었다는 事実도 밝히었다. 한편 「소련은 앞으로 아시아大陸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을 強化하고 이 大陸에서의 平等한 協力関係를 発展시키는 길을 模索하는데 앞으로 積極 参与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方向에서 作用을 加할 것이며 両国間의 접촉에서는 勿論 多国家間의 基礎에서도 作用할 것입니다」로 다짐하고 이같은 蘇聯의 計劃과 目標를 達成하기 為하여 소련이 提議해온 바 있는 아시아의 集団的인 安全保障措置의 具現을 為한 「모든 注意力을 돌릴 用意가 있음」을 強調하고 아시아에 있어서 日本과의 関係에 눈을 돌려서는 「우리는 소비에트—日本間의 関係에 있어서 善隣과 友好協力이 原則이 되여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為해 努力하고 있다」는 要旨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資本主義諸国의 유럽関係에 対하여는 「総体的으로 우리의 유럽国家들에 대한 関係는

肯定的인 것」으로 「評価」하면서 특히 対美関係에 있어서는 「・・・새로운 世界大戦의 危険을 減少시키고 平和를 強化하는데 있어서 勿論 資本主義世界의 最大強国인 美国과의 関係好転이 決定的인 意義를 갖고 있읍니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유럽을 포함하여 全体的으로 国際気候를 改善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美国과의 関係改善에 大端히 큰 注意를 돌렸던 것입니다」 라고 천명한 점을 깊이 分析評価해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이 그 世界戦略을 経営해가는 마당에 있어서 美国과의 関係改善好転이 없이는 事実上의 어려운 難関이 가로놓인다는 것을 깊이 認識하고 있음을 反映하고 있기 때문이다.[30]

(2) 美国의 世界戦略과 安保政策

叙上한 蘇聯의 世界戦略과 安保政策을 検討해 본 같은 論理에 依拠하여 미국의 世界戦略과 安保政策을 処理해 둘 것이다. 말하자면 美国의 世界戦略의 基本原則과 方向設定・世界戦略遂行의 具体的 手段方便으로서의 国防・軍備政策・戦略態勢 그리고 地域別戦略目標의 基本政策路線 및 方向感覚 順으로 간결하게 剔抉해 보겠다. 美蘇의 世界戦略의 共通分田는 앞에서 大綱을 整理해 둔 바 있기 때문이다.

美国의 世界戦略의 基本目標와 原則的 方向은 戦後의 歴代大統領의 世界政策路線 속에 提示되고 実践된다.[31] 그 世界政策의

実践路線과 世界戦略의 経営方式을 大局的인 見地에서 하나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要領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美国의 世界戦略의 窮極的 目標는 「美国的 国家利益」을 守護保全하고 번영발전시키는 일에 帰着된다. 그리하여 窮極的으로는 미국이 主導하는 Pax Americana가 永生하기 為한 世界政治秩序를 建議하는데 있음은 蘇聯의 그것과 相対的인 意味에서 마찬가지이다. 이를 為하여 「美国的 立場」에서 본 世界情勢動向을 判断하고 情勢変化에 対応하여 펴나가야 할 戦略的 対備策을 마련하면서 政治・経済・軍事・外交上의 「美国的 安全保障策」을 가장 重要視하게 된다.[32) 말하자면 美国은 蘇聯보다 우월한 「超強大国」의 地位와 実質的인 実力과 世界政治上의 体面을 維持保全増進하면서 西方自由民主主義 및 資本主義社会秩序의 守護를 担保하고 友好協力保全을 為해 이른바 「共同防衛」의 政治名分을 活性化하여 結果의 튼튼한 基礎를 다지는 世界戦略課業展開에 美国의 指導的 役割을 強調하고 力点 두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와같은 世界戦略遂行의 힘줄로서 物理的 힘을 交渉의 効果的인 手段으로 看破하고 対蘇견제 및 우월의 軍事力 維持를重要視하는 것인데 이 점은 蘇聯이 그 世界戦略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軍事的 対美優越을 強調하고 重要視하는 事実과 一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美蘇間의 平和共存策図謀의 強調나 脱冷戦的 体質改善을 標榜하는 外形的 名分은 世界国民을 説得하기 為한 超強国中心의 便宜主義에 不過한 것이고 그 内面的 実相은 相互的 軍備競争을 暗黙的 実践事項으로 諒解되

고 있는 것으로 理解될 수 밖에 없다. 要컨대 美国의 世界戦略遂行의 基本方向은 一次的으로는 「美国의 安全保障」을 為하고 이를 支柱로 하여 「共同防衛 責任分担」을 強調하는 한편 西方世界를 統合된 友邦으로 結束시켜 対蘇覇権競争의 일꾼으로 앞세우는 方向에 焦点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目標를 달성하기 為하여 美国도 蘇聯과 마찬가지로 政治이데올로기上의 푸로파간다戦争을 치열하게 展開하는 가운데 反蘇 및 対共産圈闘争에 力点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協力的 共存과 対決的 競争속의 外形的 名分을 표방하여 內実的인 対決戦略을 並進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美国安全保障政策上의 內実化를 為한 対蘇軍備増強競争의 比重을 가장 으뜸자는 世界戦略遂行의 実践方便으로 크게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西方世界 全般에 対하여 그리고 第3世界・非同盟 諸国에 対하여 이들 諸国民이 美国의 影響圏과 発言権에 対한 挑戦 乃至는 離脫・軽視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実践的 立場 手段으로서 経済援助와 軍事援助 및 武器販売・需給供与政策을 꾸준히 펴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必要하다고 政策判断될 경우에는 諸般 局面에 걸친 圧力行事와 国際介入을 과감히 決行하는 일을 排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美国의 世界戦略上의 諸課題는 政治的・経済的・軍事的 및 外交的 課題등으로 集約되는 것인데 이 모두의 課題解決을 為한 実践方向定立에 있어서는 窮極的으로 Pax Americana를 為해 対蘇戦略比重을 最優先하는 것이고 다음은 対共産圏 견제 戦略을 基礎로 한 各地

域戰略目標를 設定하여 対蘇競争속의 窮極的인 世界支配戰略을 実践展開하고 있다.

위와같은 世界戰略의 実践手段인 美国의 国防·軍備政策의 스타일을 본다. 美国은 総兵力이 約200萬을 좀 넘는다. 그 중에서 約11萬명은 女軍兵力이다. 1977年의 推定 GNP는 1兆8千9百億($ 1,890 bn)$이고 1978-79年度 国防費는 1천1백52억$이다. 1975年에서 1978年까지의 国防費增加推移를 보면 各年度 別順의 記録은 $ 88,983 mn.(1975), $ 91,000 mn.(1976) $ 104,250 mn.(1977), $ 113,000 mn.(1978)의 順이다. 같은 기간동안의 国家豫算上의 国防費比는 각각 23.8%, 23.8%, 22.7%, 23.0%이고 GNP에 対한 国防費比는 1974年에서 1977年의 각각 6.1%, 5.9%, 5.4%, 6.0%를 차지하고 있다. 軍備는 크게 나누어 「戰略核戰力」(Strategic Nuclear forces)과 「一般目的兵力」(General-Purpose Forces)로 形成되어 있다.[33]

美国은 向後10年期間 동안에 「위험한 世界속에 살게될 것」임을 想定하고 美国의 安全保障을 為한 国防政策上의 長期政策展望으로서 「美国防政策의 새로운 方向定立」과 「核拡散問題」 및 「世界経済속의 美国」이라는 3개의 集中的인 政策課題를 부루킹즈研究所를 통해 펴낸 일이 있다.[34] 특히 国防政策의 새로운 方向定立을 모색한 研究論文에서는 「美国의 軍事的 立場과 姿勢定立은 一次的으로 美蘇関係와 유럽에 있어서의 諸国民의 利益과 東아시아 및 中東에 있어서의 諸国民의 利益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못박고

美国의 兵力構造에 관하여는 특히 「戰略核戰力」의 增強保有에 力点두고 있는데 1976会計年度의 戰略核戰力費는 1백 73억 $로 이는 総国防豫算의 18%線을 若干 下廻 하였으며 1981会計年度에 가면 戰略核戰力費는 総国防豫算의 約 20%를 占하는 比率로 增大하게 될 것임을 指摘하였다.[35] 물론 이와같은 軍事対備策의 策略構想은 蘇聯의 戰力增強推移에 副応해서 調整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점은 브라운 美国防長官이 「美国의 防衛態勢」에 관해 1978年 2月 2日 美下院軍事委員会에 提出된 1979会計年度 国防省 年例報告書에도 美蘇間의 「戰略核均衡」의 문제가 重要한 것인가를 指摘하고 있으며, 카터美大統領도 美国의 安全保障政策에 있어서 世界戰略遂行上의 対蘇意識을 가장 重点的으로 挙論하면서 美国의 核戰力 및 通常戰力 軍備政策의 3大方針을 다음과 같이 明示하였다. 즉 첫째 「戰略核均衡의 維持」를 為하고 둘째 「유럽에 있어서의 유리의 防衛能力을 強化 및 現代化할 수 있도록 NATO盟邦들과 緊密한 共同作業」을 벌이며, 세째 「아시아와 中東 그리고 其他 地域에 있어서 우리의 決定的인 利益과 우리의 盟邦에 対한 如何한 위협에도 対処할 수 있는 兵力(forces)을 発展·維持」하는 것이라고 밝히었다.[36]

美国은 以上과 같은 戰略態勢의 整備와 国防·軍備政策의 基本路線에 沿해서 世界戰略을 経営해 나가면서 地域戰略目標로서의 유럽外交戰略의 遂行 世界分交戰略上의 対아시아外交戰略의 調整 및 其他 中東 아프리카 등등의 地域戰略을 遂行해 가는 마당에 있다.[37]

끝으로 80年代를 指向한 向後의 美蘇関係를 総体的으로 마무리 해보는 마당에 있어서 最近에 카터 美大統領이 展望 피력한 美国의 蘇聯政策観과 「蘇聯이 푸라우다紙를 통해 表明한 소련의 美国政策展望観은 매우 興味있는 일이다. 카터演説은 말하기를 「「앞으로 오랜동안 우리와 蘇聯과의 관계는 競争的이 될 것임을 우리는 認識하여야만 될 것이다」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美蘇間의 데탕트를 世界平和를 為해 中心課題라는 事実을 지적하고, 나아가서는 무서운 速度로 增加하고 있는 核武器의 위협적 存在를 경고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SALT 協定妥結은 両国民의 安全을 為해 가장 本質的인 重要性을 갖는 것이라고 천명한다. 그러면서도 蘇聯의 데탕트에 対한 不透明한 政策態度를 통박하고 비난하였다. 즉 蘇聯에게는 데탕트가 「政治的 利得을 為한 계속적인 侵略闘争을 意味」하는 것으로 看做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蘇聯은 韓半島(Korea)ー앙골라 및 에티오피아등 世界不安定地域에 対한 軍事力과 軍事援助를 提供하는 것이 蘇聯의 対外영향력을 拡大할 수 있는 最善의 手段으로 看做한다고 말하였다. 또 蘇聯은 과거 15年동안 軍備増強 및 軍事力의 膨脹을 為해 그들의 GNP의 近15%를 投入해 왔으며 이 같은 努力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비난했다. 그리고 蘇聯은 비록 世界第2의 経済体制를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成長의 低下 発展의 不振・農業生産의 落後性을 안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過分한 軍事費를 投入하고 있으니 이 모든 蘇聯의 弱点은 美国의 強点으로 탈바

굼하는 것이라고 誇示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美国의 対蘇政策 原則으로서 同等한 核戦力의 維持継続・NATO와 太平洋에 있어서의 機動性 있고 強力한 軍事力維持를 為한 軍事費의 적절한 効率的 投入을 持続할 것이라고 言明하고 美国은 SALT의 建設的 妥結을 為해 계속 努力할 것인데 그러니까 蘇聯은 「対決」(confrontation)과 「協力」(cooperation)중의 択一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対해 프라브다紙는 全的으로 카터演説은 잘못이라고 논박하면서 이는 「内政干渉」이며 美国의 「確固한 強硬政策路線」(`firmness' and a 'tough live')의 表出에 不過하다고 말하면서도 蘇聯은 国際緊張을 緩和하고 美国과는 友好的이고 相互利益이 되는 関係를 発展시키려는 政策目的이 있다는 事実을 再確認한다고 다짐하였다.[38]

확실히 1980年代에 있어서도 蘇聯이 과연 모든 経済的 負担을 무릅쓰고 現在와 같은 軍備政策을 持続할 것인지, 萬一 지속된다면 그 結果는 어떤 式으로 나타날 것이며 西方世界는 무엇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날카로운 時評이 나오고 있음을 注意해서 参考해 볼 必要가 있다.[39]

- 註 -

(1) 参照一国際聯合憲章 前文

(2) 参照一金洪喆 ‘韓半島 平和定着建設의 軍事的 課題와 条件一特히 世界軍事 環境変化 속의 韓半島事態攷’, 国際政治論叢 第18輯(韓国에서의 平和研究), 韓国国際政治学会刊, 서울, 1978, pp.207~226 所収, 特히 p.207~208 ; M.D.Donelan and M.J.Grieve International Disputes:1945~1970,,Europe Publications,London,1973;Northedge and M.D.Donelan,International Disputes:The Political Aspects,Europe Poblications,London,1971;Walter Lafeber,America,Russia, and the Cold War 1945-1975,,Third Edition,1976(© 1967), John Wiley and Sons,Inc.,New York.

(3) World Armaments — The Nuclear Threat,SIPRI,Stockholm, Sweden,June 1977,p.6(table):World Military Expenditure 1908~76(constant 1973 prices),p.10~11(table).

(4) Cf.—Ibid.,pp. 6~7 ; The Military Balance 1978~79, IISS,London,1978,pp.88~89(Comparison of Defense Expenditure 1975~1978).

(5) 参照一前掲 金洪喆論文, 上引 国際政治論叢(第18輯), p.212 表1. 한편 昨今의 資料에 보면 美蘇의 戰略核戰力 및 「一般目的兵力」의 均衡変化는 다음과 같이 記録돼 있다. —Cf.-

U.S.News & World Report,Oct.30,1978,pp.47～49,esp,p.

区　分	年　度　別	
戦略核兵力―	1968	1978
ICBM：		
USA	1,054	1,054
USSR	858	1,400
SLBM：		
USA	656	656
USSR	121	1,075
戦略爆撃機		
USA	545	432
USSR	155	135
核弾頭：		
USA	4,300	11,000
USSR	1,300	4,500
一般目的兵力		
兵　力：		
USA	350万	210万
USSR	340万	440万
戦　車：		
USA	8,500	10,500
USSR	32,400	50,000

区　分	年　度　別	
戦術空軍 :	1968	1978
USA	5,100	4,500
USSR	4,000	4,650
海上戦艦 :		
USA	360	172
USSR	230	243

49(table),Special Report by Deputy Editor Joseph Fromm:'New Alarm over Russian Threat'.

(6) 参照一金洪喆 「韓半島를 圍繞한 極東에 있어서의 軍事安定化方案」, 国土統一院刊 (국통정 76-12-105), pp.34~40.

(7) Cf.-The Near-Nuclear Countries and the NPT,SIPRI,Stockholm,1972; 前掲 金洪喆 論文, 国際政治論叢 第 18 輯, pp. 214~216, 特히 p.215의 表 4 参照.

(8) Cf.-The Near Nuclear Countries and the NPT,ibid,pp.93~106.

(9) Cf.-Adelphi Papers N=65,February,1970,ISS,London,'Soviet-American Relations and World Order: Arms himitations and Policy',esp.pp.16~24.

(10) Cf.-Economic Impact,A Quoterly Review of World Economics,ed.by Dorothy Crook,U.S.Information Agency,Wa-

shington,D.C., N= 9(1975/1),p.29.

(11) Cf.-Oil and Security,A SIPRI Monogroph,SIPRI,1974,p. 66(Appendix 1-I:World Published proved oil reserves by oil region,as of 31 December 1973;see aslso ibid., pp.68~69(World oil production and consumption by oil region).

(12) Cf.-Oil and Security,ibid.,p.42 Table7 and Chart (Military expenditure in four major oil-producing countries,1969~73.

(13) Cf.-Richard Portes, 'East Europe's Debt to the West: Interdependeuce is a two Way Street',in Foreign Affairs,July 1972,pp.717~731,esp.p.757 Chart(Table I).

(14) Alexander Wolynski,Western Economic Aid to the USSR Conflict Studies(Special Report) N= 72,June 1976,p.6 tables,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onflict,London 1976.

(15) Ibid.,p.12 Appendix:Examples of Hoa United States Teohnology Helped the USSR Overcome Economic Lag;美国의 対蘇輸出額이 1976年에는 23億$를 넘었는데 이는 1972年의 4倍이고, 蘇聯의 対美輸出額의 約 10倍를 記録한 것이었다. —cf-Economic Impact,op.cit., N= 22(1978/2), p.4(Expanding U.S-Soviet trade).

(16) cf- The Soviet Union 1974 ~ 75,C.Hurst & Company, London,1976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Cologne,1976 — translated by Hannes Adomeit and Edwina Moreton,Institute of Soviet and East European Studies University of Glasgou),pp.121 ~ 169 — Foreign Economic Policy.

(17) 参照一金洪喆 "武器産業의 国際政治学", 新東亜誌, 1976年8月号収載, pp.120 ~ 135. 그리고 世界的 次元에서 본 軍事的 側面의 環境変化·与件 및 主要軍事課題別 綜合判断資料로서는 下記文件이 매우 有用한 参考資料이다. — World Armaments and Disarmamant — SIPRI yearbook 1977 and 1976, Stockholm,SIPRI 1976 and 1977 each.

(18) 参照一金洪喆 前掲論文, 国際政治論叢 第18輯所収, pp.211 ~ 214.

(19) cf.- Disarmament or Destruction?,SIPRI Publication, Stockholm,SIPRI 1975,pp.6 ~ 10;Resources Devoted to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IPRI,Stockholm,1972,esp.pp.10 ~ 27;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75,esp. Part II and III(Developments in World Armaments and Advances in Weapon Technology.

(20) 武器通商 一般에 関하여는 다음을 参照할 것一前掲 金洪喆論

文 新東亜(76.8.)所収 및 上引 国際政治論叢 第18輯所収論文, 특히 同論叢 pp.216～218 ;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SIPRI,Stockholm,1971,esp.pp.793～804 ;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77, 1976,and 1975 each.

(21) Boris Ponomorev, 'Topical Problems in the Theory of the World Revolutionary Process",in Kommunist(Moscow), N=15,October 1971,quated from Brian Crozier etal,The Peace Time Strategy of the Soviet Union,Institute for the Study of Conflict,London,1973(ISC Special Report), pp.78～83.

(22) 参照ーソ連邦の外交(BHEWHRR NONNTNKA CCCP-Ha λnonckou λz-ocke,Printed in USSR in USSR,Moscow 1975),日本語訳, プログレス出版所, モスクワ, 1975, 第1章～第6章, 특히 第1章「現代とソ連邦の外交」; 菊井礼次著 「現代国際関係とソ連外交理論」法律文化社刊, 京都 1976, 특히 第3章～第5章 ; G.I.Tunkin, Theory of International Law,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William E.Butler,London.George Allen & Unwin Ltd.,1974; Brian Crozier & Max Beloff et al., European Security and the Soviet Problem,London 1972 (ISC Special Report),esp.pp.40～52(the soviet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Richard J.Erickson,Internatio-

nal Law and the Revolutionary State,Oceana,1972.

(23) cf.- European Security and the Soviet Problem,op.cit., pp.1 ~ 6

(24) cf.- Military Balance 1978 ~ 79,IISS,London,1978,pp.8 ~ 11 , p.88(Companisons of Defense Expenditure 1975 ~ 78); Paul Cockle, 'Analysing Soviet Defence Spending : the Debbte in Perspective',in Survival,September/ October 1978,pp.209 ~ 219.

(25) cf.- Strategic Survey 1976,IISS,pp.1 ~ 12,p.12 et seg: (New Factors in Security — Soviet Weopons Development).,pp.35 ~ 39(The Super-Powers — The Soviet Union); Strategie Survey 1977,IISS,London,1978,pp.1 ~ 12,pp. 13 ~ 39(Conflict in Africa),pp.60 ~ 68(The Soviet Union) et seg: Europe-Asia-Arms Control;蘇聯의 建軍·国防政策 全般에 걸친 推移動向과 力量分析에 関하여는 参照 — Jeffrey Record,Sizing up the Soviet Army,The Brookings Institution,Washington D.C.,1975; C.G.Jacobsen,Soviet Str Strategy — Soviet Foreign Policy: Military Considerations Affecting Soviet Policy — Making,Robert Maclehose & Co.Ltd.,The University Press,Glasgow,1974(Second Edition:© 1972); Curt Gasteyger, 'Soviet Global Strategy'in Survival July/August 1978.pp.159 ~ 162;

Vladimir Petrov,U.S — Soviet Detente: Past and Futur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Washington D.C.,1975.

(26) cf: European Security and the Soviet Union,op.cit., pp.14 ~ 18 and pp.56 ~ 64(AppendixII: The USSR and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The Peacetime Strategy of the Soviet Union,op.cit.,esp,pp.41 ~ 44 each charts and maps.

(27) 参照ーソ連共産党 第24回大会 報告・決議・指令, ソ連大使舘広報課編訳, 大月書店, 東京, 1971, 特히 pp.21 ~ 29. 「第25次蘇聯共産党大会에서의 브레즈네프의 演説文」, 1976.10, 国土統一院 解説附訳刊(국통 76-1-30), 特히 pp.50 ~ 53 参照.

(28) 参照ー上掲 「第25次蘇聯共産党大会에서의 브레즈네프의 演説文」, pp.16 ~ 24.

(29) 参照ー上同 pp.25 ~ 30. 蘇聯의 近東・아프리카 浸透状況에 対하여는 参照ーDavid Rees,Soviet Strategic Penetration of Africa,ISC(London),Publication — Conflict Studies N= 77 November 1976; Brian Crozier,Security and the Myth of "Peace": Surviving the Third World War,ISC Publication — Conflict Studies N= 76,October 1976,esp pp.10 ~ 13 each maps; The Soviet Union 1974 ~ 75,op. cit.,pp.240 ~ 250(Soviet Policy in the Near and Middle

East);Speech by Lt-General Obasanjo,27 July 1978: "External Intervention in Africa—The view from Africa",and Speech by President Neto,20 July 1978 in Survival,~~November/~~December 1978,pp.268~271;前掲 ソ連邦の外交 第3章(ソ連邦と発展途上諸国).

(30) 参照—여기 引用한 대목들은 上掲「第25次蘇聯共産党大会에서의 브레즈네프의 演說文」, pp.28~44所收內容에서 要領하였다.

(31) 이 方面의 諸問題를 戰後의 冷戰史속에 圧縮하여 美蘇関係를 中心해서본 歷史的 世界政策・戰略課題別 考察을 통해 다음은 잘 整理해 주고 있다. —cf— Walter LaFeber,America and Russia,The Cold War 1945~1975, John Wiley and Sons, Inc.,New York,1976,Third edition(© 1967); Louis H. Halle,The Cold War as History,Harper & Row,Publishers New York,1971.

(32) 参照—金洪喆 論文 前掲「韓半島를 囲繞한 極東에 있어서의 軍事安定化方案」, pp. 9~14;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the Changing World power Allignment—Hearing-Symposium before The Subcommttee o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Scieetific Development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92nd Congress,U.S.G.P.,Washington: 1972; Henry Owen and

Charles L.Schultze ed.,Setting National Priorities: The Next Ten Years,The Brookings Institution,Washington D.C.,1976.

(33) cf- The Military Balance 1978～1979,op.cit.,pp. 5～8, p.88(Comparisonsof Defense Expenditures 1975～1978). 美国戦略態勢整備 및 軍備政策의 全般的 推移動向에 関한 要約点検에 対하여는 参照－Strategic Survey 1977,op.cit., pp. 1～12(Perspectives),pp.53～60(The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34) cf- Setting National Priorities,Ibid.,ChaptIII (Toward a New Consensus in U.S Defense Policy),Chapt.IV(Nuclear Proliferation),Chapt.V(United States in the World Economy).

(35) Ibid.,p.63 and pp.80～83,esp.p.82(table 3－3 : Costs of Strategic Nuclear Forces,Selected Fiscal years, 1962～1977).

(36) cf- U.S Defence Posture: The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Fiscal 1978) by Secretary of Defense Harald Brown,Feberuary 2,1978－Policy Background Series N＝2, 1978; "U.S Defence and Arms Control: Two Statements", －Speech by President Carter at Waxe Forest University,17 March 1978 and Speech by

Paul C.Wornke(President's chief aid on arms control), 3 April 1978, in Survival, July/August 1978, pp.176~182, esp.p.177(Carter's statement).

(37) 美国의 安全保障을 為한 地域別 戦略目標의 個別地域에 対한 総体的 흐름과 特徴, 그리고 政策路線의 方向感覚의 大綱은 다음에서 参考할 수 있다. —Henry Owen, 'Peace or War', Chapter Two of Setting National Proiroities, op.cit., pp.15~58 ; Strategic Survery 1977, op.cit., esp.pp.55~60.

(38) cf- 'Soviet-American Relations-U.S.Perspective', Speech by President Carter, 7 June 1978 and 'The Present Policy of the U.S Government—The Soviet Perspective", Pravda, 16 June 1978, both article in Survival, September/October 1978, pp.230~236; Vladimu Petrov, U.S-Soviet Detente: Past and Future, op.cit., esp.pp.47~55(Propects for Detente), and pp.57~60(Appendix: Basic Principles of Relations between the USA-USSR, 1972)

(39) See 'Russia in the eighties: what the West can expect" by Richard Davy, The Times of London(The Times), Monday October 9, 1978, p.16.

美・蘇関係의 現況과 展望

The Present and the Prospect of the Sino-Soviet Relations

研究執筆責任： 李 基 遠

(略歴) 서울大 文理大 政治学科 卒業
및 同 大学院 碩士
및 同 大学院 博士
現在 忠南大 教授

目　　次

1. 序　　論 163

2. 美国의 外交政策 164

　가. 外交政策의 諸要因 164

　나. 政策決定過程 166

　다. 外交스타일 168

3. 蘇聯의 外交政策 169

　가. 外交政策의 諸要因 169

　나. 政策決定過程 170

　다. 外交스타일 173

4. 데탕트로서의 美·蘇関係 175

　가. 데탕트의 展開 175

　나. 데탕트에 대한 美·蘇両国의 見解 180

　다. 美·蘇関係의 亀裂 185

5. 美·蘇関係의 展望 192

美蘇関係의 現況과 展望

李 基 遠

1. 序 論

美蘇関係를 分析 展望한다는 것은 바로 世界情勢를 把握하는 것이라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뜻에서 美蘇関係의 分析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美蘇関係를 다룸에 있어서는 関聯되는 모든 要素가 網羅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能力의 限界를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自然히 制限된 要素를 中心으로 両国関係를 取扱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美蘇関係를 規制하는 支配的인 要素는 戦略武器体系, 中蘇紛争, 이데올로기等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諸要素가 美蘇関係를 가깝게 하거나 또는 멀게 하거나 하는 作用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要素를 中心으로 美蘇関係를 다룸에 앞서서 美蘇両国의 外交政策을 比較해 보기로 하였다.

一般的으로 比較外交政策의 프레임·워크(frame work)는

첫째, 外交政策의 諸要因

(1) 地 理

(2) 国力(人的, 天然資源, 経済, 軍事, 技術水準)

(3) 国内政治, 経済体系

둘째, 政策決定過程

(1) 政府部門(行政部, 立法部)

(2) 非政府部門(政党, 圧力団体, 매스콤, 輿論)

세째, 外交類型의 特徵 等이다.

要컨데 比較外交政策의 主要한 変数는 세個로 볼 수 있는 바 첫째는 外交政策을 規定하는 諸要因, 둘째는 外交政策의 決定過程, 끝으로 外交스타일이다.

이러한 主要変数를 前提로 美蘇両国의 外交政策을 概観한 然後에 美蘇関係를 分析・検討하기로 하겠다.

2. 美国의 外交政策

가. 外交政策의 諸要因

(1) 地 理……美国의 地理的 特徵은 첫째, 大西洋에 의하여 美洲大陸이 유럽과 隔離되어 있다는 点, 둘째, 北美大陸에 広大한 frontier가 存在하고 있다는 点으로 要約될 수 있다. 美国의 領土는 300万平方마일 以上이다. 이 広大한 大陸의 frontier를 拡大한다는 것이 美国国民의 <明白한 運命>였던 것이다. 이러한 frontier의 存在는 매우 逆説的인 일이지만 美国外交로 하여금 外交없는 外交의 原因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美国은 大西洋을 사이에 두고 유럽으로 부터 孤立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大西洋이 建国当初 美国에 대하여 好意的였던 英国海軍의 統制下에 있었기

때문에 美国은 그 保護下에 19世紀를 통하여 孤立을 確保할 수 있었으며 北美大陸의 国内的 経営에만 専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美国의 地理的 特徴은 美国外交로 하여금 〈孤立外交〉 또는 道徳的 外交라는 스타일을 갖게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2) 国力……美国의 国力은 世界第1位를 차지하고 있다. 広大한 領土와 豊富한 天然資源을 保有하고 있으며 資本主義의 勃興期와 美国의 建国期가 一致하여 일찌기 볼 수 없었던 未曽有의 経済, 技術水準을 発達시켰다. 오늘날의 美国의 軍事力은 蘇聯과 거의 対等한 能力을 維持하고 있으나 経済力面에 있어서 越等하고 蘇聯을 能加하고 있다. 特히 第2次大戦以後 焦土化한 유럽과는 달리 戦争에 의한 犠牲이 적었다는 事実과도 関聯되어 그 国力은 相対的으로 더욱 巨大化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戦後 30年동안의 世界的인 過剰公約과 介入의 結果로 말미암아 最近 美国의 国力이 相対的으로 低下되었음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3) 政治・経済体系……美国의 政治・経済体系의 特徴은 단적으로 말하여 美国的 民主主義와 資本主義制度라 할 수 있다. 美国은 独立時代当時 個個의 植民地의 個別的 特性을 維持하면서 独立했기 때문에 地域的 州中心主義가 優越하며 高度의 分権化된 政治体制를 発展시켰다. 또한 憲法上 司法, 行政, 立法의 3権分立을 確立시켰으며 輿論의 影響力이 매우 強하다. 더우기 英国과 같이 長久한 伝統에 立脚한 諸制度가 없다는 見地에서 보면 脆弱点을

內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바 그것을 例証하고 있는 것이 워터게이트事件이라 할 수 있다.

나. 政策決定過程

(1) 政府部門……美国大統領의 外交軍事에서 차지하는 役割은 実로 重要하다. 大統領은 外交官의 任命, 条約締結 等에 관한 権限이 賦与되고 있다. 勿論 上院의 助言과 同意가 必要하다. 또한 大統領은 陸海空 3軍의 総司令官이기도 하다. "大統領이 外交政策을 決定한다"는 트루만의 指摘은 大統領의 外交政策에 관한 権限을 잘 表現하고 있다.

第2次大戦当時는 勿論 戦後에 있어서의 冷戦期間에 있어서 大統領의 権限은 더욱 増大되었다. 例하면 安全保障에 관한 権限 가운데 宣戦権限은 憲法上 議会에 있었으나 캄보디아에의 派兵은 大統領権限下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議会承認없이 戦争指導를 할 程度였다. 이로 말미암아 캄보디아派兵을 契機로 議会는 大統領의 戦争에 관한 権限을 規制하였으나 大統領이 外交에 있어서 遂行하는 役割은 아직도 여전히 큰 것이다.

1971年 닉슨大統領은 外交教書에서 国家安全保障会議(NSC)의 機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本人은 大統領就任에 즈음하여 国家安全保障会議를 外交政策의 論点을 생각하기 위한 主要討論場으로서 再検討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数個의 支援委員会를 創設하였다. 大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統領, 国務, 国防両長官, 非常企劃局長 및 大統領이

指命하는 人士로서 構成된다. 会議는 国家安全保障問題에 관하여 充分하게 또한 率直하게 討議하기 위하여 政府最高水準에 焦点을 마춘다. 勿論 本人은 国務, 国防両長官 및 其他 最高補佐들과 国家安全保障問題에 관한 意見을 交換하기 위하여 相談한다"

이 教書는 当時 大統領特別補佐官였던 키신저가 깊이 関与한 것으로 推測된다. 이 当時 키신저補佐官은 로저스国務長官보다도 外交에 있어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었기 때문에 特히 国家安全保障会議의 重要性이 強調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法制上으로나 또는 伝統上으로나를 莫論하고 国務長官이 補佐官보다도 外交政策決定에 있어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大統領에 따라서는 特別補佐官의 意見을 重視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議会와 外交政策과의 関係를 보기로 하자. 美国 上院은 憲法 第2条第2項에 의하여 大使 및 其他 外交使節任命에 관한 助言과 同意의 権限을 保有하며 또한 議会는 立法措置에 따라 外交政策決定에 参与할 수 있다. 즉 条約 또는 行政協定이 締結되었을 경우 그것이 効力을 発生하기 위해서는 議会의 立法措置를 必要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議会는 予算審議権을 통하여 行政府에 대하여 発言権을 行使한다. 이것은 議会権限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이기도 하다. 例하면 対外援助는 予算措置를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議会는 이 予算権에 의하여 政府의 外交政策에 制約을 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議会는 憲法 第1条 8節 11項에 依拠하여 戰争을 宣言할 権限을 保有한다.

議会는 이와 같이 外交政策에 관한 여러 権限을 통하여 大統領의 決定에 影響을 미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議会가 政府의 外交에 너무 깊이 介入함으로써 外交의 安定性을 損喪시킬 憂慮가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2) 非政府部門……첫째, 外交政策決定에 있어서의 政党의 役割을 들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美国에는 民主党과 共和党의 2大政党이 있다. 이 両党은 地域的, 人種的인 多元的 諸利益을 代辯하지 않으면 안되는 関係로 自然히 政策面에서 類似性을 갖게되며 이로 말미암아 超党派性을 띠우게 된다. 両党은 政権獲得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全体의 共通利益을 追求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両党은 外交政策面에서 実質的인 差異가 없으며 超党派的 姿勢를 取한다고 볼수 있다.

둘째, 圧力団体와 外交政策과의 関聯이다. 美国에는 많은 圧力団体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活動도 매우 活潑한 것이 特徵이다. 圧力団体가 議会 로비로서 活動한다. 特히 財界의 圧力은 매우 強力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으로 매스콤과의 関係이다. 美国의 外交政策은 伝統的으로 輿論에 의하여 크게 左右된다.

다. 外交스타일

美国外交스타일의 첫째 特徵은 道德的인 아프로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美国外交의 伝統은 清教徒精神의 使命感을 反映한 것이라 하겠다. 以外에 地理的·歷史的 状況이 美国의 道德的 아프로치를 더욱 強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몬로主義는 美国의 政治制度가 유럽 및 其他 世界와는 本質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宣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美国은 20世紀에 高度의 工業化된 強国으로서 西半球에 있어서 圧倒的인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国際政治 全体의 權力政治(power polilics)로 부터 孤立하고 있었다. 第1次大戰과 第2次大戰의 中間期에 있어서의 美国의 態度가 그 가장 代表的인 例였음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美国外交의 特徵은 一旦 美国이 外部로 부터의 挑発을 받아 武力에 呼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경우 美国은 武力行使를 道德上의 原則에 따라 正当化한다.

美国外交의 두번째 特徵은 実用主義이다. 즉 美国外交는 過去의 経験을 重要視하며 弾力的으로 問題를 処理해 나간다. 따라서 美国外交는 한편에 있어서 柔軟性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一貫性이 欠如되고 있다.

3. 蘇聯의 外交政策

가. 外交政策의 諸要因

(1) 地理……蘇聯의 領土는 美国의 約 2倍以上이며 850万平方마일 以上으로서 領土面에 있어서 地上最大의 国家이다. 이러한

広大한 領土가 蘇聯의 첫째의 地理的 特徵이다. 두째번 地理的 特徵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는 大陸国家라는 点이다. 따라서 防禦面에 있어 많은 脆弱性을 露呈하고 있다. 세번째 特徵은 不凍港을 갖고 있지 않다는 点이다. 따라서 蘇聯은 帝政露西亜時代以来로 伝統的으로 海洋에의 出口를 追求해 왔던 것이다. 黒海, 페루샤灣, 紅海에의 進出은 蘇聯의 必要不可欠한 不凍港獲得을 위한 外交目標이다.

(2) 国力……蘇聯의 天然資源은 매우 豊富하다. 이에 比하여 経済発展水準은 높지 않다. 例하면 에너지消費量, 総生産額面에서 美国과 比較한다면 그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実情이다. 軍事力面에 있어서는 美国과 対等性을 維持하고 있으나 消費材部門에 있어서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뒤지고 있다. 더우기 農業의 集団化는 失敗했으며 따라서 蘇聯 農業政策은 重大한 問題点을 안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蘇聯의 国力은 어떤 分野에서는 美国과 같은 水準에 있으나 大部分의 分野에 있어서는 劣勢하며 国力의 各要素가 매우 不均衡状態에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나. 政策決定過程

(1) 政府部門……蘇聯憲法에 의하면 蘇聯外交政策의 最高機関은 蘇聯最高소비엣트로 되어 있다. 最高소비엣트는 会期동안에 外交問題에 관한 閣僚会議의 報告를 聽取하고 承認하며 各代議員은 外交問題에 관하여 質問하고 意見을 開진할 수 있는 権利를 갖고 있

다.

또는 会議期間동안에 있어서는 聯邦·民族両院外交委員会가 活動하며 幹部会가 憲法에 規定된 戦争状態의 宣言, 国際条約의 批准, 廃棄, 外国駐在蘇聯全権代表의 任命, 召還, 蘇聯駐在外交使節의 信任状 및 解任状의 受理 等의 権限을 保有한다.

그러나 実際에 있어서는 最高소비에트는 外交政策決定機関이라기보다는 오히려 政策是認機関, 政策宣伝機関으로서의 性格을 갖고있는 것이 特徴이다.

따라서 蘇聯에 있어서는 共産党政治局이 外交政策 및 国内政策의 最高決定機関인 것이다. 蘇聯外務省은 外交政策에 관한 権限을 保有하고 있지 못하며 外務長官도 事実上 政策決定에 関与할 수 없는 것이 通例인 것이다. 共産党政治局은 政策決定의 最高決定機関일 뿐만 아니라 外交問題를 다루는 各種 付属機関을 独自的으로 設置, 運営하고 있다.

이러한 付属機関의 権限은 모든 面에 있어서 外務省보다도 優越하다. 바꾸어 말하면 政府機構는 党의 政策과 命令을 忠実히 履行한다는 것이 主機能인 것이다. 그 위에 이러한 命令의 実施마저도 恒常 外務省内部나 在外公舘에 配属되어 있는 党員을 통하여 党의 監督下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党이 政策決定의 最高機関이나 그 가운데서도 特히 重要한 것은 社会主義諸国의 共産党 또는 労動党과의 連絡을 維持하는 〈対外部〉 및 非共産国内의 共産党関係를 担当하는 〈国際部〉

인 것이다.

以外에 〈党組織委員会〉가 있는데 이것은 外交関係의 人事를 担当하고 있다. 政治局은 이러한 〈対外部〉, 〈国際部〉 및 〈党組織委員会〉를 통하여 対外政策을 監督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KGB〉라고 불리우는 国家安全委員会가 外交活動을 監視하며 特히 〈外事監督局〉이라 불리우는 〈KGB第1本部〉는 蘇聯諜報活動에 있어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이와 같이 蘇聯의 海外公館에는 外交官 以外에 党関係者가 반드시 駐在하고 있다. 따라서 公館長인 大使는 形式上 公館의 最高地位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実質的으로는 党関係者가 大使以上의 権限을 가지며 大使의 監督에 臨하고 있는 것이다.

(2) 非政府部門……蘇聯에는 西欧民主主義国家에서 볼 수 있는 意味에서의 圧力団体, 輿論, 매스콤과 같은 것이 存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는 事実이다. 비록 있다손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은 全的으로 共産党의 統制下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蘇聯의 社会団体로서는 労動組合, 青年共産同盟 等이 있으나 이러한 社会団体는 外交政策에 관하여 主로 声明의 発表, 外国団体와의 連絡, 大衆集会의 組織 等을 통하여 共産党의 政策을 支持하고 大衆에 伝達하는 役割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蘇聯의 大衆이 外交問題에 대하여 発言하고 行動할 경우의 方法으로서 大衆集会 또 示威에 参加한다던가 매스콤에 投書한다던

가 하는 것이 있으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共産党의 政策을 支持하는 것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蘇聯社会에 있어서 輿論을 指導하는 것도 共産党인 것이다. 즉 党이 輿論의 方向을 設定하고 党이 그 組織과 統制下에 있는 모든 大衆媒介体를 動員하여 党의 政策을 宣伝, 煽動함으로써 大衆을 說得하는 것이다.

蘇聯은 国内権力을 独占하여 全体主義的 外交政策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国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外交当局者를 공경에 빠트리게 하는 国内輿論도 없거니와 外交当局者가 大衆들을 說得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議会에 있어서도 野党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野党으로 부터의 反対도 있을 수 없다.

要컨데 蘇聯政府는 外交政策의 決定과 執行에 있어서 制度的으로 매우 有利한 面을 갖고 있다 하겠다.

다. 外交스타일

蘇聯은 이미 指摘한 바 있는 地理的 特性으로 말미암아 大陸国家的인 外交政策의 特徵을 갖고 있다.

또한 蘇聯外交政策은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規定되고 있는 바 世界革命을 外交目標로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蘇聯外交政策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見解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가지 見解가 代表的인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이데올로기만이 蘇聯外交政策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素라

고 主張하는 見解이며 둘째, 蘇聯外交政策의 基調는 오로지 国家利益이라고 主張하는 見解 세째, 蘇聯外交政策은 이데올로기라던가 伝統的인 政策보다는 現在의 指導者의 資質, 그 役割 等이 重要한 要素라고 見解 끝으로, 蘇聯의 指導層이 国内要求를 充足시키고 消費者의 需要에 副応한다는 것을 配慮하고 있다는 見解 等이다.

要컨데 蘇聯外交政策을 規定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伝統的인 政策, 個人的·政治的 要求 및 国内要求 等과 같은 要素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主張은 한결같이 部分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外交政策에 있어서 異口同声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的인 性格이 무엇보다도 強하다는 事実만은 分明한 것같다. 이데올로기性이 強한 蘇聯外交는 그 스타일에 있어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고 있다. 즉

첫째, 西欧諸国보다도 훨씬 宣伝, 煽動的이며 威脅的인 手段에 重点을 둔다.

둘째, 대우 過激한 言辞를 使用하여 脅迫, 侮辱的이다.

세째, 会議 및 交渉의 場을 오히려 宣伝, 煽動을 위하여 利用한다.

네째, 条約 및 協定 等 国際的 約束을 無視한다.

다섯째, 外交交渉에 있어 柔軟性을 欠如한다. 그러나 후루시쵸프 時代에 와서는 일찌기 볼수 없을 程度로 変化한 面이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美国과 蘇聯에 있어서의 外交政策에 관한 一般

的인 状況을 概觀하였다. 이러한 一般的인 状況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美蘇関係를 分析, 評価하고 앞으로의 展望을 挑出하기로 한다.

4. 데탕트로서의 美蘇関係

가. 데탕트의 展開

1940年代 中半期로 부터 60年代 中葉까지 持続되었던 冷戦의 特色은 美蘇両国間의 치열한 競争과 対決, 政治, 経済, 軍事面에서의 美国能力의 全般的 優位 및 国際問題에 있어서의 高度의 分極化였다. 그러나 60年代末부터 70年代 中葉까지의 美蘇関係는 크게 変化하였다. 事態変化 가운데 特記할만한 것은 첫째, 蘇聯이 戦略的 側面에서 美国과 対等性을 達成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中蘇対立이 激化되었다는 것 세째, 美国이 意識的으로 国際問題에서의 役割을 縮少했으며 끝으로 美蘇間의 緊張은 데탕트라 불리우는 緩和가 있었다는 것 等이다. 이러한 変化期間은 大体的으로 73年頃까지 継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以後에 있어서의 美蘇関係는 새로운 局面을 마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오늘날의 美蘇関係는 60年代 中葉까지 있었던 冷戦関係도 아니며 73年까지 있었던 데탕트関係도 아닌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冷戦과 데탕트와의 混合関係 乃至 그 中間関係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美蘇関係에서 볼 수 있는 첫째 特徴은 1978年 6月7

日 메릴랜드州 어내폴리스에 있는 海軍士官学校 1978年度 卒業班 士官生들에게 카터大統領이 말한 바 있듯이 競争과 協力이라는 두 가지 要素가 混在하고 있다는 点이다. 冷戦時代에 있어서의 美蘇関係는 競争 乃至 対決的인 要素가 支配的였다. 이에 대하여 데탕트時代에 있어서의 美蘇関係는 協力 乃至 協調에 重点이 있었던 것은 周知의 事実이다.

둘째, 特色은 美国의 国力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 対蘇優位를 確保하고 있었던 冷戦時代와는 달리 적어도 軍事力面에 있어서는 対等性(parity)를 維持하게 되었다는 事実이다. 그러나 軍事力以外의 国力의 主要要素에 있어서는 美国이 蘇聯보다 優位에 있음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特히 経済面과 科学技術水準面에서 그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経緯에 대해서 于先 検討해 보기로 하겠다.

위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1970年代의 国際情勢의 基本的인 틀이라고 생각되었던 美蘇데탕트体制는 오늘날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데탕트를 代表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美蘇両国의 第2次戦略武器制限会談(SALT II)의 難航, 蘇聯의 아프리카進出을 둘러싼 激烈한 応酬, 美中共接近에 대한 蘇聯의 反撥 및 蘇聯反体制派裁判에 대한 美国의 非難 等은 冷戦時代의 美蘇関係를 방불케하였다.

冷戦과 競争的 共存의 4半世紀가 지난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形成되기 시작한 <協力的 共存>이라 할수 있는 데탕트 下에서의 美蘇 또는 東西両陣営은 많은 成果를 올렸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美国이 冷戰의 思考方式에서 脫皮한 理由는 닉슨大統領時代에 国務長官을 歷任했던 키신저가 77年 1月 退任直前에 말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는 '本人이 政権에 参与했을 때 ― 69年 1月 ― 美国外交는 40年代에 形成된 것이며 60年代의 現実에는 이미 対応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当時 美国은 越南戦争에 直接 介入하여 数年이 지났음에도 不拘하고 解決의 실마리를 찾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難関에 부닥치고 있었으며 또한 그 余波로 말미암아 世界経済에서 차지했던 그동안의 圧倒的 地位로 부터 転落하게 되고 심지어 美国社会의 分裂危機까지 마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共産主義로 부터 自由世界를 守護한다는 硬直된 '冷戰哲学'이 美国에게 안겨다준 事態를 冷徹하게 反省한 結果로서 나타난 것이 다름아닌 <対決로 부터 均衡에>라는 데탕트에의 第1歩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데탕트外交는 무엇보다도 対中共関係에 있어서 71年 7月의 키신저補佐官의 隠密한 北京訪問, 72年 2月의 닉슨의 中共訪問, 対蘇関係에 있어서는 72年 5月의 닉슨의 蘇聯訪問과 SALT I 協定의 調印, 나아가서 73年 1月의 越南平和協定調印 等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 当時 蘇聯은 체코事件(68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東欧衛星諸国의 <遠心化傾向>의 難関에 부닥치고 있었던가 하면 中共과는 国境武力衝突事件(69年)이 発生할 程度로 関係가

悪化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敵対関係에 突入한 中共에 美国이 接近하는 것을 蘇聯이 座視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한 蘇聯은 対内面에 있어서 経済成長이 이 当時부터 鈍化되고 있었던 바 이것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西方側 特히 美国의 先進技術, 프랜트의 導入이 不可避한 実情였던 것이다. 즉 内外情勢로 보아 蘇聯은 데탕트가 要求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時代였던 것이다.

또한 美蘇両国으로 하여금 데탕트政策을 取하게끔 한 共通的인 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는 것은 끝임없는 軍備競争에서 오는 負担을 減少시키고자 하는 意欲였다.

60年代에 이미 美蘇両国은 大量의 核武器를 保有하여 相互交錯状態를 가져왔음에도 不拘하고 抑制力을 維持해야 한다는 理由에서 核弾頭 뿐만 아니라 그 運搬手段까지도 包含한 끝없는 軍備競争을 展開해 나갔던 것이다. 그 結果 両国은 급기야 이러한 軍備競争의 継続이 얼마나 各己에 浪費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反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反省은 軍備競争의 自然的인 論理的 帰結인지도 모른다.

위에 指摘한 要因이 相互作用하여 成立된 〈協調的 共存〉으로서의 데탕트体制는 基本的으로 美蘇両国의 〈힘의 均衡〉을 目標로 하는 것이었다. 例하면 SALT I 은 戦略武器保有数의 現状凍結에 合意한 것으로서 원래 의미에서의 軍縮과는 距離가 먼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後 74年 11月에 成立된 SALT II 暫定合意(우라

지보스독合意)도 戰略武器의 質的 規制를 導入하였으나 本質的으로는 SALT I과 큰 差異가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어쨌던지간에 美蘇両国이 激烈한 競争을 展開해온 戰略武器分野에 있어서 급기야 制動裝置에 合意했다는 것은 劃期的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75年 7月부터 8月에 걸쳐 美蘇両国을 包含하는 35個国首脳들이 헬신키에서 会合하여 데탕트의 象徵으로서 歷史的 意義를 갖는 유럽安保協力会議가 開催되었다. 또한 70年부터 75年동안에 東西貿易은 360億달러에서 810億달러로 急增하였다.

데탕트가 經済的으로도 많은 影響을 미쳤다는 것을 端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逆説的으로 데탕트의 停滯는 바로 이무렵에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는 것은 데탕트를 둘러싼 国際環境의 変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国은 屈辱的이기는 하였으나 越南에서 손을 뗏으며 蘇聯은 유럽安保協力会議에 의하여 유럽에서의 現状固定化에 관하여 事実上의 保障을 받았다. 한편 蘇聯이 憂慮했던 美中共関係도 그 以上 進展되지 않았다.

이러한 時期에 폴투갈革命, 앙고라事態가 惹起되었다. 特히 美国에게 衝擊을 준것은 75～76年의 蘇聯支援下의 쿠바軍이 앙고라紛争에 介入하여 短期間内에 親蘇派勢力에 의한 全앙고라制圧을 実現시킨 것이었다. 美国은 "蘇聯은 歷史上 처음으로 유러시아大陸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世界各地를 威脅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非難하였다.

나. 데탕트에 대한 美蘇両国의 見解

데탕트에 대하여 美蘇両国間의 見解上에는 큰 差異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 널리 알려지고 있는 事實이다.

美国은 1973年 美蘇不戦条約을 締結한 以来 美蘇相互 戦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勿論이거니와 美蘇両国은 他国의 紛争에도 軍事的으로 介入하지 않으며 紛争解決을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한다는 것을 期待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美国은 데탕트를 <힘의 均衡>이라고 理解했으며 따라서 蘇聯이 이러한 均衡을 깨트리려는 行動을 取한다는 것은 데탕트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蘇聯은 全혀 다른 見解를 갖고있다. 71年에 開催된 蘇聯共産党大会에서 <平和와 国際協力推進>과 더불어 <諸国民의 自由와 独立을 目標로 하는 闘争支持>의 브레즈네프書記長報告가 承認되었으며 76年의 共産党大会에서도 브레즈네프는 "데탕트는 蘇聯이 民族解放闘争을 支持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는다"고 演說했던 것이다.

즉 蘇聯의 見解로는 데탕트란 美国의 期待와는 달리 決코 全地球的 現状固定의 承認이 아니거니와 武力不行使의 約束도 아니었던 것이다. 蘇聯으로서는 데탕트란 다만 美蘇間의 核不戦의 約束과 東西間의 交流 및 協調의 促進이며 또한 이러한 状況下에서의 第3世界에의 勢力伸張競争의 承認인 것이다. 勢力伸張을 위하여 軍事力이 利用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直接的으로 美国과 그 同盟国에

에 대한 것이 아닌 限에 있어서는 데탕트에 抵触되는 것이 아니라고 蘇聯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의 데탕트에 대한 이러한 見解는 어디에서 起因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蘇聯外交의 이데올로기性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70年代의 蘇聯外交를 緊張緩和外交라고 부를수 있다면 그 始発点은 1969年의 世界共産党大会에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現브레즈네프政權이 64年 10月 후루스쵸프로 부터 政權을 이어받은 後의 数年동안에 있어서의 蘇聯外交의 重要関心事는 東西緊張緩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逆行하는 東西間의 軍事的 対決 즉 越南戦争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当時의 蘇聯外交의 主要課題는 마땅히 所謂 社会主義諸国의 一致団結에 의한 反帝国主義闘争의 強化였던 것이다. 이 課題는 当時의 蘇聯에 있어서의 最大問題였던 中共과의 関係改善을 包含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最優先의 것이었다.

그러나 1969年의 中蘇国境武力衝突事件에 의하여 中蘇関係가 決定的으로 悪化된 直後의 6月의 世界共産党大会에서 蘇聯이 全유럽安保協力을 呼訴하기에 이르자 蘇聯外交努力은 유럽의 緊張緩和에 集中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結果 蘇聯은 1970年의 独蘇条約을 契機로 유럽의 緊張緩和実現에 成功하고 뒤이어 1972年 닉슨大統領의 蘇聯訪問, 1973年의 브레즈네프의 美国訪問에 의한 2次의 首脳会談結果 美蘇両国間의 緊張緩和도 達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의 緊張緩和로 부터 本格的인 東西両世界의 緊張緩和에로 進行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브레즈네프가 推進해 나간 緊張緩和外交는 후루시쵸프時代의 平和共存外交와 根本的으로 다를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元来 <平和共存>이라는 것은 蘇聯対外政策의 基本原則의 하나를 表現하는 用語이다. 平和共存의 不可避性은 레닌이 発見한 資本主義諸国의 発展不均衡原則에서 由来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実이다.

즉 発展不均衡으로 말미암아 資本主義諸国은 一挙에 社会主義国家로 移行될 수 없으며 따라서 歴史的 一時期 동안에는 社会主義国家와 資本主義国家가 同時的으로 地球上에 存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蘇聯이 平和共存原則을 蘇聯対外政策의 레닌的 原則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由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蘇聯의 外交政策의 基本原則으로서의 平和共存은 레닌時代로 遡及하기 보다는 1956年의 第20次蘇聯共産党大会에서 후루시쵸프가 두体制의 平和共存에 관하여 言及한 것이 始発点임은 다시 말할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対外政策의 基本原則으로서의 平和共存이란 要컨데 戦争이라던가 内政干渉없이 平和的 競争으로 두体制間의 歴史的 対決을 解決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両体制의 対立関係의 解消도 아니거니와 蘇聯이 이데올로기闘争을 抛棄했다던가 階級闘争을 抛棄했다던가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蘇聯共産主義者들이 말했듯이 社会主義 이데올로기와 資本主義

이데올로기鬪争은 平和共存実現을 위하여 障害가 되지 않으며 階級鬪争도 平和共存下에서 継続되는 것이다.

平和共存에 대한 蘇聯의 이러한 解釈은 데탕트의 解釈에도 그대로 適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第25次共産党大会에서 브레즈네프는 "緊張緩和, 平和共存을 国家間의 関係에 관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두用語를 같은 것으로 使用한 바 있으며 또한 그는 "平和共存, 国際緊張緩和라는 蘇聯対外政策의 가장 重要한 原則"云云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은 "平和共存原則을 目標로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社会的 現状維持의 保障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緊張緩和도 "世界에 있어서의 社会, 政治的 現状維持를 意味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平和共存이 "革命鬪争発展의 새로운 可能性을 展開하는 것"이라면 緊張緩和도 "階級鬪争의 自由스러운 展開를 위한 前提를 創造하는 것"이다. 要컨데 蘇聯은 平和共存이나 緊張緩和이나를 莫論하고 現状維持 乃至 固定化를 約束하는 것이 아니며 両体制間의 階級的 敵対関係를 解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 美蘇関係의 亀裂

이러한 데탕트에 대한 美蘇両国間의 見解差異와 더불어 戦略的 環境要因이 크게 変化되어 갔다.

60年代初의 美国은 케네디大統領下에서 従前까지의 大量報復戦略으로 부터 柔軟反応戦略으로 戦略概念의 転換을 가져왔다. 이러한

戰略槪念의 修正은 蘇聯의 ICBM開発成功에 의한 美国의 核抑制力의 信憑性에 대한 危機意識에서 起因되고 있음은 勿論이다. 즉 美国은 이러한 危機로 부터의 活路를 打開하기 위하여 두가지 方向에서 努力을 傾注하였던 바 그 하나는 核武器의 小型化 努力이며 다른 하나는 核武器打擊目標를 敵의 都市가 아니라 敵의 核戰力에 限定시키는 努力였다. 이러한 두 方向은 보다 小型의 核能力에 의한 抑制와 戰略的 核能力에 抑制와를 配合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柔軟反応戰略으로 美国은 戰争을 規模, 核武器使用如否等에 의하여 여러 段階로 区分하며 또한 各段階에 있어서 그것을 限定시키는 努力을 約束했던 것이다. 이러한 状況下에서 美国은 쿠바事件에 대한 海上封鎖가 可能했던 것이다.

코르시코프元帥의 〈国家의 海軍力〉은 이러한 蘇聯의 軍事的 劣勢에 의한 政治的 敗北의 쓰라린 経験의 反省에서 나왔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아무로록 蘇聯은 60年代 後半의 政權交替와 때를 같이하여 戰略槪念의 修正을 가져왔으며 修正된 戰略槪念下에서 軍事力의 增強에 拍車를 加했던 것이다. 美蘇両国間의 戰略均衡의 第1歩를 蘇聯은 바로 이때부터 내디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蘇聯軍事力의 継続的인 增強은 蘇聯軍事力의 任務上의 変化를 가져왔다. 60年代後半의 戰略槪念 修正으로서 蘇聯軍事力은 従前까지의 抑制機能에 더하여 対処機能을 갖게 되었으며 7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이 두機能을 더욱 拡大시켰다.

蘇聯軍의 役割은 "侵略抑制力이며, 社会主義共同体를 確実히 保全

하는 것이며, 地球上의 다른 地域에 있어서의 帝国主義의 行動을 制限하는 것이며 또한 社会主義에 대한 侵攻에 直接 反応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蘇聯軍機能의 拡大를 立証하고 있다.

蘇聯軍의 任務는 自国 및 共産陣営에 대한 直接的인 軍事行動에 対処하는 것 그에 대한 抑制力役割을 하는 것, 또한 이와는 別途로 地球上의 다른 地域 바꾸어 말하면 蘇聯과 社会主義 共同体諸国以外의 地域에서의 어떤 行動에 対応한다는 것이다. 즉 60年代末期에 抑制와 対処의 役割이 賦与되고 있었던 蘇聯軍은 7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 共産圏의 安全保障과는 直接的인 関係가 없는 地域에서도 軍事行動을 取한다는 役割이 賦与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蘇聯軍은 第3世界의 革命支援에도 関与하기에 이른 것이다.

앙고라를 비롯한 아프리카諸国에의 軍事介入을 蘇聯은 서슴치 않고 敢行했다. 즉 앙고라에 이어 77年末부터 蘇聯과 쿠바는 <아프리카의 뿔>에 該当되는 에치오피아·소마리아紛争에 介入하여 瞬時間에 소마리아軍을 擊退시켜 世上을 놀라게 하였다.

또한 78年 5月에는 쿠바軍隊에 의하여 訓練받은 旧가당카兵部隊가 앙고라로 부터 자이레南部에 侵攻하는 事態가 発生하였다. 이와 같이 蘇聯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데탕트体制下에서 侵略했던 것이다.

蘇聯의 継続的인 軍事力의 増強과 그것을 背景으로 하는 対外的膨張은 美国의 対蘇批判을 高潮시켰으며 나아가 対蘇強硬姿勢를 낳게 하였다. 美国의 対蘇批判은 78年中葉을 前後하여 砲門을 열었

다. 그 몇가지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1978年 5月24日 몬데일副統領은 뉴욕의 유우엔軍縮特別総会에서의 演説에서 蘇聯의 軍事力増強에 대하여 非難을 퍼부었다. 몬데일副統領은 民主党内의 리베랄派의 重鎭이다. 이러한 그가 유우엔에서 蘇聯을 非難했다는 것은 큰 意味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몬데일副統領의 対蘇非難은 美国政府의 対蘇攻擊의 조짐였음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둘째, 75年 5月25日 카터大統領은 遊説途中 시카고에서 記者会見을 갖고 아프리카에 대한 蘇聯과 쿠바의 軍事介入을 非難하였다. 特히 카터大統領은 자이레紛争을 指摘하면서 "앙고라의 共産主義政権을 支援하고 있는 쿠바에 責任이 있다"고 말했다. 자이레紛争이 発生한 以来 앙고라와 쿠바를 들어 非難한 것은 이것이 처음였던 것이다.

세째, 1958年 5月28日 브르제진스키安保担当特別補佐官은 蘇聯과 쿠바는 白人의 大量虐殺을 가져온 자이레侵入의 政治的 道徳的 責任을 져야한다고 非難하면서 크레무린은 데탕트의 国際的 原則을 違反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蘇聯은 始終一貫 많은 努力을 傾注하여 通常兵力을 増強하고 中共과의 国境線에 兵力集中을 強化하고 美国을 非難하는 痛烈한 世界的 켐페인을 展開하고 있으며 中東을 包囲·浸透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人種紛争을 惹起시켜 이들 諸問題의 早速한 解決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네째, 78年 5月30～31日 동안에 워싱톤에서 開催된 NATO頂上会議의 첫날에 있었던 演説에서 카터大統領은 蘇聯 및 와루소条約諸国은 通常의 安全保障에 必要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上回하는 軍事的 威脅을 西方同盟諸国에 加해 오고 있으며 蘇聯 軍事力은 10年以上 동안에 増強되었고 近代化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美国은 通常武器 뿐만 아니라 戦術核, 戦略核이라도 使用하여 스스로의 役割을 다할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다섯째, 78年 6月7日 카터大統領은 母校인 메릴랜드州 어내폴리스에 있는 海軍士官学校 78年度 卒業班 士官生들에게 対決아니면 協力가운데 어느 하나를 蘇聯은 択해야 한다는 題目下에서의 演説을 하였다.

이러한 最近의 美国의 対蘇非難의 高潮는 決코 偶然한 것은 아니다. 카터大統領은 就任以来 이른바 〈人権外交〉을 主張하고 나섰으며 또한 核戦争回避를 위한 軍縮을 強力하게 主張하였다. 또한 카터大統領은 同盟国関係를 重要視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東西関係를 重要視하고 相互間의 問題를 関聯시켜 〈힘의 均衡〉維持를 꾀함으로써 데탕트体制를 構築해 나갔던 닉슨・키신저外交路線과는 달리 카터・브르제진스키路線은 対外面에서 攻勢的인 것이 特徵이다.

브르제진스키補佐官은 이른바 〈3角体制委員会〉(trilateral committee)의 中心人物로서 美蘇와 美・中共의 二重데탕트로 부터 美国, 日本 그리고 유럽의 欧洲共同体가 中心이 된 새로운 国際政

治秩序에로 美国의 外交政策이 定立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닉슨時代에 있어서의 美国의 対中共接近이 対蘇交渉 乃至 対蘇데탕트의 布石였다고 한다면 카터·브르제진스키構想은 対蘇牽制의 布石으로서 中共과 接近하는 것이다. 위에 말한 브르제진스키의 美·日·西欧를 根幹으로 하는 3角体制委員会構想도 그 実은 対蘇牽制論理인 것이다.

더우기 카터의 人権外交는 蘇聯의 反体制派弾圧을 둘러싸고 美蘇関係를 더욱 미묘하게 만들고 말았다. 特히 78年 7月에 있었던 蘇聯의 反体制派裁判의 強行에 대하여 美国은 報復措置로서 美国製 콤퓨터의 対蘇輸出中止를 決定하는 等 強硬姿勢를 보였던 바 両国関係는 最悪状態를 가져왔다.

이러한 状況下에 있어서 蘇聯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事態가 展開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蘇聯이 機会있을 때마다 警告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이 8月 12日 中共과 友好平和条約을 締結했다는 事実이다. 経済大国인 日本을 敵対関係에 있는 中共에 빼겼다는 것은 蘇聯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日·中共友好平和条約의 締結直後 있었던 華国鋒의 東欧諸国의 巡訪外交도 蘇聯의 神経을 두꾸는 것이었다. 特히 체코事件 10周年에 該当하는 日字에 맞춰 있었던 華国鋒의 루마니아·유고訪問은 큰 意味를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 両国首脳는 反蘇를 意味하는 中共의 <反覇権>에는 同調하지 않았으나 華国鋒이 蘇聯非難과 中共外交의 復活을 誇示하는 機会가 되었음은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最近의 蘇聯外交에 있어서 또 하나의 打擊은 美蘇主導型의 中東和平交涉으로 부터 蘇聯이 疎外되었다는 것이다. 즉 77年 11月의 사다트 이집트大統領에 의한 劇的 에르사렘訪問을 契機로 宿敵同志의 이집트·이스라엘이 和解하여 中東和平交涉은 蘇聯을 除外한 美国主導型의 이집트·이스라엘 2国間 交涉形態로 推進되었다.

78年 9月5日부터 13日間 開催된 카터, 베긴·사다트의 3国頂上에 의한 캠프데빗트会談도 그 一環였음은 다시 말할나위가 없다.

蘇聯은 이 会談의 合意事項에 관하여 中東紛争의 모든 主要한 問題를 回避한 것이며 아랍人을 犠牲시켜 이스라엘과 美国이 利益을 얻어내려고한 交涉였다고 非難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크레므린은 10月以後 시리아의 사다트大統領, 알제리아의 부메지엔大統領, 파레스타인解放機構議長인 아라파트 等을 모스코바에 招請하여 会談하고 反사다트陣営의 団結을 꾀하면서 이집트·이스라엘의 単独講和反対에 拍車를 加했던 것이다.

蘇聯은 이 以外의 地域에서도 積極的인 外交를 展開하였다. 즉 그로미코外相이 78年 10月13, 14両日동안 루마니아를 訪問하고 또한 25日부터 3日間 프랑스를 訪問하여 両国과하 友好増進에 努力하였다. 또한 蘇聯外務次官이 78年 10月20日부터 29日동안에 걸쳐 마레지아를 除外한 ASEAN各国을 巡訪하여 이 地域에 대한 影響力増大를 図謀하였던 것이다.

또한 蘇聯은 78年 11月2, 3両日동안에 越盟의 共産党·政府代表団을 끌어들여 両国頂上会談을 開催하고 蘇聯·越盟友好協力条約을

締結하였다. 越盟은 이에 앞서 6月에 코메콘(COMECON)에 加盟함으로써 対蘇偏向의 姿勢를 取하였으나 이 友好協力条約의 締結로서 蘇聯・越盟密月関係를 굳혔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印支半島에 있어서는 蘇聯ー越盟 対 中共ー캄보디아의 対決構造가 뚜렷해졌으며 越盟과 캄보디아의 国境紛争은 中蘇의 代理戰争으로 発展할 可能性이 높아갔다.

蘇聯과 越盟과의 友好協力条約의 締結은 日・中共友好平和条約 締結後의 아시아情勢에 대한 蘇聯의 새로운 外交攻勢를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데탕트体制下에서 蘇聯의 軍事力増強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蘇聯의 対外膨張政策은 카터政権의 登場을 契機로 카터・브레제진스키路線으로 定立되어 対蘇牽制政策이 展開되었다. 이와 같은 美蘇両国의 対外政策展開는 相互 影響을 미쳐 結果的으로 데탕트는 깨지고 過去의 冷戰状態로 되돌아가는듯한 状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이 時点에 있어서의 美蘇関係의 現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美蘇関係의 展望

美蘇関係는 歴史的으로 볼때 冷戰,〈競争的 共存〉,〈協力的 共存〉으로서의 데탕트 및 〈対決的 共存〉関係로 展開되었다. 이러한 関係로 보아 両国関係를 展望함에 있어서 考慮될 수 있는 모델은

첫째, 冷戰関係

둘째, 競爭的 共存関係

세째, 協力的 共存関係

네째, 対決的 共存関係 等이라 하겠다.

이러한 네個의 모델 가운데서 短期的으로 展開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은 <対決的 共存> 関係이다.

카터大統領은 同盟関係를 굳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힘을 背景으로 하여 蘇聯과 交涉하여 SALT II 等과 같은 問題에 있어 蘇聯의 譲歩를 얻어내려는 公算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譲歩는 커녕 오히려 軍事力을 增加시켜 対美威脅을 高潮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威脅은 蘇聯指導者의 交替問題와 関聯시켜 볼때 더욱 增大될 可能性이 없지 않는 것이다. 78年 5月初에 브레즈네프가 西独을 訪問했을 때 브레즈네프의 健康이 매우 悪化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美国으로서는 蘇聯의 対外政策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後継者問題가 큰 関心事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蘇聯의 軍事力增強에 많은 影響을 미친 軍指導者의 地位의 向上이다. 브레즈네프의 시베리아訪問時에 国防相이 随行했다던가 美蘇外相会議에 参謀総長이 参席했다던가 하는 事実은 이것을 말해주는 例라 할 것이다. 또한 고루시코프元 가 78年 5月에 아덴을 訪問하고 일찌기 失脚前의 포드고르니最高会議幹部会議長이 担当하고 있던 中東・아프리카問題에서의 重要한 役割을 代行하고 있다는 観測도 있을 程度이다.

브레즈네프以後의 蘇聯의 指導者가 누가되던지간에 軍部의 强力한 影響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가까운 將來에 브레즈네프가 權座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그 자리를 그대로 維持하거나를 莫論하고 蘇聯의 対外政策은 强硬路線이 持続될 것으로 展望된다.

事実 美国은 蘇聯의 이러한 强硬路線에 立脚한 軍事的 威脅과 覇膨張을 沮止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 代表的인 例가 카터大統領이 軍部의 反対에도 不拘하고 B－1生産의 中止, 中性子弾의 生産延期, 新型 MX 미사일開発計劃実施의 遅延 等이었다. 그러나 蘇聯은 美国의 이러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의 强硬路線을 조금도 굽히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카터大統領은 앞으로 닥아오는 大統領選挙를 意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蘇聯에게 讓步하는 姿勢를 取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카터大統領으로서는 決断力 있는 大統領으로서의 이미지를 浮刻시켜야 할 必要性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必要性에 立脚하여 내려진 断案의 하나가 다름아닌 美·中共의 国交正常化이다. 美国은 드디어 中共의 北京政權을 中国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했다. 즉 78年 12月16日 워싱톤과 北京에서 同時에 発表된 두나라간의 共同声明은 79年 1月1日을 期하여 相互間에 外交関係를 樹立한다는데 合意했던 것이다. 共同声明에 의하면 美国과 中共은 相互承認의 形式으로 外交関係를 樹立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実은 美国이 中華民国과 断交하고 雙方의

防衛条約을 廃棄하며 駐台美軍残留部隊를 모두 撤収한다는 中共側의 条件을 受諾하면서 北京政権을 承認했던 것이다.

美国은 中共과의 修交로써 東아시아에서 蘇聯勢力을 牽制하고 中共은 이로써 美・日・西欧와 더불어 〈蘇聯社会主義帝国主義〉에 対抗하는 国際統一路線을 形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対蘇包囲網形成에 대하여 蘇聯은 積極的으로 非難하고 나섰다. 그 뿐만 아니라 印支半島에서의 代理戦을 激化시키고 급기야는 프놈펜을 制圧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캄보디아親中共政権의 崩壊는 共産主義世界의 勢力다툼 特히 中蘇間의 代理戦이라는 点에서 새로운 意味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될 것은 프놈펜陥落이 美中共修交에 따른 広範한 国際政治秩序의 改編過程의 두드러진 한 延長으로 나타났다는 点이다. 70年에 美国과 中共이 和解분위기로 劇的인 움직임을 보이자 蘇聯과 印度가 이에 対抗해서 蘇聯・印度友好条約을 締結해서 密着했다. 印度는 이런 余勢를 몰아 파키스탄과 第3次戦을 일으켜 東파키스탄의 独立을 支援하여 방글라데시政府를 세우게했던 것이다.

이때에 中共은 파키스탄을 強力히 支援하는 立場이었고 印度와는 不和関係에 있었지만 中共은 파키스탄을 도울 수가 없었다.

따라서 蘇聯과 베트남은 美・中共修交라는 새로운 事態를 틈타 蘇・越友好条約을 締結한데 이어 電撃的으로 힘의 空白状態인 캄보디아를 攻略할 計劃을 樹立했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은 캄푸치아救国民族統一戦線이 78年 12月3日에 急造되었고 베트남과 蘇聯이 그 臨時政府를 強力히 支持했다는 事実이다.

아무쪼록 蘇聯의 支援下에 베트남軍이 캄보디아를 侵略하고 親中共政権인 폴포트政権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中共에게는 重大한 挑発行動이며 美国으로서도 큰 関心事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結局 美国은 이것을 契機로 美国의 베트남과의 修交交渉을 위한 使節団派遣予定이던 것을 取消시키고 말았다.

또한 오늘날 進行中인 이란事態는 美蘇関係를 左右하는 또 하나의 要素가 아닐 수 없다. 美蘇両国은 서로 相対方에게 이란事態에 干渉해서는 안된다고 警告하고 있지만 이런 事態가 어떻게 落着되는가 하는 것은 美蘇両国으로서는 큰 関心事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美国은 비록 팔레비王支持를 拋棄한다고 宣言했지만 바크티아르政権을 支持하고 있는데 反하여 蘇聯은 호메이니옹을 支持하고 이란의 回教社会主義化를 꾀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따라서 이란事態에 대한 美蘇両国間의 対決도 不可避한 것이다.

끝으로 SALT Ⅱ를 둘러싼 美蘇関係가 있다. SALT Ⅱ의 暫定的協定은 77年 10月3日을 期하여 그 効力을 喪失하고 말았으며 無協定状態가 되었다. 그러나 美蘇両国은 無協定状態임에도 不拘하고 SALT Ⅱ協定을 継続 遵守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公式的으로 表明하고 SALT Ⅱ妥結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리하여 77年 10月末부터 11月初에 걸쳐서 SALT Ⅱ의 年内合意에 관하여 美蘇両国

首脳는 楽観的인 見解를 表明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年内合意는 水泡로 돌아가고 SALT II는 78年으로 넘겨지고 말았다. 78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SALT II는 妥結될 것이라는 希望과 予測에도 不拘하고 失敗했다. 또다시 SALT II는 79年으로 移越되는 状態가 되고만 것이다.

年初에 SALT II는 完全히 合意되었다고 伝해지고 있으나 美蘇両国은 아직도 公式的으로 SALT II의 協定에 調印하고 있지 않는 実情이다. SALT II가 難航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軍事的인 理由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重要한 것은 美蘇両国間의 政治的 理由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즉 美蘇両国의 政治的 対決이 深化되고 있는 状況에서는 軍事的 側面에서 SALT II가 合意되었다손치더라도 妥結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当然한 論理的 帰結일 것이다.

카터大統領은 79年에 즈음하여 議会에 提出한 年頭教書에서 SALT II가 世界平和에 寄与할 것이나 自身은 만일 SALT II協定이 美国의 圧倒的 核軍事力을 保有하지 않으면 이 協定에 署名하지 않을 것이며 美国의 対蘇軍事力優位를 継続 確保해 나갈 것이라고 宣言했던 것이다.

総 5,316億달러 規模의 1980会計年度 予算에서 社会福祉計劃費를 줄이고 国防費를 10%増額하여 1,227億달러로 策定한 것은 美国이 軍事的으로 蘇聯에 劣勢하게 놓이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決意를 美国이 反映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카터大

統領은 79年의 主要対外政策 目標의 하나가 SALT Ⅱ協定의 成功的 締結임을 밝히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美蘇両国의 対内外的 要因으로 말미암아 美蘇関係는 対決的 共存関係를 維持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그렇다고 해서 70年代初에 構築되었던 美蘇両国의 데탕트가 完全히 崩壊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떤 側面에서 보면 美蘇両国은 바야흐로 美蘇関係 뿐만 아니라 国際政治秩序 속에서 比重을 높혀 가고 있는 中共 및 第3世界諸国의 存在 等 諸要因을 감안한 새로운 次元의 데탕트를 摸索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展望되는 美蘇関係가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은 무엇일까? 지난 数年동안에 있어서 特히 78年에 蘇聯은 어떤 側面에서 보면 比較的 積極的인 姿勢로서 韓国에 接近해왔다. 그러나 蘇聯의 対韓接近은 日·中共 平和友好条約의 締結에 따른 東北아시아地域에서의 中共과의 外交戦에서 守勢에 몰린 蘇聯이 그 突破口를 摸索하기 위한 하나의 布石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蘇聯으로서는 中蘇紛争 中에서 北傀가 매우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自己便에 끌여드릴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在 北傀가 中共에 密着되고 있다는 事実은 蘇聯에게 큰 負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其実 蘇聯의 対韓接近의 直接的인 속셈은 韓国에 있는 것이 아니라 北傀를 自己便에 끌어들이기 위한 陽動作戦인 것이다. 이런 限에 있어서 蘇聯의 対韓接近은 限界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中共의 国交正常化에도 不拘하고 北傀가 中共과 継続密月関係를 維持해 나간다면 蘇聯은 中共·北傀間의 密着関係를 瓦解시키고 나아가서 北傀를 自己便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制限된 範囲内이기는 하겠지만 韓国에 対한 微笑外交를 積極化해 나갈 것이라고 展望된다.

反面에 美中共国交正常化를 契機로 韓国이 対中共接近을 摸索하는 方向으로 움직이는 気味만 보이기 시작한다면 蘇聯은 態度를 突変하고 対韓非難을 積極化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美国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위하여 美·中共国交正常化를 説得하여 北傀로 하여금 門戸를 開放하도록 作用할 것을 期待하는 한편 美国 自身도 慎重하게 北傀와의 接触을 試図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要컨데 韓半島는 새로운 転換期에 접어들고 있다 하겠다.

中·蘇関係 展望

The Prospect of the Sino-Soviet Relations

研究執筆責任： 鄭 埈 昊

（略歷） 서울大文理大 外交学科 卒業 및

同 大学院 碩士 및

同 大学院 博士過程 修了

現在 国防大学院 教授

目 次

序 言 203

1. 中・蘇関係의 紛爭要因과 그 実質的 側面 205

2. 中・蘇関係에 대한 作用変数로서의 中共의 政策과 能力 215

3. 中・蘇関係에 대한 作用変数로서의 蘇聯의 政策과 態度 224

4. 両国関係의 諸模型 233

5. 諸模型의 比較分析 및 評価 240

6.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249

結 言 253

序　　　　言

中・蘇関係에 관한 向後 10年間의 長期展望을 試図한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닌것 같다. 우선 対象이 共産国家들인 만큼 平素에 그 政策方向과 意図를 公式的으로 表明하거나 文書化해서 提示하는 例가 거의 없다는 点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両国의 意図나 態度를 나름대로 確認해 가는 일이 優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冒頭에서는 初期에 提起되었던 両国間의 紛争要因들을 両吟味한후 両者関係와 관련하여 個別国의 政策目標, 能力, 与件을 検討하기로 한다. 이 境遇 両国의 国家目標가 지니는 意味와 立場은 다소 差異가 있을 것이다. 中共에 있어서는 国家의 一般目標 및 特殊目標 等 一切의 政策目標들이 両国関係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는데 반해 蘇聯의 境遇는 世界政策과 戦略의 一環으로서의 部分的, 限定的 対中共目標들이 主要한 作用変数가 될 것이다. 그런고로 中共에 대하여는 経済, 軍事를 中心으로한 政策全般이 関心의 対象이 되겠지만 蘇聯에 있어서는 対中共政策, 이와 관련된 軍事的 意味 等에 焦点을 맞추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어쨋든 本稿前半에서 試図하고 있는 中・蘇両国의 政策分析 等은 다음 段階의 모델構想에 不可欠한 過程이 될것인바 이러한 節次를 통하여 그리고 前半의 諸 変数들을 勘案하여 設定된 模型들은 各己 独特한 状況이 想定됨으로써 後続되는 諸般 比較分

析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一貫된 論理体系를 維持하기에도 容易할 것이다.

끝으로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은 可能性이 가장 높다고 判断되는 一個 模型만을 中心으로 하기보다도 代表的 模型들을 同時에 想定함으로써 豫想되는 相関関係와 諸 効果를 広範하게 考慮할 수 있어 長期展望을 試図하는 目的에도 符合할 것이다.

1. 中·蘇関係의 紛争要因과 그 実質的 側面

그동안 中·蘇両国間에 介在되어온 紛争要因은 대략 다섯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即 ① 蘇聯의 平和共存路線과 戦争可避論, ②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両側의 見解差問題, ③ 스타린格下問題, ④ 共産諸国間의 団結問題를 비롯한 共産圏内部問題 그리고 ⑤ 国境問題 等이다. 이제 各項目을 中心으로 그 줄기를 概観해 보기로 한다.

첫째, 蘇聯의 平和共存路線과 戦争可避論를 둘러싼 是非이다.

周知하듯이 両国紛争의 発端은 蘇聯의 世界革命戦略의 修正과 이에 대한 中共의 反応으로 부터 비롯된다. 이런 点에서 1956年 2月의 第 20次 共産党大会는 크게 注目할만한 것이었다. 자고리아 教授의 整理를 参考하면 후루시쵸프는 本大会에서 蘇聯의 対外政策 및 世界革命戦略과 관련하여 세가지 点에서 従来와는 색다른 見解를 과감히 表現하였다. 첫째로 平和共存은 蘇聯外交政策의 基本原則이며, 둘째로 맑스, 레닌의 「도그마」를 修正함으로써 戦争은 不可避한 것이 아니며, 셋째로 資本主義諸国内에서의 革命은 非暴力的으로 可能하다는 것이었다. 1) 이러한 그의 主張은 平和共在路線을 唯一한 方向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当時의 時代的 与件의 産物인 것이다.

実際로 蘇聯으로서는 熱核時代 以前까지 堅持되어 왔던 낡은

革命戦略 및 戦術로는 새로운 状況에 柔軟하게 対処할 길이 없었으며 可恐할 核武器앞에서는 革命問題以前에 蘇聯의 生存自体가 深刻히 考慮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蘇聯은 自国의 生存問題를 解決하면서 同時에 世界赤化를 可能케하는 方案을 講究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해 核武器開発에 있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水準에 到達된 蘇聯을 背景으로 믿고 있던 中共으로서는 失望이 그만큼 크지 않을 수 없었다.

中共은 当初 蘇聯이 가진 核技術과 能力을 土台로 1957年 11月 모스코 共産党大会를 転換点으로 하여 対内的 経済政策은 勿論, 共産諸国間의 戦略도 再整備한바 있었다. 이제 中共에게는 蘇聯이 核能力을 確保한 以上 既定路線에 따른 戦略·戦術의 強化만이 남은 課題였으며 世界革命은 目前에 닥아온 것이다. 따라서 과감하고 挑戦的인 前進戦略을 강력히 推進만하면 目標는 達成되는 것이다. 要컨데 中共은 第2次大戦以後의 状況으로 보아 西方帝国主義者들의 몰락은 급속히 이루워져 가고 있으며 1957年 10月~11月에 걸친 大陸間多段階弾道로케트 試験発射成功과 스프트니크 I·II号発射成功 等과 같은 武器開発의 前進을 이룩한 蘇聯의 놀라운能力은 西方諸国의 그와같은 終末을 더욱 더 促進할 것으로 내다보았다.[2)]

한편 이 時期에 즈음하여 蘇聯의 対中共核技術供与問題가 提起되면서 부터 그후 数年間 即 1960年 中盤에 가서 中共駐在 蘇聯技術者들이 撤収하고 同時에 核禁止条約에 中共을 加入시키려는 蘇

聯의 努力이 完全히 끝장날때까지의 期間, 両国間에는 상당한 葛藤이 계속되고 있었다.

當初 蘇聯이 1957年10月 中共과 核技術 支援에 관한 協約을 調印한바 이처럼 蘇聯이 中共側의 核開発協力에 대한 要求에 応한대 대하여 「몰톤 핼퍼린」이 提示한 6가지의 要因[3] 에서도 暗示하고 있듯이 核技術交流와 관련하여 볼때에도 中·蘇両国은 各己 立場을 달리하고 있었던 것이 事実이다. 蘇聯이 立場에서는 우선 中共을 끌어들여 対美平和共存政策의 一環이기도한 核実験禁止条約을 推進하고 核技術支援 및 各種装備를 供与하되 中·蘇合同司令部를 設置하여 이를 共同으로 管理한다는 構想이었다. 蘇聯은 結局 美国 및 西方과의 平和共存路線을 공고히 하여 自身의 安全策을 確保하며 中共에 대하여는 軍事的으로 強力한 統制下에 두어 政治的 影響力을 増加시킴으로써 있을지도 모를 圏内에서의 中共의 離脱을 防止하자는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中共은 美国으로부터의 攻擊을 抑止 내지는 擊退시킬 革命戦爭能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早速한 軍事力의 増強을 꾀하고 核開発을 강력히 推進하되 蘇聯軍의 経験과 技術 및 装備를 導入함으로써 目標를 早期에 達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境遇에 対蘇依存은 成長過程에 限하며 主目標는 独自的 核開発能力의 確保에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核実験禁止条約에 蘇聯과 合流한다는 것을 対外的 宣伝効果는 있지만 적어도 主敵인 美国을 보거나 核開発에서 落後된 自身의 立場으로 보아 달가운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蘇聯으로부터

核技術 및 裝備는 導入해도 必要以上의 政治的 軍事的인 影響力은 拒否한다는 姿勢이다.

結局, 中共은 蘇聯의 底意를 看破하고 1958年2月 軍의 早期近代化가 다소 지연되드라도 経済建設에 重点을 두어 自体能力을 確保하기로 하고 独自的 核開発을 宣言하는한편 蘇聯과의 公式的인 協定을 拒否하였다.[4] 이어서 1959年 6月에는 蘇聯과의 核実験禁止条約에 관한 討議再開에 応하되 原子弾의 見本과 製造技術에 관한 資料入手를 그 代価로 하였지만 蘇聯은 이를 拒絶하였다.[5]

이렇게하여 蘇聯이 核国家로서 成長함에 따라 両者関係는 意外의 方向으로 흘러 中共의 눈에는 후루시쵸프가 "右傾的 離脱者"이고 蘇聯側 立場에서는 中共이 "左傾的 離脱者"로 보이게 된것이다.[6]

둘째, 民族解放運動을 囲繞한 中·蘇間의 対立이다.

平和共存路線이 対南方先進国戦略이라면 民族解放闘争路線은 対後進開発途上国戦略에 해당되는 것이다. 原来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였던 後進諸国에 있어서의 共産化闘争에 관한 毛沢東方式은 地域内의 共産党이 民族主義者들 및 各種의 反植民革命階級들과의 聯合戦線을 形成하여 過度的 聯立政府形態로 発展시키되 主導役割은 共産党이 擔当함으로써 종국적으로 共産化를 実現한다는 이른바 "新民主主義革命"이었다.[7] 이에 비해 蘇은 帝国主義者, 그 同調者 및 反動勢力들의 支配를 排除하면서도 反帝, 反封建闘争隊제에 参与할 수 있다면 비록 資本主義 브르조아勢力이라도 이들을 우선은 耕擊하지 않겠다는 "蘇聯式 社会主義革命"을 択한 것이다. 即, 中共은

브르조아政権의 否認이요 蘇聯은 過渡期 認定이다. 그렇기 때문에 蘇聯은 状況에 따라서는 그와같은 브르조아政権에 対抗한 民族解放革命運動의 支援을 弱化시키거나 一時 中断할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特히 1950 年代末에는 平和共存을 追求해 가고 있는 마당에서 植民地地域内의 内乱 및 武装暴動을 支援한다는 것은 西方과의 敵対関係悪化를 招来하기 쉬운 일이었다. 이에 대해 中共은 그것은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에 違背되며 脆弱地域에서의 西方側 勢力을 弱化 시킬 수 있는 好機会를 잃어 間接的으로는 西方의 強化를 이루워 준다는 것이다.[8] 要컨데 中共은 後進諸国内의 民族解放運動에 관한 限, 자신의 経験을 適用하는 革命方式이 첩경이며 가장 適合하다는 主張이었다.

셋째, 스타린 格下問題이다.

是非의 発端은 20次党大会에서 行한 후루시쵸프의 秘密演説에서 비롯된다. 問題가 이렇게 進行된것도 모르고 当時 中共代表団을 이끌었던 朱徳은 演説을 통해 후루시쵸프의 스타린 攻撃과는 反対로 스타린에 관하여 好意的인 言及을 하게 된것이다. 이는 餘他共産国家들은 勿論, 中共側도 事前通告를 받지 못한 所致이기도 하여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욱 큰 問題는 스타린 格下가 가져올 餘波와 衝撃에 있었다. 그 까닭은 우선 毛沢東이 中共内에서 스타린과 비슷한 絶対的 権座에 놓인 権力体系를 指向하고 政策上으로도 産業化와 急速한 集団化政策을 追求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共은 蘇聯이 스타린 個人 攻撃

만에 限定하기를 희망하면서 社会主義建設過程上에서 過誤는 不可避하나 프로레다리아 独裁가 "搾取階級의 独裁"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点을 強調하였다. 그러면서 스타린의 過誤를 다소 是認하는 同時에 스타린과는 달리 毛沢東은 그와같은 過誤를 犯하지 않았으며 個人崇拝도 없고 大衆과의 接触도 계속해서 維持해 왔다는 点을 強調하였다. 이 問題는 本格的 이데올로기 論争과는 거리가 먼것이며 両国対立의 契機가 된다는 面에 注目의 対象이 되었던 것이다.

넷째, 共産主義諸国間의 団結問題이다. 特히 50年代의 蘇聯은 一国社会主義体系下의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를 基本으로 삼고 있는 中共은 多様性을 中心으로 한 陣営内의 関係強化를 根幹으로 하였다고 評価되고 있는듯하나 実際에 있어서는 両国이 다같이 状況과 必要에 따라 一元的 立場과 多元的 立場을 오가고 있었던 境遇가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中共은 한때 고물카, 토그리아티 等의 路線을 支持하다가 1957年 11月 10月革命 40周年을 위한 모스크바会同을 契機로 蘇聯을 主軸으로한 団結에로의 戦略으로 急旋回하기도 하였으며 蘇聯역시 한때 유고와의 関係改善을 위해 유고의 独特한 経済管理 및 組織方式을 認定하는 方向에서 多様性을 主張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国境問題이다.

이것은 外形上 理念紛争的 次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両者는 密接한 相関関係를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어떤 面에서는 両国紛争의 促進剤로서 一方의 他方에 대한 이데올로기 解釈의 態度와 立場, 両国의 歴史的 関係, 民族的 感情等의 集約的이고도 実質的인 表現으로서의 意味도 지고 있다.

現在까지 中·蘇間에 紛争対象이 되고 있는 地域으로서는 1958年 璦琿条約으로 蘇聯領土가된 黒龍江과 沿海州地域, 그후 1860年의 北京条約, 1864年의 다르바가리아条約, 1881年의 이리条約 그리고 1882年의 피터스버그条約에 의해서 蘇聯에 合併된 新 西北地域 等이 있으며 여기에 몽고와의 接境地帯도 両国間의 緊張을 불러 일으키는 主要関心의 対象이 되고 있다.

그동안 交渉過程을 통해서 들어난 争点에 대하여 나까니시教授는 3가지로 区分하고 있는데 그 内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9)]

첫째는 不平等条約 与否의 問題이다. 中共側은 現在 中·蘇国境을 規定한 前記의 諸条約이 不平等条約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150餘萬평방키로의 中国領土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蘇聯은 65年 当時만해도 不平条約임을 은근히 是認하다가 69年에 가서는 態度를 변경, 이를 다시 否認하고 現在에도 그 効力을 如前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둘째는 다만스키島를 비롯 우수리 및 아무루江에 있는 섬들이 어느쪽에 属하느냐의 問題이다. 蘇聯은 1860年 北京条約과 그 이듬해에 両側이 合意본 同条約의 附属地図를 根拠하여 中共側 沿岸으로 바싹닥아선 境界線을 主張하고 있다. 中共은 이에 대해 航行이 可能한 国境河川은 主要航路의 中央線을 境界로 한다는 公

認인 国際法의 原則에 立脚하여 이를 반박하고 있다. 萬一 中共의 論法이 採択될 境遇 珍宝島는 勿論 卡脖島와 七里沁島도 中国領土가 될 수 있다.

셋째는 両国間의 領土問題自体의 存在与否의 問題이다. 中共은 過去 1929年中·蘇協定으로 両国間의 모든 条約이 廃棄되어 国境問題에 대한 새로운 条約이 締結되어야 함으로 여전히 懸案問題로 남아 있다는 主張이다. 한편 蘇聯은 過去의 諸条約이 不平等条約이 아니며 国境問題는 廃棄될 条約에 들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両国間에는 領土問題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主張이다.10)

이와같은 相異한 主張과 見解의 対立은 両国間의 相互信頼回復과 友好関係의 再設定없이는 解決이 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1978年 2月 24日에도 蘇聯最高会議幹部会는 中共側 全人大会 常務委員会에 보낸 書簡을 통하여 両国間의 非正常的인 現在의 関係에 終止符를 찍고 両者関係를 平和共存의 諸原則에 따라 再確立하도록 「相互関係의 原則에 관한 共同声明」을 発表하는 同時에 高位代表者会議를 北京에서 開催할 것을 要求해온바 있으나 中共은 3月 9日字 外交部覚書를 伝達하고 正式으로 이를 拒否하였다. 따라서 中共은 1969年 周·코시긴会談의 諒解事項에 立脚하여 境界의 現状維持, 武力衝突의 防止, 紛争地域으로 부터의 両軍의 撤収에 관하여 協定締結을 한 後에 国境問題解決交渉에 臨하자는 것이고 同時에 몽고와 中·蘇境界線으로 부터 蘇聯軍을 撤収시키고 1960年代初期의 状態로 돌아가자는 主張이다. 要는 中共은 蘇聯이 実際

行動으로 보여주지 않는限 両国関係의 改善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었다.[11)]

以上으로 대략 5가지의 問題中에서 ① 과 ② 는 共産主義에로의 移行方法問題이며 ③ 과 ④ 는 共産圏内部問題로서 크게보면 이 네가지는 理念論爭에 属할 것이고 国境問題는 主로 国家的 次元의 問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平和共存路線 是非나 戰爭可避論爭 等은 現時点에 와서는 크게 意味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民族解放運動에 관한 限, 両側의 從前見解를 다같이 약간의 修正을 加하거나 아니면 中共側만이라도 그 方法論的 適用에 있어 再考가 必要할런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見解差는 있을 수 있다. 스타린格下問題는 이제 是非의 対象이 되지 않으며 다만 共産諸国間의 団結問題 等 共産圏内部問題만은 主導権競爭과 관련하여 理念紛爭의 最大 잇슈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諸問題를 概観해볼때 初期에는 純粹 이데올로기的 鬪爭으로 가령 発端되었다 하드래도 그 直後부터의 理念論爭은 逆으로 自国의 立場과 路線의 合理化 및 名分으로 作用한 印象이 強하며 이런 面은 現在에도 否認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어떤 部分은 처음부터 自国의 政策的 辯護와 利益의 擁護에서 비롯된 것조차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렇게되면 理念과 非理念間의 限界는 模糊지기 마련이다.

国家問題에 있어서도 흡사한 現象이 나타난다. 앞에서 말했듯이 国境問題는 그 自体로만 있지않고 理念紛爭과 直接的인 相関関係를

맺고 있는것이어서 前者가 後者에 의해 深化되며 또 크게 左右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中·蘇間의 対立은 이데올로기 論爭의 政策的 名分的 側面과 現実的, 国家的 対決의 理念的 側面이 相互 얽히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赤裸裸하게는 国際政治的 解釈権確保의 闘爭이요, 異質的 伝統文化間 및 歴史的 民族感情間의 対決이며 相異한 国家利益間의 衝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애매한 理念対立의 側面보다는 国家的 政策的 対決의 局面을 検討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런지도 모른다.

2. 中·蘇関係에 대한 作用変数 로서의 中共의 政策과 能力

中共에 있어서 各分野를 抱括하는 長期的이고 基本的인 国家目標는 20世紀가 가기전에 社会主義의 最強国으로 建設하겠다는데에 있다. 勿論 이 目標가 昨今에 提起된 것은 아니다. 中共은 이미 1949年 政権樹立과 더불어 이 基本目標를 設定하고 줄기차게 밀고 온것은 事実이다. 그동안 이 目標는 毛沢東예하의 指導級人物들에 의하여 여러가지 方向으로 온갖 手段과 方法을 動員해서 그때그때의 주어진 与件과 状況속에서 努力을 경주하였으나 1950年代~60年代末까지의 時期에서는 大躍進運動의 失敗, 文革, 自然的条件 等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成果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들면서 様相은 急速히 変化되었다. 브레스네프 독트린과 69年 中·蘇間의 武力衝突로 커다란 衝撃을 받아 劣勢에 있는 軍事力을 통감하면서 満洲에는 強力한 軍事力을 展開하고 外交的으로는 美·中共間의 接近試図가 과감히 進行되기에 이른 것이다.[12)]

周恩来를 中心으로하는 実用主義路線은 이러한 目標推進에 커다란 追車를 가하게 되었으며 毛·周死後 華国鋒의 登場과 이른바 走資派의 巨木 鄧小平이 復権하고 実権을 掌握함으로써 最近들어 周恩来의 構想을 이어 받아 過去 四半世紀間의 不振을 나머지 四半世紀동안에 目標를 達成하려는 강력한 態勢와 覚悟로 임하고 있다.

1978年 3月5日 第5期全人大会에서 採択된 中共의 憲法前文에 의하면[13] 中共은 이른바 階級闘争, 生産闘争, 科学実験의 三大革命運動을 통해서 農業, 工業, 国防, 科学技術의 近代化를 이룩하여 社会主義強大国을 만들겠다는 点을 明文化 하고 있다. 이러한 新憲法은 75年 1月에 採択한 旧憲法의 "継続 革命을 堅持한다"고 간략히 表現한 것과는 좋은 対照를 이루는 것이다.

中共은 이처럼 設定된 長期的 国家目標에 接近해가기 위해서 周知하는 바와 같이 두가지의 国家戦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経済的 近代化이고 또하나는 軍의 近代化이다. 이제 国家戦略으로서의 두가지 政策目標를 概略的으로나마 検討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1) 政策目標

먼저 中共이 가진 経済政策目標이다.

첫째, 共産圏内에서는 蘇聯의 水準을 達成하는 것이고 둘째, 종국적으로는 美・日의 経済力에 比肩할 段階에 到達하자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基本的 政策目標와 관련하여 먼저 78年 2月26日 華国鋒의 政府活動報告書内容을 中心으로 10個年計劃을 간략히 살펴 본다.[14] 첫째는 農業部門이다. 農業生産高를 毎年 4～5%의 比率로 増加시켜 1958年에는 穀物生産高를 4億屯까지 올리고 農業機械化率을 85%로 한다는 것이다. 特히 農業에 있어서는

機械化, 電化, 水利化를 最大로 実現하겠다는 目標를 가지고 있다.

둘째, 工業에 있어서는 生産을 年10%餘의 比率로 增加시켜 85年까지는 鉄鋼生産高를 6,000萬屯으로 한다. 全国을 西南, 西北, 中南, 華東, 華北, 東北 等 6個経済区로 建設한다. 프로젝트를 보면 鉄鋼 10, 非鉄金属 9個의 콤비나드, 炭鉱 8, 油田 및 天然가스 10, 発電所 30, 新主要鉄道幹線 6, 5個의 港口 等을 포함하여 120個를 期間内에 新設하고 鉄鋼을 核心으로하는 基幹産業의 強化, 中小企業의 同時的 育成, 그리고 其他 輸送, 交通, 郵便, 電信網을 拡充한다는 것이 骨子로 되어 있다. 셋째, 科学技術面에서는 具体計劃이 들어나 있지 않으나 同報告書에서는 「科学技術要員을 크게 動員하고 積極的으로 組織하여」 経済建設과 国防建設中 속히 解決할 問題를 研究하도록 強調하고 있다.[15)]

다음으로 国防近代化에 관한 中長期的 政策目標이다. 이 問題는 더욱 探知하기가 어려운 問題이나 中共軍問題専門家인 넬슨教授에 따르면 첫째가 20世紀末까지의 長期目標는 東아시아에서의 軍事力均衡에서 강력한 役割을 담당하도록 軍事力을 強化하며, 둘째는 必要에 따라서는 台湾問題解決을 위해 動員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는 것이다. 80年代中盤까지의 比較的 中期目標로서는 첫째, 蘇聯의 対中共 核攻擊能力에 対応한 核抑止力을 強化하여 核防衛能力을 確保하며 둘째는 地上軍을 中心으로한 在来式 通常戦力을 強化하여 対蘇防衛態勢를 完備하며, 끝으로 沿岸海의 防衛와 周辺海域上의 石油資源保護에 動員할 수 있는 海軍能力을 保有하도록 한다는데

重点을 두고 있는 것으로 伝해지고 있다.[16)]

(2) 推進能力

이제 問題는 前項의 中長期目標들을 達成할 能力이 얼마나 있겠는가에 있다. 먼저 農業分野를 본다. 中共은 伝統的으로 農業에 重点을 두어온 것이 事実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上下院合同経済委員会의 再評価에 따르면 1958年以後 74年까지의 年平均 成長率 2%, 1次5個年期間을 合算해서 2.4%로 되어 있으며 (同期間中 人口増加率을 2.1～2.2%로 잡을때 農業部門의 境遇는 人口増加와 거의 均衡을 이룬다) 総量面에서 보면 1957年에는 19500萬屯에서 1974年의 27500萬屯으로 増加하여 17年間 約 12000萬屯의 純増을 보았을 뿐이다. 다만 楽観的 側面으로 볼때는 콩生産을 포함하여 1957年～1971年間에는 成長率은 2% 못미치던 것이 71年～74年間의 成長率은 4%를 약간 未達했던 것으로 나타나[17)] 이런 趨勢대로 간다면 앞으로 85年까지의 目標는 어쩌면 無難할런지도 모른다. 特히 여기에 気候条件과 無機化学肥料 需給이 순탄할 경우에는 単位面積当 生産高는 向上될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業部門은 크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그밖의 要因들이 걸려있어 楽観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음으로 工業部門이다. 農業과는 달리 過去 成長率을 볼때 目標設定은 無難할 것이라는 判断이다. 即, 1953年부터 1974年

까지의 平均成長率은 11%인바 同期間 生産財는 13%, 機械類는 16%에 達했다고 한다.[18] 特히 중요한 粗鋼生産量은 1953年의 177萬屯에서 最近에는 年 2500萬屯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85年에 가서 6000萬屯의 目標達成은 대체로 이루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問題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가령 中共이 가진 현재의 가장 큰 製鉄所는 年産 約 700萬屯能力의 鞍山製鉄所인데 앞으로 85年까지는 3500 ~ 4000萬屯의 增産이 可能해야 할 것이다. 目標案에서 鉄鋼의 10個프로젝트 建設 計劃을 提示한것은 350萬屯規模以上의 것을 每年 1個所 以上의 新設할 뜻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問題는 1屯当 約 800弗 基準으로 設備価格을 칠때 最少限 280億弗에서 320億弗의 外貨充当이 우선 통과해야할 関門일 것이다. 그위에 1950年代에서 最近까지의 比較的 낮지않은 成長率로 나타난 것은 産出基準年度의 낮은 基準値設定에서 오는 것이라는 点이다. 実際로는 1950年代末 中共과 日本이 비슷한 水準에서 오늘날 日本이 年 約 1億 1000萬屯으로 大幅增加한 것을 보면 中共의 境遇는 답보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쨋든 向後 目標年度까지의 目標達成은 全혀 不可能하지는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中共이 가진 電力不足問題는 심각하다. 現在는 工業部門의 経常生産을 維持하기에도 곤난한 地境에 있다.[19] 最近의 発電量은

1976年度의 경우 約 1380億 Kwh로 推算되는데 그중 78%가 火力, 나머지가 水力発電의 比率로 評価되고 있다.[20)]

石炭生産에 있어서는 1976年의 경우 前年度 4億2700萬屯에 비해 4億4400萬屯이 生産되어 当初目標보다 6.3%가 増産되었고 前年度보다는 3% 増産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런 数値들은 生産이 不振하였다는 것을 意味하여 그 理由는 当年間의 唐山의 大地震, 政治的 不安定 以外에 施設投資의 不足 技術의 落後 等에 연유한다는 것이다.[21)]

原油生産에 있어서는 75年度보다 76年이 13% 増産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75年度 生産量은 7500 ~ 8000萬屯으로 推算되었고 76年度 4月에 전해진바로는 77年, 78年에는 1億톤으로 増産되리라는 評価가 있었다.[22)] 어쨋든 工業部門은 다소 農業의 경우보다 目標達成이 용이할려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軍事面에서 본 推進能力이다. 우선 対蘇核抑止能力의 確保는 現在 状況으로 당분간 目標達成은 어렵게 되어 있다. 中共이 保有하고 있는 3가지 種類의 誘導弾은 600 ~ 700마일의 MRBM, 1200 ~ 1500마일의 MRBM 및 3000 ~ 3500마일의 IRBM정도이며 核弾頭는 約 200 ~ 300個이고 運搬手段으로 TU16 80台, 그리고 M19를 모방한 小数의 中共型 F9가 이 있을 뿐이다. 問題는 各種 誘導弾이 現在 液体燃料를 使用하는 것으로 固体燃料開発을 서두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 地上軍의 在来式 通常戦力面에서는 対戦車武器와 戦略・戦術

的 機動力의 不足을 切感하고 있다. 따라서 対戦車 有線誘導武器는 西欧로 부터 導入하지 않으면 안되며 蘇聯이 강력한 機甲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비해 中共은 現在 11 ~ 12個의 機甲師団을 保有하고 있을 뿐이어서 毎年 1個師団씩 増強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其外 APC는 4000台로서 상당히 不足한 상태이고 砲保有量에서는 蘇聯과 비슷하나 野砲面에서 크게 뒤져 있고 탱크 10,000台는 蘇聯極東軍과 비슷하나 特히 火力体系에서 劣勢에 있으며 中共으로서는 蘇聯에 約 1世代가 落後된 것으로 評価되고 있다.[24]

空軍能力에 있어서는 現在 開発하고 있는 두가지型의 航空機 即 델타윙을 가진 초음속요격기와 1980年代 中盤에 登場할 가변익기가 期待된다. 하지만 対空誘導미사일面에서 큰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海軍能力은 코마・오사級쾌속정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現在 73隻의 潜水艦을 保有하고 있으나 모두가 디젤엔진을 가진 것이며 海軍用 航空機는 昨年 100台를 確保하였지만 能力이 制限된 것들이다. 또한 主要艦艇들이 가진 SSN2 스틱스미사일은 電子妨害装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軍事面에서도 最少限의 中長期目標達成에는 悲観的일런지 모른다.

結局 풍부한 人力과 天然資源이 最大限으로 活用되면서 資本과 技術의 뒷받침이 어느만큼 되겠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3) 与 件

端的으로 말해서 中共에게는 現在 国際的인 与件들이 蘇聯과의 懸案関係를 除外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 다만 国内的 与件으로 볼때는 遠大한 国家目標를 設定推進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中共特有의 近代化이데올로기가 定立되 있지 않다는 事実이다. 이와같은 意味의 이데올로기 定立은 우선 세가지 面에서 切実히 要請된다고 볼 수 있다. 即 첫째는 近代化의 必須要件인 政治安定이라는 面이다. 中共은 그동안 毛·周의 死亡後 華·鄧体制가 登場된 以来 아직도 政治権力構造의 安定化가 懸案問題로서 提起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近代化가 進行되는데서 必然的으로 結果되는 階層間의 不均衡克服問題가 提起된다. 不均衡은 紅과 專, 党과 軍間의 不調和現象을 招来할 수도 있는 것이다. 中共이 비록 社会主義的 全体主義国家라고는 하지만 近代化에 따른 所得의 隔差, 技術官僚의 優待에 의한 支配엘리뜨의 대두, 労動力의 生産性 提高를 위한 消費水準의 統制와 이에 대한 大衆間의 抵抗 等 豫想되는 諸般 不均衡現象을 効果的으로 処理하면서 同時에 全国民을 動員할 수 있는 새로운 近代化的 倫理観의 確立을 可能케하는 特殊이데올로기의 設定없이는 目標達成이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中共의 近代化는 不可避하게 技術과 資本을 海外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같은 外国의 技術 및

資本의 導入은 異質的인 海外文化의 流入을 不可避하게 하여 이에 대한 效果的인 統制 또는 消化問題가 뒤따르게 된다. 即 技術文化의 処理問題이다.

어쨋든 中共은 目標達成을 위하여 총매진하겠지만 特히 이러한 国内的 近代化이데올로기의 需要는 상당한 정도로 있을 것이나 現在로서는 뚜렷이 形成된것 같지는 않다.

3. 中・蘇関係에 대한 作用変数로서의 蘇聯의 政策과 態度

中・蘇関係에 미치는 蘇聯의 政策은 中共과는 그 意味가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中共의 境遇는 「国家建設」이라고 하는 20世紀의 至上目標를 推進하는 状況에서 近代化政策이 지닌 目標能力・与件 自体가 両国関係에 圧倒的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豫想되는데 비해 蘇聯에 대하여는 凡世界的인 政策 및 戦略的 一環으로서의 対中共政策을 吟味해야 할 것이므로 一般的인 政策状況 속에 담겨진 対中共 意図 및 性格을 分析해 보는 것이 妥当할 것이다. 따라서 両国関係에 作用하는 蘇聯의 政治的 意図와 軍事政策 및 戦略을 통한 対中共態度가 一次的인 分析対象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経済政策에 있어서는 一般的인 政策의 意味와 内容보다는 中共과의 関係에 限定된 特殊部分만이 関心의 焦点이 될 것이다. 이런 点에서 우선 蘇聯이 最近에 보이고 있는 中共에 대한 政治的 態度와 立場을 検討하기로 한다.

(1) 対中共政策의 目標

蘇聯은 69年 中・蘇国境에서의 武力衝突事態에 따라 앞서 든 周恩来와 코시긴間의 諒解事項도 外面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中共側의 主張이다. 이러한 状態에서 蘇聯은 1971年 第

24次 共産党大会에서 여전히 中共의 指導部를 非難하고 이들의 政治的 이데올로기的 路線은 蘇聯이 指向하는 맑스·레닌主義에 一致하지 않는다는 点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아니라 76年의 第25次大会에서 브레스네프는 한 段階 높여서 中共이 맑스·레닌主義에 直接的으로 敵対하고 있다고 非難하면서 「本質的으로 反社会主義闘争에 있어서 帝国主義의 중요한 豫備軍으로 되어 있다」고 신랄하게 攻擊하였다. 적어도 毛沢東指導部가 中共에 存在하는 限, 反社会主義隊列의 同調者인 中共에 대하여는 蘇聯을 비롯한 社会主義諸国 내지는 世界共産主義運動의 利益을 위하여 闘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24次大会時와는 달리 브레즈네프는 社会主義制度가 다른 国家間에 適用하는 이른바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하여 対中共関係正常化를 계속 推進할 用意가 있음도 밝히고 있었다. 25)

이처럼 蘇聯이 가진 強穩両面의 対中共態度의 背後에는 勿論 社会主義的 国際主義로부터의 中共의 逸脫을 最後까지 防止해 보려는 意図가 明白히 作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두가지의 目的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即, 하나는 毛沢東思想과 政策路線을 둘러싼 毛主義者들에 대한 強力한 政策的 対決에 있고 다른 하나는 中共의 指導部와 人民을 区分하므로써 언젠가는 中共人民이 全体社会主義 人民들과의 結束은 連帯를 통하여 中共을 蘇聯의 품안으로 되돌아 오게 한다는 持続的인 目標意識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姿勢와 期待는 両次에 걸처 一貫된 態度인바 이를테면 바시키이즈州党委員会의 샤키로프 党第1書記의 主張 等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第25次 党大会에서의 크레므린의 態度가 24次大会에 비해 보다 強硬하였다고는 하지만 그후 一連의 対中共和解問題는 끊임 없이 模索되어 왔다.

蘇聯의 対中共協商提議는 76年4月28日 프라우다紙에 掲載된 「I・알렉산드로프」가 署名한 論文 等을 비롯하여 同年 6月 蘇聯共産党 政治局員 「표도르 쿨라코프」가 蒙古人民革命党大会에서 행한 演說에서도 강력히 表現되었다. 当時 蘇聯의 指導層에서는 곧 豫見되는 毛沢東 等의 自然的 退陣을 契機로하는 中共指導改編에 상당한 期待를 갖고 그후에는 前例없이 対中共態度를 緩和하였던 것이다.[26] 毛死後 直後 四人幇의 反蘇強硬分子들의 除去를 지켜본 모스크바側에서는 同年 10月 蘇聯과 蒙古人民共和国間의 共同콤뮤니케에서조차 다소 好転된 態度를 보였으며 심지어는 브레즈네프도 10月25日 蘇聯共産党 中央委員会에서의 演說을 통해 華国鋒党主席 就任에 祝賀멧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7年2月에 가서는 그동안 進行되와던 両国間의 国境会談마저 中止됨과 동시에 蘇聯側代表 일리체프의 突然한 帰国이 있었고 그해 4月에는 蘇聯의 対中共攻擊이 「뉴 타임즈」紙를 통해 再開되는 한편, 레닌誕生 107周年記念式席上에서 蘇聯共産党 秘書局員 「미하일 지미야닌」은 毛死後에도 変化없는 새中共政策의

反蘇主義를 非難함으로써 期間中 対中共関係에서 보인 蘇聯의 自制는 끝장이 났다. 홍教授는 問題는 蘇聯의 보다 큰 譲歩없는 非難姿勢의 緩和만으로는 不充分한 것이며 따라서 蘇聯이 対中共関係에서 가질 수 있는 "機会"를 이미 喪失한 것이라는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27)]

中共의 対蘇強硬態度도 여전하여 77年 8月의 11全大会에서 華国鋒은 "特히 蘇聯社会帝国主義는 한층더 커다란 危険性을 가지고 있다. 各国人民은 警戒心을 높여 굳게 団結하여 끊임없는 闘争을 進行할 수 밖에 없다」[28)] 고 強調하였고 78年 2月下旬의 全人大会에서 中共은 中蘇関係를 이데올로기論争과 国家関係改善問題로 区別하고 있다는 点과 蘇聯을 社会主義国家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点을 明白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両者関係는 좀체로 好転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両国関係가 平行線을 긋고 있는데에는 中共에도 그 責任이 있겠지만 対蘇強硬姿勢를 誘発하면서도 一歩를 譲歩하지 않는 蘇聯의 政治的인 意図와 基本立場이 있는 것이다.

原来 蘇聯은 世界赤化戦略의 一環으로서의 主要地域別 目標를 設定해 놓고 있는데 약술하면 欧羅巴에서는 두가지의 目標 即, 西欧地域으로부터의 美軍撤収와 欧洲統合의 牽制[29)]가 그것이며 地中海周辺에서는 특히 統一아랍共和国内의 海岸基地를 얻어냄과 同時에 南部地中海 沿岸地域에서는 前進基地의 設定可能性을 찾는다는 目標를 갖고 있다.[30)] 또한 페르샤湾 一帯 및 印度洋에서의 制海権

確保, 東南亜, 極東 및 太平洋에서의 海上活動의 幅을 넓힌다는것等도 이제는 常識化되었다. 따라서 蘇聯의 努力은 陸上의 "코끼리"와 海上의 "고래"를 同時에 実現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全般的인 目標와 관련하여 볼때 中·蘇紛爭 勃発以後 今日에 이르는 対中共政策의 基本目標는 다음 몇가지로 要約 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共産主義 宗派」의 東部地域 首都를 閉鎖함으로써 모스코의 権威를 回復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点에서는 蘇聯을 頂点으로하는 社会主義諸国의 団結을 呼訴한 1950年代後半의 中共의 姿勢와 位置가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둘째로, 中共을 孤立化 시키거나 中立化시키는데 아시아 集団安保構想이 그러한데 이 意図는 24次 및 25次党大会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国際社会에서의 中共의 影響力 増大와 美日과의 関係正常化로 共産諸国間에서는 勿論이거니와 西方世界에서도 그 地位가 오히려 強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점차 重要視되고 있는 시베리아 一帯를 中共으로부터 保護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海上補給路에서 中共影響을 排除한다는 것이다.[32] 鉄道거리가 約 6,000 마일이 되는데 그중 많은 部分이 中·蘇国境地帯에 近接되어 있으며 바이칼湖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새로운 鉄道를 建設中에 있다.

넷째로, 中央아시아에 位置한 蘇聯聯邦의 諸共和国에 대하여 위구르, 우즈베크 및 카자크語 放送을 통하여 分離主義를 선동하는 中

共의 企図를 沮止시키는데에도 있을 것이다. [33] 1968年에도 우크라이나와 아이제르바이잔地方에서 大規模的인 革命運動이 있었거니와 이런 境遇, 蘇聯은 地勢와 交通手段의 不便으로 상당한 隘路를 겪게되어 있다. 蘇聯은 共和国内에서의 非스라브族中心의 分離主義者들의 運動이 커다란 難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어쨋든, 持続되는 中·蘇紛爭으로 蘇聯은 対内的인 安定이 侵害를 입거나 아니면 帝国主義的 膨脹에로의 冒険을 試図하도록 몰아처질 可能性마저 있다. (34) 더우기 両国間의 国家的 및 政策的 対決에서 蘇聯이 敗할 境遇 蘇聯主導下의 世界赤化戦略은 도리킬 수 없는 深刻한 打撃을 입게 되고 世界的으로는 물론 共産諸国에서조차 蘇聯의 権威는 回復할 수 없는 地境에 빠질련지도 모른다.

以上의 몇가지 対中共政策目標와 意図는 結局 1948年의 유고事態를 비롯한 1953年의 東独, 1956年의 항가리 및 폴란드, 1968年의 체코事態 等에서 経験한 바와같이 이 모두가 하나의 事実 即, 蘇聯이 政治的 覇権을 確保하는데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蘇聯에게는 단지 軍隊만이 그 目的을 達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35] 다시말하면 蘇聯의 政治的 目的의 遂行与否는 먼저 軍事力의 推進能力에 달려 있는 것이다.

(2) 推進能力

政治的 力量으로서의 蘇聯의 軍事能力은 核戦力, 通常戦力 및

生存能力으로 区分하여 評価되어야 하나 편의상 前者의 두가지 部門에 限定해서 一部의 面貌만이라도 살펴 본다.

먼저 核戦力面에서 蘇聯은 1960年末以来로 미사일 分野를 除外하면 核役発能力과 数量에서 対美優位를 確保해 오고 있으며 이런 趨勢대로 간다면 80年代에 가서 美国은 別途의 措置를 講究하지 않는 限, 絶対的 劣勢를 면치 못할 것이다. 1978年을 基点으로 볼때 蘇聯은 ICBM 1400基, SLBM 900基以上, ABM64基, SAM 10,000基를 保有하고 있으며 백파이어機는 月2台~2.5台꼴로 生産되고 있다. 한편 SS-17, SS-18 및 SS-19等 第4世代 ICBM을 年 125基정도의 比率로 配置하고 있으며 SS-20 IRBM도 이미 配置中에 있어 何時라도 試験段階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36]
그외에 蘇聯은, 비록 限定된 것이기는 하나, ASAT 能力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通常戦力面에서는 1966年以来 地上軍 및 戦術空軍을 크게 増強하여 그동안 148個師団에서 170個師団으로 増編한 한편, 戦術空軍은 航空機 1,300台를 追加하였으며 海軍도 質的인 変化가 있었고 化学戦能力 또한 向上되고 있다. 蘇聯은 現在 이러한 通常戦力中에서 地上軍 44個師団 約 百萬의 兵力을 4,000마일에 달하는 中・蘇国境에 沿한 中央아시아, 시베리아, 트란스바이칼 및 極東軍区에 配置하고 있고 그중 3個師団兵力은 몽고에 駐屯하고 있으며 이들은 砲, 機甲, 核미사일 面에서 훌륭한 装備를 갖추고 있다. 特히 이들의 戦闘態勢는 1~2級에 該当되는 것으로 最少限 70%

以上의 即刻的인 戦闘能力을 発揮할 수 있게 되어 있다.[37)]
따라서 이러한 状況은 中·蘇가 격돌할 可能性을 한시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要컨데 蘇聯에게 있어서 中·蘇国境에 配備된 방대한 軍事力은 政治的 目標를 達成하기에 充分한 것이며 人民解放戦争戦略으로 対処하고 있는 中共정도는 能히 圧倒할 수 立場에 있다. 다만, 그 時期, 規模, 契機 및 対内的 諸般 与件等이 重要考慮素로 作用할 뿐이며 行動하는 데서 얻어지는 利害得失의 問題가 慎重히 検討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3) 与 件

国内外 与件上으로는 蘇聯이 当面한 状況으로 보아 制動이 걸리는 面은 적지않다. 먼저 対外的으로는 日·中共友好条約이 締結되었고 美·中共関係正常化가 이루워 짐에 따라 美·日·中共 3国協力関係가 蘇聯을 窮地에 몰아 넣을 수 있을 現時点에서 어쩌면 諸政治的 目標의 縮少가 不可避할런지도 모른다.

対内的 側面, 特히 経済面에서는 第10次経済計劃은 執行하고 있는 現今에 있어서는 蘇聯은 4個의 基本問題 即, 蘇聯経済의 近代化問題, 原料 및 燃料問題 農業問題 및 交通基盤의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터로[38)] 비록 80年까지 끝나는 現行計劃이 目標를 無難히 達成할 것으로 評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農業部門

에 있어서 全投資額의 27%를 必要로한 정도이며 計劃期間中 年 600萬屯의 穀物을 여전히 輸入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뿐만 아니라 労動力供給의 制限性때문에 生産性에의 依存度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国産機械類에 비해 外国의 것이 5～10倍의 効果를 줄것으로 보아 技術, 機械類 및 装備의 導入이 生産性提高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 될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美国 等 西方 先進資本主義 国家들과의 経済関係의 拡大가 계속 要請되고 있으나 이것을 政治気象図에 크게 左右되는 것으로 評価되고 있는 것이다.[39] 이런 点에서도 蘇聯은 対中共目標遂行에 있어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는 処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両国関係의 諸模型

앞의 諸項에서 雙方間에 提起되어 있는 対立要因과 性格 그리고 両国의 個別的인 国家的 政策的 諸目標·能力·与件 等을 土台로한 両者関係의 模型들은 向後 10年이라는 比較的 長期的인 関係様相 이어야 할 것이며 더우기 中·蘇가 다 같이 그 意図를 長期的이든 短期的이든간에, 오늘날 一般国際社会에서 明確히 公式表明하는 例가 거의 없다는 点을 勘案한다면 可能한 限 広範囲하게 想定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巨視的 抱括的으로 検討해 볼때 考慮可能한 基本方向은 역시 다음의 몇가지 形態로 帰結되고 말것이다. 即, 中·蘇関係는 和解, 悪化 및 現状維持中 어느 하나이거나 이들의 混合形態로 나타날 것이 틀림 없다. 따라서 本項에서는 편의상 混合型을 除外한 3個의 類型을 基本으로하되 各各의 細部的인 様相으로 区分·設定하여 씨나리오作成을 試図하기로 한다.[40)]

가. 和解関係 模型

(1) 蘇聯의 一方的인 和解의 追求

그 真意야 여하튼 그동안 蘇聯이 対中共協商提議를 여러차례 거듭해 왔음을 想起할때 蘇聯의 이니시어티브가 한 段階 実効를 거두기 위하여는 蘇聯側이 中共에 대하여 상당한 譲歩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本모델의 特徵은 우선 中共이 要求하고 있는 事前条件에 대한 好意的인 反応으로 부터 出発한다는데 있다.

1969年에 이루워진 両国首相間의 이른바 세가지 「諒解事項」을 実践하기 위하여 蘇聯은 軍事的 紛争地域으로 부터 一定한 線까지 撤収하고 意外의 事態가 発生되지 않는 限 国境再侵犯을 하지않는다는 保障宣言을 한다. 그리고 現在의 境界線을 基礎로한 国境会談 再開를 中共側에 要請한다. 한편 対中共非難 및 攻撃을 一切中止하면서 反中共結束 또는 中共의 孤立化·中立化 目標 等 反中共政策을 明示的 黙示的으로 縮少 또는 撤回해 간다. 뿐만 아니라 中共의 既存国内秩序와 国家建設政策에 協調的인 反応도 보여 준다. 이렇게 하여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한 国家関係改善의 可能性을 열어 놓는다면 逆으로 国境会談에도 影響을 주어 両国間의 緊張은 漸次로 解氷되어 갈 것이다. 要컨데 이와같은 蘇聯側의 一方的, 積極的인 行動을 통하여 中共이 不応해 온 이제까지의 名分을 흩으러 놓는다는 것이다.

(2) 中共의 和解姿勢로의 転換

지금까지의 状況으로보아 中共側이 和解姿勢로 転換하겠다는 方針만으로도 既存対立関係는 크게 改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中共의 一方的인 態度変化가 実質的인 効果를 거우기 위해서는 보다 具体的인 行動의 表現이 필요 하다. 따라서 本模型은

다음과 같은 一連의 中共側 措置를 特徵的 內容으로 한다.

먼저 中共은 前述한 前提条件을 撤回하고 過去之事를 再論함이 없이 無条件 国境会談에의 友好的 反応을 통해 和解策을 模索한다. 同時에 蒙古에 駐屯한 蘇聯軍의 撤収要求도 구태여 고집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各種의 対蘇非難과 宣伝攻勢의 中止는 勿論 中共国境으로 부터 近距離에 있는 蘇聯邦의 非슬라브族 共和国들에 대한 政治的 刺戟言動도 一切 삼가하는 것을 包含한다. 나아가서는 共産主義諸国內에서의 蘇聯의 指導権을 認定하고 可能한 限 이제부터라도 対西方窓口를 蘇聯主導下에 두도록 協力한다. 即, 反覇権主義를 主張하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이미 이루워진 対日·対美関係正常化에 따라 蘇聯側에 不利하게 作用할 것이 豫想되는 局面에 대하여는 이를 最少化하도록 努力하고 蘇聯의 諒解를 促求한다. 다만, 本模型에서 注意할 것은 冒頭에서 提示한 事前条件의 撤回 自体가 将来에서의 蘇聯의 権益을 認定한다는 意味도 될 수 있기 때문에 国家的 및 이데올로기的 関係解消間의 区別을 크게 試図하지 않고 있다는 点이다.

(3) 雙方間의 同時的 和解追求

蘇聯뿐만 아니라 中共도 自発的으로 両国関係解決에 肯定的 姿勢를 취한다는 것이 本模型의 特徵이다. 이것은 中·蘇両国이 다같이 社会主義的 兄弟之国임을 再確認하고 同志的 再結合을 통한 共産主義의 世界的 制覇를 다시한번 切感하고 있다는데 큰 意味가

있다. 당장에는 이데올로기的 次元의 諸問題를 解決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를 長期的 目標로 하면서 우선 相互主義原則에 立脚하여 相互信頼回復을 위해 積極努力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対蘇要求条件을, 蘇聯은 対中共政策目標를 놓고 이를 現実的으로 調節, 撤回 또는 相互 認定하면서 雙方間의 見解差異, 利害相衝 等의 解消를 積極的으로 試図해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両国이 다같이 和解의 努力을 傾注한다면 結果야 여하튼간에 両者関係는 크게 好転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4) 美国의 介入調整에 의한 和解

第三国, 特히 美国이 積極的으로 介入하여 政策的으로 調整을 試図함으로써 両国関係의 改善에 寄与하는 것이다. 우선 美国은 中共에 대하여 和解를 説得하되 中共의 国家目標達成을 위해 協助할것은 물론 中·蘇両国이 和解하는 境遇에도 中共이 指向하는 諸目標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임을 認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萬一 中共이 対蘇警戒姿勢를 풀어 和解努力을 展開하는 過程에서 이를 기화로 蘇聯의 意外의 逆攻勢를 받게 될 境遇에 対備하여 美国이 中共의 安全을 위한 支援決意를 表明해 둔다면 더욱 効果的일 것이다. 要컨데 中共은 經済建設과 国防이 어하한 環境에서도 計劃대로 達成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 蘇聯에 대하여는 中共의 対蘇姿勢가 防衛的인 것이고 또한 美·中共関係는

결코 敵対行為를 意味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明白히 밝혀 둔다는 것이다.

이 模型의 特徵은 第三者인 美国이 関与한다는것 以外에도 特히 国家関係改善에 限定된다는 点이다.

나. 悪化関係 模型

(1) 蘇聯의 対中共軍事行動

지난 78年 3月9日에 또다시 発生했던 国境事件과[41] 같은 武力侵境을 継続恣行하면서 通常戦力에 의한 局地挑発을 試図한다. 同時에 印支半島 等 中共의 国境周辺地域에서 直接·間接的인 対中共軍事行動을 積極化 한다. 萬一, 이같은 直接的인 小規模의 挑戦行為에 대하여 中共이 応戦해 오거나 態勢를 갖출 境遇에는 지체없이 制限戦争에로의 拡大를 試図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全面戦争을 企図하지는 않는다해도 中共으로 하여금 対応해 오도록 一定한 限度内에서의 武力을 통한 軍事行動을 쉬임 없이 계속한다는 것이다.

(2) 中共의 対蘇軍事行動

中共이 蘇聯에 대하여 할 수 있는 軍事的인 積極行動중의 가장 심각한 様相은 一定範囲에서나마 対蘇豫防戦争을 試図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해도 이미 提起한대로

蘇聯의 小規模 軍事挑発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軍事的 対応을 한다면 両国間의 軍事的 緊張은 不可避하게 高調될 것이다. 어쨌든 本모델의 典型的인 形態는 対蘇豫防戦爭의 敢行일 것이다.

(3) 両国間의 偶発的인 事態発生

本模型에 있어서는 어느側이 이니시어티브를 취했느냐는 것은 별로 問題가 되지 않으며 또 実際로 糾明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다지 両側이 다같이 本意아닌 軍事的 偶発事態로 暫定的 過度期的인 悪化関係에 突入된다는 것인데 이런 境遇에도 자칫 拡戦可能性이 排除될 수 없다는데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模型은 豫想되는 結果에 있어서 앞의 두가지 境遇와 類似할런지는 모르나 그 原因에 있어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4) 非軍事的 対決関係의 激化

비록 雙方間의 軍事的 衝突은 없다해도 彼此가 和解可能性을 明示的, 公式的으로 否認하면서 一切의 協商이나 和解를 위한 努力을 포기한다. 両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政治, 外交, 経済, 心理戦에 걸친 非軍事的 攻勢를 積極的으로 展開해 간다. 따라서 本模型에 따르면 共産圏, 第三世界, 그리고 西方世界에 까지 拡大한 到処에서 反中共, 反蘇路線의 交叉現象이 乗数効果를 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結果的으로는 永久的인 敵対関係로 漸次 굳어져 갈 것이다.

다. 現状維持 模型

中・蘇間의 現状維持関係는 単一模型으로 処理하는 것이 妥当할 것으로 여겨진다. 自明한 論理이겠지만 本模型의 特徵은 両者間의 政治的, 経済的, 軍事的 諸関係에 있어 現在의 状態에서 改善도 悪化도 되지 않은체 相当한 期間 凍結되거나 停滞된다는데 있다. 이러한 現状이 당분간 存続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어느 一方도 그 이상의 敵対行為를 展開하거나 現在보다 友好的인 態度를 表示해서도 안된다. 둘째, 第三의 衝撃이나 国際的 与件의 変動도 있을 수 없다. 셋째, 雙方이 다같이 両者関係에 중대한 悪化를 招来할 정도의 国内的 与件이 形成되서도 안된다. 넷째, 中共이나 蘇聯이, 또는 両国이 同時에 雙方関係 以外의 事件이나 状況에 熱中할 수도 있다. 다섯째, 最少限 어느 한쪽만이라도 問題解決을 回避하면서 意図的으로 지연해 간다. 이러한 条件들이 充足되는 限 両国間의 現状維持는 가장 있음직한 模型일 것이다. 여기에서도 注意를 要하는 点은 엄밀한 意味에서 이른바 「統制된 対立」(Controlled Conflict)과는 区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2]

5. 諸模型의 比較分析 및 評価

本稿의 研究目的上 前述한 模型들의 分析・評価는 우선 카테고리別로 即, 和解・悪化・現状維持別로 区分하여 該当카데고리内의 諸 씨나리오間의 比較検討에 重点을 두어 試図하기로 한다. 그 基準으로는 역시 当事国의 意図 또는 目標, 能力, 그리고 与件 또는 客観的 状況을 設定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最終的인 分析対象은 両者関係라 할지라도 個別国家의 政策과 行為가 主要契機로서 作用하기 때문이다.

가. 和解関係 模型

4가지 模型中 씨나리오 (1)과 (2)는 萬一, 具体化 된다면 中蘇関係가 電撃的으로 好転될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蘇聯과 中共이 各各 一方的인 讓步를 決行해야 되며 根本的인 利害関係를 거의 抛棄해야 한다는 至難한 条件이 前提되어 있는 까닭에 具体的인 分析 및 以前에 우선 그 実現을 期待하기란 극히 困難하다. 即 両国関係에 관한 限 그 意思와 目標에 있어 어긋난다. 蘇聯의 境遇 軍事力이 지닌 意義와 機能[43] 으로 보아도 그렇고 中共 또한 国家目標와 관련하여 볼때에 그러하다. 特히 中・蘇対立은 中共에 있어서 最近 華国鋒政権의 強力한 経済政策推進을 위한 名分으로서 作用하는 面도 없지 않다.[44] 그리고 国際的 与件上으

로도 당장 蘇聯에 기울어져야 할 理由가 없을 것이다.[45] 뿐만 아니라 많은 中共官僚들이 反蘇見解를 갖고 있지 않다는 事実[46] 과 親蘇勢力이 存在하고 있다는 事実이 中共政權으로 하여금 対蘇和解姿勢를 갖게 하는데 얼만큼 作用할 수 있겠느냐도 疑問視되지 않을 수 없다.

씨나리오 (3)은 비록 어느 一方의 和解努力이 아닌 雙方이 다같이 和解를 追求한다는 点에서 상당히 있을 법한 豫想일 수 있으며 彼此가 漸進的 段階的으로 再接近한다면 無理없는 関係調節도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両側이 自発的으로 接近하려는 態度로 転換하게 하는 国際的 環境이 造成되겠느냐는데 있다. 가령 中·蘇를 同時에 敵으로 하는 緊迫한 威脅의 存在나 「다구보·다다에」氏가 想定하고 있는 事態[47] 가 発生한다면 考慮해 볼만한 価値는 있을 것이나 現在로서는 可能性이 희박하다. 따라서 씨나리오 (3)은 特히 自発的으로 이루워 질 展望이 없을 것으로 判断된다. 이러한 状況은 상당히 먼 将来에 中共이 国力을 어느 水準까지 끌어 올려 自信이 생길 때는 可能할런지 모른다. 따라서 어떤 面에서는 中共이 고의적으로 時期를 늦추는 印象마저 갖게 한다.

끝으로 씨나리오 (4)는 可能性에 있어 가장 높다고 評価된다. 両者가 国家関係 改善에 限定되 있고 中共의 目標推進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美国의 뒷받침과 입김을 받는 中共으로서 크게 拒否해야 할 理由가 없다. 또 本模型은 前述한 親蘇派에게도 어느

정도 満足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蘇聯도 美·中共이 関係正常化를 이룩한 現時点에서 美·日·中을 相対로 하는 対立関係의 可能性조차 容認해야할 理由는 없을 것이며 이를 避하기 위해서도 美国의 調整役割에 応하지 않을 수 없다.[48] 要컨대 中·蘇関係正常化가 美·中共関係에 依存하리라는 자고리아教授의 見解[49] 는 이런 点에서도 신빙성이 높은 것이다. 問題의 焦点은 美国이 과연 그렇게 할 意思와 能力과 必要性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論者의 見解로는 "예스"이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美国이 中共과도 国交正常化를 이룩한 이마당에 美·中共이 紐帯를 強化하여 蘇聯에 대해 必要以上의 刺戟을 주어서(中共은 如前히 이것을 期待할런지는 모르지만) 利得볼 것은 없을 것이다. 글라이스틴 駐韓美大使도 美·日·中 三国의 対蘇聯合可能性을 극구 否認한바 있다.[50] 둘째, 美国이 共産圏分裂에서 利得을 본 時期는 1970年代初 以前까지 이다. 現在도 이를 期待하기에는 너무나 美·中共両国이 接近되어 있어 그 意味가 喪失되었다. 셋째, 萬一 現時点에서 中·蘇関係가 悪化될 境遇 美国은 그 어느 便을 들 수도 안들수도 없는 難処한 立場에 빠질 것이다. 넷째, 따라서 三国鼎立関係가 中·蘇의 国家的 対立보다는 美国에 有利할 것이다. 但, 이데올로기的 対立関係가 常存한다는 境遇에 特히 그러하다. 다섯째, 美·中·蘇중 이 一個国이 他 二個国의 合算된 国力과 같거나 커야되는 境遇, 아니면 어느 一方이 他 一方을 選択해야 될 境遇가 発生된다면 美国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必要以上의 엄청난 国力을 消耗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美国으로서는 世界平和에 寄与한다는 名分이 서는 일이 될 것이다.

結局 第1 카테고리의 4個의 씨나리오리중에서 가장 可能性이 높은 것은 씨나리오 (4)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비록 그 時期에 있어 流動的이겠지만 10年이라는 長期展望을 前提로한 本稿의 分析에서는 이와같은 結論이 나오게 된다.

나. 悪化関係 模型

씨나리오 (1)은 現在 蘇聯의 対中共 目標가 修正되지 않는限 그리고 軍事的 特性으로 보아 意図나 目標에 어긋나지 않으며 能力面에서도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国際的 与件과 豫想되는 状況으로 볼때 本씨나리오가 現実化되기에는 適合하지 않다. 即, 씨나리오上으로는 蘇聯이 択할 수 있는 豫防戰爭의 語句를 일부러 回避한바 있는데 앞서 暗示한바와 같이 美国이 中共과의 軍事同盟으로 発展해가야 할 特別한 理由가 없는 限 豫防戰爭의 名分은 서지 않는 것이다. 또한 国内問題때문에 눈을 밖으로 돌릴 可能性이 있어 軍事的 紛爭의 危険이 增大되고 있다는 見解도[51] 있고 最近에 그 危険度는 다소 있었지만[52] 이를 抑止하는 国際環境의 変化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씨나리오 (1)은 実効性이 점차로 적어져 갈 것이다.

씨나리오 (2)에 있어서도 前述한 境遇와 흡사하다. 中共은 限定된 範囲의 豫防戦争을 치를 能力이 없는 것이 아니나 国内問題때문에 豫防戦争을 敢行하기 보다는 오히려 回避할 可能性이 더욱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처럼 調整된 経済優先順位에서 軍事優位로 転換해야하는 契機가 될지도 모르며 이때문에 経済建設目標에 差跌을 빚게 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도 蘇聯의 小規模軍事挑発이 있을 境遇 이에 어떤 方法으로 어느 程度에서 対処할 것이냐 하는 問題만은 남을 것이다. 따라서 中国人 特有의 忍耐心에 期待를 걸수 있을 것이다.

씨나리오 (3)은 現在 中·蘇国境을 中心으로 雙方의 兵力이 都合하여 約 200萬名 程度를 対峙하고 있는 状況에서는 本意아닌 接触衝突로 偶発的인 事態가 생길 可能性이 充分히 認定되고 있다. 이러한 状況이 展開될 境遇 中共보다는 蘇聯이 一戦을 敢行할 好機가 되고 그 나름의 名分이 설 수 있을 것이다. 即, 그동안 쌓인 울분을 蘇聯이 터트리기에는 매우 適合할 것이다. 그리고 東西両面戦争의 冒険을 피하는데 있어서도 豫防戦争을 試図하는 편보다는 훨씬 安全할 것이다. 씨나리오 (3)이야 말로 意図, 能力与件에 있어 他의 仮定보다는 가장 걸맞다. 萬一 씨나리오 (3)이 実際로 適用될 때에는 滿蘇国境 特히 우수리·아무르 両江辺이 가장 可能한 地域인바 이렇게 되면 韓半島北端도 戦争影響圈에 属하리라는 豫想이 可能하다. 이때에 北傀가 취할 行動이 注目되는 것인데 보다 詳細한 展開는 次項으로 미루어 둔다. 여하튼 씨나

리오 (3) 形態의 緊張可能性은 앞으로 時機와 場所에 따라 항상 流動的이라는 것이다.

씨나리오 (4)는 假定한 內容에 있어 다소 調節이 된다면 그 可能性은 상당하다. 即 雙方이 和解可能性을 公式否認하거나 協商努力을 明示的으로 포기한다는 部分은 論理体系上 不可避하게 想定한 것 뿐이며 実際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前提나 假定이 없이도 그 以上의 激化様相을 띄울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非軍事的 激突可能性은 美國 等 第三者의 거중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음직하다. 그 理由는 간단하다. 即, 첫째로 이데올로기 論爭이 雙方間에서 解決될 수 없는 限 이는 美國의 役割로도 막을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둘째, 軍事的 対決보다는 뒷처리가 容易하다. 셋째, 값이 싸게 먹힌다. 넷째, 軍事가 本意아니게 一種의 凍結状態에 있을 때에는 特히 國内外的 政治目的에 活用하기가 매우 適合하다. 다섯째, 雙方의 政策目標, 能力·國際的 環境에도 크게 違背되지 않는다. 여섯째, 美·中共, 日·中共関係 正常化 等 周辺情勢가 変動되어 中·蘇가 共히 새로운 環境에 適応하는 過渡期일수록 非軍事的 手段에 의한 自己合理化, 權益保護 活動은 不可避한 것이라는 것 等이다.

本 카데고리内에서 가령 可能性에 따른 優先順位別로 따진다면 씨나리오 (1), (2) 보다는 (3) 및 (4)가 共히 높은 것으로 判断된다.

다. 現状維持 模型

얼핏보아 可能性이 3個 카테고리中에서는 가장 높을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며 国際情勢判断에 있어 現状維持形態가 가장 無難한 方法처럼 여겨지는 一般的 傾向(?)이 있는것 같으나 事実은 가장 冒険的인 判断일 수 있다.

먼저 雙方의 政策目標, 能力面에서 볼때는 가장 있음직한 関係様相일 것이다. 왜냐하면 両国이 다같이 상당기간 이 状態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意外의 好条件이 성숙되지 않는 限 구태여 問題를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1.2年 또는 3.4年間 持続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5年, 10年, 또는 그 以上의 長期展望에서는 크게 意味가 없다. 74年에 피력한 「히라마쓰・시게오」의 見解[53] 는 現時点에서는 真実이 아닐 수 있으며 中共이 国力培養을 위해 最善의 길이라고 判断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限定된 戦争이든 一定範囲의 和解이든간에 이를 選択할 만큼 熱中하고 있다는 事実을 注目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向後 10年間 現在의 状態를 維持하는데 필요한 諸条件이 그대로 남아 줄것인가? 이 問題는 물론 現状維持의 内容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크게 左右되겠지만 本稿의 論理展開上 前項에서 提示한 諸与件 検討를 中心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本模型에서 想定한 다섯가지 前提条件중에서 条件 (1)은 当事国 스스로가 意図한다면 可能性이 있을 것

이다. 条件(2)는 中·蘇가 直接 管掌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못된다. 条件 (3)은 両当事国이 스스로 解決하도록 努力한다면 어느정도 可能할런지도 모른다. 条件 (4)는 両国이 第3의 状況에 熱中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例컨데, 中共의 境遇 餘他要素들을 考慮外로 한다면 蘇聯과의 関係는 現状態대로 放棄한채 国家目標에만 熱中할 수도 있을 것이다. 条件 (5)는 特別히 熱中할 対象도 또 그럴 意図도 없으면서도 어느 一方이 고의로 問題解決을 忌避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쨋든 다섯가지 条件을 完璧하게 갖춘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그렇지 않다해도 最少限 件件 (2)와 (3)이 그중 어느 境遇에도 반드시 可能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期待하기 困難할 것이다. 따라서 長期的인 観点에서는 現状의 存続이 극히 힘들 것으로 判断된다.

마즈막으로 以上에서 分析, 検討한 세가지 카테고리를 総体的으로 놓고 본다면 中·蘇両国間의 非軍事的 対決関係가 現在보다 激化된다 해도 그것은 過渡期的이거나 一時的 現象일 것이며 또한 両大共産国家의 気質로 보아 있을법한 関係일 것이므로 여기서는 별로 注目의 対象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現在와 같은 中·蘇国境上의 兵力対峙가 改善되지 않는 限 偶発事態로 인한 緊張関係도 恒時 있을 수 있다는 点에서 크게 執着할 意味가 없다. 要컨데 現在의 周辺状況으로 보아 가령 緊張이 高調된다 해도 長期化할 展望은 없다는 結論이다. 그렇다면 카테고리 (개)와 (대)의 境遇만이 焦点이 될 것인데 우선 短期的으로는 現状維持가 어느정도 계

속되면서 一定時点에 가서 美国의 調整役割을 통한 「限定된 和解関係」[54] 로 代替될 展望이다. 따라서 10年以上의 長期的 観点에서 본다면 세가지 카테고리中에서 一定水準의 和解関係가 그 可能性에 있어 가장 높을 것이다.

6.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豫想되는 中·蘇関係가 韓半島에 주는 効果分析에 있어서도 그중 確率이 가장 큰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느 한가지 関係形態만을 놓고 観察한다는 것은 一種의 冒険을 自招하는 것일런지도 모르며 또 実際에 있어서는 可能性이 가장 낮다고 判断된 様相이 갑자기 現実로 登場하는 事例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앞에 想定된 諸 카테고리를 모두 考慮対象으로 하는 것이 研究目的에 符合될 것이고 우리의 対策을 構想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美国의 居中調整에 따른 中·蘇和解関係 即, 国家関係가 改善된다면 그동안 判断되어온 中·蘇両国의 対北 競爭的 支援関係는 다소 緩和 되거나 制限된 範囲로 縮少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美国人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特히 中共은 現在 자신이 推進하고 있는 現代化計劃 및 現実的 実用主義路線을 北傀에 종용하여 中共과 類似한 政策路線을 択하게 할 것[55] 도 豫想된다. 蘇聯 또한 北傀에 대한 攻擊用武器의 支援関係를 크게 調節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状況이 展開된다해도 分析해 본 結果 다음의 몇가지 重要한 局面들이 나타날 것에 留意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北傀는 外形上 対南軍事強硬路線을 어느 정도 修正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구실을 名分으로 하여 一時的 短期的으로 이른바 防衛力增強을 서둘러 逆으로 軍事力은 大幅強化될

것이다.

둘째, 韓半島問題는 더욱더 民族內部問題化로 誘導될 것이며 南北間의 直接対決可能性도 높아질 것이다. 萬一 南北間의 軍事的 衝突이 発生할 境遇 美·中·蘇 三国이 共同으로 調整하거나 関与하지 않는것중 両者択一이 될 것이다.

셋째, 北傀가 実用主義路線을 併行的으로 採択할 可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北傀의 対美·日接近可能性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질 것이며 거의 実現될 것으로 보는것이 妥当할 것이다.

넷째, 南北対話의 再開可能性은 있다. 그러나 従前의 南北間의 軍事的 対決関係는 非軍事的 対決関係로 拡大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南北対話는 軍事的 抑止効果보다도 宣伝的 対決場 一辺倒가 될 것이다.

結果的으로 中·蘇의 限定된 和解関係는 韓国에 대하여 상당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되는데 그중 몇가지만을 整理해 본다면:

첫째, 将次 豫期되는 一定範囲의 美·中·蘇 三国関係는 美国의 従前과 같은 対韓軍事支援을 크게 制限할 것이므로 現在 美国一辺倒의 韓国武器体系에는 적지않은 打撃이 될 것이다.

둘째, 南北間의 単独対決可能性이 커짐에 따라 自主国防은 独自的 防衛力水準에 까지 到達되어야 하는 負擔이 생길 것이다.

셋째, 美·日을 비롯한 西方諸国의 対北 接近可能性에 対処한 実質的 方案이 要請된다.

넷째, 北傀의 非軍事的 攻勢의 激化가 豫想됨에 따라 당분간은

南北韓関係가 또다른 過度期에 直面할 것이므로 이에 急템포的인 韓国의 政策的 対策이 時急히 要請될 것이다.

다섯째, 韓国의 対中·蘇関係設定을 위한 努力이 더욱 強化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中·蘇両国関係가 悪化될 境遇이다. 悪化可能性은 크게 떨어지겠지만 萬一 両国関係가 어떤 方法으로든 悪化된다면:

첫째, 両国의 対北傀 競爭的 支援은 提高될 것이다.

둘째, 이런 境遇 中共의 支援은 美·日 等과의 関係로 크게 制限을 받겠지만 逆으로 蘇聯의 軍事的 支援은 그만큼 拡大될 것이다.

셋째, 中·蘇間의 武力衝突이 多少 激化될 時에는 美·日 等이 難処한 地境에 빠져 있는 機会를 利用하여 北傀는 速戦速決의 対南奇襲을 単独으로 敢行해 올 可能性이 크다. 要컨데 中·蘇対立의 激化는 北傀의 対南挑発을 위한 好機会가 될 것이다.

끝으로 現状維持의 境遇이다. 그 影響도 크게 달라지리라고 豫想되지는 않는다. 即, 中·蘇의 対北傀 支援 및 北傀의 対中蘇等距離関係는 現在대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北傀가 経済建設과 国力培養을 위해 美·日 等 西方国家들로과의 協力関係를 갖도록 与件造成에 協助할 뿐만 아니라 北傀의 国際的 地位 伸張에 크게 寄与할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中共의 対北傀 支援 및 協助에 대항하에 蘇聯은 보다많은 攻擊武器의 供与姿勢로 이에 맞설것이 豫想된다.

o 北傀는 現実路線도 併行하여 採択할 것이다.

o 美・日 等 西方諸国의 対北傀接近 可能性이 크다.

o 北傀의 対南攻勢는 더욱더 多様化될 것이다.

o 美国의 対韓武器供与가 점차로 制限받을 것이 豫想됨에 따라 韓国軍의 武器体系에는 큰 影響을 줄 것이다.

o 中・蘇関係가 어떤 形態를 취하든지 北傀의 対南軍事挑発 可能性은 尙存하게 될 것이다.

要컨데 百가지의 있을법한 判断은 한가지의 거의 不可能하다고 여겨진 判断이 자칫 実現될 境遇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事実에 銘心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註 釈)

1) Donald S.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40.

2) Ibid., p.165.

3) Morton H.Halperin, "Sino-Soviet Nuclear Relationns, 1957-1960, " Sino-Soviet Relations and Arms control, ed. by Morton H.Halperi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67), pp.122-123.

4) Ibid., p.128.

5) Ibid., p.141.

6) Zagoria, op.cit., p.159.

7) Ibid., pp.249-250.

8) Ibid., pp.255-256.

9) 以下는 世界週報, 1978年5月2日, pp.14-15. 参照.

10) 이러한 蘇聯側 見解는 코제프니코프 等을 통하여 表明된바 있다. Dennis J. Doolin, Territorial Claims in the Sino-Soviet Conflict, Documents & Analysis, Hoover Institution Studies:7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1965), pp.39-40.

11) 世界週報, op.cit., p.12.

12) Donald W.Klein, "The Foreign Policy of the People's Republic," Current History, Vol.73, No.429. September 1977, p.54.

13) 世界週報, 1978年3月21日, p.42.

14) 上掲書, p.16 以下의 内容을 参考하였음.

15) 特히 鄧小平이 科学技術 및 그 従事者들에 대한 優待를 強調하고 思想보다는 技術開発에 精進할것을 強力히 主張한바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7. 1978. pp.28-29 를 参照

16) 1978年11月30日 国防大学院에서 実施한 Harvey W.Nelson 教授의 "中共의 軍事戦略의 将来와 能力"에 관한 特講 노-트 参考.

17) Jan S.Prybyla, "Some Economic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Survey, December 1977, p.1123.

18) Ibid., p.1125.

19) 世界週報, 1978年3月21日, p.19.

20) Vaclav Smil, China's Energy Performance, Current History, op.cit., p.65.

21) Ibid., p.64.

22) Economic Report, "The Chiness Economy in 1976," The China quarterly, June 1977, p.364.

23) Nelson 教授의 特講노-트

24) 上階書

25) 蘇聯共產党第 25 次大会 資料集.(1976.9) 参照

26) Robert C.Horn, "China and Russin in 1977: Maoism Without Mao," Asian Survey, October 1977, p.921.

27) Ibid., p.929.

28) 世界週報, 1 977 年 9 月 6 日, p.20.

29) R.J.Vincent, "Military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The Soviet Union and Western Europe," Adelphi Papers Number one Hundred and nineteen, p.11.

30) George W.Ball, "The Super-Powers in Asia, East Asia and the World System," Adelphi papers, Number Ninety-one, p.2.

31) 및 32) William R.Kintner, "蘇聯의 対亜細亜戦略," 安保政策研究시리즈 78-7(国大院安研刊, 1978.6.30), p.4.

33) George W. Ball, op.cit., p.3.

34) Ibid., p.12.

35) William E.Odom, "The Soviet Military and Foreign Policy," Survival, November / December, 1975, p.276.

36) Harold Brown, Annual Report Fiscal year 1979.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 1978), p.50.

37) The Military Balance 1978-1979, p.9. 그러나 1976-77의 境遇에는 1級程度가 낮은 상태에 있어 最近과는 좋은 対照를 이루고 있다.

38) 世界週報, 1978年4月18日, p.27.

39) Donald W.green and Herbert S.Levine, The Soviet 10th Five-year Plan:An Initiall Assessment (Stanford Research Institute, may 1976), pp.45-46.

40) 以下의 各 模型群 및 小単位 모델들의 順位는 特別한 事前考慮에 따라 決定된것이 아님. 그리고 (가)의 和解関係 模型은 처음부터 国家関係의 和解를 前提로 하고 있음. 그밖에 各 模型想定에 있어서는 可能한 限 註釈을 回避하였음.

41) Far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6. 1978, p.15.

42) 即, 現状維持가 統制된 対立의 部分現象일 수는 있어도 全体現象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萬一 本稿에서 「統制된 対立」形態를 한 模型으로 잡는다면 其他 提示한 모델은 거의 意味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両国間의 根本的인 問題解決이 어렵다는 事実을 説明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소간의 緊張高調나 和解可能性 — 이를테면 이데올로기的 対立이 解消되지 않은 国家関係改善 — 을 説明하기에는 너무나 抱括的인 概念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43) Odom, op.cit., p.276.

44) 世界週報, 1978年3月21日, p.17参考.

45) 世界週報, 1976年5月25日, p.5.

46) Franz Michael, "China and the Soviet Union: Waiting for mao to Die?", Current History, vol.69. No.408. (September 1975), p.67, 107.

47) 註(45)項 参照

48) 朝日新聞, 1978.12.22日

49) Donald S.Zagoria, "Mao's Role and the Balance of Power", Foreign Affairs, vol.52. No.2 (Jan. 1974), pp.139-153 参照

50) 1978年9月12日 駐韓美大使의 国大院 特講노-트

51) 世界週報, 1978年4月25日, p.57.

52) Far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1, 1978. pp.31-33.

53) 平松茂雄, "中ソ対立の背景と現実:中ソ戦争論とよせて", アジアクオータリー, 第6巻第3号(1974年7～9月), p.71.

54) 바네트敎授의 "限定된 和解"(Limited Detente)用例에 따른 表現임. A.Doak Barnett, "Peking and the Asian Power Balance", Problems of Communism, July-August 1976, pp.36-48.

55) John K.Emmerson, "四大国関係와 東北亜", 安保政策硏究시리즈78-9(国大院 安硏刊, 1978.9.11), p.8.

1980年代의 日本의 軍事態勢
-軍事拡張論을 中心으로-

The Japanese military Posture in the 1980s

- Specially on the military Expansionism -

研究執筆責任： 吉 昇 欽

（略歴） 서울大 文理大政治学科 卒業 및
同 大学院 修了（1966年）
美国플로리다洲立大 政治学碩士（1969年）
미시간大 政治学博士（1977年）
現在 서울大社会大 政治学科 助教授
（1978年부터）

目　　次

Ⅰ. 序　　言 ······ 265

Ⅱ. 最近의 日本의 軍事態勢 ······ 268

(1) 日本의 四次防까지의 軍事態勢 ······ 270

(2) 「포스트四次防」下에서의 軍事態勢 ······ 275

Ⅲ. 日本의 周辺情勢 : 1980年代 ······ 283

(1) 美·소軍備競争 ······ 284

(2) 極東에서의 美·소軍事戦略 ······ 288

(3) 日本의 軍事専門家들의 展望 ······ 294

Ⅳ. 日本의 国内政治的 制約 ······ 299

(1) 安保理論上의 制約 ······ 300

(2) 与論上의 制約 ······ 303

(3) 国内政策上의 制約 ······ 307

(4) 政治制度上의 制約 ······ 310

Ⅴ. 結　　語 ······ 313

I. 序　　言

美国 「하바드」大学校의 「헌팅톤」敎授에 의하면, 한 나라의 軍事政策을 分析 또는 展望함에 있어서 가장 重要視해야할 것은 軍事政策이 지니고 있는 두가지 面, 即 戰略 (Strategy) 과 構造 (Structure) 두가지를 다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

戰略이란 軍事政策이 主로 国際政治에 左右된다는 것을 意味하고, 構造란 그것이 国内政治的인 要因에 의해서도 크게 左右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2) 이런 見解는 軍事專門家들이 軍事政策을 分析展望함에 있어서 主로 軍事政策의 戰略的인 面만을 보고 結論을 내리려는 傾向이 있는데, 이들에게 적절한 忠告라고 할 수 있다.

軍事政策의 戰略的인 面만을 다루게 되면 国際政治上 어떤 軍事的인 要求가 增加되면, 그것이 곧바로 軍事政策化되어 軍備拡張의 길로 이끌게된다는 結論을 내리기가 쉽다. 그러나 모든 餘他政策의 樹立過程이 그러하듯이, 軍事政策도 政治的 真空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国際政治上 어떤 軍事的인 要求가 発生해서 그것이 政策化가 되려면, 다음 두가지 条件中 하나 또는 둘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軍事政策이 다른 政策에 比해서 優先順位를 가질것. 둘째, 그 軍事的 要求 (Need) 를 政策化시킬 수 있는 政治的 「매카니즘」이 마련 되었거나 軍部가 政治的으로 強力해야 할것. 소련, 中共, 「베에트남」, 北韓等의 共産主義国家는 이런 類型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韓国이나 美国같은 나라는

이런 類型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에는 戰後 소위 「平和主義」에 젖어 있는 나라이고, 또한 日本의 軍部勢力은 強力한 政治的 影響力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軍事戰略上 어떤 要求가 생기거나, 또는 기발한 計劃이 있어도 그것이 쉽게 政策化가 안된다. 이것이 戰後의 日本이다.

最近, 極東地域에는 二極体制가 三極体制로 転換되고, 美・소軍備競爭에서 소聯은 漸次 強力해지고 美国은 漸次 弱体化되어, 戰後 継続해서 日・美安保体制라는 温床속에서 유유자적해 오던 日本의 周辺에 찬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서 日本의 軍事的 向背가 至大한 関心의 対象이 되어졌다. 或者는 日本의 極左派 또는 軍需産業企業体의 軍備拡張 圧力等을 보고 日本이 軍国主義 또는 帝国主義의 길로 달리고 있다고 展望을 내리고 있고,(3) 或者는 日本이 軍国主義로 갈수 있는 要因을 提示하기로 하고,(4) 또 或者는 日本이 갈수 있는 여러가지 軍事的模型(가, 나, 다 또는 라)을 세워놓고 「나 또는 다」模型으로 갈것이라고 展望을 내리고 있다.(5)

勿論 이런 展望을 내림에 있어서, 以上의 諸専門家들은 日本의 軍事政策이 지니고 있는 構造的인 面도 取扱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副次的이고 主関心은 戰略的인 面에 놓여 있다.

本稿에서는 1980年代의 日本의 軍事態勢를 展望함에 있어서 「헌팅톤」教授의 接近方法을採用, 日本의 軍事政策이 지니고 있는 戰略的 및 構造的인 面 두가지를 다 考慮의 対象으로 삼겠다.

戰略的인 面에서 美・소軍備競爭에 力点을 두어 日本이 1980年代에는 軍備拡張의 길로 가게끔 要求를 받고 있으나, 構造的인 面 即 日本의 国內政治的 要因때문에 軍備拡張에 対한 要求가 제대로 反映되지 않으리라고 展望을 내리기로 하겠다. 本稿에서는 以上의 両面性을 뚜렷하게 紹介하는데 그치고, 日本이 1980年代에는 現在보다 더 強力한 軍事大国의 길로 갈것인지에 対한 判断은 読者에게 맡기기로 하겠다. 以上 日本의 軍事政策의 두가지를 다루기 前에 우선 最近의 日本의 軍事態勢부터 다루기로 하겠다.

Ⅱ. 最近의 日本의 軍事態勢

最近의 日本의 軍事態勢를 概觀함에 있어서 重要視해야할 点은 첫째, 日本의 仮想敵国이 어느나라인가? 둘째, 機能別로 보아서 日本의 軍事態勢가 어느 線까지 対処할 態勢인가?의 두가지를 다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日本이 仮想敵国을 소聯, 中共 北韓中 어느나라를 対象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日本의 軍事態勢의 規模가 달라질수가 있다.

그것 이 만일 北韓이라면 그 規模는 작아도 될 것이겠지만, 만일 相対가 소聯이라면 그 規模는 훨씬 커야 된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日本의 仮想敵国은, 한때는 中共도 包含되었었으나, 日·中共平和友好条約 및 美·中共条約이 締結된 現在 中共은 마땅히 여기서 除外되어야 하고, 따라서 「日本의 仮想敵国은 소聯이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実이다.(6) 둘째, 機能別로 보아서, 日本의 軍事態勢가 어느線까지 整備되어 있는가를 보이기 為해서 다음 여덟개의 段階를 나눠 보았다.

①攻擊 또는 侵略

②海外派兵

③防衛: 가. 核全面戰争

나. 通常兵器에 의한 大規模戰争

다. 通常兵器에 의한 局地戰

라. 限定的 小規模侵略

마. 非公然 武力行使

바. 間接侵略[7]

以上에서 말하는 「海外派兵」이란 極東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為해서 従来 美国이 遂行해 오던 것을 有事時에는 日本이 떠맡는 것을 意味하고, 「通常兵器에 의한 局地戦」이란 事前에 準備를 갖춘 小規模의 侵略에 対処한 戦争을 意味하고, 「限定的 小規模侵略」이란 事前에 準備를 갖추지 않고 奇襲的으로 생긴 侵略을 말하고 「非公然 武力行使」란 日本의 領海 또는 領空을 非公然하게 侵入하는 事態를 意味하고, 마지막으로, 「間接侵略」이란 日本의 国外에서 密搬入한 武器를 利用 또는 外国人들의 教唆에 의해 日本内의 共産主義者들 또는 極左翼係統이 大規模의 内乱 또는 騒擾를 일으키는 事態(1973年度의 油類波動때 또는 第2의 韓国戦때 이러한 事態가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고 指適되고 있음)를 意味한다.

以上과 같이 여덟개로 区分된 日本의 軍事的 機能은 最近의 日本의 軍事態勢를 理解하고 또 장차 日本이 軍備拡張을 한다면 위의 여덟개의 機能中 어느段階까지 할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以下 戦後의 日本의 防衛政策을 紹介, 日本의 軍事 事態는 1976年까지는 위의 여덟段階에서 다섯번째인 「通常兵器에 의한 局地戦」까지를 対備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77年 以後 現在 이 時点에서의 日本의 軍事態勢는 위의 여덟段階에서 여섯번째인 「限定的 小規模侵略」以下의 事態를 対備키 위한 것이라고 보이기로 하겠다.

(1) 日本의 四次防까지의 軍事態勢

「 ①日本国民은 正義와 秩務를 基調로 하고 있는 国際平和를 誠実하게 希求하고, 国権의 発動을 必要로 하는 戰力과 武力을 通한 威嚇 또는 武力의 行使는 国際紛争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는, 이를 永久히 放棄한다. ②前項의 目的을 達成시키기 為해 陸, 海空軍 其他의 戰力을 保持하지 않는다. 나라의 交戰権을 認定하지 않는다 」

上記文은 日本의 平和憲法 第9条 全文이다. 1953年 11月 日本의 東京大学憲法研究会가 発行한 「註解日本国憲法」에 의하면, 上記한 第9条 1項의 「戰争의 放棄」에 対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내리고 있다. 「本規定은 以上 말한바와 같이 이 憲法中 가장 큰 重要性을 가지고 있고 그 最大의 特色을 나타내는 것일뿐더러, 世界的으로도 그 比類가 없는 劃期的인 것이다. ……

이 정도로 徹底的으로 自衛 및 制裁를 包含해서 一切의 戰争을 放棄하고, 한발 더 나아가 軍備마저 廃止한 憲法은 달리 없다. 」[8] 또 9条2項의 「戰力 및 交戰権」에 対한 否定에 対해서는 다음과 같이 解釈을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以上 言及한 侵略戰争의 放棄에서 더 나아가 第9条2項에서는 自衛를 為한 戰争 및 制裁를 위한 戰争까지 放棄하고, 軍備를 廃止한 것은, …… 世界史的 意義를 갖는다 」[9] 周知의 事実이지만 이런 「平和憲法」条項에 의거 日本의 많은 平和主義者들은 한때 日本의 「自衛」만을 為해

1954年度에 設置된 自衛隊를 「武装集団」이라고까지 悪名을 부쳐 왔지만, 日本政府에 의하면 同条項은 日本의 自衛權마저 放棄한 것이 아니라고 解釈을 내리고 自衛隊를 設置했고, 日本의 与論調査도 自衛隊의 必要性에 対하여 1956年 58%, 1967年 77%, 1977年 83%의 日本国民이 容認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9)

여기서 関心의 対象이 되는 것은 日本의 保守党政府도 平和憲法이 日本의 自衛隊의 機能을 여러면에서 制約한다는 것이다.

첫째, 平和憲法의 規定의 趣旨에 따라서 「攻撃 또는 侵略」機能은 制約되었다고 보고, 따라서 攻撃用 核装備인 中長距離弾道弾(ICBM IRBMS, SRBMS, MIRVS 따위), 攻撃型航空母艦, 長距離爆撃機(B-52s, B-1s 따위) 等을 保有할 수 없다는 것이고.(10) 심지어는 在来式兵器에 있어서마저, 그것이 他国에 攻撃用으로 쓰일수 있는 空中給油裝置 爆弾投下装置를 지니고 있다면 이런 装置를 除去하고 保有해야 한다는 것이다.(11) 둘째, 武力行使의 目的을 가지고 武装된 部隊를 他国의 領域에 派遣하는 「海外派兵」도 憲法上 禁止되고 있다고 함으로서(12) 極東의 平和와 安定을 為한 軍事的 措置는 取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13) 따라서 日本의 自衛隊는 憲法上의 理由로 純粋히 「自衛」 또는 「防衛」機能만을 遂行하기 為해서 設置된것이라는 것을 쉽게 理解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의 우리의 関心은 앞에 이미 보인바 있는 여섯가지의 防衛機能中 日本의 自衛隊는 어느線까지의 機能을 担当하기로 되어있는가에 対한 것이다. 日本의 軍備拡張論者인 岸信介前首相이

1957年5月7日 参議院豫算委員会에서 発表한바에 의하면 「防衛」用이라면 戦術核兵器의 保有로 可能하다는 것이다.(14) 이런 見解에 의하면, 日本自衛隊의 機能은 前記한 여섯가지의 機能을 다 担当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日本이 1952年 4月 美国의 占領下에서 벗어나 新生独立国으로 昇格하면서 日本의 防衛論에 対해서 擧論이 많았었는데, 다음과 같은 意見이 百出했다고 한다. (表1). 表1에서 보인 여러가지 試案中 가장 「비둘기」案인 経審案을 보자.

6個年計劃에 1.2兆円의 經費가 들겠끔 짠 試案이므로 이 試案은 当時 日本의

(表1) 日本의 自衛를 為한 軍事態勢試案※

	陸上兵力数 (万名)	戦闘艦艇数 (万トン)	航空機 (台数)	備考
独力自衛案 ※※	100	150	10,000	所要額: 8兆円
日·美体制下案				
鳩山前首相案	22.5	38.7	1,800	
防衛調査会案	9	28.0	2,000	
Y委員会C案	26.0	30.8	7,000	
経団連案	30.0	29.0	3,750	所要額: 2.9兆円
経審案	20.0	27.0	2,000	6個年計劃 所要額: 1.2兆円
保安庁制度調査会案	30.0	47.5	6,740	13個年計劃

資料出処: 毎日新聞社, 安保と 自衛隊(東京: 毎日新聞社, 1969) pp. 68-69

※ 以上의 諸試案은 1952年 9月에 作成된것.

※※이 案은 当時 保安庁制度調査会가 美国이 日本의 防衛를 担当하지 않을 万一의 事態를 対備해서 制服組에게 시켜서 作成된것.

財政経済事情을 考慮, 何等의 큰 負担이 가는 試案이 아니었다. 1952会計年度의 日本의 国民総生産高는 6.2兆円이었고, 一般会計歲出額은 9,325億円이었고, 防衛関係費는 1,826億円이었다.(15)

外国의 占領下에서 벗어나 主権을 얻은 나라로서는, 年平均 2,000億円을 所要하게끔 짠 上記의 経審案 程度는 日本이 마땅히 採択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以後 1976年度로 끝나는 四次防까지 日本이 軍事的으로 걸어온 길은 上記한 経審案 보다 훨씬 더 「비틀기」의 軍事態勢였다. (表2)

(表2) 日本의 軍事態勢 : 1-4次防

	陸上兵力数 (万 名)	戰闘艦艇数 (万 톤)	航空機 (台 数)
一次防 (1958-60)	18	12.4	1,300
二次防 (1962-66)	18	14.0	1,000
三次防 (1967-71)	18	14.2	880
四次防 (1972-76)	18	21.4	800

資料：(日本) 防衛白書： 1978 pp.64-65.

※ 1973 年의 油類波動때문에 이 計劃은 많이 未達됨.

(日本) 防衛白書： 1976 , p. 94

元来 故吉田茂前首相의 防衛構想은 日本의 防衛機能을 前記한 (14 페-지參照) 여섯가지의 防衛機能中 가장 末端機能인 「間接侵略」에 対備하는 것에 局限시키고 나머지의 防衛機能은 美国에 떠맡기려 했었다.(16) 그래서 日本이 美占領下에서 벗어난 直後 만들어진 것은 「保安隊」였다. 이러한 日本政府의 防衛構想이 美国에 受諾될수는 없었다. 美国의 国務長官 「덜레스」(John F.Dulles)氏는 日本의 防衛機能을 훨씬 더 拡張, 極東地域의 平和와 安全維持機能까지 担当하라하고, 日本의 保安隊가 가지고 있던 11 万 5 千名의 兵力数를 일약 35 万名線까지 拡大하라고 종용했다. 日本은 極東地域의 安全維持機能까지 担当하는 것은 憲法上 不可能하다고 主張하고, 代身 日本의 防衛機能을 「保安」에서 「自衛」까지는 拡大시킬것에 合意를 하고, 1954 年 「自衛隊」를 創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7) 그 以後 駐日美軍의 撤収에 따라서 日本政府는 1957 年 「国防의 基本方針」을 決定, 이를 通해서 「外部로 부터의 侵略에 対해서는, …… 美国과의 安全保障体制를 基調로 해서 対処」하기로 하고, 「国力国情에 따라서 自衛를 為해 必要한 限度内에서, 効率的인 防衛力을 漸進的으로 整備한다」는 것을 밝혔다.(18)

以後 日本政府는 1976 年까지 네차례의 長期防衛計劃, 即 一次防 (1958-60 年) , 二次防 (1962-66 年) , 三次防 (1967-1971年) , 四次

防 (1972-76年) 을 거쳐서 自衛隊를 整備強化해 갔다. 그런데 이들 네차례의 日本의 長期防衛計劃에서 重要한 것은 二次防에서 처음으로 日本의 自衛隊의 機能을 「通常兵器에 의한 局地戰 以下의 侵略에 対処하는것」에 局限시키고, 이런 制限은 三次防 四次防에 그대로 適用되었다.[19]

다시말하면 前記한 여섯가지의 防衛機能中 末端에서 네번째가지는 日本의 自衛隊가 担当하고 나머지 機能은 日本의 「国力国情」을 考慮해서 美国에 떠맡기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日本의 平和主義的 防衛政策을 反映, 1976会計年度 現在, 日本의 GNP는 210.6兆円 一般会計歲出豫算額은 34.3兆円인데 反해서, 防衛関係費는 1.9兆円으로,[20] GNP의 0.9%, 一計의 6.22%에 불과하다.

이미 보인바와 같이 (29페-지), 1952会計年度에는 日本의 防衛関係費가 GNP의 2.95%, 一般会計歲出豫算額의 19.6%였었다는 事実과 比較하면, 独立後의 日本의 防衛政策이 얼마나 「비둘기」派의 政策이었다 한것을 알 수 있다.

(2) 「포스트四次防」下에서의 軍事態勢

日本政府는 1976年10月29日 国防会議와 閣議에서 「防衛計劃의 大綱」을 決定했다. 1976会計年度로 끝난 四次防까지의 日本政府의 防衛政策의 大綱은 每長期防衛計劃이 樹立될때마다 同計劃에 그 大綱을 細示했기 때문에 同計劃만을 検討하므로서 日本政府의 防衛政策의 大綱과 向方을 알 수 있었다.[21]

그러나 1977会計年度以後 日本은 長期防衛計劃을 樹立하지 않고 単年式計劃으로 対処하기로 했다.(22) 따라서 1977年度以後 日本의 防衛政策 樹立에 指針이 될 前記한 「防衛計劃의 大綱」은 同「大綱」에서 前提한(23) 国際情勢에 큰 変動이 없고, 또 国内政治에 큰 変化가 없는限, 앞으로의 日本의 防衛政策의 向方을 提示하는 唯一한 政府文書가 될것이다.

同「大綱」은 1977年度는 勿論 1978年度에도 日本의 防衛力整備에 指針書가 되었다.(24)

同「大綱」에서 우리의 関心의 対象이 되는 것은 두가지, 即 첫째, 同「大綱」이 「비둘기派의 防衛理論」이라는 것이고, 둘째, 同「大綱」의 採用과 함께 日本政府가 採択한 「基盤的 防衛力」概念이다. 以下 이 두가지를 다루겠다.

①「비둘기派의 防衛理論」: 同「大綱」이 決定된 1976年10月29日字의 日本의 朝日新聞은 同「大綱」을 評価하면서, 同「大綱」을 「비둘기派의 防衛理論」이라고 命名하고 있다. 同「大綱」이 왜 「비둘기派의 防衛理論」인가에 対해서 同紙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日本이 対処해야할 威脅의 段階를 한 段階 낮추었다. 防衛当局에 의하면 想定할 수 있는 威脅은 ①核全面戦争, ②通常兵器에 의한 無制限戦争, ③本格化한 限定侵略, ④小規模限定侵略, ⑤非公然武力侵略, ⑥間接侵略의 여섯段階가 있다.

四次防까지는 日本의 独力으로 対処할 것을 ③까지 想定했었다.

大綱은 이를 ④로 낮추었다.」[25]

日本의 防衛白書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即 四次防까지 日本의 防衛機能은 「限定侵略」(Limited aggression)에 対処키 為한 것이었는데,「大綱」에서는 이를 한 段階 더 낮추어서 「限定的 小規模侵略」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前者는 局地戰이라도 事前에 準備를 갖춘 侵略을 意味하고, 後者는 事前에 準備를 갖추지 않은 우발 또는 기습전이라고 한다.[26]

그러면, 日本政府는 1977年度以後의 防衛機能을 왜 한段階 낮추었는가? 이에 対해서 「防衛白書」는 네가지의 理由를 들고 있다. 첫째는 軍備拡張에 対한 反対理論이다.[27] 이 見解에 의하면, 四次防까지의 防衛力整備計劃이 「단순히 装備取得의 한 方便」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軍備拡張을 해 나아가면 어느程度까지 拡張하겠냐는 것에 対한 批判이다. 量的 增加는 四次防으로서 되었으니 그 以上의 量的 增加는 할 必要가 없다는 批判이다. 둘째는 日本의 財政経済 事情이 防衛力整備計劃을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周知의 事実이지만, 日本은 1973 - 1974年度의 油類波動으로 大打撃을 経験했다. 以後, 日本의 財政経済 事情은 成長에서 安定為主의 政策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런 財政経済状況下에서는 防衛力整備計劃을 지탱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는 国際情勢가 「安定化」의 方向으로 간다는 것이다. 美・소間에 「데탕뜨 무-드」

가 助成되어가고, 中・소関係가 悪化되어 가고 있고, 「베트남」 戦은 종식되었고, 美・日関係는 悪化되지 않고 있으니, 이런 「데땅뜨」 분위기下에서 軍備를 「拡張」할 必要가 있겠냐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네째는 威脅에 対한 解釈의 変化다. 四次防까지는 仮想敵国으로부터의 威脅을 相対方의 能力(Capabiliries)을 本位로 해서 생각했었다. 即 相対方의 戦力이 日本의 自衛力보다 크다면 그것을 威脅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포스트四次防」下에서는 相対方이 威脅을 能力보다는 意図(Intent)를 為主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即 能力이 있어도 相対方에게 意図가 없다면, 그것은 威脅의 対象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日本政府는 相対方의 侵略할 意図와 그 侵略의 規模와의 関係는 逆関係라고 보고 있다. 侵略의 規模가 크면 클수록 그 意図는 적고, 그 規模가 적을수록 그 意図는 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限定的 小規模侵略」은 있을지 모르나 그 以上의 規模의 侵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以上이 日本政府가 1977年度 以後의 日本의 防衛力 機能을 한 段階 낮춘 背景이다.

② 「基盤的 防衛力」: 이런 새로운 防衛概念이 나오게 된 由来와 이 概念이 뜻한바는 다음과 같다. 四次防의 具体案이 最終的으로 決定될 段階인 1972 - 73年度 当時의 일이다. 当時 世界의 大勢는 美・소間의 「데땅뜨」, 美・中共関係 및 日・中共間의 関係의 改善等 和解体制로 들어가고 있는것을 反映, 日本에서도 日

本의 防衛力이 量的으로 어디까지 增強되어야 하느냐는 것이 国会에서 挙論되고 日本의 「防衛力의 限界」가 問題視되었다.(28)

그래서 防衛庁이 1973年 2月 「平和時의 防衛力」이라는 報告文을 成案 国会에 提示했으나 이것은 여러가지 理由로 撤回되었다. 여러가지 理由中 重要한 것은 同報告文에서 目標를 하고 있는 「平和時의 防衛力」의 限界가 더 컸다는 事実이다. 이미 보인 바와 같이 (페-지 39), 四次防이 끝나는 1976 会計年度 日本의 防衛力은 陸上兵力 18万名, 海上艦톤数 21.4万톤, 그리고 航空機台数는 800機였다.

防衛庁이 꾸민 「平和時의 防衛力」에 構想된 것은, 陸上兵力 18万名, 海上艦톤数 約25-28万톤, 그리고 航空機台数 800였다.(29) 四次防의 構想과 比해서, 四次防以後의 「平和時의 防衛力」의 構想에서는 海上艦톤数가 約4 - 6万톤 더 크다. 다시 말하면 当時 日本의 防衛庁은 四次防以後에도 量的増強을 해나갈 意思였었는데, 이 構想이 撤回되었다는 뜻이다.

그 以後 日本経済는 油類波動等의 理由로 極甚한 苦役을 치루고, 従来의 成長為主에서 安定為主로 方向転換을 했다.
前記한 바와같이 防衛計劃도 従来와 같은 3 - 5個年固定方式을 버리고 単年式 方式에 의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事情을 反映해서 「포스트四次防」의 새로운 「平和時의 防衛力」構想이 나왔는데, 이것이 소위 「基盤的 防衛力」이라는 것이다.(30)

「基盤的 防衛力」, 即 「포스트四次防」에서 目標로 하고 있는

軍事態勢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上記한 바와같이 量的增強이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기 때문에 代身 質的改善에는 철저를 期하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例가 1960年代에 採択한 F－104 J 迎擊戰鬪機 270機 全体를 가장 最新型인 F－15戰鬪機 100機로 1978--1985年間 完全히 代替키로한 計劃이다.(31)

「基盤的 防衛力」에서 두번째로 力点을 두고 있는것은, 日本의 防衛機能이 위축될대로 위축되었으니 警戒態勢만은 철저를 期하자는 것이다. 여기서도 가장 좋은 例가 最近 日本의 紙上에 보도되고 있는 P3C 対潜水艦哨戒機와 早期空中警報機인 E 2 C 機의 採択이다. P 3 C는 1978年 以後 約 10 餘年에 걸쳐서 45機를 導入키로 되어있으며, E 2 C는 1980年度에 우선 4機를 採用키로 되어있다.(32)

「基盤的 防衛力」에서 세번째로 力点을 두고 있는 것은, 従来에는 量的 增強에 努力한 結果 主로 前方体制整備가 우대를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後方의 支援体制가 갖추어야할 指揮通信, 輸送, 救難補給, 따위의 整備로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以上 「基盤的 防衛力」構想은, 量的으로 더 拡大해나아갈 수 없는 그런 日本의 政治風土下에서, 日本의 防衛庁이 次善策으로 構想했다는 느낌이 짙다.

그러나 여기서 밝혀두어야 할것은 以上과 같은 「基盤的 防衛力」의 整備에 있어서 日本의 国防会議와 閣議는 前記한 「防衛計劃의 大綱」(1976年 10月29日決定)을 通해서, 「그때 그때의 経済財政

事情等을 감안하고, 나라의 餘他諸施策과의 調和를 이루어가면서」, 整備해 가라고 한点과, 또 1976年11月5日 日本의 防衛関係費가 每年 GNP의 1%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事実이다.(33)

따라서 以上과 같은 「基盤的 防衛力」整備가 構想대로 遂行되어 갈지는 未知数이다.

이러한 주어진 条件下에서 日本의 防衛当局의 마지막 選択 (Choice)은 日美安保体制의 強化論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포스트四次防」下에서 日本의 自衛隊의 機能은 「限定的小規模侵略」에 制限되어 있다. 日本의 防衛当局은 이 機能은 「原則上으로는」 日本自衛隊가 独力으로 対処해야 할 일이지만 実質的으로는 저런 縮小된 機能마저 独力으로 対処할 수 없기때문에 日・美安保体制에 依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34)

그러나 問題는 全世界를 相対로 하고 있는 美国에게 日本의 저런 程度의 防衛機能까지 担当할 能力 또는 意思가 있겠냐는 것이다. 美国은 1969年度의 「닉슨 독트린」以後 日本에게 通常兵器에 의한 日本에 対한 侵略은 日本스스로 担当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35)

또 美国은 最近(1978年 6月) 열린 「브라운」美国防長官과 金丸信日本防衛庁長官과의 会談에서 「지금까지 美海軍은 日本海上自衛隊의 도움없이도 独自的으로 소련의 太平洋艦隊에 対応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日本海上自衛隊는 応分의 努力을 해야할 것이며 美海軍을 支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36)

勿論 이런 美国의 日本에 対한 軍備拡張圧力은 1950年代 美国의 「덜레스」国務長官時節부터 加해졌다. 그러나 1950年代, 1960年代의 美国은 軍備面에서 소聯을 制圧했었고, 또 日本은 이를 最大限度로 利用, 経済成長 政策을 追求하면서 그의 防衛機能은 極小化시켜 왔다.

1970年代末, 1980年代에도 日本은 저런 温床속에서 悠悠自適할 수 있을까?

이를 보기 為해서 다음 章으로 넘어 가자.

Ⅲ. 日本의 周辺情勢

以上에서 筆者는 「日本은 日・美安保体制라는 温床속에서 悠悠自適할 수 있을까?」라고 質問을 던졌지만, 日本의 著名한 軍事専門家인 桃井真氏에 依하면, 対答은 「예스」(Yes)이다. 日本에게는 「特別 抑止力」(bonus deterrence)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1977年度부터 採択한 日本의 「포스트四次防」이 日本의 防衛機能을 縮小시킬대로 縮小시키고, 美国에게 이 縮小된 部分 또는 그 以上의 것을 채울 能力 또는 意思가 없어서 생긴 「갭」은, 日本의 「特別 抑止力」인 経済協力, 外交따위로서 메꿀 수가 있다는 뜻이다.(37)

이런 立場에서의 좀더 強力한 理論은 日本의 所謂 「全方位外交」理論이고,(38) 또 前章에서 보인바와 같이 「仮想敵国」에게 「能力」이 있다고 해도 「意図」는 없을것이라는 日本政府의 見解이다.

그러나 「特別 抑止力」을 強調한 桃井真氏는 1978年 6月 30日 発行한 그의 著書,「生残ッの 戦略- 80年代 の 安全保障」(39)에서 유달리 소聯의 軍備拡張 및 極東에서의 軍事力 増強에 力点을 두고 있다.

그리고는 美国의 軍事戦力이 2½戦略에서 1½戦略, 또는 1戦略 ½戦略으로 위축될 可能性을 指摘하고 있다.(40)

또, 日本의 「防衛白書」도 1977年度와 1978年度版에서, 従前과는 달리, 美・소軍備競争에 相当히 많은 紙面을 割愛하고 있다. 이들

은 主로 美国의 「国防報告」와 「軍事態勢報告」를 가지고 判断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綜合的인 論評은 現在 이 時点에서 美·소軍備競争에서 어느쪽이 더 強力하다고 確実하게 말할 수 있는 段階는 아니지만 過去의 추세를 보아서는 1980年代에는 소聯의 美国을 훨씬 앞설 것이라는 展望이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가지 項目을 다루겠다. ①美·소軍備競争, ②美·소의 極東軍事戦略, ③日本의 軍事専門家들의 展望

(1) 美·소軍備競争: 英国의 国際戦略問題研究所가 発表한 바에 依하면 1976年度에 美国의 国防費는 1,001億弗이었고 소聯것은 最小 1,030億弗에서 最大 1,400億弗로 推定되고 있다.(41) 한편 다른 発言에 依하면 1976年보다 5年前인 1971年度에 美国의 国防費는 787億弗이었고 소聯것은 550億弗이었다고 한다.(42)

以上은 国防費競争에서 이제는 소聯이 美国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거기에 1955-1975年間의 소聯의 国防費를 研究한바 있는 「W. T. Lee」에 依하면, 国防費中 装備의 調達 및 研究開発에 支出된 金額의 合計가, 美国의 경우에는 1960年 45-50%에서 1968年에는 40%, 1975年에는 30%로 縮小된데 反해서, 소聯의 경우에는 1955年 25%에서 1970年 50-55%, 1975年에는 67%로 増加해 갔다는 것이다.(43)

以上의 두가지 統計를 通해서 알수 있는 것은, 1975-76年에 소聯은 軍事装備의 調達 및 研究開発이라는 目的으로 美国에 比해

서 絶対額으로 두배 以上을 支出했다는 事実이다.

事実 1960年代初만해도 戰略核戰力面에서 소聯은 美国에 比해서 4分之1의 戰力밖에 갖고 있지 못했다. 1962年度의 「큐바 미사일」事件 当時 소聯이 美国의 圧力에 屈服하고 「큐바」에의 核兵器의 配備를 포기하고 後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6-77年度의 「캐나다防衛季刊紙」(Canadian Defense Ouarterly)에 依하면, 「큐바 미사일危機 以後 겨우 14年만에 美・소間의 力関係는 逆転했다. 当時의 소聯은 妥協할 수 밖에 없었다. …… 그以後 主客은 完全히 転倒했다.」(44)는 것이다.

美・소軍備競争에 対해서 至大한 関心을 갖고 있는 日本의 權威있는 軍事專門家 桃井氏는 말하고 있다. 戰略核戰力의 量的인 競争에서 美国은 1967年以後 增加가 거의 없어온데 反해서, 소聯은 大幅 增加시켜, 1978会計年度末 美・소間의 戰略核兵力은 表3과 같다고 한다.

美国이 소聯에 比해서 優位에 있는 것은 攻擊面에서 爆擊機와 総搭載弾数에서 뿐이고, 他에서는 소聯이 美国을 圧倒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戰略核戰力의 質的인 競争에서는 어떠한가?

桃井氏는 다음과 같이 評価하고 있다.

(表 3) 美・소間 量的인 核兵力의 比較 (1978 会計年度末)

	美国	소聯
(攻擊兵力)		
ICBM	1,054	1,400 +
SLBM	656	900 +
戦略爆擊機	347	140
其他長距離機	225	120
総搭載弾数	9,000	4,500
(防衛兵力)		
防空레－다	57	6,500
防空要擊機	330	2,600
防空미사일	-	12,000
ABM発射台数	-	64

資料出処： 桃井, 生残りの 戦略, p.219

ICBM의 경우, 美国은 1963年에 「타이탄」(Titan) II号, 1965年에 「미니트만」(Minuteman) II号, 1970年에 「미니트만」(Minuteman) III号, 그리고 1980年을 目標로 移動式 ICBM인 「엠－엑스」(M－X)의 네가지만 開発 또는 開発計劃中인데 反해서, 소聯은 1962－75年사이에 SS-7, SS-9, SS-11, SS-13, SS-16, SS-17, SS-18, SS-19의 여덟가지를 開発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質的改善에 있어서 소聯이 美国보다 훨씬 努力하고 있다는 뜻이다. 弾道弾潜水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美国은 1960年에 「폴라리스」(Polaris), 1971年에 「포세이돈」(Poseidon), 1981年에 「트라이던트」(Trident) 세가지만 開発 또는 開発計劃中인데 反해서, 소聯의 경우에는 1962-76年사이 G級, H級, Y級, D I級, D II級의 다섯가지를 開発했다고 한다.(45)

以上과 같은 美·소간의 質的인 核兵力比較에서 알수 있는 것은 美·소간의 優位가 逆転될때가 그리 멀지 않다는 事実이다.

그러면 在来式兵器에 있어서 美·소間의 軍備競争은 어떠한가? 在来式兵器面에서 소聯에 比해서 美国이 劣勢로 기울어졌다는것은 이미 1970年 2月 18日 美国의 「닉슨」大統領이 美国議会에 提出한 外交教書, 即 「1970年代의 美国의 外交政策-平和를 為한 新戰略」(U, S, Foreign Policy after the 1970 S-New Strategy for peace)에 잘 나타나고 있다. 同教書를 通해서 「닉슨」大統領은 美国의 軍事戰略을 1960年代의 所謂 「2½戰略」에서 1970年代에는 所謂 「1½戰略」으로 転換시켜야 할것을 強調하고 있다.

「1960年代의 美国의 在来式戦力態勢는, 所謂 2½戰略의 原則에 立脚하고 있었다.

이 原則에 依하면, 美軍은, 在来式戰力에 의해서 3個月間 NATO防衛에 臨하고, 同時에 中国의 全面攻擊에 対해서 韓国 또는 東南亜

細亜를 防衛하고, 또 小規模紛争 (½)에 対処할 수 있는 兵力은 維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実際로는 이 程度의 兵力水準에 到達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原則과 能力(傍点은 筆者것)을 調和시키기 為해서, 1½戦略이라고 하는 새로운 原則을 採用했다」(47) 그 以後 美・소軍備競争을 鋭意注視하고 있는 日本의 防衛庁은 以上과 같은 美国의 1½軍事戦略은 「포드大統領의 1978年度 国防報告에서도, 또 「카-터」政権初의 1979年度 国防報告에서도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고 한다. (48)

그러나 問題点은 上記文에서 밝힌바 있는 美国의 「能力」의 否足이다. 우리는 이를 이미 美・소間의 国防費의 比較를 通해서 본바가 있다. 美・소間의 軍備競争에서 저런 추세가 더 継続된다면, 1980年代에 가서 美国의 軍事戦略은 1½戦略에서 1戦略 또는 ½戦略으로 더욱더 위축되고 소聯의 戦略은 1에서 2 또는 3戦略으로 拡大되어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美国은 「유럽」이나 亜細亜의 本格的 在来式戦中 어느 하나에만 対処할수 밖에 없는데 反해서, 소聯은 全世界를 相対로 하는 戦力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없을까?

(2) 極東에서의 美・소軍事戦略: 美国의 「카-터」行政府의 軍事・外交政策樹立에 큰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부르킹즈」研究所의 1977年7月의 「소聯의 軍備増強과 美国国防支出」이라는 報告文에 의하면, 「東亜細亜軍事均衡」欄에서, 太平洋에 進出中인 소聯艦隊가 弱하다고 評価를 내렸다고 한다. (49)

同研究所는 소聯의 太平洋艦隊가 弱하다는 理由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블라디보스톡」에서 太平洋까지 나오는 通路인 日本의 対馬, 津軽, 宗谷라는 좁은 海峽을 機雷로 封鎖 내지 遮断을 쉽게 할수 있다는 点

둘째, 소聯의 太平洋艦隊의 또 하나의 軍事基地인 「캄작카」半島에 있는 「페뜨로파블로스크」는 소聯 本土와 有効한 地上補給路를 갖고 있지 못하고, 脆弱한 海上補給路에 의지하고 있다는 点,

셋째, 以上과 같은 理由로 소聯의 太平洋艦隊는 長期間에 걸친 海上作戦이 不可能하다는 点.(50)

以上의 理由로 소聯의 太平洋艦隊가 威脅의 対象이 되지 않는다고 判断을 내린 上記 報告書는 美国의 太平洋艦隊(第7艦隊)의 一部 兵力을 太平洋에서 大西洋으로 移動시켜 中東에서의 美国의 權益에의 威脅에 対抗시켜야 된다고 主張했다고 한다.(51)

이러한 「비둘기」派의 情勢判断에 対해서 軍事専門家 桃井氏의 批判은 痛烈하다. 以下 桃井氏의 批判을 보자.

1950年代만 해도 소聯의 軍事戦略의 力点은 NATO의 対抗体制인 「바르샤바」条約機構의 強化策에 두었다. 그래서 NATO 対 「바르샤바」条約機構間 戦車保有数의 比는 1 : 5, 戦術空軍機의 比는 1 : 2이다. 「바르샤바」条約機構의 이런 軍事力은 全「유럽」을 15-30日 以内에 占領할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소聯은 以上과 같이 NATO対抗体制를 굳히고 나서는, 그의 軍事力의 力点을 이번에는 北極圈에 対美対抗核体制 建設에 두었다.

이것이 또 一段落된 後에 소聯의 다음의 軍事力配備 目標는, 소聯의 敵国으로 化身한 中共과의 接境地域의 軍備強化였다.

소聯의 다음 目標는? 桃井氏는 말하기를 소聯의 다음 目標는 極東地域의 軍備強化라고 한다. (52)

우리는 最近 紙上을 通해서 소聯이 現在 「시베리아」開拓, 即 軍需産業化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일환책으로 「아무르-바이칼」鉄道線 復線化 作業이 한창中이라는 것(1983年에 開通豫定)을 알고 있고, 또 「시베리아」開拓에 日本의 経済協力을 追求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러한 事実에 立脚해서, 桃井氏는 1980年代의 소聯의 極東地域에 対한 展望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첫째, 소聯은 「아무르-바이칼」鉄道線을 더욱 東쪽으로 延長시켜, 「사할린」海峽에 架橋나 地下「넬」建設, 「유럽」地域에서의 物資補給線을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소聯은 現在 日本과 領土紛争의 対象이 되고 있는 日本北方의 네개의 도서와 「사할린」, 千島列島를 連結, 「오호츠크」海를 거쳐서 「캄착카」半島에 物資補給路를 完成, 이곳에 海軍基地를 建設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海軍基地가 建設되면, 現在 소聯의太平洋艦隊의 主要海軍基地인 「블라디보스톡」은 後方兵站基地로 바뀔것이고, 美国의 東海의 封鎖論은 別 意味가 없게 되고, 또한 美国에 対해서 日本및 韓国의 戦略的 価値는 低下될 것이라는 것이다. (53)

한편 우리는 소聯의 「南下政策」도 考慮의 대象에 넣어야 한다. 소聯은 国力에 餘裕가 생겨 이를 利用,「베트남」,「캄보디아」및 「방글라데시」를 이미 親소化시켰고, 「베트남」의 「캄란」만에는 現在 海軍基地를 建設하고 있는 中이다.

最近에는 「이란」마저 심상치 않은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54) 그러면, 美国의 極東軍事戰略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美国이 力不足으로 1960年代의 2½戰略에서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1½戰略으로 方向転換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過去의 추세가 그대로 継続된다면, 美国의 1980年代의 世界軍事戰略은 1970年代의 1½戰略이 더욱 위축되어 1戰略 아니 ½戰略으로 갈 可能性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 1½戰略에서 1戰略 또는 ½戰略으로 위축될지도 모르는 1980年代의 美国의 世界軍事戰略에서 極東이 차지하는 比重은 어느 程度인가? 国際政治란 항상 流動的이고, 固着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豫斷을 不許한다. 그런고로 여기서는 지난 1970年代에 美国이 取해온길을 紹介하는데에 그치겠다.

美国의 世界軍事戰略이 2½戰略에서 1½戰略으로 바뀌면서, 美国은 다음과 같은 代案(Alternatives)을 取해 왔다.

첫째, 従来의 友邦国에게 「総合戰力構想」(Total Force Concept)의 適用이다. 이는 1962年度 美国의 行政府가 議会에 提出한 国防報告에 明示된 概念이다.(55) 한마디로 美国이 友邦国의 「人的物的資源의 最大限의 動員」을 通해서 美国의 力不足을 補充하겠다는 뜻이다. 美国은 이런 戰略概念을 採択하고, 韓国에서는 駐韓美

軍 6만명中 3分之1인 2만명을 撤收시키기 위해서 西部戰略에서 第7步兵師团을 끌어냈고,(56) 日本에게는 1969年度의 「닉슨 독트린」以後 通常兵力에 의한 侵略은 美国이 責任을 안 지겠으니 日本스스로 対処하라고 종용하고 있다.(57)

둘째, 어제의 敵国인 中共을 接近한다. 中共의 「人的·物的資源」을 美国의 対소軍事力体制속에 動員시키려는 것이다. 「평퐁」外交로 시작된 美·中共関係는 지난 1月1日로 마무리가 되었다.

한편 日本에게도 圧力을 加해서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을 締結시켰다. 셋째, 1950年代 1960年代의 軍事為主의 戰略에서 非軍事的 接近方法도 重要視하기 始作했다. 「키신저」의 所謂 「勢力均衡理論」의 採択이다.

軍事力으로 対決이 困難하니, 非軍事的 方法도 採用해서, 모자라는 部分을 補充하자는 것이다.(58) 네째, 軍事目標의 選定論이다. (Selected target). 核戰略에서 美国은 이미 1950年代의 大量報服戰略에서, 1960年代의 第2擊의能力의 養成, 1970年代에는 目標選定論으로 方向転換해 갔다.(59)

在来式戰略에서도, 1978年3月에 있었던 「팀 스피리트78号」(Team spirit)와 같이 機動打擊隊(Mobile force)를 한곳 (Hawaii)에 配置시켜놓고 有事時에는 A地域에도 B地域에도 C地域에도 動員시킨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둘기派」의 軍事理論의 採択이다. 이미 보인바와 같이 소聯의 太平洋艦隊가 「弱」하다고 評価를 내리던가, 또는 소聯의

軍備拡張을 어디까지나 「防衛」用이라고 解釈하는 見解가 漸次 得勢한다.(60)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美国의 国益上 「유럽」이나 中近東은 그 重要度에 있어서 10程度라고 보고, 韓国같은 곳은 1程度라고 해서 韓国에서 駐韓美軍 撤収시키는것 따위가 바로 이를 나타낸다.(61)

以上 1970年代의 美国의 極東戦略을 간추려 본것이다. 以上과 같은 代案들은 美国에게 軍事的「能力」이 不足했기 때문에 不可避하게 採択했어야만 했던 것들이다.

1980年代의 美国은 以上과 같은 1970年代의 「能力」의 위축경향에서 脱皮할 수 있을까? 国際政治란 豫断을 不許한다. 그러나 美国의 여러가지 面을 検討해 보면, 以上의 質問에 肯定的인 答을 하기가 어렵다. 첫째, 美国은 政治体制上 国内政治가 対外政治를 左右하는 나라이다. 「존슨」行政府때 採択된 所謂 「大社会事業」(Great Society Program)은 美国의 国防費를 現在 이 時点까지 잠식해 왔고, 이런 잠식은 앞으로도 継続될 것이다. 둘째, 外的인 要因으로, 1973年度에 야기된 油類波動은 美国으로 하여금 年 幾百億弗의 慢性的인 貿易赤字로 苦役을 치루게 하고 있다. 거기에 最近의 「이란」事態는 美国에게 不利한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셋째, 美国의 政治制度 自体가 漸次 「비둘기派」의 性向을 띄어가고 있다. 1960年代까지만 해도 強力한 政治的 影響力을 発揮했던 美国 国会内의 先任者優位制度(Seniority System), 委員会制

度 (Committee System) 等이 와해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1984 年度까지 継続될 可能性이 있는 現「카-터」行政府가 「비둘기派」의 性向을 띄고 있다.

(3)日本의 軍事專門家들의 展望: 日本의 防衛庁이 発行하고 있는 防衛白書를 보면, 1976年度版만 해도 美国의 「前方展開戰略」(Forward Deployment Strategy)에 対한 言及이 없었다. 그러나 1977年 및 1978年度에 発行한 防衛白書는 同「戰略」에 対하여 相当한 紙面을 割愛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美国의 「前方展開戰略」이란, 소聯은 極東地域에서 日本과 地理的으로 直接 인접되어 있기때문에, 소聯의 「시베리아」開拓이 끝나고 소聯의 「東進政策」이 完了되고 나면, 소聯의 軍事力의 集中이 容易한데 反해서, 美国은 日本에서 約 一万餘km 떨어진 地点에 있기때문에 地政学上 不利하다는 것을 強調하기 為해서 쓰인 用語다.

周知의 事実이지만, 美国의 太平洋艦隊에는 第3艦隊와 第7艦隊가 그 機能을 担当하고 있다. 그러나 第3艦隊는 美国의 太平洋沿岸防備用이고, 美国의 極東前方展開戰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第7艦隊이다. 이것은 「하와이」의 以西의 西太平洋地域 및 印度洋의 防衛까지 担当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日本의 軍事戰略家들은 美国의 第7艦隊의 「能力」에 関해서 의심을 提起하고 있다.

소聯의 海軍의 発達史를 研究한 「헛슨」(George E. Hudson) 教授에 依하면, 1964-73年間 소聯은 海軍力 增強에 至大한 関心을 베풀었다. 우선 1964年에는, 「平和共存」을 政策의 基調로

삼았던 「후르시쵸프」首相이 權座에서 축출되고, 代身 政權을 잡은 새로운 소聯共産党幹部들은 海洋戰力 養成에 関心을 갖기시작했고, 1967年에는 소聯의 海軍力 增強에 큰 寄与를 한것으로 널리 알려진 海軍提督 「고르시코푸」(Sergei Gorshkov)가 核戰争 通常戰争 어느것에도 다 対備할수 있는 「均衡된 艦隊」(Balanced Fleet)의 整備를 力說하였다.

이들의 目的은 「어느 大洋에서고 敵의 支配權을 否定하는 能力」의 確保에 있었다.[62] 表4는 極東소聯의 海上兵力과 航空兵力을 極東美軍것과 比較하기 위한 것이다. 보인바와 같이 1965-77年間 소聯의 海上兵力은 70万톤에서 133万톤으로 約2倍의 量的增加를 하고 航空兵力은 1430에서 2040機로 增加한 反面,

(表4) 極東美・소의 海上航空兵力의 比較(1965-77年)

	美国		소聯	
	海上兵力 (万톤)	航空兵力 (作戰機数)	海上兵力 (万톤)	航空兵力 (作戰機数)
1965	90	920	70	1430
1970	110	740	100	1870
1975	60	500	120	2000
1977	55	460	133	2040

資料出処: (日本)防衛白書: 1976, p.17 : 그리고 (日本) 防衛白書: 1978, p.210

※ 極東美軍이란 韓国, 日本, 대만 및 「필립핀」에 駐留하고 있는 美軍 및 美第7艦隊를 意味함.

同期間中 美国의 海上兵力은 90万톤에서 55万톤으로, 航空兵力은 920機에서 460機로 위축되어 갔다. 1978年度의 日本의 防衛白書에 依하면, 1977年度 現在 美国의 「第7艦隊의 海上交通路의 維持能力에 関해서는, 同艦隊는 自隊防衛를 為한 対潜能力은 充分히 保有하고 있으나, 数많은 一般商船等을 保護할 能力은 充分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소聯의 海上交通遮断能力을 完全히 阻止한다는 것은 困難하다고 본다」고 한다.(63) 1977年度 現在 소聯의 太平洋艦隊가 保有하고 있던 潜水艦은 125隻이고, 이中 50隻은 原子力潜水艦이었다.(64) 日本의 防衛庁의軍事専門家의 分析에 依하면, 1980年代初에는 소聯의 太平洋艦隊가 더욱 質的 強化를 한다고 한다. 即 日本의 読売新聞 1979年 1月14日字)은 上記한 分析을 引用, 「소極東海軍力 美合가」라는 道下에 다음과 道下에 다음과 같이 展望하고 있다.

첫째, 1981-82年中 소聯은 그의 太平洋艦隊가 保有하고 있는 125隻中 50隻의 核潜水艦数를 72隻으로 늘리고, 둘째, 従来에는 소聯의 極東艦隊가 保有하고 있지 않던 航空母艦, 1隻(「키에프」号로 4万톤級)을 極東에 配備하고 (1981-82年中), 셋째, 美国의 B-52 長距離爆撃機보다 더 性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聯의 「백파이어」爆撃機가 1980-81年中 極東에 配置된다」고 한다.(65)

美国의 極東軍도 相応의 努力을 하고 있는가? 美国의 1979会計年度의 「国防総省年次報告」 및 同年度의 「美軍事情勢報告」書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報告했다고 한다. 即 「유럽에서 일단 有事時에는 太平洋의 海軍力의 相当部分을 大西洋으로 展開할 必要가 생긴다」, 또 「美本土와 하와이 사이의 海域 및 알라스카와 48度線 사이의 海上通路의 支配는 維持될 것이다」라고 한다.(66)

이것은 美国이이젠 「하와이」以西에서 日本에 이르는 海域 및 海上通路를 保護하는데에, 自信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証佐이다. 그래서 最近 日本의 海上自衛隊에게 応分의 努力을 要求하고 있다. 다음은 1978年, 6月20日에 있었던 記事이다.

「지난달 20日 워싱톤에서 열린 브라운美国防長官과 金丸信 防衛庁長官의 会談에서 브라운長官은 "지금까지 美海軍은 日本의 海上自衛隊의 도움없이도 独自的으로 소聯의 太平洋艦隊에 対応할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日本海上自衛隊는 応分의 努力을 해야할 것이며 美海軍을 支援해 주기 바란다"」(67)

日・美安保体制는 美国의 対極東 「前方展開戦略」때문에 維持되고 있다. 그리고 同「戦略」은 美第7艦隊가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 같이 美第7艦隊는 소聯의 太平洋艦隊의 增強에 相応할만한 增強을 할 自信이 없다.

누구인가 그 「갭」을 메꾸어야 한다. 그러나 1977年 現在 日本의 海上自衛隊는 日本의 東쪽沿岸에서 300海里까지의 海域만을 防衛하고 있다.(68) 日本이나 美国이 저런 「갭」을 메꾸지 못할때

그것은 소聯의 太平洋艦隊에 依해서 메꿔질 可能性이 크며, 그렇게 될 境遇 美国의 極東地域에서의 「前方展開戰略」은 威脅을 받게 될것이며, 이것은 日·美安保体制(및韓美安保体制)가 威脅을 받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IV. 日本의 国内政治的 制約

우리는 第二章을 通해서 日本은 現在 이 時点에서 그의 防衛機能을 「限定的 小規模侵略」에 対備하는 機能에 局限시키고 있으나 美国은 그 以上의 機能마저 担当할 「能力」 및 「意図」가 不足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는 日本이 防衛機能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우리는 第三章을 通해서 日・美安保体制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美国의 「前方展開戦略」이 소聯의 太平洋艦隊의 軍事力 増強때문에 威脅을 받고 있고, 美第7艦隊가 相応의 軍事力 増強을 하지 않는 한 日本의 海上自衛隊가 그 「갭」을 메꾸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以上과 같은 日本의 軍事力増強에 対한 要求가 쉽게 政策化가 될까? 우리는 이미 書頭에서 밝힌바와 같이, 軍事政策이란 以上과 같은 「戦略」的인 要因에 依해서도 決定 되겠지만, 그것은 또한 軍事政策의 「構造」的인 要因, 即 国内政治에 依해서도 크게 左右된다.

日本의 国内政治는 軍備拡張을 制約하는 여러가지 要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以上과 같은 「戦略」的인 要因에 의한 軍備拡張圧力이 「構造」的인 要因에 의해서 크게 相殺되기 때문에 軍備拡張에 対한 要求 (Demand) 또는 必要 (Need)가 쉽게 政策化가 안되게끔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런 国内政治가 지니고 있는 여

러가지 制約을 檢討하기로 하겠다.(69)

여기서 檢討하려는 国内政治的 制約은 다음의 네가지 項目이다. ① 安保理論上의 制約, ② 輿論上의 制約, ③ 国内政策上의 制約, 그리고 ④ 政治制度上의 制約.

①安保理論上의 制約: 戰後 日本의 安保理論을 整理한바 있는 「스탠포드」大学校의 「오끼모도」(Daniel I. Okimoto)教授에 依하면, 大部分의 安保理論家들은 1960年前後까지만 해도 日·美安保条約을 反対하고, 美軍의 日本駐留를 反対하고, 日本의 自衛隊에도 否定的인 態度를 지녔다고 한다. 이들이 고취한 安保理論은 한마디로 非武装 中立論이었다.(70) 그러나 이들의 安保理論은 1960年을 前後로 해서 새로이 登場한 所謂 「新現実派」(Neo-realists)의 安保理論에 依해서 代替된다. 「新現実派」安保理論家中에는 日本의 再武装을 提唱하는 関野英夫, 石原慎太郎같은 「독수리」派로 包含되어 있으나 이들은 日本의 安保理論家들中 5%에 不過하고,(71) 나머지는 거의가 다 中立的인 立場에서, 그러나 從前처럼 非武装中立論보다는 좀 右翼의 立場에서, 安保理論을 提唱하고 있는 「그룹」들이다.

이들은 오늘날 日本의 安保理論界에서 主流를 이루고 있는 「그룹」으로 衛藤 吉, 神谷不二, 桃井真, 高 正, 岩泉敬, 永井陽之助等이다. 여기서는 이들中, 日本의 安保理論을 軍事問題와 直結시켜서 展開하고 있는 桃井氏와, 日本의 所謂 「全方位平和外交理論」을 唱導해온 若泉敬의 두 安保理論을 紹介하고, 이를 通해서, 日本의 安

保理論上의 制約을 보기로 하겠다.

우선 軍事専門家인 桃井氏의 安保理論부터 보자. 그에 의하면, 日本은 여러가지 理由때문에 核保有를 할수 없다고 한다.

첫째, 日本이 核兵器를 갖게 되면 国際的인 敵愾心을 誘発, 日本의 死活을 決定하는 経済関係가 끊어진다.

둘째, 日本人은 아직도 2次大戦当時의 核恐怖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日本은 核兵器를 開発하려고 해도 이에 依할 科学者 技術者가 거의 없고, 核弾頭弾의 資源인 「우라늄」도 日本에서의 生産은 거의 無에 가깝고, 그래서 輸入된 「우라늄」으로 加工処理施設을 建設하려해도 美国이 禁止하고 있기때문에 困難하다.

네째, 日本이 核兵器를 所有한다고 해도, 이를 使用할 仮想敵国의 政治 軍事中心地는 日本에서 너무나 먼거리에 떨어져 있고, 한편 日本의 政治経済軍事中心地는 密集되어 있기때문에 仮想敵国의 第2撃攻撃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다.(72)

그러면 在来式兵器의 拡充은 어떠한가? 桃井氏에 의하면, 이것도 다음의 세가지 理由때문에 拡充하기가 困難하다는 것이다. 첫째, 日本은 地政学上 不利한 立場에 놓여 있다. 日本의 本洲中 第一긴 幅은 120㎞밖에 안되기 때문에 仮想敵国의 航空機에 의한 攻撃時 이를 対処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日本의 北海道 및 本洲의 北部地方은 「소련」의 MIG-21s, IL-28s 따위의 射程距離에 位置하고 있고, 日本領土의 全列島는 「소聯의 Tu-16s 또는 소련의

極東地域에 곧 配備될 「백파이어」長距離爆撃機의 射程距離内에 位置하고 있다. 또 「소聯」의 極東領土内에 配備된 中距離弾頭弾미사일의 射程距離内에 位置하고 있다. 둘째, 日本国民은 歴史上 日本本土内에서 戦争을 해본 経験이 없기때문에 一段 有事時 이에 対処할 能力이 없다. 따라서 有事時에 日本을 防衛하려면, 美国과 같이 前方展開(国土外의 地域에 軍隊를 駐留시켜 그곳에서 防衛機能을 遂行하는 것을 意味함)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日本国民이 許諾을 안할것이다. 셋째, 日本은 資源貧困이기때문에 海外資源에 크게 의지하고 있고, 全世界에 많은 수의 物資補給船이 퍼져있는데, 이를 다 日本의 海上自衛隊로 保護한다는 것은 不可抗力이다.(73)

따라서 日本은 在来式兵力의 増強마저 別意味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万一의 경우」를 생각해서, 偶発的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限定的小規模侵略」은 「基盤的防衛力」의 整備로 対処하고, 그 以上의 것이면 日・美安保体制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美国에게는 그런 能力과 意思가 漸次 줄어들 것이라고 展望한바 있다.

이에 対한 桃井氏의 持論은 日本에게는 仮想敵国이 破壊를 꺼리는 「特別抑止力」(Bonus deterrence), 即 産業施設이 있기 때문에 그런境遇에도 別問題가 안될것이라는 것이다.

若泉氏의 安保理論은 더욱더 積極的인 「全方位平和外交」理論이다. 여기서는 安保概念을 拡大해서 軍事的機能뿐만 아니라 非軍事的인 経済協力 外交 및 文化交流의 向上도 包含시켜야 된다고 한다.

即 軍事的으로 不足한 점은 経済的 外交的 接近으로 補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若泉氏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日・美安保同盟을 弱化시키고 代身 中共이나 소聯과의 関係를 좀더 緊密하게 해서 이들 三大国에게 等距離外交를 展開해야 한다고까지 主張한다.(74)

② 與論上의 制約 : 日本의 防衛庁은 每年 自衛隊의 必要性에 対해서 與論調査를 実施하고 있는데 그 必要性을 認定하는 比率이 1956年의 58%에서, 1959年 65%, 1963年 76%, 1967年 77%, 1972年 73%, 1975年 79%, 1977年 83%로 높아졌다고 한다. (75)

한편 朝日新聞의 與論調査에 의하면,「日・美安保条約은 日本을 為해서 締結된 것인가?」라는 質問에 対해서 「그렇다」고 肯定的인 답변을한 比率이 1970年6月 37%, 1971年5月 34%, 1974年 11月 34%에서 1978年 10月에는 49%로 增加했다고 한다.(76)

以上의 두가지 統計는 日本国民이 한때 或者에 依해서 日本의 自衛隊는「武装集団」이라고까지 불리던 日本自衛隊의 合法性을 容認하고, 日・美安保体制에 対한 支持度가 增加하는 것을 意味한다. 以上과 같은 日本의 與論을 反映, 日本의 中道志向 政党들도 종전의 自衛隊의 合法性의 否認, 日・美安保体制의 否定에서 最近에는 이 두가지를 다 支持하는 方向으로 그 態度를 바꾸고 있다.

1976年 以後 점점 強해지고 있는 政治勢力의 中道志向과 共鳴해서, 主로 野党側의 防衛政策도 現実主義쪽으로 加速되어 갔다.

이미 自衛隊容認의 立場에 있던 民主党의 뒤를 이어서, 公明党이 1978年 1月 13日의 党大会에서 같은 자세를 取하기로 宣言했다. 1976年 始作된 野党側의 防衛論議에 対한 現実化는, 1977年에 들어와서는 누구의 눈에도 뚜렷한 変化로 부각되었다」[77] 한편 日本政府 및 与党指導者들도 最近에 와서는 日本의 軍備拡張論을 展開하고 있다.

一例를 들면, 福田内閣때 防衛庁長官이었던 金丸信氏는 「專守防衛의 自衛隊가 侵略的 攻擊的 威脅을 한다는 인상을 外国에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日本을 侵略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程度의 威脅을 주는 것은 必要하다.」[78] 이런 見解는 日本의 自衛力을 大幅 增加시키겠다는 意思이다. 또 前福田首相도 1977年2月7日 日本衆議院豫算委員会에서 다음과 같은 発言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安全保障이라는 점에 対하여 関心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国民全体가 나라의 安全을 어떻게 保障해야 하느냐에 対해서 좀더 関心을 가져야 하며, 이를 為해서는 教育教課過程에로 反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9] 이런 発言은 戦前의 日本의 軍備教育을 聯想케 한다. 以上과 같이 日本의 与論, 中道派의 政党 및 自民党政府의 軍事面에서의 右傾化는 한때 우리나라의 깊은 関心의 対象이 되었다. [80]

그러나 日本의 軍事的 右傾化는 制限点이 있다. 表 5는 日本의 「防衛費増額」에 関한 輿論調査이다. 同調査에서 「増額해도 좋다」

라고 한 比率은 1977年 現在 17%에 不過하다. 表6은 日本의 「自衛隊強化」에 関한 與論調査이다.

1968年의 調査와 比較해서, 1978年10月 現在 変化가 別로 없다.

(表5) 日本의 防衛費増額에 関한 與論: 1969-77年

	1969	1972	1975	1977
増額해도좋다	24%	10%	13%	17%
지금程度가좋다	38%	42%	48%	41%
좀더 줄이자	14%	23%	15%	15%
모르겠다	24%	25%	24%	27%

(日本) 防衛年鑑: 1978, p.565

(表6) 日本의 自衛隊強化에 関한 與論: 1968-78

	強化	現状維持	縮小	廃止	모르겠다
1968 12月조사	19%	55%	4%	9%	13%
1977 12月조사	23	54	10	5	8
1978 10月조사	19	57	11	5	8
自民支持層	25	62	7	1	5
民社支持層	26	56	12	1	5

新自클럽支持層	16%	56%	19%	5%	4%
社会支持層	11	56	15	10	8
共産支持層	10	35	24	24	7
社民連支持層	10	47	33	7	3
公明支持層	8	64	16	8	4

朝日新聞 (78.11.1日字)

強化論에 賛成한 比率은 19%에 不過하고, 現状維持가 57%이다. 自民党支持層에서도 強化論者는 25%에 不過하고, 現状維持論者가 62%나 된다. 그러면 日本国民의 安保観은 어떠한가? 1978年 10月 朝日新聞의 「日本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対해서, 42%는 「平和外交」, 20%는 「나라의 経済力」, 15%는 「平和憲法」, 13%는 「愛国心」, 2%는 「自衛隊의 힘」 2%는 「美国의 支援」, 6%는 「対答할수 없다」라는 結果가 나왔다고 한다.(81)

即 日本国民은 日本의 安保를 軍事的인 手段보다는 非軍事的인 手段으로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平和外交」, 「나라의 経済力」 및 「平和憲法」의 合計가 77%나 되고, 軍事的手段이라고 할 수 있는 「愛国心」, 「自衛隊의 힘」 및 「美国의 支援」의 合計는 17%에 不過하다.

이것은 前記한바 있는 桃井氏 若泉氏의 安保理論과 거의 비슷하다.

③ 国内政策上의 制約： 表7은 1958－76年間 日本의 自民党이 衆議院選挙에서 獲得한 得票率을 보인것이다. 得票率은 漸次 위축되어 1976年度의 選挙에서는 불과 41.8%밖에 얻지 못했고, 이 選挙에서 自民党이 얻은 議席数는 全体의 512議席中 過半数가 훨씬 未達되는 249에 不過하다. 自民党이 1976選挙後 単独政権을

(表7) 自民党의 得票率

(衆議院 選挙)

1958	57.8 %
60	57.6
63	54.7
67	48.8
69	47.6
72	46.9
76	41.8

(日本) 総理府統計局, 日本統計 年鑑, 1965年 및 1977年版

樹立할 수 있었던 것은 自民党志向의 無所属議員의 協調때문에 可能했었다.

이러한 統計를 通해서 알수 있는 것은 1960年代의 日本의 保守党 政府는 比較的 政策選定의 範囲가 넓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樹立에 있어서 選挙民의 反応에 일일이 神経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1952年의 保安隊設置, 1954年의 自衛隊設置, 1960年의 日·美安保体制 維持에 関한 日本保守党政府의 決定은 国民의 充分한 支持없이 이루어진 것이다.(82) 그러나 最近의 自民党政府는 国民의 支持를 継続잃고, 無所属議員을 包摂해서 겨우 政権을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政策選定의 自由가 위축될대로 위축되었다. 따라서 政策樹立에 있어서 考慮의 対象은 「国家的 安全保障」보다는 「自民党의 安全保障」이다. 国民의 与論의 比重이 점차 커지고 있다.

日本의 과거의 自民党의 選挙基盤은 農民 및 中小企業層에 고용된 피고용人, 即 伝統的 部類(Traditional sector)에 属하는 選挙民이었다.(83) 그러나 日本의 資本主義의 発達 및 産業化의 過程으로 自民党의 選挙基盤인 農民 및 中小企業層은 継続 그 数가 줄기 때문에, 自民党은 日本의 「現代層」(Modern sector)에 파고 들어가야 한다. 日本의 「現代層」이란 都市民, 大企業体에 고용된 産業労動者 및 其他層을 말한다.

이들은 社会保障費의 増額을 要求한다. 그러면서 税金引上은 反対한다. 따라서 社会保障費의 増額은 다른 豫算項目의 犠牲위에서만 可能하다.

그러나 大部分의 豫算項目들은 거의 모두가 각기 強力한 政治勢力과 緊密하게 結付되어 있거나 「当然項目」(Uncontrollable items)이기 때문에 特別한 事情이 없는限 함부로 削減할 수가 없다.(84)

日本의 豫算項目中 主要한 것을 보면, 犠牲된 것은 唯独 防衛関

係費이다. 表8에 보인바와 같이, 日本의 一般会計歲出豫算中 社会保障費는 1955年度의 10.5%에서 점차 增加되어 1978年度에는

(表8) 日本의 一般会計歲出豫算의 主要経費의 推移

	1955 年度	1965 年度	1975 年度	1978 年度
全体 (A)	9,915 億円	36,581 億円	212,888 億円	342,950 億円
防衛関係費(B)	1,349	3,014	13,273	19,010
社会保障費(C)	1,043	5,183	39,282	67,811
B/A	13.6%	8.2 %	6.2%	5.5 %
C/A	10.5%	14.2 %	18.5%	19.8 %

(日本) 防衛白書: 1978, p.220

19.8%에 이른데 反해서, 防衛関係費는 1955年度의 13.6%에서 점차 削減되어 1978年度 現在 5.5%로 縮小되어 왔다. 最近의 報道에 의하면, 1979年度의 一般会計의 歲出豫算은 前年度것에 比해서 12.2% 增加시킬 計劃인데 反해서, 防衛関係費는 10.3% 增加시킬 計劃이라고 한다.[88] 이는 防衛関係費의 対一般会計歲出豫算 比率이 1978会計年度의 5.5%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果然 現在의 日本의 自民党政府는 軍事政策, 即「国家的 安全保障」을 犧牲시키고, 「自民党의 安全保障」에 더 力点을 두고 있

다는 좋은 証拠이다.

④ 政治制度上의 制約: 그러면 마지막으로 日本의 政治制度에서 오는 制約을 살펴 보자. 여기에 말하는 制約이란 한마디로 戰後 日本의 「文民統治」(Civilian Control)을 意味한다. 軍部 또는 武士가 日本政治를 支配하던 德川時代, 明治時代, 그 以後의 二次大戰前까지의 日本과는 달리, 戰後의 日本은 文人이 日本政治를 左之右之하게끔 制度化되어 있다.

이런 制度는 戰後 美国이 敵国日本을 完全히 非武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平和憲法」, 強兵보다는 富国이 더 重要하다고 해서 日本의 防衛機能을 「保安隊」의 機能程度로 縮小시키려고 했던 平和主義의 吉田内閣時에 設定된 「防衛庁設置法」, 「国防会議의 構成等에 関한 法律」및 「自衛隊法」에 거의 完璧할 程度로 規定되어 있다.(86)

日本에서는 가장 軍備拡張論者라고 할수 있는 所謂 制服組는 防衛庁内에서 文人으로 構成된 内局의 支配下에 있다.
一例를 들면, 制服組의 高級幹部의 人事權, 防衛計劃의 樹立, 防衛豫算編成權은 防衛庁内의 制服組가 아니고, 非制服組인 内国이 쥐고 있다.(87) 또 非制服組가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防衛庁은 国防会議가 支配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国防会議는 日本의 行政府内에서는 防衛政策決定의 最高機関이다.(88) 国防会議가 法的으로 設置된 1954年(实際로 設置된 것은 1956年), 当時 軍備拡張論者인 鳩山一郎氏가 이끈 民

主党은, 国防会議構成에 軍事專門家를 包含시키고, 国防会議의 事務局構成에는 軍人出身者들을 包含시킬것을 主唱했었다.(89) 만일 이러한 民主党案이 採択되었다면, 그 以後의 日本의 軍事政策은 現在의 것과는 判異한 方向으로 展開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民主党案은 採択이 안되고, 代身 平和主義者 吉田茂氏가 이끄는 自由党案이 採択되었다. 国防会議의 議長은 首相, 議員은 外務, 大蔵, 経済企劃庁 및 防衛庁長官으로 構成키로 했다.(90)

防衛庁長官은 日本憲法 66条에 의거 「文人」에게만 맡기게끔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日本의 行政府内에서 防衛政策決定의 最高機関인 国防会議는 完全히 「文人」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뜻이다.
国防会議構成에 関한 이런 法律은, 四次防計劃이 確定된 1972年 10月 「文民統治強化의 措置」라는 名目下에 通商産業相, 科学技術庁長官, 内閣官房長官 및 国家公安委員長을 더 添加시키기로 変更되었다.(91)

防衛庁長官을 武人에 가까운者라고 取扱한다면, 武人対 文人의 比率이 종전의 1対4에서 1対9로 「文人統治」의 要素가 더욱 強化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日本의 国防会議는 또 最近 自民党의 退潮로 平和主義의 野党의 発言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日本国会의 統制를 받게끔 되어있고 窮極的으로 日本国会는 平和主義를 동경하고 있는 日本選挙民의 支配를 받고 있다.

이런 政治制度下에서 末端에 있는 制服組가 立案한 1980年代의

「国家的 安全保障」論이 政策化 될까？

一例를 들면，日本의 三次防，四次防，「포스트四次防」時，日本의 制服組 또는 防衛庁은 日本의 防衛関係費를 対GNP比 「2%」，「1%」，「1%程度」를 要求했으나 모두 「1%線 以内」로 묶였던 것은 大蔵省，通産省，経済企劃庁의 反対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92)

V. 結　　語

本稿에서는 1980年代의 日本의 軍事態勢를, 日本의 軍備拡張 可能性 与否를 中心으로 해서 다루었다. 確実히 1980年代의 日本의 周辺情勢는 過去와는 判異한 方向으로 달리고 있다.

소聯은 全体主義体制下에서 国内의 다른 政策的需要를 犧牲시키고 더많은 資源을 軍備拡張에 配分해 볼수 있었고, 또 1980年代에로 継続 그런 方向으로 나아갈 것임에 反해서, 美国은 自由民主主義 政治体制때문에 軍事政策이 餘他国内政策에 크게 위축을 받아 왔고 또 1980年代에도 継続 그런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서 大幅的 変化가 美国에 의해서 試図되지 않는限 소聯은 対美軍事的 優位体制를 確保할 것이다.

그러면 美国은 全世界에서 소聯과 軍事的으로 대치하여야할 必要性 때문에 과거와 같이 日本의 여러段階의 防衛機能을 다 担当할수 없게된다. 가장 좋은 例는 韓国에서 美地上軍의 撤軍이다.

한편, 소聯의 太平洋艦隊의 두드러진 兵力増強으로, 美国이 종전까지 누려오던 西太平洋에서의 軍事的優位가 逆転될 날은 멀지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美国은 日本에게 圧力을 加해서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을 締結시켰고, 自己 스스로도 中共과 国交正常化를 定立했으나, 不遠한 将来에 中共이 美国의 「力」 또는 「能力」 不足을 補充할만한 「力」 또는 「能力」을 養成할 것인가? 筆者의 見解는 悲観的이다.

따라서 日本은 自己의 本土防衛뿐만 아니라 自己의 本土以外의 海域에서 自己의 物資補給船을 保護해야 되고, 美国의 前方展開戦略의 協助해서 日・美安保体制를 継続 維持시켜야 될 立場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나 日本은 어떠한가? 새로운 時代의 새로운 事態에 敏感하게 適応해 나아가는 힘이 不足하다. 現実(周辺情勢)과 理想(国内政治)間의 「갭」(gap)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時点에 가서는 以上과 같이 벌어질대로 벌어진 現実과 理想間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한쪽의 極에서 다른쪽의 極으로 急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見解는 한때 日本의 防衛庁長官職을 歴任한바, 있고 現在 自民党内의 安全保障調査会의 会長職을 担当하고 있는 田道太氏의 見解이다. (93)

註

(1)Samuel p. Huntington, The Common Defense (New York : Colombia University Press, 1961), pp 1-7.

(2)最近 美国의 政治学界에서는 政策研究(Policy Studies)가 큰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政策의 두가지면, 即 政策의 本質的인 面(Substance)과 政策形成面(Procedure 또는 Process), 두가지를 다 다루어야 한다고 強調되고 있다. 政策의 이런 両面性을 強調한 代表的인 文献으로는 Austin R Ranney Led.),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Chiago : Markham Publishing Co., 1968)를 参照할것.

(3) Albert Axelbank, Black Star over Japan : Rising Forces of Militar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2) : and Jon Halliday and Gavan Mc Cormack, Japanese Imperialism Today (Baltimore: Penguin Books, 1973).

(3)Zbigniew Brzezinski, The Fragile Blossom (New York : Harper and Row, 1972), p.97

(4)金学俊, 韓国問題와 国際政治(서울 : 博英社, 1975), pp221-227: 崔相竜, 「日本의 外交 軍事戦略과 対韓政策」, 韓培浩, 李相 , 崔相竜, 韓国, 美国, 日本 : 韓国安保의 環境과 課題(서울 : 亜細亜政策研究院出版部, 1977), pp.83-84: 安秉万, 「日本国内 政治勢力의 変動과 対外政策」, 中国問題(漢陽大学校

中国問題研究所刊, 1978年2月), pp. 179-182: Henry S. Rowen, "Japan and the Future Balance in Asia," Orbis (Summer 1977), pp 199-206 : and Makoto Momoi, "Are There Any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Defense of Japan?", in Franklin B. Weinstein(ed.), U.S.- Japan Relations and the Security of East Asia : The Next Decade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78), pp 80-84.

(6)例를 들면, 1947-68年間 日本의 防衛政策을 研究한 「와인슈타인」에 依하면 日本은 1947年以後 소聯을 「仮想敵国」이라는 가정하에서 防衛政策을 採択하고 있고, 1966年度의 日本의 国防会議報告書에 의하면 日本의 仮想敵国은 소聯과 中共이라 했고, 日本의 著名한 軍事専門家인 桃井真氏에 依하면, 1970年代 中期부터는 소聯이 仮想敵国이라는 가정하에서 日本의 防衛計劃이 樹立되고 있다고 한다. 以上 次例로 文献紹介를 하면, Martin E. Weinstein, Japan's Postwar Defense Policy, 1947-1968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71): (日本) 国防会議事務局, 我が国の防衛力の本質と防衛力 整備のあり 方(1966年10月): 그리고 Momoi, op. cit.

(7)以上은 筆者가 日本의 防衛白書: 1976 (pp 43-45), Defense of Japan : 1977 (pp 52-55), 防衛白書: 1978 (pp56-59 와 pp 70-73), 그리고 朝日新聞(1976年10月29日)을 精読한後 作

成한 것임.

(8)自民党安全保障調査会, 日本の安全と防衛(東京：原書房, 1966), pp 231-232에서 引用

(9)(日本) 防衛年鑑： 1978, p 163

(10)上掲書, p 58.

(11)上掲書, pp 131-134. 但 1978年度부터 採用키로 된 F-15 요격戦闘機의 境遇에는 以上과 같은 장치를 순수히 防衛用으로만 쓴다는 条件下에, 除去시키지 않기로 했음.

(12)(日本) 防衛白書： 1976, p 35.

(13) 1950年代 美国의 「덜레스」国務長官은 日本의 陸上自衛隊兵力을 35万名까지 拡張해서 極東의 地域安保(Regional Security)까지 맡으라고 종용했으나, 日本은 憲法上의 理由로 이를 거절했다. Weinstein op.cit., ch.2: 그리고 毎日新聞社, 安保と自衛隊(東京：毎日新聞社, 1969), pp 49-54.

(14)毎日新聞社, 上掲書, p 212.

(15)(日本) 安全保障調査会, 日本の安全保障： 1968 (東京：安全保障調査会, 1968), p 354.

(16) Weinstein, Japan's Postwar Defense Poliy, ch. 1.

(17) Ibid., ch.2.

(18)「国防의 基本方針」의 全文은 日本의 防衛白書에 나와있음.

(19)(日本) 防衛白書： 1978, pp 64-66

(20)上掲書, p 222.

(21) 勿論 憲法 9 条, 1957 年度에 決定된 「国防의 基本方針」도 日本의 防衛政策의 方向을 検討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들은 日本의 非軍事的方法 軍事的方法의 넓은 意味의 「安全保障」의 指針이지, 日本의 軍事政策만을 相対로한 指針이 아니라 이런 解釈에 対해서는 自民党安全保障調査会, 日本の安全と防衛 (1966), pp 28-285 을 参照할것.

(22) (日本) 防衛白書 : 1978, p 79.

(23) 同「大綱」에서 提示한 国際情勢上의 前提는 다음의 다섯가지 이다.

①日・美安保体制의 維持 ②美・소間 大規模武力紛争을 回避하려는 努力, ③中・소関係의 悪化, ④美・中共関係의 改善, ⑤韓半島内에서 現状維持, (日本) 防衛白書 : 1978, pp 69-70

(24) 上掲書, p. 81

(25) 朝日新聞 (1976 10月 29 日字)

(26) Defense of Japan : 1977, pp 53-54

(27) Ibid, pp 47-54

(28) (日本) 防衛白書 : 1976, p 7

(29) 朝日新聞 (1973 年 2 月 1 日字)

(30) 筆者와는 달리, 다른市場에서 「基盤的 防衛力」을 解釈한 글로는 Momoi, "Are There Any Alternatine Strategies for the Defence of Japan?", 및 pp 84-86 을 参照할것.

(31) (日本) 防衛白書 : 1978, pp 124-134

(32) P3C 는 1978 年以後 約 10 餘年間에 걸쳐서 45 機를 導入해서

P2J를 代替키로 되어있고, E2C는 1980年度부터 採用키로 함.

(33) (日本) 防衛白書: 1978, p 218: 그리고 Wefense of Japan: 1977, p 79

(34) Defense of Japan : 1977, p 58

(35) Momoi, "Are There Any Alternatine Strategies?" p 73

(36) 東亜日報(1978年7月4日字)

(37) Momoi : op.cit., pp 89-91

(38) 「全方位外交」 또는 「平和外交」를 主張한것으로는 Masao Maruyama, Modern Japanese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ch. 10 : 그리고 若泉敬, "全方位平和外交の意義," 世界週報(1978年2月28日)을 参照할것.

(39) オリエント 書房発行

(40) 仔細한것은 後에 다시 取扱하겠음.

(41)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76-1977 年度版과 1977-1978年度版, 筆者가 이글을 脱稿하려는 1979年 1月24日字 韓国日報는 「워싱톤発로이타」記事를 引用 다음과 같이 報道하고 있다: 「소聯의 78年度 軍事費는 美国의 1020億달러보다 거의 45%가 높은 1460億달러였으며, 소聯의 이러한 軍事費支出強化추세는 向後 10年間에도 継続될것이라고 美中央情報局(CIA)이 22日 発表했다.… 이 CIA報告書는 또한 ①소聯의 長距離核미사일과 有人爆撃機에 対한 支出은 美国보

다 約3倍가 높으며, 2)소聯의 一般的인 非核兵力에 対한 支出은 美国보다 2.5倍가 높고, ③소聯의 새로운 軍事装備 開発投資로 美国보다 65%가 많다고 指摘했다.」

(42) (日本)防衛年鑑: 1972, p 87

(43) 猪木正道, "ソ連の「威脅」にどケ 対処するか", 中央公論(1976年11月号), p 61에서 引用. 여기서 参考로한 「W. T. Lee」의 소聯의 国防費研究는 英国의 戦略問題研究所의 1977-78年度의 「The Military Balance」에서도 引用했음. (page 11),

(44) 桃井真, 生残りの戦略-80年代の安全保障(東京: オリエント書房, 1978), pp 78-79에서 引用

(45) 上掲書, pp 221-222

(46) (日本) 防衛白書: 1978, p 22에서 引用

(47) 上掲書, p 15

(48) 上掲書, p 15

(49) 桃井, 生残りの戦略, p 129

(50) 上掲書, pp 129-130

(51) 上掲書, p 130

(52) 上掲書, p 80

(53) 上掲書, pp 81-82

(54) 소聯의 이런 「南下政策」을 仔細히 다룬 文献으로는 朝雲新聞社, 日本の安全保障(東京: 朝雲新聞社, 1976), pp 120-134를

參照할것...

(55) 小山内宏, 米リ核戦略と日本の防衛 (東京 : 毎日新聞社, 1975), p 19에서 引用

(56) 神谷不二, "外交政策としとの「在韓美軍」," 諸君(1977年 7月号), p 38.

(57) Momoi, "Are There Any Alternative Strategies ?" p73

(58) Franklin B. Weinstein and John W.Lewis, "The Post-Vietnam Strategic Context in Asia," in Weinstein(ed), U.S.-Japan Relations and the Security of East Asia : The Next Decade (Boulder, Colorado : WestviewPress, 1978), pp 143-160 을 參照.

(59) 小山内宏, 前揭書, pp 5-33 參照

(60) 「부르킹스」研究所의 1977年 4月報告文, 그리고 소聯의 海軍力의 增加가 「覇權」을 잡기 為한 目的이 아니고 단순히 美國과의 均衡(Parity)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主張한 글로는 다음을 參照하시압. George E. Hudson, "Soviet Naval Doctrine and Soviet Politics, 1953-1975," World Politics (October, 1975), pp 111-113.

(61) 「카-터」大統領에게 큰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美國의 退役 海軍提督 「라록크」(Gene R. Larocque) 氏가 「카-터」大統領候補에게 助言한 말.

Washington Post (1977年 6月 12日字)

(62) Hudson, "Soviet Naval Doctrine," pp 104-108

(63) p 39

(64) Ibid, p 32

(65) 東亜日報 (1979年1月15日字) 에서 引用

(66) 桃井, 生残りの安全保障, pp 234-235

(67) 東亜日報 (1978年7月4日字)

(68) Defense of Japan : 1977, p 66

(69) 日本은 크게 세가지 理由때문에 軍事大国化가 困難하다고 본 「오끼모드」教授는 다음의 세가지 理由를 들고 있다.

①日本首相에게 權力이 弱하고, ②日本의 지식層이 反軍備派이고, ③学界와 日本政府間에 接触이 거의 없다는 点

Waniel I.Okimoto, "Securit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Institution, Experts, and Mutual Understanding," in Franklin B. Weinstein(ed), U.S.-Japan Relations, pp 9-35

(70) Okimoto, op. cit., p 19

(71) Ibid., p 21

(72) Momoi, "Are there Any Alternative Strategies ?" pp 82-84

(73) Ibid., pp 79-80

(74) 若泉敬, "再び対中, 対ソ外交にアンニ論ず-平和外交の理念と原則を確立せよ " 世界週報 (1977年11月15日), pp 4-7 :

그리고 若泉敬, "受身べなくダイナミックに働きかけよ
- 全方位平和外交の意義," 世界週報 (1978年2月28日),
pp 4-5

(75) (日本) 防衛年鑑 : 1978, p 163

(76) 朝日新聞 (1978年 11月 1日字)

(77) (日本) 防衛年鑑 : 1978, p 97

(78) 朝日新聞 (1978年 1月 20日字)

(79) (日本) 防衛年鑑 : 1978, p 212

(80) 例를들면 東亜日報 (1978年2月11日字) 및 朝鮮日報 (1978年6月25日字) 를 参照할것.

(81) 朝日新聞 (1978年 11月 1日字)

(82) 読売新聞社, 日本とアジアの 安全保障 (東京 : 読売新聞社, 1969), pp 215-218

(83) 이런 事実은 밝힌 資料로는 筆者의 学位論文을 参照하시압, Soong Hoom Kil, The Dodge Line and the Japanese Conservatiue Party (University of Michigan, 1977).

(84) 最近의 日本의 予算過程論에 対해서는 다음을 参照할것. John C.Campbell, Contemporary Japanese Budget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85) 東亜日報 (1979年 1月 14日字)

(86) 日本의 文民統治를 法的인 立場에서 다룬 文献으로는 다음을 参照할것.

西修, 自衛権：麥水　　国民　　生存権 (東京：学陽書房, 1978) pp 149-151

(87) 上掲書, p 151

(88) 筆者의 調査에 의하면 国防会議에서 決定된것은 自動的으로 閣議에서 決定되어 왔음.

(89) 毎日新聞社, 国民　自衛隊 (東京：毎日新聞社, 1969), p 62

(90) 上掲書, p 63

(91) 毎日新聞 (1972年 10月 9日字)

(92) Martin E. Weinstein, "Japan's Defense Policy and the Self-Defense Force," in Frank B. Horton III et al (eds), Comparative Defense Poli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p 371: 그리고 (日本) 朝日年鑑: 1977, p 339

(93) 昨年年末 韓国의 駐日大使였던 金永善氏에게서 直接들은 이야기.

中共軍의 近代化
— 外交戰略上의 意味를 中心으로 —

The Moderniz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the Communist China

— Specially in the sense of the Diplomatic Strategy —

研究執筆責任： 崔 明

（略歷） 서울大法大法学科卒業（1962年）

美国일리노이즈大 政治学碩士 및

同 大学校 政治学博士（1970年）

現在 서울大社会大 政治学科 副教授

（1975年부터）

目　　次

Ⅰ. 序　論 ······ 329
Ⅱ. 初期의 近代化와 그 副作用 ······ 332
Ⅲ. 軍事安保의 要素 ······ 341
Ⅳ. 四個現代化와 軍 ······ 347
Ⅴ. 結　語 ······ 352
註 ······ 355

I. 序 論

1960年代 末부터 中共의 対外政策과 国際関係는 括目할 変化를 겪고 있다. 中共과 蘇聯사이의 軍事的 対決이 심화되면서, 이들 両国사이의 勢力拡張競争도 아시아에 있어서 혹은 全世界的으로 拡大되었다. 뿐만 아니라 中共과 日本과의 関係正常化에 뒤이은 平和友好条約의 締結 및 中共과 美国과의 関係正常化는 冷戦時代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国際権力政治의 일대 変化이며, 그러한 変化는 특히 東아시아에 있어서 国際関係의 基本的 패턴을 심각하게 変更시키고 있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変化가 中共의 外交政策의 変化에만 基因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美国의 政策変化, 蘇聯의 外交·経済 및 海軍力의 增強, 그리고 日本의 経済的 影響力의 拡大등도 東아시아의 国際関係의 構造変化에 肯定的인 作用을 했음도 간과할 수 없는 事実이다. 그러나 그 構造変化에 있어서 決定的인 役割을 担当한 것은 中共의 外交政策戦略의 変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하여 中共外交戦略에 있어서의 変化는 그 基底를 이루고 있는 動機와 目標에 관하여 여러가지 疑問点을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의 外交政策을 考察함에 있어서 그 政策決定者들의 外交에 대한 基本的 接近을 理解하는 것이 重要한 것은 勿論이지만, 그 理解가 그리 容易하지는 않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中共의 外交政策도 여러가지 要素에 의하여 複合的인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理念上의 信念이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観과 外交戰略的 処方 및 長期的인 外交政策目標에 影響을 주어온 것은 事実이다. 뿐만 아니라, 歷史的이고 文化的인 態度나 民族主義的 感情도 現代 中国의 指導者의 思想과 行動에 影響을 주었고, 그것이 外交政策에도 反影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中共의 外交政策은 相当히 実用主義的이었고, 지극히 단순하게 国家利益을 追求해 왔고, 国際的인 地位의 向上에 부심해 왔다. 어떤 政策은 中共에 의하여 創出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国際的인 環境의 変化에 따라 반사적으로 形成되어 왔다.(1)

그러므로 国際政治에 대한 中共指導者들의 接近을 分析함에 있어서는 特定한 政策에 影響을 주는 複合的인 要素에 대한 考察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現実이란 항시 複雜하기 때문에 그 複雜性을 무시하는 것은 賢明한 일이 못된다. 그러나 中共指導者들이 優先視하는 目標가 무엇이며, 外交政策戰略에 어떠한 変化가 있을때 그것에 決定的인 作用을 한 要素가 무엇인가를 理解할 必要는 있다.

이 글에서 筆者는 中共의 「人民解放軍」(以下 中共軍)이 어떠한 動機에서, 어떻게 近代化의 過程을 걸어 왔으며, 그 展望이 어떠한 것인가를 考察하려고 한다. 그런데 筆者의 基本仮定은 이데올로기, 指導者들의 世界秩序観, 経済 其他의 要素가 具体的인 外交政策의 形成과 執行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담당해 왔지만, 全般的인 外交政策戰略에 관한 重要한 決定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広

範한 地政学的 脈絡에서 軍事·安保의 要素가 가장 優先的 決定素로 作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0년동안 中共外交政策의 変遷은 外部의 威脅에 대한 中共指導者들의 認識과 그러한 威脅에 対処하기 위한 戦略的 決定을 통하여만 가장 잘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共軍의 近代化는 外部의 위협에 대한 中共指導者들의 認識과 그러한 위협에 対処하기 위한 戦略的 決定을 통하여만 가장 잘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共軍의 近代化는 外部의 위협에 대한 戦略的 対備라는 観点에서 分析될 때, 東아시아地域에 있어서 国際関係의 基本的인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2)

Ⅱ. 初期의 近代化와 그 副作用

1951年 4月 韓国動乱의 渦中에서 中共의 「人民志願軍」은 春季攻勢를 開始했다. 그 攻擊에는 337,000여명의 兵力이 参加하여, 鉄原·平康·金化를 連結하는 「鉄의 三角」地帯에서 치열한 戦闘를 展開하였으나, 10萬이 넘는 共産側의 戦死者를 내고 失敗하고 말았다.(3)

春季攻勢에서의 失敗는 中共의 軍事指導者에게 심각한 影響을 주었다. 春季攻勢에서의 戦闘는 그들의 過去 経験이 近代戦争의 多様한 問題에 대한 解決策이 못된다는 것을 立証했고, 戦術과 戦略의 側面에서 中共軍은 許多한 難点과 欠陥을 안고 있다는 事実을 露出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中共 指導者들은 近代的인 軍隊와 対決하기 위하여는 自身의 軍隊를 철저하게 改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認識하게 되었던 것이다.(4)

그로부터 韓国動乱의 休戦의 成立까지 약 2年동안, 中共은 蘇聯으로 부터의 大量의 援助에 힘입어 軍을 再編成하고, 再装備하는데 努力을 경주했던 것이다. 사실 中共의 軍事指導者들은 蘇聯軍隊의 先進経験을 導入하고, 蘇聯의 援助를 가능한 限 最大로 活用하려 했었다. 말할것도 없이 당시는 中·蘇間의 友好条約이 実質的으로 有効한 時期였고, 비록 韓国動乱에 参戦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共産主義者들은 大陸에서의 執権以後 社会主義 国家建設을 위하여 蘇聯의 모델을 추종하기로 결정했던 時期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

의 前半은 쉬만 (Schurmann)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 共産主義者들은 「中国의 領士위에 第2의 소비에트聯邦을 創造하려고 하였고, 가능한 모든 分野에 있어서 蘇聯의 著仰을 번역했으며, 거의 모든 制度的 構造를 蘇聯의 그것에 추종했던 것이다. 그들은 蘇聯으로부터 直接 모사한 経済戦略을 採択했고, 第1次 5個年計劃을 蘇聯人으로 하여금 起案케 했고, 露語를 第一外国語로 삼았던 것이다.」[5] 따라서 中共軍이 蘇聯의 軍事援助에 의하여 또 蘇聯의 軍隊를 모델로 하여 近代化를 시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韓国動乱의 休戦이 成立될 무렵, 中共은 砲兵, 工兵, 車輛 및 装甲兵을 重点的으로 再編成하였고, 1950年末 압록강을 건느던 경장비의 軍隊와는 전혀 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蘇聯顧問官의 支援으로, 中共軍은 그 戦闘戦術도 크게 바꾸게 되었다.

또한 同一한 時期에 蘇聯의 援助는 中共指導者로 하여금 그들의 空軍力을 신속하게 建設하게 했던 것이다. 1951年 末부터 中共의 空軍力도 점차로 増強되기 始作하였고, 戦争의 계속을 利用하여 空軍의 装備, 戦略, 組織을 点検하고, 操縦士를 最大限으로 訓練했다. 그리하여 1952年 6月에 이르러 中共의 空軍力은 약 1,000台의 제트戦闘機를 包含하여 1,800台의 航空機를 保有하게 되었고, 韓国動乱의 末期에는 유엔의 空軍力에 相当한 위협을 주게 되었다.[6]

그리하여 韓国動乱의 休戦当時, 中共軍은 新装備의 陸軍과 거의 새로운 空軍을 保有하게 되었고, 休戦이 成立됨에 따라서 軍의 近

代化에 더욱 迫車를 가하게 되었다.

軍의 近代化는 裝備面에서의 近代化뿐만 아니라 組織面에서의 正規化를 수반한다. 中共은 1955年 2月에 「軍官服務条例」를 制定하여 비로서 階級制度를 施行하고, 同年 9月에 「兵役法」을 制定하여 종래 志願兵制였던 軍服務를 이제는 徵集制로 바꾸었다.(7) 그리하여 将校와 士兵의 区別, 14位階의 将官階級의 分別, 종래의 一律的인 現物給与로부터 俸給制의 転換, 軍事訓練의 專門化등의 大幅的인 改革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近代化·正規化의 改革은 人民의 軍隊, 思想的軍隊, 生産하는 軍隊, 혹은 게릴라戰術의 軍隊로 알려진 中共軍의 伝統에 큰 変化를 초래한 것이었다. 당시 中共의 指導者들은 近代化를 위한 일련의 措置가 必要하다고 判断했었지만, 近代化가 가져오는 副作用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1955年 9月 22日字의 「人民日報」社說은 革命게릴라戰争時期에는 軍의 階級과 将校와 士兵사이의 区別이 不必要했음을 指摘했다. 게릴라戰争時期에는 軍의 各単位가 散在해 있었고, 裝備가 단순했을 뿐만 아니라, 軍은 전부 志願兵으로 構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軍의 紀律은 軍幹部와 일반兵士사이의 친밀하고 오랜 関係에 의하여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이다. 同 社說이 指摘한 바와 같이 이제 状況은 달라졌다. 徵集制와 近代的 軍隊의 모든 複雜性을 導入한 以後, 軍은 厳格한 体系와 規律을 要求하게 되었으니, 예컨데 階級制度의 採択은 効率的인 組織과 規律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登場하고 말았다. 더구나 階級의 存在는 将校의 能力을 保障하고, 自己改善의 動機를 提供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進級이 이제는 業務遂行에 依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同社說은 職業的인 将校団의 導入이 革命戰争時期의 中共軍의 基本的 特徵을 変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予測했다. 즉, 幹部와 士兵사이의 同志愛와 団結이 결코 破壞되지 않으리라고 主張했던 것이다.(8)

그러나 이러한 確信 내지는 予見은 重大한 오류였다. 「人民日報」社說에 이와 같은 見解가 指摘되었다는 事実은 이미 軍의 近代化가 相当한 問題点을 提起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1950年代 중반에 이르러 軍은 現代化와 正規化가 가져온 여러가지 問題를 露呈하기 始作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問題를 中心으로 展開되었다.

첫째로, 「人民日報」의 社說이 우려한 바와 같이 将校와 士兵사이의 同志的 関係가 破壞되기 始作했던 것이다. 将校와 士兵사이의 階級上의 区別이 嚴格하여지자, 이들에 대한 処遇에도 자연히 差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両者사이의 親密한 関係를 沮害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軍과 民間人사이의 関係가 悪化되기 始作했다. 이것은 農地가 軍事的 必要에 따라 没収되고, 때때로 軍事訓練이 農耕地를 황폐시키기도 했기 때문이다.(9) 세째로, 軍의 将校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軍事行政을 專担하게 되었고, 이러한 行政業務에서 将校団은 官僚的인 色彩를 점차로 나타내기 始作했던 것이다. 따라서 技術이 政治에 우선시되는 傾向이 대두되었

는데, 결국 中共軍의 近代化는 政治를 혐오하는 制度的 傾向으로 発展하게 된 것이다.(10)

이와같은 近代化의 副作用은 革命戦争時期의 유물인 軍에 대한 共産党의 厳格한 統制와 衝突되었고, 여기에서 軍의 近代化냐, 革命化냐 하는 問題가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의 問題는 주로 다음의 이슈를 중심으로 論争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아마도 政治를 優先視하는 것과 軍의 職業的 価値를 強調하는것 사이의 가장 중요한 충돌은 近代戦争에 있어서 「人間」의 位置에 관한 論争을 둘러싸고 展開되었다. 毛沢東과 그 追従者들은 「人間」이 「武器」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立場은 革命戦争時期에 있어서 게릴라 戦争의 勝利라는 그들 経験의 所産이었다. 그러나 軍이 近代化되면서 職業的 性向의 将校들은 毛沢東의 「人間重視観」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고, 現代戦에 있어서 武器의 重要性을 人間的인 要素보다 우선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対武器」의 論争 或은 「唯武器」論争은 1958年頃에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고, 그것은 中共指導体制의 分裂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상 中共의 指導者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武器가 先進工業国의 그것에 比하여 劣等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武器에 比하여 人間의 要素를 강조한 것은 단순히 武器体系에 있어서 劣勢를 合理化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상 軍事理論과 軍事組織의 概念이 결합된 것이었다. 軍事理論으로서 그것은 中国의 革命戦争의 本質, 즉 劣勢의 軍隊가 強

勢의 軍隊와 싸우는 戰爭의 本質을 表現한 것이며, 순전히 軍事的인 計算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速度戰을 排擊한 理論이다.(11)

그리고 軍事組織의 概念으로서, 그것은 共産党으로 하여금 政治와 軍事를 統合케 하고, 軍隊를 効率的으로 統帥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武器에 앞서 人間을 중시하는 것은 人間的 要素, 말하자면 政治를 強調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武器에 우선하여 人間的인 要素를 강조하는 것은 軍隊에 대하여 政治의 優位를 유지하기 위한 共産党의 目標에서 導出된 것이었다.

이에 反하여, 職業的 軍人들은 現代戰에 있어서 技術과 物質의 要素가 人間의 要素보다 더욱 重要視하다고 主張했다. 그들은 技術의 進歩가 戰爭의 本質을 変更시켰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武器의 改発이 政治에 優先視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彭德懐에 이어 1959年에 国防部長에 就任한 林彪는 人間対武器의 論争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어떤 同志들은 現代戰이 過去의 戰爭과 다르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또한 過去에 우리 軍隊가 保有했던 武器와 装備가 劣等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戰爭에 勝利하기 위하여 人間과 人間의 勇気와 知慧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그들은 主張한다. 現代戰은 鋼鉄과 機械의 技術戰이며, 따라서 이와같은 状況아래서 人間의 役割은 副次的인 것으로 転落해 버렸다는 것이다. (中略)

이들과는 달리, 우리는 비록 装備와 技術이 重要하다고는 하지만

人間의 要素가 더욱 重要하다고 믿는다. 技術이란 것도 勿論 人間에 의하여 습득되어야 한다. 人間과 物質은 調和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래도 主導的인 要素는 人間이어야 한다.』(12)

近代化와 正規化의 導入과 더불어, 職業的 将校団은 軍에 있어서 制度化의 概念을 発展시킨 것이 分明하다. 職業的 将校들은 그들이 軍事専門家로 자처했고, 그들의 制度的 틀속에서 独自性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따라서 党의 統制를 기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人間이나, 武器냐하는 論争은 사실상 現代戦에 대한 相異한 見解의 対立에서 出発한 것이라기 보다는 党과 軍사이의 制度上의 利害関係에서 出発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인지도 모른다.

中共軍의 近代化와 正規化의 副作用으로서 또한 指摘해야 될 것은 職業的 将校들의 制度的 価値가 軍隊内의 党委員会의 存在를 軽視하기 始作했다는 것이다. 党委制度는 원래 軍에 対한 党의 優位를 유지하기 위한 組織手段으로 創設된 것이다.(13) 그러나 軍内의 職業主義가 성행하기 始作하자, 軍의 青年将校団은 党의 統制, 특히 党委制度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되었던 것이다. 職業軍人이면 일반적으로 国内問題에 있어서 政治에 초연하여야 되고, 이것은 職業軍人이 国内의 派閥政治에 있어서 中立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政治指導者도 軍의 中立性을 보장해야 함을 뜻한다.(14) 職業主義가 만연하면서, 中共軍의 将校団도 国内問題에 있어서 政治的 中立을 유지하기 바랐고, 党委에 의한 統制가 그 中立性을 沮害한다고 判断하여 党委에 대하여 否定的인 態度를 取하게 되었다.(15)

軍의 近代化와 正規化의 副作用은 現代戰에 있어서 人間의 相対的인 役割에 관한 相反된 見解의 対立이라든가, 또는 軍将校에 의한 党委制度에 대한 批判에 그친 것은 아니지만, 요컨데 이와 같은 일련의 現象은 軍의 革命精神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党과 軍사이의 마찰을 초래했으며, 軍에 대한 党의 効率的인 統制를 沮害했기 때문에 1950年代 末부터 党은 軍의 革命化를 強調했고, 将校사이에 만연된 職業主義를 견제하기 始作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軍의 革命化에 대한 党의 強調가 반드시 近代化, 正規化, 職業化에 대한 反動이 아니라 1957年末부터 蘇聯의 모델로 부터 脫皮하여 独自的으로 中国社会를 発展시키려던 毛沢東主義的 政策이 軍에도 作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問題는 対蘇関係와 密接하게 연관된 것이며, 다음에 다시 言及하겠지만, 1950年代末부터 毛沢東의 軍事思想이 강조되고, 全民皆兵이란 구호아래 民兵体制가 確立되고, 人民戰争이란 防衛戰術이 強調된 것은 近代化에의 逆行이라고 할 것이다.

1950年代 후반부터 軍의 近代化는 革命化에 의한 도전을 받았고, 마침내 軍의 近代化의 旗手로서 活躍하던 国防部長 彭德懐가 1959年에 粛清되고 林彪가 그 後任者로 등장하면서 中共軍은 새로운 革命化의 時期에 접어든다. 彭德懐의 粛清은 반드시 軍의 近代化問題가 中心이 된 事件은 아니며, 毛沢東의 三面紅旗를 反対했기 때문에 発生한 事件이지만, 여기에는 軍의 近代化 問題, 対蘇関係問題등이 複雜하게 얽혀있었던 것이다.[(16)] 또한 1964年에 粛

清된 人民解放軍 総参謀長 羅瑞卿의 경우도 軍의 戰略問題를 包含한 近代化의 問題와 연관되었고, 그 자신 近代化論者로 알려졌었다.(17)

어쨌든 1959年 国防部長 林彪의 登場을 前後하여 中共軍은 다시 革命化의 期間으로 突入하게 되는데, 革命化의 극치는 1965年 軍階級制度를 廃止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18) 그러나 文化革命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共軍의 최대의 問題의 하나는 毛沢東主義的 価値와 職業的 価値와의 対立으로 남아왔다.(19) 勿論 이러한 対立을 지나치게 強調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大部分의 指導者들은 軍이 安保와 国家利益의 守護以外에 多様한 国内的 任務를 遂行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毛沢東主義的 価値가 強調되던 時期에도 軍의 近代化・専門化・職業化는 계속되었으니, 이것은 순전히 軍事・安保的 理由에 基因된 것이며, 따라서 軍의 近代化와 관련된 軍事・安保의 要素를 考慮할 必要가 있다.

Ⅲ. 軍事安保의 要素

以上에서 우리는 中共軍의 近代化가 갖는 国内的인 意味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러나 序論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観心事는 軍의 近代化自体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外交戦略上의 意味인 까닭에 外交戦略과 직결되는 軍事·安保의 要素를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軍의 예컨데 革命化가 技術의 開発이나, 装備의 改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革命化를 부르짖던 1950年代의 말에도 核武機의 独自的인 開発을 추진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잠시 言及한 바와 같이 軍의 近代化의 問題는 国内政治過程의 脈絡에서가 아니라 国際環境変化라는 脈絡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重要하며, 이러한 見地에서도 軍事安保의 要素는 더욱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中共의 指導者들은 그들 安保의 最大 威脅은 蘇聯의 그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실상 中蘇国境地帯에는 両側의 가공할 兵力이 배치되어 있다. 예컨대, 中共은 72個師団(約 126万名)을, 또 蘇聯은 43個師団(約 40万名)을 各各 国境地帯에 배치하고 있고, 그것은 中共과 蘇聯의 戦闘師団의 52%와 26%를 각기 점유하는 兵力인 것이다.(20) 따라서 中共의 軍事安保의 問題는 対蘇의 問題로 集約된다. 勿論 지난 30年동안 中共은 美国, 印度, 台湾으로 부터의 軍事的인 威脅을 받기도 했지만, 蘇聯으로부터의 威脅이 最強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主로 対蘇関係를

염두에 두고 中共外交戰略에 있어서 軍事安保의 問題를 考察하려고 한다.

대체로 中蘇의 密月的 関係가 紛争으로 発展되기에는 세個의 決定的인 転換点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 세 時期에 있어서 両国間의 関係는 質的 変化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의 時期는 1957~59年 사이이며, 이 時期에 있어서는 美国에 대한 中共과 蘇聯의 戰略이 점차로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考察에 앞서서 1949年 以後의 対蘇関係를 간단히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1949年에 毛沢東은 中共이 親蘇一辺의 外交政策을 推進할 것을 宣言하고, 1950年初에 両国은 軍事同盟을 締結했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歴史的 関係라든가, 혹은 中国에서 共産運動이 시작된 以後 蘇聯과의 関係를 考慮할 때 中蘇同盟이 순탄할 것으로 판단키는 어려웠으나, 당시 世界는 그것을 하나의 現実로 받아들였었다.

당시는 欧洲에서 冷戰이 本格化될 때였고, 中共은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의 対立으로 지배되는 両極体制가 不可避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21)

中蘇両国은 모두 美国의 存在를 두려워 했고, 共産主義의 伝播라는 共通의 目標를 갖었다고 생각된다. 勿論 中共이 1949年 경에 美国과의 関係改善을 考慮했을지도 모르지만, 毛沢東은 「人民民主專政」을 発表하면서 親蘇一辺度의 政策을 천명했던 것이다.

그후 10年동안 中共外交의 基本은 蘇聯과의 同盟関係를 떠나서

云謂할 수 없으며,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両国은 軍事同盟뿐 아니라, 経済, 科学, 教育 其他의 分野에 있어서도 緊密한 関係를 発展시켰던 것이다. (2)

그러나 安保的 考慮가 가장 重要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당시 中共政権이 安保面에서 취약했던 것은 勿論이지만, 美国이 戦後에 있어서 아시아勢力으로 登場했기 때문에 美国이 潜在的인 敵으로 看做되기에 충분한 理由를 発見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韓国動乱에서 確証되었으며, 韓国動乱이 中共軍의 近代化의 転機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리고 韓国戦争은 中共의 威勢를 높였고, 中蘇의 関係를 어느 정도 増進시킨 것도 사실이다. 또 韓国動乱에서 美国이 中国本土에 대한 爆撃이나 核武器의 使用을 自制한 것도 蘇聯과의 関係를 考慮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中蘇의 関係는 스탈린生前에도 다소 미묘한 바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체로 協調関係였다고 할수 있으나, 스탈린死亡 以後 関係는 점차로 悪化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公開的인 紛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50年代 後半이며, 理念上의 紛争으로 拡大된 것은 1960年 경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中蘇紛争의 第1의 転換点은 1957~1959年이며, 이 時期에 이르러 同盟関係는 점차로 의분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3)

그런데 사실상 中蘇間의 紛争의 시작은 1956年의 흐루시쵸프에 의한 스탈린格下運動이었다. 第20次 蘇聯共産党大会에서의 演説로

시작된 反스탈린運動은 中共指導者들로 하여금 共産陣営의 弱化를 우려케 했고, 또 스탈린의 「個人崇拝」에 대한 批判이 毛沢東의 權威를 低下시키리라는 우려를 낳게 했던 것이다. 理念的인 次元에서, 中共은 흐르시쵸프가 蘇聯의 政策의 基本으로 제시한 戦争의 非不可避性, 社会主義로의 非暴力的 移転可能性 및 平和共存의 観念에 同意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立場은 毛沢東이 主唱해온 革命 모델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 国家, 특히 美国과의 妥協의 可能性을 암시한 것이었다. 美国과의 妥協은 中共의 立場에서 볼때 예컨데 台湾과의 対決에 있어서 분명히 그들의 位置를 弱化시키리라고 判断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6年에 시작된 紛争은 1957～1959年 사이에 심화되었는데, 両国사이의 戦略上의 차이가 表面化된 것은 1957年 11月 모스코에서 開催된 世界共産党大会에서 였다. 여기서 中共과 蘇聯은 東西의 対立状況에 대한 評価와 世界戦略에 대한 処方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蘇聯은 非共産世界에 대하여 比較的 慎重한 戦略을 主張했음에 반해서, 毛沢東은 『東風이 西風을 제압한다』고 力説함으로서 보다 好戦的인 姿勢를 취했던 것이다.(24)

당시 흐르시쵸프는 美国과 보다 同等한 戦略的 均衡을 維持하고, 核戦争의 危険을 減少시키기 위하여 「共存」(후에 와서 '데땅트'로 불리웠음)의 政策을 推進했고, 그것은 1959年 그의 워싱톤 訪問으로 절정에 달했었다. 그러나 中共은 美蘇의 데땅트가 台湾등에 있어서 자신의 利益을 저해한다고 判断하여, 美蘇間의 데땅트

에 反対하였던 것이다.[25]

그런데 이와 같은 広範한 戰略的인 対立은 具体的인 이슈에 있어서도 対立을 초래하였으며, 여기에는 적어도 세가지의 이슈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台湾海峡의 危機로 알려진 1958年 8月부터 시작된 金門·馬祖島에 대한 中共의 砲擊事件이다. 中共의 武力行使는 蘇聯의 対美共存政策이 美国과 防衛関係를 맺고 있는 台湾의 恢復을 어렵게 하리라는 우려와 蘇聯의 援助를 얻어내려는 計算이 있었던 것같지만, 결국 中共이 바라던 効果를 얻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26]

둘째로, 台湾海峡의 危機가 낳은 이슈는 核武器開発에 관한 中共에 대한 蘇聯의 援助問題와 연관된다. 台湾海峡에서의 武力行使가 蘇聯으로부터 核武器를 包含한 軍事援助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見解도 있지만, 中共은 1957年 10月 蘇聯과 「国防新技術協定」을 締結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蘇聯은 核開発에 관한 기술상의 資料와 核爆弾의 표본을 中共에 제공하기로 하였던 것이다.[27] 그러나 1959년 6月에 와서 蘇聯은 위의 協定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던 것이다.

세째로, 1959年에 발생한 中共과 印度와의 領土紛争에서 蘇聯은 中立的인 立場을 취하고, 印度에 대한 経済援助를 계속했는데, 이것 역시 中蘇間의 摩擦을 促進했던 것이다. 요컨데, 1957年에서 1959年사이에 中蘇関係의 変化는 中共指導者들로 하여금 同盟関係의 限界性을 인식케했던 것이다.

中蘇紛争에 있어서 第2의 転換点은 1962～63年이다. 이 時期에 이르러 両国関係는 「돌이킬수 없는 状況」에 이르렀고, 紛争의 主要原因은 核実験에 관한 制限的 禁止条約이었다. 1962년 가을, 蘇聯은 美国의 제안에 따라 核武器制限에 관한 合意의 의사를 표시하고, 北京에 그것을 통지했으나, 中共은 이에 反対했었다. 그러나 北京의 反対에도 불구하고, 蘇聯은 1963年 美国과 英国등과 더불어 制限核実験禁止条約을 締結했다. 당시 蘇聯의 立場에서는 美

国과의 共存政策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中共과의 友好関係를 계속하느냐는 어려운 選択에 직면했었다. 여기서 蘇聯이 前者를 択함으로서, 中共은 美蘇가 공동으로 그들에게 対抗한다고 看做하고 반발했던 것인데, 결국 이것으로서 中蘇의 既存条約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効力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28)

中蘇紛争의 第3의 転換点은 政治的 紛争이 軍事的 対決로 発展된 1960年代의 後半의 事件들이다. 1960年以後 両国은 国境地方의 軍事力을 強化하기 시작하였고,특히 1965年부터는 蘇聯의 軍事力이 급격히 増強되었다. 그 결과로, 両国関係에 있어서 基本的인 質的 変化가 1960年代末에 다시 発生했던 것이다. 両国間의 紛争은 과거에는 本質的으로 理念的이고 政治的인 이슈를 둘러싸고 進行되었으나, 이제는 直接的인 軍事的 対決이란 形式으로 紛争이 変質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対決은 武力衝突로 까지 発展되었던 것이다.(29) 勿論 1969年 3月의 다만스키(Damansky)섬에서의 衝突이 戦争으로 拡大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事件은 中共指導者들로 하여금 적어도 蘇聯이 軍事力을 배경으로 한 圧力을 中共에 가하고 있다고 判断하게 한 것은 分明하다. 그리하여 中共의 外交政策에는 우선 蘇聯의 攻撃을 저지하는 것에 一次的 目標가 주어졌고, 또한 적어도 東아시아에 있어서 蘇聯의 影響力을 抑制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배양에 戦略的인 考慮가 부여되었던 것이다.(30)

中共이 美国, 日本과 関係를 改善하기로 한 決定도 결국은 蘇聯의 軍事的 威脅앞에서 새로운 聯合戦線을 構築하려는 것이었으며, 1960年代 末부터의 中共外交의 変化도 결국 東아시아에 있어서 勢力均衡과 関聯된 中共의 軍事安保上의 問題에 기인한 것이다.

Ⅳ. 四個現代化와 軍

人民解放軍의 近代化는 裝備, 組織, 戰略의 諸側面에서 現代戰에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의 배양인 것이다. 그리고 中共이 戰爭의 위협을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은 蘇聯으로 부터이며, 또 軍事.安保의 要素가 外交戰略 및 軍의 近代化의 問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点은 이미 言及한 바와같다. 그런데 現代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裝備, 혹은 武器体制의 発達이며, 이것은 中共指導者들도 일찍히 인식한 바인 것이다. 예컨데 1950年代末 中共이 軍의 革命化를 강조하고, 技術의 近代化보다는 思想教育을 앞세울 당시도 核武器의 開発을 추진했었고, [31] 1964年 최초의 核爆弾실험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軍의 近代化가 특히 강조된 것은 1975年1月 才4期 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였다. 여기서 「政府活動報告」를 행한 당시 首相 周恩来는 『今世紀안에 農業, 工業, 国防, 科学技術의 近代化를 全面的으로 実現하여 中国의 国民経済를 世界의 前列에 세운다.』고 말함으로서 軍事 내지는 国防의 現代化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32]

四個現代化의 추진은 華国鋒, 鄧小平의 体制아래서 더욱 그 박차가 가해지고 있으며 예컨대 1978年 2月末에 개최된 才5期 全国民代表大会에서 華国鋒主席은 그의 「政府活動報告」에서 四個의 近代化

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었다.[33)]

그러나 軍事전반에 있어서 近代化의 속도는 느린 것이다. 또 中共은 国防의 近代化를 강조하면서도 軍의 革命化를 주장하고 있어서 軍의 近代化는 裝備, 技術의 近代化와 組織과 精神의 革命化를 要求하는 二元的 努力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77年 8月 1日 人民解放軍 建軍 50周年 紀念日에 당시 国防部長이던 葉劍英은 軍事의 当面問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華国鋒主席은〕 人民解放軍의 革命化와 近代化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革命化는 軍의 建設에 관하여 毛主席의 路線, 政策, 原則을 実行하는 것을 의미한다. (中略) 革命化를 강화함으로서만, 우리는 近代化를 추진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 軍의 近代化는 강력한 陸海空軍과 유도미사일과 核武器를 포함한 現代的 兵器와 裝備를 必要로 하고 있다.』[34)]

또한 1977年 8月의 中国共産党 才11全大会에서 「政治報告」를 행한 華国鋒도 軍의 革命化와 近代化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国防의 第一優先政策과 軍의 近代化를 결부시켰다.[35)] 그러나 葉劍英이 지적한 바와같이 現代戰에서 중요한 것은 裝備와 兵器의 近代的인 것이며, 中共軍에 있어서 이것을 성취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978年 10月에 발표된 日本外務省의 「中蘇間의 軍事情勢의 詳細」에 따르면, 中共軍의 裝備와 兵器에 있어서 近代化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陸軍의 경우는 .

①機甲師団의 增設과 歩兵師団의 装甲化에 의한 機動力의 向上

②対戦車能力의 向上, 특히 誘導미사일의 開発

③T-59에 대치하는 中型戦車의 開発

④SA-2 地対空미사일의 弱点을 보완하는 中低空用 미사일의 開発이 要求된다.

둘째로, 空軍의 경우는

①MIG 21에 대치하고, MIG 23 혹은 MIG 25에 対抗할수 있는 新鋭戦闘機의 開発

②早期警戒機의 装備化

③中重헬리콥터의 装備化

④新防空씨스템網의 確立

⑤全天候型 迎撃機의 倍加

⑥空対地 미사일의 開発

⑦迎撃 미사일의 開発이 要求된다.

세째로, 海軍의 경우에는

①大型 미사일艦, 原子잠수함의 建設

②SLBM의 開発

③戒機의 装備化가 要求된다.

마지막으로, 戦略 미사일의 部面에서,

①IRBM基地의 增加.

②精密誘導用 電子装置命中精度의 向上

③ICBM(8,000마일 以上)의 実戦配置등의 近代化가 要求되는 것이다.[36])

그러면 近代化가 要求되는 程度와 現在의 水準과의 差는 어떠한가? 現在 中共은 72個師団의 地上軍은 中蘇国境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蘇聯의 威脅에 대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戦略的인 核抑制力을 開発시키는 것이다. 地上軍의 경우에도 72個師団의 대부분은 歩兵師団이며, 이에 반하여 蘇聯軍은 機甲戦力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서 機動力에서 우월할 뿐아니라 전체적인 戦力도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蘇聯과의 地上軍力의 質的인 격차와 광범한 作戦地域을 감안하면, 中共은 그 主力을 실질적인 国境지대에서 상당히 떨어진 地域에 「後退配備」하고 있는 것같으며, 正規軍을 보충하여 고도로 훈련된 民兵의 動員体制를 갖고있다.

空軍의 경우도 蘇聯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中共은 約 五千台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이 旧式의 MIG 17과 MIG 19이며, 1971年부터 MIG 19를 改良한 F-9을 自国設計에 의하여 생산하였으나 엔진의 결함때문에 1977년부터 그 生産을 中断하였다. 아무튼, 이들 戦斗機는 防空防衛와 直接航空지원임무를 갖고 있다. 中共은 약간의 中距離爆撃機(TU-16)와 軽爆撃機(IL-28)을 보유하고 있으나 前方空軍力으로서 蘇聯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것이다.[37]) 이와같은 空軍力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中共은 1975年이후 英国의 롤즈로이스 엔진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MIG 25에 대항할 수 있는

戰斗機의 国産化에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防空能力-레이다, 地対空미사일, 지휘및 콤뮤니케이션 体制등-에 있어서도 量과 質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中共의 海軍力은 약1,500의 小型순시선을 주축으로 주로 沿岸防衛의 性格과 能力을 갖추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蘇聯 海軍力의 增強에 맞서서, 中共은 国産 미사일 驅逐艦과 미사일 高速艇, 潜水艦의 增強을 기도하고 있다. 中共設計의 艦艇에는 超大型 미사일 驅逐艦(3,750톤급), R型潜水艦, 上海Ⅱ型高速의 戒艇등이며, HAN型 原子力潜水艦도 一隻을 건조했다고 한다.38) 현재 中共은 67隻의 潜水艦을 보유하고 있어서, 数에 있어서는 世界 才3位지만, 미사일 장비가 不足하고, 大型의 미사일 驅逐艦과 高速의 戒艇미사일도 蘇聯의 SSN-2등에 비하여 装備와 技術面에서 初歩的 設階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艦艇建造에 필요한 特殊鉄鋼材의 不足등으로 급격한 海軍力의 증강, 특히 大型艦의 增強은 難望인 형편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海軍도 技術面에서 특히, 電子装備에 있어서 蘇聯에 비하여 약 15년이상 落後되어있어서, 近代兵器体制에 있어서 蘇聯과 겨룰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中共은 軍事技術面에서 蘇聯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힐 수는 없으며, 近代化는 첫째 緊急을 요하는 兵器增強에 중점을 두고, 둘째 西方諸国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外務省의 「中蘇間의 軍事情勢의 詳細」에 따르면 中国이 최신의 兵器体系를 취득하고도 現在의 農民의 生活水準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약 530億弗의 対外借款이 必要하다고 하는데,[39] 이와같은 막대한 借款을 조달하기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최근에 中共이 강조하는 경제건설의 最優先政策과 軍의 近代化는 병행하기가 困難하기 때문에 軍의 近代化에는 限界가 있다고 하겠다.[40]

結　　語

1960年代 말부터 전개된 中共外交의 戰略的 変化는 軍事·安保的 理由에서 취해진 조치이며, 그후 10년동안 中共의 国内政治의 큰 変化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대체로 일관된 外交政策戰略을 추구하고 있다. 즉, 그것은 하나의 主된 敵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主된 敵의 모든 敵과 잠정적인 同盟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外交政策의 「革命的 二元主義」는 특히 毛沢東의 生前時에 中共外交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毛沢東의 死亡후에도 그러한 外交戰略의 基本的 姿勢는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中共軍의 近代化의 問題는 主된 敵(현재는 蘇聯)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国防上의 要求때문에 제기된 것이며, 「外交戰略의 革命的 二元主義」路線을 표방하고 美国과 日本등과 関係改善을 성취한 것도 西方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함으로서 軍事의 近代化를 포함한 四個의 現代化를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中共의 軍事政策을 近代化와 革命化를 同時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兩者가 모두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毛沢東의 死亡後 脫毛沢東의 時期로 접어든 中共社会가 毛沢東主義的 価値를 강조하는 革命化에 회의적이라는 것이 革命化에의 難点으로 보이며, 中国의 経済事情이 軍의 近代化에 必要한 国防費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近代化의 難点으로 지적될 수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물론 程度의 問題이기는 하지만, 軍의 近代化의 前途는 요원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中共外交戰略의 決定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가 軍事·安保의 그것이며, 安保에 위협이 계속되는 限, 中共은 美国과 日本과의 関係改善을 利用함으로써 1960年代나 1970年代 初와는 다른 東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勢力均衡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 註 —

(1) A.Doak Barnett, 'Peking and the Asian Power Balance', Problems of Communism, Vol,XXV (July-August,1976), pp. 36~37, 이 論文은 George T.Yu(ed.), Intra-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에 'China and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라는 題目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A.Doak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参照할 것.

(2) 다만 本 論文에서는 상당한 程度로 中共軍의 近代化의 問題를 国内的인 次元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論文이 現在 進行中인 中共外交 一般에 관한 보다 큰 論文의 一部이기 때문이다.

(3) 神谷不二, 『朝鮮戦争』(東京：中央公論社, 1966) 参照.

(4) Ellis Joffe,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 (Cambridge, Mass: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1965), p.12.

(5)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p.40.

(6) Alexander L.George,The Chinese Communist Army in Action: The Korean War and Its Aftermath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1967),pp.199～200. 또한 R.F.Futrell,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1950～1953 (New York: Dvell,Sloan,and Pearce, 1961) 参照할 것. 中共軍의 近代化에 관한 仔細한 分析은 John Gitlingo,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967),Chap.7을 볼 것.

(7) 軍官服務条例와 兵役法에 관하여는 江一山 編,『中共軍事文件編』(香港:友聯研究所, 1965) 参照.

(8) Joffe,op.cit.,pp.37～38.

(9) Communist China:1955 (Hong Kong: Union Research Institute,1956),pp.130～131.

(10) Ibid.

(11) Mao Tse-tung, 'Strategic Problems of China's Revolutionary War',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1954 and after),Vol.II,pp.175～263.

(12) Lin Piao, 'March Ahead Under the Red Flag of the General Line and Mao Tse-tung's Military Thinking', Peking Review,40 (October 6,1959),p.17.

(13) Gittings,op.cit.,pp.106～111; Chalmers Johnson,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1937～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1962),pp.77～84. 또한 金達凱・張大軍,『中共軍事剖視』(香港, 自由出版社, 1954)参照.

(14) Morris Janowitz,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New York: The Free Press, 1960),p.233.

(15) Chieh-Fang-Chün Pao,August 29,1958,in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767-D (June 17,1959),pp.31～33参照.

(16) 彭德懷의 숙청에 관하여는 David A.Charles, 'The Dismissal of Marshal P'eng Teh-huai', The China Quarterly, No.8 (October-December,1961),pp.63～76; J.D,Simmonds, 'P'eng Teh-huai: A Chronological Re-examination', The China Quarterly,No.37 (January-March,1969),pp.120～138; 또는 崔 明,『現代中国의 政治』(서울: 法文社, 1974), pp.79～98 등을 参照.

(17) Uri Ra'anan, 'Peking's Foreign Policy Debate,1965～1966', in Tang Tsou (ed.),China in Crisis,Vol.II: China's Policies in Asia and America's Alterna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68),pp.23～71; Donald Zagoria, 'The Strategic Debate in Peking', ibid., pp.237～268 参照.

(18) cf, Niu Sien-chong, 'The Rankless Army', Military Review, Vol. XLVI, No. 2 (February, 1966), pp. 53 ~ 56.

(19)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p. 91 ~ 95. 勿論 毛沢東의 死亡후 脱毛沢東의 時期로 접어든 中共에서 毛沢東主義的 価値가 毛의 生前의 그것과 同一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여기서 毛沢東主義的 価値는 반드시 革命化의 그것 뿐아니라, 넓은 意味에서 政治를 중시하는 価値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이것은 日本外務省의 「中ソ間の軍事情勢の詳細」에 나타난 数字이다. 『毎日新聞』 1978年10月13日 夕刊 参照.

(21)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p. 25; Liu Shao-ch'i, Internationalism and Nationalism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49) 参照.

(22) 예컨데 Alexander Eckstein, Communist China's Economic Growth and Foreign Trade: Implications for U.S Policy (New York: McGraw Hill, 1966), pp. 135 ff 参照.

(23) 이하의 中蘇関係의 変化에 관하여는 주로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pp. 32 ff에 依存.

(24) Ibid., p. 33 勿論 여기에는 蘇聯의 人工衛星 발사가 크게 作用했다는 説明도 있다. 그러나 흐루시쵸프가 毛沢東보다 신중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対立은 당시 両国

의 国内政治의 추세와도 관계가 있으며, 中共은 1957年 가을 부터 종전의 蘇聯式 모델을 抛棄하고 大躍進의 革命的이고 과격한 政策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蘇聯은 보다 非革命的인 国内政治를 추진했던 것이다.

(25) 蘇聯은 核保有国으로서 強大国間의 紛争을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地域紛争의 可能性을 두려워 하였으나, 中共은 現象에 不満을 품고, 성공적인 革命을 위하여는 武力闘争을 계속하여야 된다는 立場이었다.

(26) A.Doak Barnett, 'The 1958 Quemoy Crisis: The Sino-Soviet Dimension', The Problems of Communism, Vol.XXV (July ~ August, 1976), pp.38 ~ 39. 또한 Donald S.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 ~ 1961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p.206 ~ 16; John R.Thomas, 'The Limits of Alliance: The Quemony Crisis of 1958', in Raymond L.Gathoff(ed.), Sino-Soviet Military Relations (New York: Praegu, 1966), pp.114 ~ 149; Allen & Whiting, 'New Light on Mao — 3. Qvemoy 1958: Mao's Miscalculations', The China Quarterly, No.62 (June, 1975), pp.263 ~ 270 参照.

(27) Garthoff, op.cit., p.90

(28) cf. John Gittings, Survey of the Sino-Soviet Dispute: A Commentary and Extracts from the Recent Polemics,

1963～196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968).

(29) Thomas W.Robinson,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Background,Development,and the March 1969 Crash,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Vol.LXVI,No. 4 (December,1972),pp.1175～1202; Neville Maxwell, "The Chinese Account of the 1969 Fighting at Chenpao", The China Quarterly,No.56 (October-December, 1973), pp.730～739。

(30) 中蘇의 軍事情勢의 実態에 관하여는 『毎日新聞』 1978年 10月13日 夕刊 参照.

(31) cf. Alice L.Hsieh, Communist China's Str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liffs,N.J: Prentice-Hall,1962) ;Morton H.Halperin,Clina and the Bomb (New York: Praeger,1965).

(32) 第4期 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行한 周恩来의 政府活動報告에 관하여는 『毎日新聞』 1975年1月21日.

(33) cf. Kenneth Lieberthal,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in the PRC", The Problems of Communism,Vol.XXVII (May-June,1978),pp.1～17. 또한 『毎日新聞』 1978年 2月27日.

(34) "Quarterly Chronicle and Documentation)" the China Quarterly,No.72 (December,1979),p.861; Peking Review

No.32 (August 5,1977) 参照.

(35) Ibid.,pp.873 ~ 874 ; Peking Review,No.35 (August 26, 1977) ; 『毎日新聞』 1977年 8月 23日 参照.

(36) 『毎日新聞』 1978年 10月 23日 参照.

(37) 中共은 Mig 21을 모방한 国産機도 생산하였으나 1972年부터 중단하였고. TU-16의 生産도 1975年에 중지했다. 設計上의 결함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8) 『毎日新聞』 1978年 10月 23日.

(39) Ibid.

(40) 예컨데 Michael D.Eiland, 'Military Modernization and China's Economy', Asian Survey,Vol.XVII,No.12 (December 1977),pp.1143 ~ 1157.

日・中共経済協力의 現況과 展望

The Present and the Prospoct of the
Sino-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研究執筆責任： 呂 井 東

（略歷） 서울大文理大 政治学科卒業（1955年）

慶北大 大学院 政治学碩士（1957年）

現在 서울大 社会大 外交学科教授

（1975年부터）

目　　　　次

Ⅰ. 日・中共経済協力의 背景 367

Ⅱ. 最近의 日・中共貿易推移와 経済協力現況 371

Ⅲ. 日・中共長期貿易協定의 内容과 経済協力方向 381

Ⅳ. 日・中共経済協力이 韓国에 미치는 影響과 그에 대한 対応策 388

Ⅰ. 日·中共経済協力의 背景

日·中共間 経済協力은 1978年 7月 日·中共長期貿易協定의 締結과 1978年 8月의 平和友好条約의 締結로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대폭 拡大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日·中共関係의 展開는 対日経済依存度가 대단히 큰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諸国과 世界経済秩序에도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각별한 関心과 이에 대한 研究検討가 要望視되고 있다.

日·中共間의 経済交流는 両国의 国内政治 및 対外政策과 밀접한 相関関係를 가지고 追求되고 있는 것이 既定事実이지만 両国間経済協力強化의 보다 具体的이고 実質的인 背景으로는 "中共의 近代化計劃"의 推進을 들 수 있다.

最近까지 中共은 自力更生을 原則으로 하는 社会主義 建設需要에 따라 計劃的인 対外貿易을 遂行하는 것을 그 基調로 삼아왔다. 다시 말해서 中共의 対外経済政策에 대한 基調는 소위 自力更生을 主로하고 国際協力을 従으로 하는 定式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中共은 対外貿易의 重要性을 인식하면서도 事実은 지금까지 外国으로부터의 借款導入이나 国際貿易의 基本原理인 比較優位에 立脚한 対外貿易遂行을 거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毛沢東死後에 華国鋒·鄧小平体制가 実用主義路線을 채택함으로써 中共은 보다 積極的인 方向으로 対外経済政策을 転換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中共은 78年 2月

第 5 期 全国民代表者大会에서 75年 周恩来가 제안한 農業, 工業 国防 및 科学技術의 4個部門의 近代化計劃註)의 積極的인 推進을 決議한 바 있다.

同大会에서 華国鋒이 밝힌 経済開発 10個年計劃 (1976-85)의 具体的인 主要内容을 보면 1985年까지 食糧生産高를 4億톤으로 하고 78 ~ 85年까지의 8年間에 農業総生産額의 平均成長率을 4 ~ 5 %로 하며 또 이 期間에 農業機械化率 85 %를 達成하여 農業人口 1人当 1畝 (約 6.7 a)의 安定的 収穫農地의 確保를 実現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向後 8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을 10 %以上으로 하고 粗鋼生産을 85年까지 6千萬톤으로 하며 또한 同計劃期間中 大型鉄鋼基地 10個, 大型非鉄金属基地 9個, 大型石炭基地 8個, 大型개스油田 10個, 大型発電所 30個, 鉄道幹線建設 6個, 重点的港湾建設 5個를 포함한 도합 120個項目에 걸친 대형프로젝트를 새로이 建設내지 増設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中共全域에 걸쳐 合理的으로 배치된 14個의 工業基地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今後 8年間에 主要工業製品의 生産高를 中共政策樹立以後 28年間의 生産高보다 훨씬 上廻하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註) 中共의 近代化計劃에 대한 자세한 内容은 New York Times, March2, 1978과 Business China, March, 1978을 参照.

이와같이 中共의 10個年計劃規模는 매우 야심적이며 의욕적이긴 하지만 問題는 이러한 開発計劃에 所要되는 거액의 資金調達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同計劃에 의하면 中共은 향후 8年間에 所要될 基本建設投資를 지난 28年間 中共이 経済建設을 하는데 소요되었던 것과 맞먹는 規模로 策定하고 있는데 約 3千億弗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中共은 낙후된 経済水準을 先進工業水準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10個年計劃을 遂行하는데 필요한 投資財源으로서의 各種 資本財 및 技術等을 西方先進国으로 부터 大量 導入하고 있으며 그 財源調達을 為해 西方諸国에 대한 輸出을 점차 拡大해가고 있다. 즉 中共은 지금까지 実施해 온 "内向的経済成長" (In-Wand-looking Growth) 戦略에서 "外向的経済成長" (Outward looking Growth) 方式으로 그들의 経済開発戦略을 転換함으로써 이데올로기 보다는 国家利益에 重要性을 부여하는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事情은 現実에 그대로 透映되어 지금까지 고수해 온 対外経済交流의 戦略에서 크게 変化하여 西方 先進諸国으로부터 導入할 뿐만 아니라 外国과의 合作投資도 許容하고 있는 형편이다. 例를 들면 中共은 78年 9月에 最初로 7個의 탄광시굴과 주요탄광 機械工場의 建設을 위해 40億弗의 対西独借款導入을 承認했으며, 78年 11月에는 中共을 訪問한 全日本銀行協会訪中团에게 日本民間銀行의 융자를 요청한 바도 있다. 共産圈国家로서는

西方市場 指向的이라 할 수 있는 유고, 폴란드, 루마니아, 항가리 等의 東欧諸国에 이어 中共도 外国人投資를 許容하기에 이르렀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中共은 経済開発計劃의 遂行에 필요한 外国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함에 있어서 地理的으로 매우 인접해 있으며 先進工業国의 하나인 日本과의 経済協力을 強化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소치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中共의 立場에서 볼 때 対日経済交流의 深化내지 拡大는 対蘇견제를 위한 中共의 政治·軍事的 戦略에서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보다 根本的으로는 中共의 現代化計劃에 따른 経済発展과 보다 밀착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世界各処에서의 出超 및 円貨高騰으로 対外輸出이 벽에 부딪치고 있어 새로운 市場開拓이 절실히 필요했던 日本側으로서도 対中共経済協力의 強化로 中共으로부터 原油, 石炭등 原資材를 確保하고 中供의 工業化에 필요한 플랜트를 비롯한 資本財를 輸出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한다는 것은 자못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日·中共間의 経済協力의 帰趨는 中共의 近代化計劃의 推進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Ⅱ. 最近의 日・中共貿易推移와 經濟協力現況

1. 貿易推移

戰後 日・中共貿易은 1962年 11月 北京에서 이른바 LT貿易覚書를 교환하여 民間貿易을 점차 拡大해 나갈 것을 천명함으로써 본격화 하였으나 67年의 文革으로 정체되다가 다시 72年 9月의 両国間의 国交正常化, 74年 1月의 日・中共貿易協定等을 通하여 日・中共貿易은 다시 本軌道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72年 日・中共国交正常化以前의 貿易協定은 政府間協定이 아니고 民間協定이기 때문에 영구성이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74年 締結된 協定은 政府間協定으로서 日・中共貿易의 制度的 基盤을 확고히 해준 것이었다.

이러한 制度的 뒷받침에 힘입어 日・中共貿易은 70年代 크게 伸張되어 1960年만 하더라도 中共貿易의 65%가 社会主義国家와 행해졌으나 70年代에 와서는 이들 共産国家와의 交易은 극히 미미한 程度에 그친 反面에 対日本貿易比重이 74年에 28.3%, 75年에 31.5%를 記録하기에 이르렀다. (<表1>参照)

이것은 74年, 75年의 中共의 対欧美先進工業国貿易比重 30.8%와 29.3%와 거의 비슷한 것이기는 하지만 対日本貿易比重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는데 注意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註) 또한 中共

註) 中共의 地域別 国別貿易現況은 IMF, Direction of Trade 1971-77, 1978, P.98을 参照

<表 1> 中共의 対日本貿易額 및 比重(1971-77)

単位：百萬달러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世界全体(A)	3,830.0	4,805.0	8,414.2	11,885.3	12,285.5	11,245.7	13,130.2
日 本(B)	928.6	1,134.3	2,030.6	3,367.2	3,874.3	3,080.4	3,568.5
比重(B/A)	% 42.2	% 23.6	% 24.1	% 28.3	% 31.5	% 27.4	% 27.2

註)이表의 모든数値는 中共의 交易相対国의 統計로 作成된 것임.

資料：IMF, Direction of Trade 1971-77, 1978

의 이러한 西方先進国들과의 交易増大는 中・蘇紛爭이라는 政治的 要因이외에도 共産圏国家들의 独裁政治 및 社会主義経済体制自体의 矛盾에 따른 이들 共産国家들의 構造的인 経済発展의 둔화에 기인하기도 한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先進된 資本財 및 技術等을 導入하기 위해서는 西方側과의 経済協力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편 日本貿易에서 占하는 対中共貿易의 比重역시 계속 増加하여 75年에는 日本総貿易高의 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日・中共貿易은 日本総貿易高의 2.3%(前年対比 80%程度)로 격감했는데 그 理由는 中共의 輸入이 절충함에 따라 貿易収支의 悪化와 이른바 四人幇勢力의 資源輸出과 資本財等 工業製品 및 技術의 対外依存에 대한 비판으로 中共의 対外貿易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76年 毛死後 4人幇축출등의 政治的 소요를 거치면서 鄧小平을 위시한 葉劍英, 李先念과 같은 実用主義者들이 対外経済側面에 급격한 変動을 가져왔다.

따라서 77年의 日·中共間 交易総額은 35億弗로 76年의 30億弗보다 15%가 増加하였으며, 中共貿易에서 차지하는 対日本貿易의 比重이 76年에 27.4%, 77年에 27.2%로 75年의 31.5%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지만 어쨌든 70年代를 통해 계속 日本이 中共의 第1의 貿易対象国임을 알 수 있다.

한편 77年 日本의 対中共輸出은 総輸出額의 2.4%를 점하였으나 78年 8月 現在 日本의 対中共輸出은 前年同期에 비해 무려 42.3%, 輸入은 28.1%가 増加하여 유례없는 増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78年 2月에 締結된 日·中共長期貿易協定에 힘입은 바 크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拡大되리라 豫想되고 있다.

다음으로 1977年의 日本의 対共産圏貿中에서 차지하는 対中共貿易의 比重을 살펴 보면 輸出의 경우 39.5%로서 対蘇聯輸出比重 39.4%보다 약간 높으며 輸入의 경우는 46.6%로서 対蘇聯輸入比重 42.9%보다 크게 높다. (<表 2>参照) 따라서 日本의 総貿易中에서 対中共貿易이 차지하는 比重은 여전히 극히 낮으나 対共産圏貿易中에서 対中共貿易이 차지하는 比重은 対蘇貿易과 함께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아무리 対中共貿易이 強化된다 하더라도 対蘇経済関係를 희생하면서까지 発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対蘇関係에 있어서 日·中共이 결코 利害関係를 같이 할 수 만은 없는 것이 政治 軍事的인 理由만이 아니라 経済的인 理由에서도 그러하다. 말하자면 日本으로서는 中共의 거대한 市場을 무시할 수 없듯이 시베리아開発等 対蘇経済協力関係의 強化도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表2> 日本의 対共産圏貿易現況 (1977)

(単位 : 千달러, %)

	輸出		輸入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中共	1,938,643	39.5	1,547,344	46.6
蘇聯	1,933,877	39.4	1,421,875	42.9
東欧諸国	736,326	15.0	209,334	6.3
北韓	125,097	2.5	66,618	2.0
其他	176,064	3.6	73,369	2.2
計	4,910,007	100.0	3,318,540	100.0

資料 :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78, 東京, 1978.

日・中共貿易의 商品構造를 살펴 보면 77年에 日本의 対中共 輸出商品은 거의 大部分인 8? %가 重化学工業製品인데 비해 輸入商品은 原油, 毛糸等 原材料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年度別로 日本의 対中共輸出入商品을 살펴 보면 重化学工業製品의 輸出이 70年에 94%로 최고를 記録한 以後 계속 90%内外를 나타내고 있으며 輸入의 경우에는 1970年에 原料 및 食料品이 全体 輸入의 67.1%를 차지하였으나 75年에는 이들 商品이 30%로 크게 減少된 反面에 原油 및 石油製品이 48%로 큰 比重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76年과 77年에도 계속되어 原料 및 食料品이 各各 36%, 35%를 占하였고, 原油 및 石油製品이 各各 41%, 42%를 차지하였다(<表 3,4>参照).

따라서 日・中共貿易의 基本的 패턴은 中共이 日本에 原油等 原資材를 販売하는 댓가로 経済開発 및 工業発展에 필요한 生産施設財를 導入하고 있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한편 日・中共貿易은 中共의 国内与件과 日・中共間의 国際政治状況의 推移에 크게 影響을 받아 왔으며 또한 中共主導型의 交易이고, 市場메가니즘에 의한 것보다 政治的条件에 左右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에 일정한 制約条件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表 3> 日本의 対中共輸出現況

(単位: 千달러)

	1970	1975	1976	1977	構成比(%)
計	568,878	2,258,577	1,662,568	1,938,643	100.0
食料品	-	7	7	64	
原料및燃料	7,338	18,198	7,132	13,714	0.7
軽工業品	27,597	185,538	184,140	233,085	12.3
繊維製品	21,232	122,694	161,926	198,240	10.2
重化学工業製品	533,520	2,038,759	1,464,401	1,665,419	85.9
化学製品	138,280	452,666	205,021	342,531	17.7
金属製品	276,076	890,171	866,694	1,105,660	57.0
機械機器	119,164	695,923	392,685	217,228	11.2
再輸出 特殊取扱品	423	16,074	6,888	21,361	1.1

資料: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78, 東京, 1978.

<表 4 >　　　日本의 對中共輸入現況

(単位 : 千달러)

	1970	1975	1976	1977	構成比(%)
計	253,818	1,531,076	1,370,915	1,547,344	100.0
食料品	66,975	202,037	247,471	252,457	16.3
原料品	110,067	248,327	249,187	281,015	18.2
纖維原料	35,540	90,010	107,868	129,750	8.4
鉱物性燃料	6,422	763,609	591,469	684,518	44.2
石炭	4,439	17,463	12,045	19,895	1.3
原油	-	740,154	568,063	654,687	42.3
加工製品	63,154	306,312	276,167	319,961	20.7
化学製品	23,181	39,490	44,665	48,466	3.1
纖維製品	25,757	197,239	163,981	179,929	11.6
雑製品		40,536	34,600	55,028	3.6
再輸入 特殊取扱品		10,791	6,622	9,392	0.6

資料 ; <表 3 >과 同一

2. 経済協力現況

中共은 伝統的으로 自力更生을 対内外政策의 基本目標로 追求해 왔기 때문에 借款導入等의 資本協力은 最近까지 없었고 오로지 延払輸出에 의한 資本協力이 経済協力의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즉 日·中共間의 経済協力은 資本協力(民間)으로서 日本의 対中共 延払輸出에 의한 貿易信用의 供与와 그리고 技術協力으로서 플랜트 輸出에 따른 日本의 対中共技術提供이 全部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日本이 中共에 提供한 延払輸出은 거의 大部分이 中共의 플랜트 導入을 위한 供給者信用(Suppliers' credit)으로서 77年 3月 現在 総 11億弗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約 90%가 工場建設에 따른 機械設備의 導入을 위한 것이었다(<表5>参照).

한편 日本이 中共에 提供한 延払輸出額은 日本이 韓国에 提供한 것보다 額数面에서 작았으나, 中共이 計劃하고 있는 플랜트規模가 보다 大型이고 또한 今後 日-中共経済協力이 보다 強化될 것임을 豫想할 때 対中共延払輸出은 크게 拡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다음으로 日·中共間의 技術協力을 살펴보면 具体的 内容을 알 수 없으나 対中共 技術供与에 따른 로열티受取額이 76年의 경우 総受取額의 9%인 75億圓으로 韓国으로부터의 受取額 70億圓보다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技術導入에 있어서도 中共이 日本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6>参照).

<表 5 > 日本의 對中共 延払輸出現況 (承認베이스)

(77 年 3 月現在)

(単位 : 千달러)

	船舶	鉄道車輛	自動車	産業機械	其他	計
中共	3,607	-		986,511	117,798	1,107,916
北韓	-	2,217	19,061	300,778	64,285	386,341
韓国	114,253	5,027	29,078	1,233,171	479,169	1,860,698

資料 : 日本通商産業省通商政策局, 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 1977

<表 6 > 日本의 国別技術供与推移 (로열티受取額基準)

(単位 : 億圓)

	1972	1973	1974	1975	1976	構成比(%)
中共	…	47	42	…	75	9.0
韓国	…	34	52	47	70	8.4
台湾	…	…	27	29	47	5.6
인도네시아	…	36	20	48	45	5.4
필리핀	…	…	…	13	12	1.4
計	…	117	141	137	249	29.8
総額	322	415	541	666	834	100.0

註 : 東南亜国家以外에는 省略

資料 : 日本科学技術庁計劃局編, 科学技術要覧 1978.

또한 日本의 対中共建設進出実績을 살펴보면 73年 4月에는 76年 4月까지 総 5件에 135百萬圓에 達하였다. 內訳을 보면 工事施工이 3件, 技術監理가 2件이었다(<表7>参照).

<表7> 日本의 対中共建設受注実績(73.4 ~ 76.4)

(単位:千圓)

	件数	金額
工事	3	113,250
技術指導	2	21,830
計	5	135,080

資料:日本重化学工業通信社, 日本のプラント輸出戦略, 1977.

Ⅲ. 日·中共長期貿易協定의 內容과 経済協力方向

1978年 2月 日本과 中共은 長期貿易協定註)을 締結하고 78～85年의 8年間 貿易額을 200億弗水準으로 增大할 것을 合意한 바 있는데 最近에 와서는 協定期間을 1990年까지 延長하고 貿易額도 1,000億弗로 할 것을 協議한 정도로 日·中共貿易은 急進的으로 拡大될 展望이다.

더우기 1978年 8月에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이 締結됨으로써 日·中共間의 経済的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지난 10月 鄧小平의 日本訪問으로 한층 더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日·中共長期貿易協定은 民間레벨의 協定이지만 그 前文에 日·中共声明과 平等互恵, 有無相通, 輸出入均衡을 基礎로 両国政府의 支持를 받도록 明文化되어 있음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 協定期間(78～85)中 第1期(78～80)는 中共의 第5次 5個年計劃의 남은 期間이고, 第2期는 第6次5個年計劃期間(81～85年)에 해당한다. 特히 中共은 第1期의 3年間에 70～80億달러에 달하는 技術과 플랜트発注를 計劃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経済開発에 필요한 技術, 플랜트, 建設用資材 및 機械를 確保하고 반면에 日本은 中共으로부터 原油, 石炭등 에너지를 供給

註) 日本経済新聞, 1978.2.16 日字 参照.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協定의 主要内容을 살펴 보면

① 協定期間은 78～85年의 8年間으로 하고 貿易額은 往復合計 200億弗로 하며,

② 1978～82年의 5年間에 日本은 中共에 技術 및 플랜트 70～80億弗과 建設用資材, 機材 20～30億弗에 相当한 輸出을 하며 이것은 原則的으로 延払方式으로 하고,

③ 中共은 1978～82年의 5年間에 <表8>과 같은 内容으로 輸出하고 1983～85年에 対해서는 1981年에 決定하되 過去 5年의 実績을 根拠로 점차 높인다는 것이다.

<表8> 中共의 対日輸出品目(1978～82年)

(単位:萬톤)

	原油	原料炭	一般炭
1978	700	15～30	15～20
1979	760	50	15～20
1980	800	100	50～60
1981	950	150	100～120
1982	1,500	200	150～170

한편 河本日本通産相은 지난 9月 中共을 訪問하여

① 長期貿易協定을 1990年까지 延長하고 貿易規模도 크게 拡大하며 (800 ～ 1,000億弗程度로)

② 貿易拡大를 위해 閣僚級의 定期的政府間協議機構를 新設하며

③ 中共의 電力開発, 油田開発, 金, 알미늄等의 非鉄金属의 開発에 日本이 적극 協力하며

④ 科学技術協定을 締結하기로 合意하였다. 註)

이와는 별도로 78年 8月 12日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을 締結함으로써 正常的인 相互関係下에서 명실상부한 経済協力을 推進할 수 있게 되었다. 同条約은 前文 5条로 되어 있는데 第3条는 経済条項으로서 善隣友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互恵平等과 内政不干渉의 原則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 1984年 반둥会議에서 周恩来가 対中立国和解의 일환으로 제창한 平和5原則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両国이 相互最恵国待遇를 부여하고 去来通貨에 있어서 일방적 通貨使用을 금지하며 또한 貿易戦争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当該国의 国内法에 의한 紛争解決의 決定은 이에 相対国도 용납해야 하며 交易条件이 悪化되면 再調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叙上한 長期貿易協定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바와 같이 日·中共間 経済協力은 中共의 経済開発 및 工業発展에 필요한 重化学工

註) 日本経済新聞, 1978.9.14日字参照.

業部門플랜트 및 技術導入에 따른 延払輸出이 크게 拡大되리라는 것은 쉽게 豫想할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最近에도 계속되었는데 몇가지 主要 플랜트導入 現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78年의 日本의 対中共플랜트輸出中 가장 큰 規模는 5月 23日 新日本製鉄이 맺은 約 4千億圓의 上海宝山臨時海製鉄所플랜트輸出이었다. 이 製鉄所의 年産能力은 粗鋼 600萬톤으로 完工時期는 中共側 希望에 따라 1981年으로 정하고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번째 큰 規模는 日本 카네보(鐘紡)가 相談을 받은 초대형 폴리에스텔 直接連続重合플랜트 2基이다. 中共은 5月에서 6月에 걸쳐 石油化学繊維技術観察団을 파견하여 2千億내지 3千億圓에 달하는 폴리에스텔 一貫플랜트購買를 전제로 하여 欧美를 거쳐 日本을 시찰한 바 있다. 그 具体的 첫 시도가 폴리에스텔 直連重設備에 関한 技術로 76年 大河内 記念生産賞을 탄 바 있는 鐘紡과의 商談이었다. 具体的 規模는 第1基(18萬톤)와 第2基(53萬톤)를 합하여 年産 71萬톤이나 된다. 現在 日本의 年間 폴리에스텔 生産能力이 70萬톤이므로 이 플랜트規模의 程度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特記할 事項은 지금까지 中共이 거려해 왔던 借款의 導入이다. 78年 8月 河本通産相과 中共의 人民銀行長 李保華 사이에 中共의 石油, 石炭開発事業에 필요한 플랜트구입을 위해

日本輸出入銀行이 5年間 10億弗～20億弗相当의 資金을 供与하기로 合意한 바 있는데 金利는 經済協力開発機構(OECD)의 가이드金利인 7.5%이었다.

今後 日·中共経済協力拡大의 관건은 中共이 工業発展에 필요한 技術과 資本設備의 導入에 따른 外貨需要의 解決問題이다.

中共은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 石油探査 및 開発에 注力하고 있으나 日·中共間의 合意内容만큼 中共의 対日石油輸出이 可能할지 疑問視된다.

中共의 石油 埋藏量은 90～200億톤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1977年에는 86百萬톤의 原油를 生産했고 78年에는 거의 1億톤을 生産할 것으로 豫想된다. 1977年에 15百萬톤이 海外로 油出되었는데 이 中·日本에 輸出된 量은 6.3百萬톤으로 이것은 中共総生産量의 7.3%, 総輸出量의 約 42%이었다.註)

西欧先進技術의 導入으로 探査가 계속되고 또한 現在의 油田에서 中共의 採油技術이 改善됨에 따라 対日原油輸出量은 급속히 늘어날 展望이다.

日·中共長期貿易協定의 原案에 의하면 日本은 1982年까지 年間 7百萬톤의 輸入量을 18百萬톤으로 增加시키게 되어 있었다. 이 協定은 후에 改正되어 지금부터 1985年까지 40～50百萬톤을 輸入하게 되었다. 이러한 内容은 河本通産相이 1978年 9月 北京

註)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22, 1978, P.45.

을 訪問했을 때 日·中共政府間에 合意되었다. 河本은 帰国하여 自国의 電気, 石油会社들로 하여금 자신의 計劃에 協力하여 1990年에 年間 50百萬톤의 中共産原油輸入을 增加토록 요청했는데 이 量은 日本総石油輸入의 1/8에 該当하는 것이다.

中共이 과연 1990年에 日本에 50百萬톤을 輸出할 수 있을지를 豫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中共의 国内石油消費는 60年代末以来 점차 增大하기 시작하여 1977年에 総生産의 83%가 国内에서 消費되었다. 中共이 1990年에 이 水準으로 維持할 수 있다 하더라도 50百萬톤을 輸出하기 위해서는 約 300百萬톤을 生産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国内消費를 生産의 90%로 잡는 것이 合理的인데 이것은 中共이 日本에 上記量을 輸出하기 위해서는 該当年度에 500百萬톤을 生産해야 함을 意味한다. 만약 北韓等 여타국가에 대한 需要圧力이 가중될 때는 더 많은 量을 生産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 中共의 未発表 1990年의 原油生産量은 400百萬톤인 것으로 알려 졌다.註)

中共의 石油와 関聯된 또 한가지 問題点은 中共産石油가 中東産에 비해 유황성분은 적으나 重質油이기 때문에 莫大한 施設費를 들여 重質油分解施設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中共은 이와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豫想되는 外貨需要를 메꾸기 위해 外国借款不可論을 止揚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加工

註) Seling Harrison China Oil & Asia(Columbia Univ. Press, 1977), Chap.2.

보세무역과 合作会社設立等에 積極的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対外貿易에 있어서도 具体的 財源調達을 위해 輸出増大策이 摸索되었다. 지난 78年 7月 2日 「財政과 貿易을 大慶과 大寨에서 배우자」는 全国会議에서 금세기말까지 「社会主義化 強国」을 建設하기 위해 原則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思想的 속박에서 탈피하여 柔軟性과 融通性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政策的 탄력성을 강조하는 한편 輸出増大를 위한 7가지 方式을 発表하였다.

2. 内容을 살펴보면,

① 補償貿易方式으로 輸出商品製造에 必要한 機械, 設備, 技術을 購買者가 提供하고 그 代金은 製造된 商品으로 支払하는 方法

② 加工貿易方式

③ 部分品의 受注生産方式

④ 購買者側 商標의 採用

⑤ 附属品은 外国購買者의 것을 使用하는 方法

⑥ 디자인은 購買者의 것을 使用하는 方法

⑦ 包装用資材는 購買者의 것을 使用하는 方法

이 밖에 合作形式으로 外国投資를 받아들이기 위해 中共은 홍콩과 接境한 鉄道中心地인 深圳, 마카오 부근의 쿵페이, 上海, 天津에 輸出自由地域을 設定하고 멀리 内陸의 吉林省과 山西省에도 輸出基地를 設置, 輸出拡大策에 부심하고 있다.

Ⅳ. 日·中共経済協力이 韓国에 미치는 影響과 그에 대한 対応策

앞으로 日·中共関係가 経済的으로 긴밀히 展開됨으로써 우리나라는 直接·間接으로 상당한 影響을 받을 것이다. 우선 輸出과 資本導入面에서 競争関係에 놓이게 되고 反面에 中共이 資源의 輸出国이면서 技術의 導入国의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資源이 不足하고 中共에 비해 技術이 앞서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中共과 協力関係를 모색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日·中共間의 経済協力이 進展되고 深化됨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될 影響을 살펴 보면,

첫째, 貿易面에서 日·中共間 経済協力의 進展으로 日本市場에서 中共商品과의 競争이 불가피하며 特히 繊維 및 衣類, 食料品, 工芸品等의 労動集約的인 商品에서 이러한 様相은 두드러 질 것이다.

이밖에도 中共과 日本과의 交易 및 経済的関係의 緊密化는 우리나라의 加工貿易分野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해 올 構造的 与件에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特히 中共이 最近 그들의 풍부한 賦存資源과 労動力 및 新技術의 과감한 導入을 바탕으로 対外貿易政策을 적극적인 方向으로 推進하여 감에 따라 종전과 같은 経済運営管理体制의 硬直性 対外貿易活動에 있어서 마켓팅의 未熟, 品質 및 디자인의 低位性에 따른 우리나라의 相対的인 比較優位性은 더 以上 누릴 수 없다는데 根本的인 問題点이 있다. 또한 中共은

原価概念이 資本主義国家들에 비해 相対的으로 희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輸出採算性을 도외시한 政策的 動機에서 輸出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対日輸出은 勿論 全体的인 輸出이 中共에 比해 오히려 比較劣位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産業構造面에서 살펴 볼 때도 中共이 向後 鉄鋼, 非鉄金属 油田, 発電所, 港湾等 120個項目의 大型프로젝트建設計劃을 推進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大·中·小企業間의 系列化 및 特히 機械工業의 専門化, 協業化에 의한 製品의 標準化, 系列化에 力点을 두며 化学工業部門에서는 化学繊維, 프라스틱等 石油化学系列工場을 적극 育成한다는 中共의 長期発展計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現在 推進하고 있는 長期経済開発計劃과도 一致한다는 点에서 금후 競争関係가 不可避할 것으로 豫想된다.

세째, 資本導入面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에 進出한 日本人資本의 大部分이 우리나라의 低廉한 労動이 重要한 進出動機였다는 点을 감안한다면 日本人資本의 相当部分이 그들이 우리나라에 進出한 動機面에서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絶対的으로 유리한 中共으로 転向할 可能性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금후 상당한 競合関係가 豫想된다.

1978年 6月 現在 日本人投資額은 우리나라 全体 外国人投資認可額의 59.2%에 該当하는 528,837千弗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의 大部分이 製造業部門에 (全体投資額의 75.9%) 投資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化学工業部門에 25.4%, 繊維衣類製造業部門에 23.1%, 그리고 電気, 電子工業部門에 21.1%가 集中的으로 投資되

고 있다. 그리고 이들 企業의 1977年度 輸出実績이 資料入手困難으로 除外된 企業体를 除外하고도 우리나라 総輸出実績의 12%를 占하였다. 한편 이들 日本人 投資企業体(合作, 直接投資, 技術提携包含)에 従事하는 従業員数가 166,622名으로 1977年末 現在 우리나라 1,2次産業에 従事하는 総従業員数의 2.7%, 2次産業만은 約 6%를 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日本의 資本進出이 우리나라経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悪影響들은 비단 日本市場하나에 국한되는 問題가 아니고 日·中共間의 経済協力強化가 美国을 위시한 西欧諸国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이러한 不利한 影響은 보다 폭넓게 展開될 것으로 豫想된다. 더우기 中共의 거대한 市場을 겨냥하고 日本, 美国, EC諸国들이 競争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国家들의 対中共経済協力이 強化되면 強化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이들 先進諸国에 進出하는데 있어서 위에 든 理由들로 말미암아 中共과 競合関係에 서게 될 것이다.

네째, 이러한 経済的인 直接的影響外에 間接的인 影響으로는 日·中共間 経済協力의 結果, 中共의 経済力이 強化되고 이에 따른 中共의 국제적 지위가 보다 向上됨으로써 北傀가 中共으로부터 얻게 될 反射的利益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否定的인 側面外에 긍정적인 側面도 없지는 않다. 日·中共間 経済協力의 推進은 中共内에서의 実用主義路線의 産物이므로 이러한 指導路線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東北亜의

緊張緩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中共역시 東南亜諸国, 特히 ASEAN을 포함한 새로운 経済協力体制의 구축이 불가피함을 中共과 이들 東南亜諸国은 相互間에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利用하여 経済協力体制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中共과의 長期的인 協力関係를 模索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도 않다. 말하자면 우리가 先進工業国에 비해 오히려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労動集約的 軽工業 플랜트部門 및 建設部門等의 技術을 提供하고 中共으로부터 特定한 原資材를 導入하는 方式과 같은 長期的인 経済協力을 模索해 볼수도 있다는 점이다.

日·中共経済協力推進이 가져 올 影響에 대한 몇가지 対応策으로서는

첫째, 経済的인 側面에서 労動集約的인 商品輸出에서 技術集約的인 商品輸出로 輸出構造를 転換시키기 위해서 現在 推進하고 있는 重化学工業化計劃을 보다 가속화시킴은 勿論, 産業構造의 再編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輸出市場을 다변화하여 現在의 지나친 対日依存度를 탈피함으로써 日本市場에서의 中共과의 競爭을 보다 완화시키고 오히려 商品의 品質, 마켓팅面에서의 優位를 確保해야 할 것이다.

세째, 経済外交를 強化함으로써 中共을 包含한 새로운 東아시아의 経済秩序구축을 위해서 노력함은 물론 特히 対東欧外交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의 国際的 地位를 높임과 아울러 이들 東欧를 통한 対共産圏接近을 模索해야 할 것이다.

<附錄>　　日本의 1978年度 対中프렌트輸出現況

1. (5.23)	上海宝山臨海製鉄所 프렌트輸出技術協力方法議定書 調印 o 綜合受注会社 : 新日本製鉄
2. (6.23)	人工皮革製造設備 <日中長期貿易協定内의 프렌트輸出 第一号> o 受注会社 : 西日本貿易 o 総 額 : 70 億圓 o 準現金条件 o 年 産 : 30萬平方메터
3. (6月)	칼라테레비 부라운관용 유리진공관 제조설비 <日中長期貿易協定内의 프렌트輸出 第二号> o 受注会社 : 明和産業, 共栄商事 o 総 額 : 130 億圓 o 準現金条件 o 年 産 : 100萬個
4. (7. 1)	칼라테레비 Shut Mask 製造設備 o 受注会社 : 新東邦, 日商岩井 o 総 額 : 20 億圓 o 準現金条件 o 年 産 : 70萬枚

5.	大慶에치렌 製造設備
(7. 4)	o 受注会社：丸紅
	o 総 額：250 億圓
	o 準現金条件
	o 年 産：30萬 ton
6.	吉林省 에치렌製造設備関係 機器
(3월말	o 受注会社：三菱商社 (21 億圓), 東工物産 (15 億圓)
~ 6.3)	丸紅 (9 億), 其他会社 (5 億)
	o 総 額：50 億圓
	o 수시 매입条件
	o 年 産：31萬 ton
7.	MDI 프랜트
(9. 1)	o 受注会社：日揮
	o 総 額：六件 七十億圓
	o 年 産：一萬 ton

시 베 리 아 開 発 政 策 展 望

The Prospect of the Siberian Development Policy

研究執筆責任：　金　容　九

（略歴）　서울大　文理大　外交学科卒業（1961年）

同　大学院　碩士（1964年）

現在　서울大社会大　外交学科　助教授

（1972年부터）

目　　次

第一　問題의　範囲 ………………………………………… 399
第二　소련의　에네르기供給－需要構造와　시베리아開発의
　　必要性 ………………………………………… 402
1）1980年　1990年　소련의　에네르기　供給－需要
　　Projection ………………………………………… 402
2）소련의　에네르기　需要増加와　시베리아開発의　必要性 ……… 406
第三　第10次　5個年計劃과　시베리아開発 ……………… 411
1）一般的인　目標 ………………………………………… 411
2）一般的인　問題点－労働力問題 ………………………… 414
3）石　油 ………………………………………… 418
㉮　石油의　主要性 ………………………………………… 418
㉯　石油生産의　地理的分布 ………………………………… 418
㉰　시베리아石油資源開発의　問題点 ……………………… 424
4）天然가스 ………………………………………… 426
㉮　天然가스의　主要性 ………………………………………… 426
㉯　가스生産地의　分布 ………………………………………… 426
㉰　시베리아가스開発의　目標 ……………………………… 428
㉱　시베리아가스開発의　問題点 ……………………………… 429

5) 石 炭 …… 431
㉮ 石炭의 位置 …… 431
㉯ 우랄山脈以西 石炭生産의 問題点 …… 432
㉰ 시베리아石炭의 開発과 目標 …… 432
第四 結 論 …… 435

第一 問題의 範囲

시베리아開発이란 그自体 広範囲한 問題로서 크게 地域開発과 経済開発의 問題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問題는 서로 緊密한 関係를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経済開発問題만을 다룬다. 経済開発問題 또한 그 모든 側面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에네르기資源의 開発政策에 局限하여 본다.

에네르기資源은 fossil fuels와 水力, 原子力資源으로 大別된다. 그러나 소련의 에네르기問題는 主로 fossil fuels 問題에 帰着된다고 볼 수 있다. 소련経済의 에네르기使用量에서 fossil fuels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年 까지도 에네르기의 全体供給量의 $\frac{3}{4}$을 Fossil fuels가 占할 것이라고 豫測되고 있다.

따라서 石油 天然가스 石炭에 관한 시베리아開発의 問題에 重点을 둔다.

이러한 問題를 検討하는데 있어서 먼저 소련経済構造上 왜 시베리아의 에네르기資源의 開発이 必要하고 不可欠한 것인가를 살피고 다음으로 1976年~1980年間 第10次 5個年計劃에서 시베리아의 地位를 検討하고 시베리아의 에네르기 資源의 個別問題에 대한 開発目標와 問題点을 列挙한다. 끝으로 計劃대로 시베리아의 에네르기資源이 開発되는 경우 그것이 東北亜国際政治秩序에

미칠 影響을 살피면서 그친다.

現在 소련의 경우에 1976 - 1990年間 長期 에네르기計劃이 아직 未完成段階에 있으며 專問家들간에 여러 見解들이 露出되어 있을 뿐 아니라 各界의 專問家들의 会議가 시베리아各地에서 開催되고 이러 計劃들을 政府에 건의하고 있는 実情이다. 따라서 시베리아의 에네르기資源開発의 具体的인 計劃이나 시베리아 各地域의 具体的인 状況에 따른 生産專問化計劃이 具体的으로 確定되어 있는 段階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 大体的인 方向의 윤곽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베리아는 소련의 現行 経済-行政区分에 의하면 西시베리아 東시베리아, 極東의 세 経済地区로 구성되고 그 모두가 러시아社会主義聯邦소베엘共和国 (RSFSR)에 属하고 있다.

시베리아地域은 그 西는 東経 60° 의 우랄山脈으로부터 東은 베링海에 臨하고 있는 東経 170°의 Chukotskii 半島까지 南은 北緯 42.3°의 北韓과의 国境地点으로부터 北은, 北氷洋上의 島嶼를 除外하고도 北緯 78°의 Taymys 半島의 北端까지 包含하고 있다. 面積은 실로 1276萬㎢로서 全소련의 57%에 該当하는 광활한 領域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地域의 人口는 2600萬에 不過하여 全소련의 総人口의 11%에 該当되어서 그 人口密度는 소련全体 平均인 10.6人/㎢에 대하여 시베리아와 極東의 平均은 2.0人/㎢이며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西시베리아가 5.0人/㎢, 東시베리아가

1.8人/㎢, 極東은 0.9人/㎢,인 것이다. 이것은 시베리아, 極東地域의 大部分이 北緯 60° 以北에 属하고 있어서 永久的인 凍土地帯이며 taiga 라는 密材地帯이어서 経済開発에 이르지 못하여 왔었고 人口는 주로 시베리아鉄道를 따라서 集中的으로 分布되어 있는 実情을 말하여 주고 있을 것이다. 上述한 시베리아 極東의 面積과 人口는 表 I 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I> 시베리아 極東의 面積과 人口 ①

地域別	面積		人口	
	1,000 ㎢	100.0	1,000 人	%
소련全体	22,402	100.0	250,869	
소련의欧州地域	5,948	27.0		
아시아地域	16,324	73.0		
西시베리아	2,427	10.8	12,291	5 内外
東시베리아	4,123	18.4	7,733	3 内外
極東	6,216	27.8	6,300	2 内外
合計	12,766	57.0	26,324	10 %未満

第二 소련의 에네르기 生産-需要 構造와 시베리아開発의 必要性

(1) 1980年 1990年 소련의 에네르기의 生産-需要 Projection

소련의 에네르기需要는 国内需要와 輸出로 大別되고 輸出은 COMECON 諸国에의 輸出과 貿易赤字를 補塡하기 위한 其外 国家에의 輸出로 나눌 수 있다.

소련의 国内需要는 主로 固定消費者(stationary users)(最終需要, Process steam 및 電力)에 의하고 있는데 모든 燃料使用量의 $\frac{4}{5}$를 占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에네르기政策의 関健은 격증하는 Boiler Market (이中에서 Power Plant 가 75%를 차지하고 있다)의 需要에 対応할 수 있는 燃料의 選択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70年代初의 경우를 보더라도 全体 石油生産의 $\frac{1}{4}$, 全体 天然가스生産量의 $\frac{1}{5}$이 모두 電力, Steam 그리고 hot water 生産을 위하여 消費되었다. ②

COMECON 諸国에의 輸出은 이들 国家들이 소련의 石油, 天然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또 Coking Coal과 電力에도 어느程度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소련의 이들 諸国에 대한 約束을 履行될 것이다. 이들 東欧諸国에 대한 石油 天然가스 그리고 石炭의 輸出이 1965年으로 부터 1975年간의 增加추세는 表Ⅱ, Ⅲ, Ⅳ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Ⅱ> 소련의 石油輸出 ③

(단위 million tons)

	1965	1970	1974	1975
総額	64.4	95.8	116.2	130.3
対共産国家	28.9	50.4	71.7	77.7
東欧諸国	22.4	40.3	58.7	63.3
非共産国家	35.5	45.4	44.5	52.6

<表 Ⅲ> 소련의 天然가스輸出 ④

(단위 : 10 億立方미터)

	1965	1970	1974	1975
総額	0.4	3.3	14.0	19.3
東欧諸国	0.4	2.3	8.5	11.3
非共産国家	0	1.0	5.5	8

<表Ⅳ> 소련의 石炭輸出 ⑤

(단위 : 百萬 ton)

	1965	1970	1974	1975
総 額	22.4	24.5	26.2	26.1
対共産国家	14.8	14.7	16.4	16.5
東欧諸国	13.6	13.0	14.8	14.8
非共産国家	7.6	9.8	9.8	9.6

1976年 - 1980年間 소련의 COMECON 諸国에 対한 輸出約束 보면 ① 天然가스가 900億 立方미터 ② 石油 364 million tons ③ 電力 67 Pillion KWH로 되어 있는데 다음 表Ⅴ, Ⅵ에서 보듯이 1980年代에 있어서 石油輸出의 급격한 増加는 없다손 치더라도 天然가스의 輸出은 2～3倍 増加할 것이다.

에네르기의 国内需要의 年増加率은 1970年으로 부터 増加하기 시작하여서 1970年 - 1975年間의 第9次 5個年計劃期間에는 年増加率은 5.1% 였으며 이것은 1960年代 後半期의 그것을 上廻하는 것이었다. 1976年 - 1980年 第10次 5個年計劃으로부터 1980年의 에네르기 消費量은 表Ⅴ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表는 1970年代 後半期에 있어서 에네르기消費의 年増加率을 5%로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80年代에 있어서 소련의 GNP年成長率을 4.5%~5%로 仮定한다면 1980年代의 에네르기 消費量의 年增加率은 적어도 4.5%以上을 上廻할 것으로 豫測된다. 따라서 Dienes, L 교수는 4.5%, 5%를 각각 想定한 1990年에 에네르기 消費量의 推定을 表VI과 같이 作成하였다.

<表V> 1980年 소련의 에네르기需要와 生産 ⑥

	生 産	輸 出	消 費	SF로表示된 消費量 (百萬 ton)
天然가스 (10億立方미터)	400 - 435	35	390	466
石 油 (百萬 ton)	620 - 640	120	510	729
石禍炭 (百萬 ton)	790 - 810	20	780	540

(SF 即 Standard Frel 이란 良質의 石炭 1 ton 의 熱量으로서 7百萬카도리에 該品)

<表VI>　1990年 소련의 에네르기需要와 生産 ⑦

	生 産	輸 出	消 費	SF로表示된 消費量 (百萬 ton)
天然가스	900	90	810	968
(10億立方미터)				
石油	800	100	700	1,001
(百萬 ton)				
石炭	1,165		1,135	720
(百萬 ton)	1,270	30	1,240	775
	1,495		1,465	859

上記 表V, VI는 에네르기資源中에서 天然가스 石油, 石炭만을 表示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모든 에네르기 使用量의 95%를 占하고 있으며 이런 比重은 그대로 계속되어 今世紀末의 경우에도 거의 75%를 차지할 것이라고 展望되기 때문이다. ⑧

(2) 소련의 에네르기 需要增加와 시베리아開発의 必要性

소련의 시베리아開発促進에는 政治 軍事的인 要因이 있겠으나 그것은 무엇보다 経済的인 必要에서 그 開発이 不可欠한 것은 表VII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点은 에네르기 問題만을 보더라도 明白하여 진다.

소련의 에네르기問題의 크나 큰 難点은 그 生産地와 需要地간의 遠距離라는 点에 있다.

<表Ⅶ> 소련의 全工業生産量에 있어서 시베리아의 比率⑨

	1940	1960	1970	1975	1980
全生産量	8.0	9.5	9.9	10.2	11
電　力	6.5	15.0	17.9	19.0	20
原　油	1.6	1.1	9.6	30.0	48 - 50
天然가스	거의없음	0.7	5.6	13.0	30 - 40
石　炭	23.5	28.0	31.9	34.0	38
鋼　鉄	10.4	8.4	8.1	10.0	12
化学繊維	거의없음	15.8	13.0	11.0	15
木　材	22.9	25.7	32.8	35.0	35 - 40

現在 소련의 에네르기消費地域의 分布는 우랄地域과 Caucasus 地域, 그리고 소련의 欧洲地域에서 에네르기 全生産量의 $\frac{4}{5}$를 消費하고 있으며 Volga, Kara 河以西地域에서만도 55%를 消費하고 있는 実情에 있다. 그런데 이 地域은 数十年以来의 採査로서 그 Cost가 増加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埋藏量도 限界点에 到達

하고 있어서 소련의 아시아地域으로 부터의 에네르기搬入이 不可避 할 뿐 아니라 시베리아의 에네르기資源開発이 소련経済発展을 左右하 하게 된 것이다.

Dienes F.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1980年以後로는 소련의 欧洲地域과 우랄地域은 必要한 에네르기의 60%만을 自体에서 生産하게 될 것이고 1980年代末에는 그것이 40%로 감소하게 된다고 展望하고 있어서 소련의 東部地域으로 부터의 에네르기搬入과 그 開発이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⑩

이와같이 소련의 아시아地域으로부터 소련의 欧洲地域으로의 에네르기輸送이 重要한 것은 表Ⅷ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지 이 表의 移動量中에는 中央아시아地方의 에네르기生産量도 包含되고 있으며 또한 移動된 에네르기中에서 소련의 欧洲地域에서의 需要分 以外에 海外輸出分도 包含됬으리라 추정되지마는 그 大勢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表를 表Ⅴ와 比較하면 1980年에 있어서 시베리아의 重要性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開発의 必要性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表Ⅷ> 소련의 아시아地域으로부터 소련의 西部地域으로 移動量 ⑪

	1970	1975	1980
石油 (百萬 ton)	15.0	113	242
天然가스 (10 億立方미터)	44.8	104	224
石炭	65.8	96	120
SF로表示된 総計	130.0	361	708

① 소련의 欧洲地域이 全에네르기 生産量의 80%를 消費하고 있는데 우랄以東地域은 第1次에네르기의 埋藏量의 80%를 保有하고 있다.

② 소련은 主로 소련의 欧洲地域에서 生産되는 에네르기를 東欧諸国의 需要에 応하고 있다.

③ 소련의 欧洲地域의 에네르기保存量은 고갈되고 있으며 그 開発費用이 보다 더 增加하고 있다.

④ 西시베리아의 応大란 保存量으로부터의 石油生産增加는 5~6

年以内에 감소될 것이고 또다른 油田의 開発을 東시베리아나 소련의 極東地域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련은 그 経済開発에 있어서 西方의 技術과 装備가 必要하여 그 輸入이 不可避하여 1975年의 경우 貿易赤字는 60億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의 石油와 가스 其外의 地下資源의 輸出로서 必要한 것을 西方으로부터 輸入할 수 있다.

⑥ 시베리아의 電力과 資源에 立脚한 化学工業과 其外의 工業発展은 西方으로 부터의 輸入依存을 경감시킬 것이다. ⑫

第三　第10次　5個年計劃과
시베리아의　開発

1) 一般的인　目標

「1976年-1980年　소련経済発展의　基本方向」에　보면　燃料工業 電力多消費型의　製鋼　및　非鉄工業, 化学工業, 石油化学工業, Pulp 製紙工業을　시베리아에서　加速度的으로　発展시킬　것을　計劃하고　있다고　한다. ⑬　이러한　시베리아開発은　소련共産党과　소비엔国家의 綱鉄的인　姿勢라고　宣伝하면서　그　윤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Kansk-Achinsk　炭田에　있어서　広大한　露天발굴의　炭坑을 건설할것.　Achinsk　石油加工工場의　第一期工事를　完成할것. Sayan　地域　生産　Complex의　発展을　계속할것　사얀-슈센스크水力発電所의　最初의　発電装置를　稼動시켜　아얀　알미늄工場의　몇몇　電解工場의　稼動을　保障하고　미누신스크에　있어서　電気機器工場 complex의　第一期工事를　完成시킬것. 보프찬水力発電所의　전설을 開始할것.　Bratsk-ustllimsk　地域의　生産 Complex의　形成을 大体로　完了하고　Ust-llimsk 水力発電所의　全稼動을　保障하고 SEV諸国의　参与를　얻은　Pulp 工場의　建設를　完了할것.

②　極東에　있어서는　経済의　綜合的　発展　非鉄金属　稀金属, 貴金属이라든가　다이아몬드의　採取増大, 木材, Pulp, 家具等　各工業製品

의 生産商의 増大를 保障할것. 제야水力発電所의 建設을 完成하고 불레야水力発電所의 建設을 展開하며 고루미아水力発電所의 最初의 発電装置를 稼動시킬것. 現存 港湾의 拡大, 充実, 改修, 船団의 更新, 水深이 낮은 워스도치누이港의 건설을 계속할것.

③ BAM鉄道沿線의 生産力의 綜合的発展을 위하여 地質調査 및 科学研究의 作業을 현저히 強化할것. BAM鉄道의 個個 区間의 建設이 完成함에 따라서 그 沿線의 天然資源開発을 고려할것.

④ 南Yakut 地域의 生産Complex 의 形成에 着手할것. 딘타-베르가기드間의 鉄道를 건설할것. 네륜그린露天발굴炭坑 및 発展所의 건설을 展開할것 등등이 主要한 開発事項이며 目標이다. (14)

이러한 大体的인 目標設定과 더불어 Nekrason, N.N. 은 西시베리아地域의 開発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西시베리아에 있어서 1980年의 石油採取量을 3億~3億1,000萬ton, 가스의 採取量을 1150 ~ 1450 億立方미터까지 引上할 計劃이라는 것이다. 또한 Kuzbas의 石炭採掘量을 1億6100萬ton으로 引上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소련의 極東地域発展은 다음의 두가지 経済的要素로서 그 基本方向이 決定된다고 한다. 첫째 시베리아의 저렴한 電力을 使用하여 生産된 商品을 将次 소련의 極東地域의 諸港口를 経由하여 輸出된 것이며 둘째, 極東経済의 生産専門化는 中部시베리아経済의 発展方向과는 어느程度 다른 特性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소련領極東의 天然資源의 構造는 매우 多様하여서 소련全体의 立場에서 볼때 크나큰 意義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現在의 探査水準으로부터 判断할때 有用鉱物의 巨大한 産地가 発見될것이 合明하다고 展望하고 있다.

Yakut 自治共和国의 西部에서는 다이야몬드採掘工業이 나타날 뿐 아니라 소련領極東의 全地域이 金, 鉱, 銅, 탕그스텐, 鉛, 亜鉛, 水銀 등등의 貴重한 鉱物의 産生場帯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非鉄金属과 稀金属의 巨大한 産地로서 極東의 生産専門化의 範囲를 拡大시키고 있다고 한다.

소련極東의 経済的容貌를 決定하고 있는 것은 全소련的인 生産専門化의 크나큰 分野로 되고 있는 非鉄金属工業(特히 錫, 탕그스텐, 水銀의 採取와 選鉱)다이야몬드와 金의 採取. 이 地域의 国民経済를 에네르기資源에 의해서 完全히 保障할 뿐 아니라 에네르기資源의 若干部分(天然가스 石油)을 輸出할 수 있게 하는 에네르기部門. 機械製作 및 其外의 生産部門의 発展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고 있는 大製鉄企業의 건설, 水材의 化学加工의 発達, 水産業인 것이다.

어느程度의 原料資源과 더불어 시베리아의 에네르기 多量消費生産品이 太平洋諸国에 輸出될 可能性이 있으며 시베리아의 工業製品이 世界市場에 進出할 여러方便이 소련領 極東을 거쳐 展開될 것을 展望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極東의 輸出基地化에 특히 注目되는 것을 合成物質, 鉱物肥料, Pulp 등을 에네르기 多量消費化学

製品이며 이에 의하여 시베리아와 極東의 生産的連結이 強化되고 各地域의 企業이 決定된다는 것이다. ⑮

그러나 이러한 시베리아 極東의 開発에는 資本 技術의 問題가 수반됨은 勿論이고 이 地域의 気候의 悪条件과 더불어 労動力不足이란 심각한 問題点을 内包하고 있는 것이다.

2) 一般的인 問題点 - 労動力의 問題

시베리아開発에는 특히 北緯60° 以北의 凍土地域의 에네르기資源의 探査 開発에는 高度의 技術과 莫大한 資本이 必要한 것을 말할 必要도 없으며 伝述하는 바와 같이 소련의 対美日交渉의 必要性이 여기에 있는 것은 周知의 事実이다.

이러한 制約以外에도 시베리아 開発에는 労動力不足이란 심각한 問題를 소련은 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소련全体의 人口増加率이 1970年以来 계속 低下되어 2000年의 경우 그 自然増加率은 1,000名에 대하여 5.8人에 不過하게 된다. 그런데 注目할 点은 시베리아地域이 属하고 있는 RS-FSR의 自然増加率은 계속 소련全体의 그것을 훨씬 下廻하는 것으로서 1990年에는 1,000人에 대한 自然増加率은 2.4人, 2000年의 경우에는 0.1人으로서 시베리아地域의 人口自然増加는 今世紀末까지 계속 低下 展望으로서 이것을 表Ⅸ으로 作成하였다.

이러한 絶対人口의 増加率이 계속 감소되는 問題外에도 1954年

<表 IX> 1950 ~ 2000 年 소련全体 및 RSFSR 의

人口動態率 (千名에 대한 比率) ⑯

年度	出生		死亡		自然增加	
	소련	RSFSR	소련	RSFSR	소련	RSFSR
1950	26.7	26.9	9.7	10.1	17.0	16.8
1960	24.9	23.2	7.1	7.4	17.8	15.8
1970	17.4	14.6	8.2	8.7	9.2	5.9
1980	19.2	16.7	9.3	10.2	9.9	6.5
1900	17.3	13.7	9.8	11.3	7.5	2.4
2000	16.0	12.4	10.2	12.3	5.8	0.1

以来 RSFSR 에서부터 其外地域으로의 移住民이 顯著하게 增加되고 있는 것도 問題이다. 1964 年 - 1973年間 이러한 移住民의 数는 거의 百萬人에 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表 X 은 말하여 주고 있다.

<表 X>　　地域移住民 (単位：千名) ⑰

	1954 ~ 63	1964 ~ 1973
RSFSR	− 1,511	− 952
Belorussia ukraine		
Baltic Republics	+ 185	+ 798
Moldavia		
Transcaucasus	− 22	+ 7
Kazakhstan	+ 1,364	+ 74
Central Asia	+ 442	+ 520

위에서 본 M.Feshbach 와 S.Rapawy 의 人口問題研究에 의하면 労動적령人口는 中央아시아의 Kazakhstan 에서는 1980 年代를 걸쳐 그 絶対人口増加率이 소련全体의 그것을 능가하고 Trans-caucasus 地方도 이런 増加率에 寄与할 것이다. 그런데 1980 年부터 RSFSR 와 Ukraine 地方에서는 労動적령人口의 総対数가 감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1980 年代 以後 소련全体人口의 自然増加率이 둔화되고 더욱 RSFSR 의 増加率은 소련全体의 그것을 크게 下廻할 뿐 아니라 RSFSR 地方으로부터 其外地方으로의 移住民의 増加추세가 그대로 계속 된다면 시베리아開発에 所要되고 莫大한 労動力을 如何히

供給하는가가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勞動人口의 不足을 補塡하기 위하여 海外勞動力을 投入하고저 하는 最初의 試図가 1973年에 이뤄졌고 그리고 其以後로 이러한 海外勞動力의 投入은 여러 経済活動과 諸形態로 発展되어 오고 있다.

시베리아地域에서 海外勞動力을 動員하고 있는 主要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Orenburg Pipeline의 建設을 들 수 있는데 이 Pipeline의 一部地域인 550 km 程度가 불가리아, 체코, 東独, 항가리 및 포란드의 勞動力과 資本으로 건설될 것으로서 外国勞動人은 거의 20,000名이 動員될 計劃이다.

Ust-Ilimsk의 Pulp와 製紙 Complex가 東시베리아의 Irkutsk 地域에 불가리아, 東独, 포란드, 루마니아 等의 勞動力이 投入되어 建設될 것으로서 総勞動人인 26,000人中에 海外勞動者는 2,000人을 헤아리고 있다. 또한 Orenburg oblast의 Kiegembavsk Asbestos 炭鉱에서는 東独등 6個国家로부터의 勞動者가 活動하고 있는 것이다.

海外勞動力을 획득하고 다른 方法은 그 勞動力과 生産物의 交換으로 이뤄지고 있다. 1973年의 경우 불가리아 勞動者들은 全소련의 23個地域에서 取業하여 그것이 30,000人에 達하고 있으며 또 約 7,000人의 北韓人이 Khabarovsk 地域의 伐木作業에 従事하고 있다는 데 이 数字는 增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⑱

이렇게 본다면 시베리아開発을 沮害하는 要因으로는 그 地域気候

의 悪条件 이에 따른 技術과 資本의 問題등과 더불어 이 広大한 地域開発에 投入될 労動力不足이란 深刻한 問題가 随伴되어 있는 것이다.

3) 石 油

(가) 石油의 主要性

石油의 絶対生産量에서 볼때 1976年은 520 million tons를 생산하고 1980年에는 620-640 million tons 그리고 1990年에는 1,000 million tons를 生産目標로 하고 있음은 表V, VI에서 보아온 바와 같다.

카로리의 観点에서 볼때도 石油는 소련의 에네르기 中에서 가장 主要한 것으로서 1975年의 경우 모든 에네르기 生産의 43%, 그 消費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石油生産의 年増加率은 1960年代 後半期에 있어서는 10.4%이었는데 1970年代 前半期에서는 그것이 6.8%로 下落하였으며 現行 5個年計劃에서는 그 年間増加率을 5.4%로 잡고 있다. 그리고 그 絶対量의 増加는 1970年代에 있어서는 年 30 million tons로 잡을 수 있으나 1980年代에 있어서는 表VI의 계산에서 보듯이 下落할 것이라고 展望되고 있다. ⑲

(나) 石油生産의 地理的 分布

天然가스의 경우와는 달리 現在 소련은 石油의 埋蔵量에

대한 正確한 発展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最大의 油田이 西시베리아 Samotlor 油田임은 分明하다. 여기에 시베리아地方의 主要한 에네르기資源의 分布와 Pipeline 의 건설現況은 表XI, XII, XIII에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소련의 欧洲地域의 大部分 油田은 이미 그 絶頂이 지나서 下降期에 접어 들고 있다. 1965年～1970年間에 있어서 소련의 欧洲地域이 石油의 生産増加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57% 즉 61 million tons 였으나 그러나 1975年에는 11～12 million tons 로 단지 8%에 머물고 있다. 이것을 全体生産量의 比率로 보면 82%에서 61%로 下落한 것을 意昧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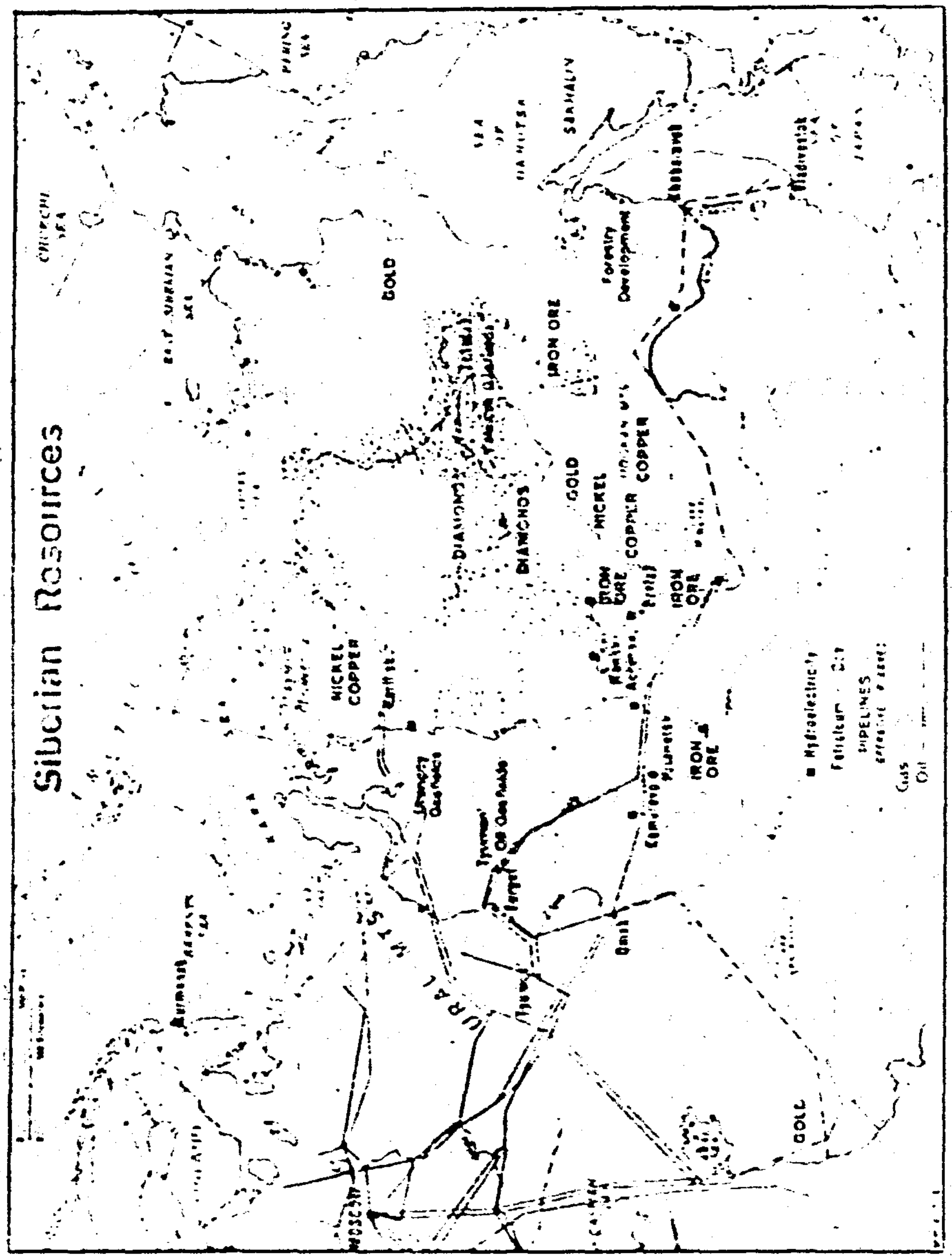
따라서 소련의 石油生産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西시베리아의 油田이 크나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開発이 소련의 에네르기政策의 中心課題일 것이다.

1970年代 後半期에 있어서 石油의 年間 生産増加量의 80%는 西시베리아 油田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격증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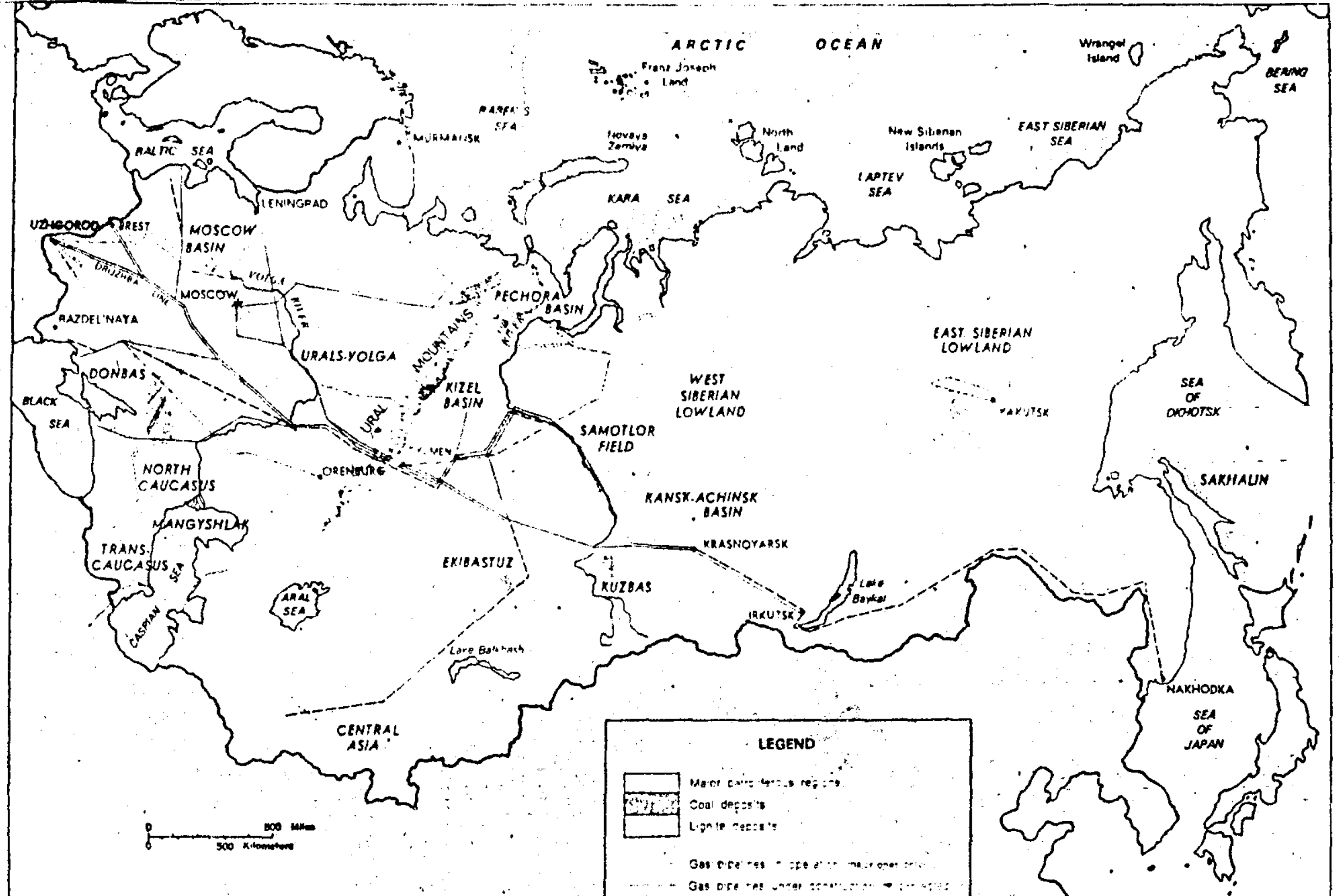
表XIV에서 보듯이 1976年에 西시베리아의 石油生産量은 182 million tons 로서 소련全体生産量의 35%, 1980年에는 300～310 million tons 生産目標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全体의 生産目標의 거의 5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西시베리아의 石油生産은 1964年 以後에 비롯된 것으로서 1975年의 生産量인 150 million tons 는 当初 計劃을 25 million

表：XI


Siberian Resources
GOLD
IRON ORE
DIAMONDS
NICKEL
COPPER
NICKEL COPPER
IRON ORE
Forestry Development
SAKHALIN
URAL MTS.
MOSCOW
Omsk
PIPELINES
Gas
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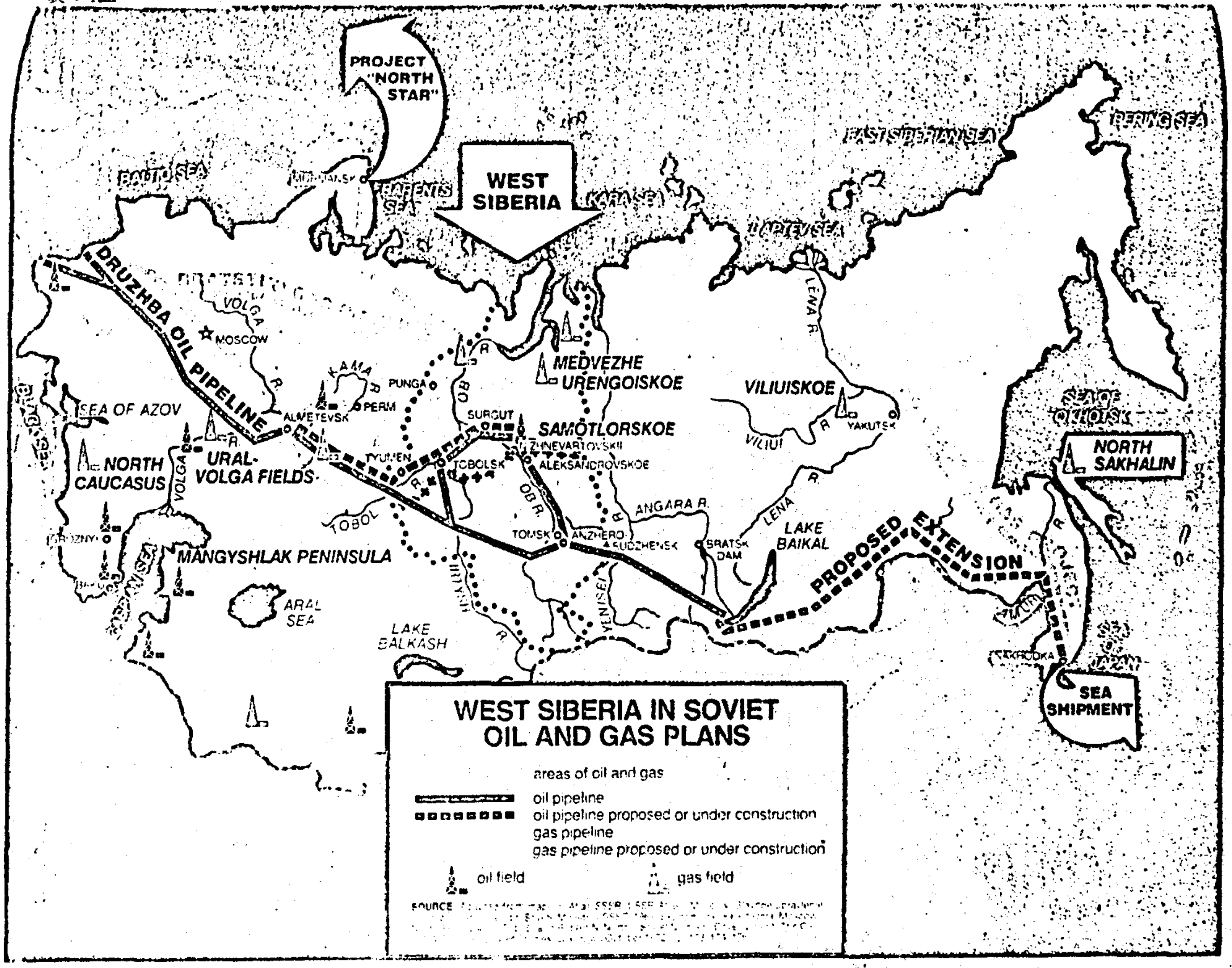
表：XII



SOURCES: Adapted for *Problems of Communism* by the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from a map on Soviet coal and lignite deposits published by the author in *Energy Policy* (Surrey, England), June 1973, p. 14, and from the map, "Major Soviet Petroleum Deposits, Pipeline Systems, and Refineries," published by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March [illegible] and distributed by the Documents Expediting Project of the US Library of Congress.

Soviet Coal and Hydrocarbon Resources

表：XIII



PROJECT "NORTH STAR"
WEST SIBERIA
BALTIC SEA
BARENTS SEA
KARA SEA
LAPTEV SEA
EAST SIBERIAN SEA
BERING SEA
SEA OF OKHOTSK
SEA OF JAPAN
NORTH SAKHALIN
SEA SHIPMENT
PROPOSED EXTENSION
DRUZHBA OIL PIPELINE
MOSCOW
VOLGA
KAMA R.
PERM
PUNGA
ALMETEVSK
SEA OF AZOV
NORTH CAUCASUS
URAL-VOLGA FIELDS
GROZNY
MANGYSHLAK PENINSULA
ARAL SEA
LAKE BALKASH
TOBOL
TYUMEN
TOBOLSK
SURGUT
OB R.
MEDVEZHE
URENGOISKOE
SAMOTLORSKOE
NIZHNEVARTOVSKII
ALEKSANDROVSKOE
TOMSK
ANZHERO-SUDZHENSK
YENISEI
IRTYSH
ANGARA R.
BRATSK DAM
LAKE BAIKAL
LENA R.
VILIUISKOE
VILIUI
YAKUTSK
AMUR
NAKHODKA
WEST SIBERIA IN SOVIET OIL AND GAS PLANS
areas of oil and gas
oil pipeline
oil pipeline proposed or under construction
gas pipeline
gas pipeline proposed or under construction
oil field
gas field
SOURCE

tons 를 초과達成한 것으로서 소련의 石油全生産量의 30%를 占하고 있으며 1976年에도 当初目標인 180 million tons 를 超過한 182 million tons 를 生産하여 全소련의 生産量의 35% 를 차지 하고 있다.

表XIV에서 보듯이 1976年 3月 25次共産党大会에서 결정된 計

<表 XIV > 西시베리아의 石油生産과 소련全体生産量의 比率㉔

	生産量 (百萬 ton)	比率
1965	0.9	0.4
1970	31.4	8.9
1971	44.8	11.9
1972	62.7	15.7
1973	87.7	20.4
1974	118.4	25.8
1975	150	30
1976	182	35
1980	300 ～ 310	47 ～ 50

劃에 의하면 1980年의 西시베리아에서의 石油生産量을 300 ~ 310 million ton 로 잡고 있어서 그것이 全生産量의 $\frac{1}{2}$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計劃은 1969年 12月 소련共産党 中央委員会에서 採択된 잠정計劃에 나타난 230 ~ 260 million tons 를 훨씬 上廻하는 目標인 것이다. 이러한 過大한 目標를 設定한 理由는 1976年의 生産量이 計劃目標를 超過達成한 事実에 있던지 아니면 其外地域에 있는 油田의 生産計劃이 取消되었던지 하는데 있을 것이다. ㉕

하여간 소련의 石油問題에 있어서는 西시베리아의 Samotlor 油田을 中心으로 하는 油田으로부터의 石油生産과 其外 시베리아 油田의 開発이 関健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 시베리아 石油資源開発의 問題点

위에서 보아온 바같이 西시베리아의 石油生産이 重要한 問題이며 西시베리아의 石油生産은 middle ob Basin 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地域의 油田開発에는 무엇보다 우선 道路建設의 Cost 가 높다는 難点을 갖고 있다. 1㎞当 0.5 million Rubles 가 所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西시베리아의 北部地方은 凍土로서 1㎞当 1.1 ~ 1.6 million Rubles 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million ob Basin 은 1970年代까지는 主軸을 이룬다고 하여도 1970年代末에 이르러서는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巨大한 Samotlor 油田도 1978年을 絕頂으로 下降期에 접어 들어 가는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서 새로운 油田의 探査, 開発이 問題되고 있는 것이다. ㉕

다시 말하자면 소련에서는 石油의 生産은 새로운 埋藏量의 発見보다 더 신속히 進行되고 있다는데 問題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72年에 이미 石油工業相인 V.D.Shashin 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75年以後에 石油工業의 急進的인 発展은 西시베리아보다 더 広大한 油田이 開発되지 않으면 不可能한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따라서 東시베리아에서의 油田探査와 開発이 問題의 焦点이 될 것이다. 그러나 西시베리아보다 더 悪条件인 気候보다 더 복잡한 地質学的인 問題, 이에 対処할 技術의 不足등으로 1980年代中半以前에 東시베리아地域이 石油生産에 큰 役割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輸送의 問題가 있다. 石油는 輸送에 便利한 燃料이긴 하다. 그러나 소련에서와 같이 油田과 그 需要地간의 遠距離라는 事情으로서 Pipelime 의 問題가 있다. 現在 Samotlor 油田에서 Tomsk 나 Tobolsk 를 거쳐 40 inch 또는 48 inch 送油量인 Druzhba Oil Pipeline 으로 소련의 欧洲地域으로 輸送되고 있으며 Tomsk 에서 Baikal 湖以後까지 送油管이 건설되어 있으나 Baikal 湖에서 Nakhodka 까지의 Pipeline 이 計劃中에 있다. 그러나 보다 더 直径이 큰 Pipeline 의 設置라

는 技術上의 問題도 問題려니와 이에 所要되는 莫大한 資本과 Pipeline 輸入의 問題가 수반되어 있는 것이다.

4) 天然가스

(가) 天然가스의 主要性

天然가스는 소련의 에네르기全生産量의 $\frac{1}{5}$을 全消費量의 23%를 占하고 있으며 이러한 比率은 向後 적어도 15年間 계속되리라고 展望하고 있다.

天然가스의 生産量은 1976年에는 321billion cubic meters 이며 表V, VI에서 보듯이 1980年에는 435 billion cubic meters, 1990年에는 900 billion cubic meters 生産目標인데 1980年代初부터는 美國을 능가할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天然가스의 埋藏量은 世界第1이며 現行 生産水準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70 ~ 80年間 사용할 수 있는 埋藏量을 保有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가스工業의 問題点은 地理的 分布와 輸送의 問題에 歸着된다고 볼 수 있다.

(나) 天然가스生産地의 分布

探査된 天然가스埋藏量中에서 시베리아 地域이 차지하는 比率은 1965年의 12.6%에서 1970年에는 62.4%로 上昇하였고 1974年에는 65.8%이며 이런 추세 또한 계속 上昇될 것인데

자세한 것은 表XV에서 보는 바와 같다.

石油와 마찬가지로 가스生産地의 경우도 Uraps 山脈以西地域은 거의 매진되어 있으며 新発見에도 불구하고 探査된 埋藏量의 $\frac{1}{5}$에 不当한 実情이다.

<表XV. 시베리아의 探査된 가스 埋藏量과 全소련에 대한 比率

(단위 : 10億立方미터)

	1965	1970	1974
西시베리아	315	7,116	14,100
東시베리아	81	439	700
全소련埋藏量에 대한比率	12.6 %	62.4 %	65.8 %

天然가스 埋藏量의 $\frac{3}{4}$이 凍土된 北西시베리아地方에 位置하고 있으며 15% 程度가 中央아시아沙漠에 保存되어 있다. 그리고 埋藏量의 半程度가 6개의 生産地에 集中되어 있는데 이 中 4개가 西시베리아에 中央아시아와 소련의 欧洲地域에 각각 1개씩 西시베리아의 Urevgoi 하나만도 全埋藏量의 $\frac{1}{5}$에 該当되는 것으로서 世界最大地域인 것이다.

Urals 山脈以西는 1970年~1976年末사이에 가스生産增加의 $\frac{1}{5}$

을 占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고 그것은 더욱 감소될 경향에 있는 것이다.

中央아시아地域이 主로 소련의 欧洲地域에 대한 가스供給地였으나 中央아시아 地域自体의 가스需要가 增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生産이 限界에 達하고 있어서 天然가스 또한 北西시베리아地方이 將次 唯一한 가스生産의 主軸이 될 것이다. ㉙ 가스生産에 있어서 西시베리아의 實績과 比率은 表 XVI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시베리아의 天然가스開発·目標

石油와는 달리 西시베리아에 있어서 天然가스의 生産과 gas pipeline 의 設置는 1975年의 경우 計劃量의 未達이었다.

1975年의 西시베리아에서의 天然가스生産計劃은 40 Billion cubic meters 였으나 38 Billion cubic meters 에 머물렀으나 其外 地域에서의 生産下落으로서 소련의 全生産量의 13%를 占하였다. 또 Pipeline 의 건설도 後述하는 바와 같이 計劃未達이었다.

現行 5個年 計劃에 의하면 表 XVI 에서 보는 바 같이 西시베리아의 1980年 가스生産目標는 125 ~ 155 Billion cubic meters 로서 同年의 全 生産量인 400 ~ 435 Billion cubic meters 의 거의 $\frac{1}{3}$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計劃生産量達成에는 Yakut 自治共和国의 Vilyuy Basin 의 開発이 무엇보다 重要할 것이다.

<表 XVI > 西시베리아의 가스生産과 全소련生産量에 대한 比率㉚

	10億 立方 미터	소련全生産量에 대한比率
1965	거의없음	거의없음
1970	9.2	4.6
1971	9.2	4.3
1972	11.4	5.2
1973	16.4	6.9
1974	24.7	9.5
1975	38	13
1976	46	15
1980	125 - 155	29 - 39

(라) 시베리아가스開発의 問題点

첫째의 問題点으로서 石油의 경우와 같이 生産量의 增加를 들 수 있다.

가스生産地의 東, 北西에의 移動과 旧가스生産地의 生産量維持를 위하여 生産費가 增加되지 않을 수 없어서 더 많은 資本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1966年～ 1972年間에 가스工業에 있어서의 生産費는 4.6倍 增加하였으며 1970年～1975年間의 경우에는 其以前의 5個年에 比하여 볼때, 1,000立方미터의 가스를 生産하고 輸送하는데 60 %의 生産費를 더 投資해야만 하였다. 生産地와 需要地간의 遠距離, deep drilling 의 主要性, offshore 探査등으로서 1980 年代에 있어서는 資本의 增加에 대한 生産力은 低下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㉛

둘째의 問題点은 石油의 경우와는 달리 天然가스의 경우에는 Pipeline 의 設置가 問題로 되고 있다. 同一한 直徑의 Pipeline 으로서 가스는 石油의 $\frac{1}{5}$에 該当하는 카로리만을 輸送할 수 있을 뿐이라는 点도 問題이고, Pipeline 設置에 所要되는 広大한 量의 Pipe의 輸入問題, 凍土地域에 가스輸送管設置에 따르는 技術問題, 75 inches 나 100 inches 直徑의 大型 Pipeline 設置必要와 技術問題 그리고 LNG(Liquifind Natural Gas)技術의 도입등이 問題인 것이다.

하여간 1980年度의 소련 全体의 가스生産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36,500 ㎞ 의 Pipeline (이中 30%는 直徑이 56및 48 inches)이 設置되어야 하며 300個의 Compressor station 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것은 9次 5個年計劃中의 148 Compressor Station 의 2倍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㉜

그런데 이러한 Pipeline 의 건설目標는 1978年의 경우 그 計劃目標를 훨씬 達成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Urengoi-Nadym

Punga-Ukhta-Torzhok 의 Pipeline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㉝

따라서 시베리아의 가스資源을 開発하기 위하여서는 가스와 Pipe의 barter 契約을 西方과 締結하지 않을 수 없는 形便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年~1976年간 소련이 가스工業을 위하여 輸入한 Pipe는 900萬ton에 達하고 이것은 430億달라에 해당되는 것이다. Orenburg-Uzhgorod gas line에 22개의 Compressor station Urengoi-Cheliabinsk line의 6개의 Compressor station을 모두 輸入하기 위한 契約이 締結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12億달라에 達하고 있다. ㉞ 또한 Yakust LNG의 探査를 위하여 소日 소美간에 契約이 締結되었으나 이 地域에서 開発될 가스의 大部分은 輸出하게 되어 있어서 소련의 国内需要에는 그리 큰 影響을 주지 못할 것이다.

5) 石 炭

(개) 石炭의 位置

칼로리의 観点에서 볼때 石炭은 소련의 全 에네르기生産量의 $\frac{3}{10}$, 그 消費量의 $\frac{1}{3}$을 占하고 있다. 1950年 以末 石炭生産増加率은 같으나 石油에 比하여 低下되었으며 1960年代에는 그 年増産率은 2.05%, 1970年代 前半期는 2.35% 그리고 1970年代

後半期는 2.8%로 잡고 있다.

소련의 에네르기資源으로서의 石炭이 갖고 있는 問題点은 生產費要素, 輸送, 그리고 市場의 制限性등으로서 그 生產促進에 沮害되고 있는 것이다.

(나) Urals 山脈以西의 石炭生產의 問題点

1980年代에 있어서 소련의 欧洲地域에서는 40 million tons SF以上을 더 生產할 可能性은 없으며 10次 5個年計劃도 10 million tons의 增加量을 計劃하고 있다.

巨大한 Donbas 에서 1976年에는 224 million tons를 生產하여 소련全体의 31%를 占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生產量의 $\frac{1}{3}$이 700 m地下에서 採掘되었으며 1980年까지에는 그 $\frac{2}{5}$가 1.2 m 두께의 石炭層으로 부터 나오며 그 $\frac{3}{5}$이 0.8 m의 石炭層인바 後者는 現技術로는 採掘不可能이라고 한다.

또한 이 地域의 石炭은 生產費와 輸送費가 높다는 問題点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의 石油나 가스로 代替하는 것이 더 經濟的이지마는 石油 天然가스의 輸出価格과 Comecon 諸国에의 約束때문에 급격한 代替는 不可能한 것이다. ㉟

(다) 시베리아 石炭의 開発과 目標

소련에 있어서 가장 經濟的인 石炭產地는 Kuzbas, Kausk-Achinsk, 그리고 시베리아에 屬하지는 않지마는 Kazakhstan 以東의 Ekibastaz 등인데 그러나 그 質이 나빠서 단지 boiler fuel 로만 使用할 수 있을 뿐이며 Volga江 以西로 運搬할 수

있는 것은 Kuzbas의 石炭이긴 하지마는, 그것이 Moscow에 도착되려면 本価格이 두倍 以上이 된다는 것이다. ㊱

따라서 Kausk-Achinsk의 石炭開発이 問題가 되고 있는 理由의 하나가 Kuzbas의 石炭을 소련의 欧洲地域에 輸送하고 Kansk-Achinsk의 저렴한 石炭을 利用하여 火力発電所를 비롯한 에네르기多消費型工業을 이 地域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㊲

이러한 Kansk-Achinsk Complex는 1977年에 시작하여 1999年에 完了될 計劃으로 있으며 그 意義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① 巨大한 石炭의 埋藏量이다. 地下 600 m까지 600 billion tons의 埋藏量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中 448 billion tons이 採掘不可能하며 140 billion tons이 地下 300 m 以内에 存在하고 있다는 点

② 이 地域의 労動生産力이 높아서 採掘費가 其他地域의 $\frac{1}{2}$에 해당된다는 点.

③ 이 地域의 풍부한 石炭層이 시베리아横断鉄道를 따라서 位置하여 거의 그 60%가 Krasnogarsk의 生産 Complex에 인접하여 있다는 点등이라고 한다. ㊳

그러나 시베리아開発推進論者들의 期待와는 달리 이 地域의 開発은 저조하여 아직 30 million tons의 石炭만을 生産하였을 뿐이다. 그 理由는 Krasnogarsk 水力発電所와 西시베리아의 石油가스가 第一次적인 소련政府의 観心이었다고 시베리아開発推進 者들

은 말하고 있다. ㊴

그러나 1990年까지에는 每年 Kansk-Achinsk 에서 350 million tons 의 生産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計劃되고 있으며 이 計劃대로 간다면 1990年에는 Kansk-Achinsk 의 石炭生産量은 소련全体生産量의 $\frac{1}{3}$을 占하게 되고 모든 에네르기供給의 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Kansk-Achinsk 의 저렴한 石炭을 利用한 火力発電所가 6~8개 設立될 計劃이며 Berezoka의 最初의 火力発電所는 1980年까지 稼動할 計劃이라고 한다. ㊵

하여간 1980年까지에는 주로 Kuzbas의 開発에 注力할 것이고 Kuzbas에서 30 million tons 의 石炭을 증산하여 1980年에는 161 million tons 生産을 目標로 하고 1980年代末에는 200 million tons의 石炭生産을 計劃하고 있다. 하여간 시베리아의 石炭開発은 Kuzbas 와 Kansk-Achinsk 炭田의 開発이 関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第四 結 論

① 시베리아開発이 소련의 経済構造上 不可避한 것으로서 그 開発이 추진되는 경우 여기에 政治·軍事的인 措置가 뒤따라서 이 세가지 要素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할 必要도 없다.

②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시베리아 開発에는 여러 難点이 있다. 自然的인 気候는 且置하고라도 資本, 技術 그리고 労動力 不足이라는 決定的인 問題들이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開発이 그들의 計劃대로 신속히 展開되려면는 西方의 資本과 技術의 도입이 関健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美·日의 시베리아開発에 대한 政策如何가 시베리아開発의 早期達成의 決定要素인 것이다. 勿論 소련独自의 資本과 技術로서 開発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경우 그 開発의 時期는 長期에 걸칠 것이다. 따라서 시베리아開発이란 点에서만 본다면 소련은 美·日에 대하여 敵対的인 姿勢를 取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③ 萬一에 모든 与件이 신속한 시베리아開発을 促進하는 方向으로 움직인다면, 1982年 BAM鉄道가 完成되고 1980年 中半頃에는 東北亜国際政治秩序에 여러 影響을 미칠 것이다. 그것을 우선 便宜上 政治, 軍事, 経済的인 側面에서 본다.

④ 소련은 실로 太平洋 아시아国家로서 登場할 것이다. 中소 紛爭의 展望에 대하여는 엇갈린 추측들이 横行하고 있으나 和解할

수 없을 것이라는 一般的인 観測이 正確한 것이라면 시베리아의 開発로서 中・소関係는 더욱 悪化될 것이다. 太平洋아시아国家로서의 소련은 北韓에 대하여 여러 圧力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現在와 같은 北韓의 態度는 堅持하기 困難한 状況이 助成될 可能性이 있다. 시베리아商品의 太平洋進出과 石油 天然가스의 沿海洲地方까지 輸送可能이라는 状況은 北韓의 態度変化에 決定的인 要素가될 素地가 있을 것이다.

⑤ 시베리아開発은 그것을 保護하기 위한 軍事力의 増強에 수반됨은 勿論이다. 특히 소련의 太平洋艦隊의 급격한 増強을 豫測할 수 있다. 이것은 시베리아商品의 太平洋進出保護라는 点만으로도 곧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東海의 法的地位問題가 대두될 것이다. 소위 「封鎖水域」이라고 소련에서는 呼称되고 있는 東海는 沿岸国以外의 軍艦出入에 대하여 沿岸諸国의事前承認을 要하고 非軍艦船舶에 대하여는 公海와 유사한 法的地位를 갖고 있는 특수한 海域이라는 것으로서 이 問題解決을 沿岸諸国에 종용할 것이다.

⑥ 특히 에네르기多消費型工業製品이 太平洋諸国에 輸出될 것이며 이러한 輸出展望은 東北辺의 現存 国際貿易関係는 変化시킬 것이다.

註

① 表 I 의 面積은 麓 昌芳編 シベリアの経済開発 (東京 アジア経済研究所, 1972), p.6 에서, 그리고 人口는 1972年 現在를 基準으로 한 것으로서 Newth, J.A.: "Demographic Developments" in Brown, A.& Kaser, m.eds: The Soviet Union since the Fall of Khrushchev (McMillan, 1978), p.78 에서 引用.

② Dienes, L.: "Soviet Energy Resources and Prospects," Current History, 1978, maich, p.117.

③, ④, ⑤ : Jack, E.E., Lee, J.R.& Lent, H.H.: "Outlook for soviet Energy" in Soviet Economy in a New Perspective.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to the Joint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ct.14, 1976) (本書는 以下 Soviet Economy 로 略称), pp.475-477 에서 再編.

⑥ Dienes, L.: "The Soviet Union: An Energy Crunch Ahead?", Problems of Communism, Sept-Oct, 1977, p.43. 그리고 1960年以後 이런 에네르기資源의 需要, -供給의 現況은 Jack, E.E et al. art. cit. p.462. 表 I 參照.

⑦ Dienes, L: art.cit. Problems of Communism, Sept.Oct 1977. p.43.

⑧ Ibid, p.46.

⑨ Smith, A.B.:"Soviet Dependence on Siberian Resource Development", in Soviet Economy, p.482, Kaser, in.: "The Economy to 1977", in Brown, A.& Kaser, m.eds., op cit. p.287.

⑩ Dienes, L.: art.cit Current History, 1978. march p.46.

⑪ Dienes, L.: art.cit. Problems of Communism, Seps－Oct 1977. p.47.

⑫ Smith, A.B.:art.cit,in Soviet Economy, p.480.

⑬ ゾボローチン："第10次 5個年計劃の 主要課題", 世界経済と国際関係, 1976年 秋季号 第34集, p.23: Nekrasov, N.N: "第10次 5個年計劃と 連邦の 東部地域", 極東の 諸問題 1976年9月 Vol.5. no3. p.6.

⑭ Nekrasov, N.N.: ast cit. p.7.

⑮ Ibid, pp.8-17.

⑯ Feshbach, m.& Rapawy, S.:"Soviet Population and manpower Trends and politics", in Soviet Economy, pp.122-123의 表3, 4에서 再編.

⑰ Kaser, m: "The Economy to 1977", in Brown, A.& Kaser, m.eds. op cit. p.287

⒅ Feshbach, m.& Rapawy, s.: ast cit.pp.129-130

⒆ Dienes, L.: art.cit., Curren History, 1978. march. pp.118-119.

⒇ Smith, A.B.: art.cit. in Soviet Econ omy. p.499.

㉑ Dienes, L.:art.cit Problems of Communism. sept-Oct 1977. p.45.

㉒ Hardt, g.p.: "West Siberia, The Quest for Energy", Prblems of Communism, may-Jane. 1973. p.22.

㉓ Dienes, L.: art.cit. Current History, 1978, march p.119

㉔ Smith, A.B.: art.cit. in Soviet Economy, p.490. 단지 Smith 는 1976年의 西시베리아 石油生産量을 180 million tons의 計劃量을 쓰고 있으나 同年의 실제 生産量인 182 million tons로 바로 잡았음

㉕ Ibid.

㉖ Dienes, L.% art.cit. Current History 1978. march p.120.

㉗ Smith, A.B.: art.cit. in Soviet Economy. p.491, Jack, E.E et al:art cit. Ibid., p.463.

㉘ Smith, A.B. art.cit. p.489.

㉙ Dienes, L.: art cit Current History, 1978. march pp.131-132.

(30) Smith, A.B.: art cit. p.490.

(31) Dienes, L.:art.cit. Current History, 1978 march, p.132.

(32) Ibid.

(33) "Underground Trunk Lines" (Pravda. 1978. 8.23), CDSP, XXX-34 (Sept 20, 1978), p.8.

(34) Dienes, L.: ast cit Current History, 1978, march. p.132. note 29.

(35) Ibid. p.133

(36) Smith, A.B. art.cit. p.485.

(37) Popov, V.& Bogachuk, A: "Comprehensive Development for The Eastern Regions: The Kuznetsk Variant". (Pravda, 1978. 8.25), CDSP, XXX-34 (Sept.20, 1978), p.7.

(38) "Start of the Kansk-Achinsk Fuel and Power Complex "(Economika i Organizatsia Promyshlennogo Proizvodstva, No.1. 1977), CDSP. XXIX-8, p.15

(39) Ibid.

(40) Smith, A.B. art.cit. p.487.

東北亜의 資源問題와 그 展望

The Problem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Northeast Asia and its Prospect

研究執筆責任： 鄭 鍾 旭

（略歷） 서울大 文理大 外交学科卒業（1965年）

美国하와이大 政治学碩士（1970年）

예일大政治学博士（1975年）

現在 서울大社会大 外交学科 助教授

（1977年부터）

目　　次

一）序 論 …… 445

二）中共의 近代化計劃 …… 451

三）中共의 石油開発歷史 …… 454

四）中共의 石油生産 展望과 問題点 …… 457

五）中共 近海 石油 매장량 …… 464

六）中共의 近海油田開発 現況 …… 467

七）中共의 近海油田開発과 台湾 …… 475

八）日本의 近海油田開発 現況 …… 481

九）海洋法 紛争에 대한 中共의 태도 …… 486

十）結 語 …… 481

1) 序 論

資源이 국제정치질서를 결정짓는 주요한 変数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힘의 정치가 不道德하다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견해는 民族主義意識의 高揚과 함께 대두하였고 국가간의 相互依存度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強度가 짙어져서 드디어는 資源民族主義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資源民族主義는 전통적 국제정치질서가 内包하고 있던 조건들에 의해 싹이텄고 그속에서 成長해온 歷史的 辯証法的 발전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국제질서의 핵심은 植民地질서 다시 말하면 植民地가 支配強国의 成長과 膨脹의 기초가 된 것이였으며 이것을 資源의 측면에서 보면 植民地의 資源과 支配国의 技術이 結合되는 것이였다.

따라서 전통적 국제질서의 成熟은 植民地 또는 準植民地의 資源에 대한 先進資本国家들의 依存度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1973년의 石油波動은 그동안 累積되어온 이러한 전통적인 국제질서가 지니는 矛盾을 극적으로 表面化시켰으며 국제정치의 주요変数로서의 資源의 인식을 새롭게 만든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건이였다. 石油가 資源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것도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石油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있긴하지만 이 石油波動도

중요한 몫을 했다.

東北亞에서도 資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石油波動때 日本은 가장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도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 했었다. 石油波動이 후의 日本의 外交政策은 石油供給源의 多元化에 치중했으며 1978年의 日中共平和友好조약도 이러한 日本의 새로운 資源外交의 一部라는 측면이 짙다.

石油需要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日本은 中東과 인도네시아의 原油를 긴 해상수송로에 의해 들여오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자체의 海軍力이 부족하며 특히 70년대 초이후 蘇聯의 海軍力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이러한 해상수송로의 不安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고 日本은 시베리아에 매장되어있는 막대한 石油資源의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蘇聯과 교섭을 벌려왔으나 兩國間의 다른 문제들이 얽혀 別다른 진전이 없었다.

中共과 日本이 이미 체결했거나 현재 교섭중인 경제협력은 中共이 日本의 製鉄技術등을 도입하고 그대신 日本이 中共의 原油등을 가져간다는 것을 그 골자로하고 있으며 中共産原油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中共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資源外交의 측면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資源, 特히 石油資源은 中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外交政策의 바탕이 된다. 四個近代化계획의 추진을 위해 必要한

말대로 外資도입을 原油를 팔아 갚아야 한다는 경제적 고려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原油를 外交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原油가 中心이 되는 日本과의 경제협력을 中共이 강렬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日本의 対蘇接近견제라는 뜻이 있고 北韓에 대해서도 中共은 原油를 중요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石油資源은 東北亜에서 새로운 국제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韓国과 日本간의 第七鉱区共同開発을 둘러싼 中共과 韓·日 三国間의 紛争은 勿論 센가꾸(尖閣列島：中国名 魚島)를 둘러싼 日本, 中共 및 台湾間의 紛争, 西沙, 南沙와 그밖의 南支那海의 近海油田개발을 둘러싼 中共과 越南간의 紛争가능성도 앞으로의 東北亜의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要因들이다.

海洋資源, 특히 近海油田과 가스開発의 중요성은 비단 東北亜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다. 1976年의 경우 세계原油생산의 24퍼센트 이상이 近海油田에서 산출되었으며 세계石油매장량의 반 이상이 海底에 묻혀있다고 알려져 있다.[1] 또한 세계의 1백 50여개 국가들 가운데 이미 28개국가 이상이 近海油田를 개발중이며 그밖에도 14개국가가 경제채산이 맞는 近海油田를 발견해서 개발작업을 서둘고 있고 60여개국가들이 近海油田発見을 위한 탐사작업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2] 이밖에도 近海油田의 중요성은 1975年부터 1980년까지의 6개년동안 자유진영국가들이 近海油田탐사와

개발을 위해 1천 60億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投資할 計劃이라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3)]

油田탐사와 개발작업은 유엔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參与하므로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石油波動 이후 세계은행등 국제기구들은 油田개발을 위한 특별 자금을 설치, 조사반들을 세계 각지에 파견했다. 1977年의 경우 세계은행은 印度政府의 봄베이高地 油田개발계획에 1億5千萬달러를 차관했으며 파키스탄에 3천만달러를, 뱅글라데시政府에 2백 50만달러를 각각 빌려주었다. 78年에는 태국정부가 5億달러를 차관해 갔고 80年 까지 油田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차관자금은 10億달러가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4)] 아시아개발은행도 세계은행과 보조를 맞추어 油田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1981年에는 1億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 부분에 할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

石油資源의 중요성이 크로즈·업됨에 따라 中東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으나 中東以外의 開発途上国家들의 비중도 최근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美国의 上院에서 행해진바 있는 에너지에 관한 특별청문회의 증언에 의하면 石油輸出国家(OPEC)를 以外의 開発途上国家들이 가지고 있는 原油산출이 가능한 地層이 8백 60만 평방킬로미터로서 中東국가들의 그것보다 두배나 많으며 미국의 세배나 된다고 한다.[6)]

또한 미국이나 中東의 油田이 이미 오랜 生産때문에 대개 生産率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 다른 開発途上国家들의 油田들은 이제

막 生産을 시작하거나 또는 生産을 시작한지가 오래지 않아 生産率이 미국이나 中東의 기존油田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 예를 들면 1976年의 경우 中東以外의 開発途上国家들이 보유하고 있는 油田 1피트당 平均 4백 6배럴의 原油가 생산된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11.3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7)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原油를 수입하고 있는 60개 開発途上国家들이 原油生産可能国家들이나 이들중 14개 국가들만이 原油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8)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의 석유개발가능량은 현재의 확인된 매장량의 세배인 1백 70億 배럴이라고 한다. 9)

최근에 발표된 록펠러재단의 특별조사보고서가 앞으로 국제정치는 原油輸入国家들 간에 中東以外의 原油생산이 가능한 開発途上国家들을 둘러싼 경쟁으로 특정지워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原油輸入国家들이 中東以外의 開発途上国家들의 原油를 확보하기 위해 各種의 経済援助을 제공하는 등 정치경제적 수단을 사용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고려하여 本論文은 東北亜에서의 資源 특히 石油資源의 開発과 이것이 東北亜의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分析하려고 한다. 資源이 반드시 海洋資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海洋資源이 石油資源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石油가 가지는 전략상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한

近海油田開発이 초래할지도 모를 東北亜에서의 地域紛争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本論文에서는 주로 近海油田開発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東北亜에서의 石油資源의 문제가 주로 中共의 四個近代化計劃의 추진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本 論文은 우선 中共의 近代化計劃을 간단히 分析하고 近代化計劃에서 近海油田開発이 가지는 중요성을 규명한 후 中共의 近海油田開発計劃과 現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다음 이러한 中共의 近海油田開発計劃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台湾, 韓国, 日本 및 越南의 近海油田計劃을 分析하고 이들 국가들의 開発計劃과 관련해서 海洋法上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끝으로 石油資源을 둘러싼 東北亜 各国間의 관계가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中共의 近代化計劃

工業, 農業, 国防 및 科学技術을 近代化하려는 中共의 計劃은 1978年 2月에 개최되었던 第五期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공식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近代化의 꿈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75年 1月에 열렸던 第四期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周恩来가 발표한 第五次五個年経済開発計劃(1976~80)은 中共을 近代化하려는 中共을 近代化하려는 中共의 宿願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近代化에의 꿈은 毛沢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中国을 西紀 2000年까지 富強한 近代化 国家로 만들겠다는 꿈을 이미 1964年에도 言及한 일이 있으며 1950年度末의 大躍進運動도 따지고 보면 中国近代化를 위한 몸부림이였다.

第五期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발표된 四個近代化計劃은 사실상 第五次五個年경제개발계획(1976-80)과 第六次五個年 경제개발계획(1981-85)을 합친 것이다. 国民経済開発을 위한 十個年計劃(1976-85)이라고 불리는 이 近代化計劃은 四人幇사건등 毛沢東死後의 政治的 混乱때문에 第五次五個年計劃이 사실상 別無進前이였기 때문에 修正이 不可避해져서 第六次五個年計劃과 合쳐 十個年計劃으로 再調整한 것이다.

또한 四個近代化計劃은 中期와 長期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中期計劃은 十個年計劃을 의미하고 長期計劃은 中期計劃이 끝나는 1985年부터 2000年까지의 약 15년동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長期計劃은 아직 구체적 計劃이 없으며 다만 현재 진행중인 近代化計劃이 2000年이면 一段落되고 中共이 先進開発国의 隊列에 끼이게 된다는 희망을 投影하고 있는 정도이다.

第五次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華国鋒이 밝힌 10個年開発計劃에 의하면 中共은 1985年까지 10개의 거대한 鋼鉄工場과 10개의 대규모油田를 포함한 120개의 주요공업프로젝트를 완성하게될 것이라고 한다. 1978年부터 85년까지의 8개년동안 공업성장율은 10퍼센트가 되며 85年에는 식량생산량이 1977年 水準의 1.4배인 4億톤, 그리고 강철생산량이 2.5배인 6천만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웅대한 계획에 막대한 技術과 資本이 필요하다는 것은 明若観火한 일이다. 여러가지 추측이 있긴하지만 대체로 中共 四個近代化計劃은 6千億달러 규모의 総投資가 所要되며 이중 3천5백억달러가 資本投資라고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所要投資額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 하는 것은 1978년의 中共의 国民総生産이 3천5백억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같은 해의 中共의 外貨保有高가 25억달러이며 金保有高가 20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고려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11)]

鄧小平이 상징적으로 대표해온 中共의 対西方接近의 적극적인 자세도 이러한 経済的 現実을 그바탕에 깔고 있다. 1976年 9月 毛沢東이 죽은 후 四人幇이 중심이 된 이른바 강경파와 華国鋒과

鄧小平이 이끄는 관료중심의 온건파의 대결에서 가장 핵심문제였던 것은 近代化計劃과 이에 따른 西方資本과 技術의 導入問題였다.[12) 이 대결에서 近代化의 論理를 앞세우는 관료온건파가 이데올로기가 政治優先의 論理를 내세우는 文革강경파를 패배시켰고 따라서 華體制의 出汎은 西方의 技術과 資本에 의존하는 近代化計劃의 적극적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中共의 四個近代化計劃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近海油田開発이다. 近代化計劃의 추진에 필요한 방대한 규모의 西方側으로 부터의 外資導入이 不可避한 이상 이러한 導入外資를 갚기위해서는 中共의 輸出伸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中共의 산업구조나 경제발전의 단계를 고려하면 加工製品의 輸出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따라서 原油의 開発, 輸出이 中共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外貨獲得의 가장 중요한 資源이다.

3) 中共의 石油開発歴史

中国에서의 石油工業의 歴史는 紀元前 3천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商業性이 있는 石油生産은 1897年의 中国과 蘇聯人 기술자들이 近代的인 石油탐사技法을 사용하여 中国 西北部 「중가리」분지에서 「투산쯔」油田을 発見하면서 부터였다. 1901年에는 内蒙古地方 근처의 「오도스」분지에서 「엔창」油田이 発見되었고 1930年에는 같은 지역에서 융펀油田이 発見되었다.

四川省에 있는 「펑라이청」油田이 발견된 것은 1910年 이였고 같은 지역에서 1938年과 43年에는 대규모의 「시유오구」가스油田과 「성덩산」油田이 각각 발견되었다. 그밖에도 西部와 北部지방에서 다수의 油田이 발견되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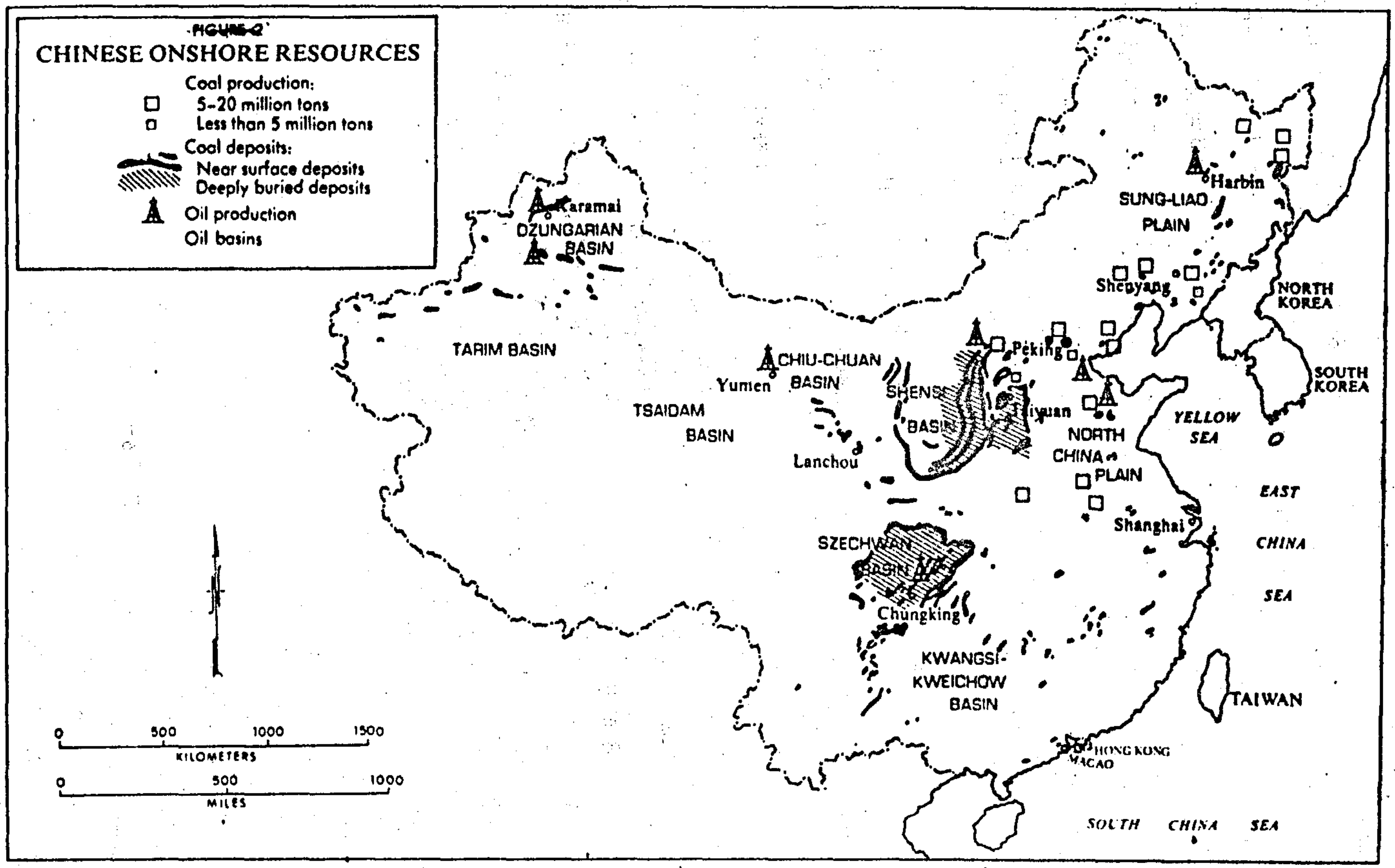
그러나 49年 이전에는 中国 전체의 原油매장량이 3백만톤 이하라고 추정되었고 地質学上 中国에는 대규모 石油매장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어져 왔었다 石油는 海洋性 物質에 의해 生成된다는 것이 地質学者들의 一般的인 学説이였고 따라서 대부분 非海洋性 地質구조를 가진 中国에는 대규모 石油매장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였다.

49年 이후 中共과 蘇聯의 地質学者들은 中国 各地에 걸쳐 조직적인 地質탐사작업을 벌였고 그결과 非海洋性物質의 地質에도 石油가 대규모로 매장되어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49年 이후 蘇聯의 막대한 경제기술건조에 힘입어 石油발전작업은

도표 1 : 中共의 石油資源 分布現況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계속되었고 신강省의 「카라마이」油田을 비롯해서 49年 부터 57년까지 약 60개의 油田試錐孔이 활발한 石油탐사작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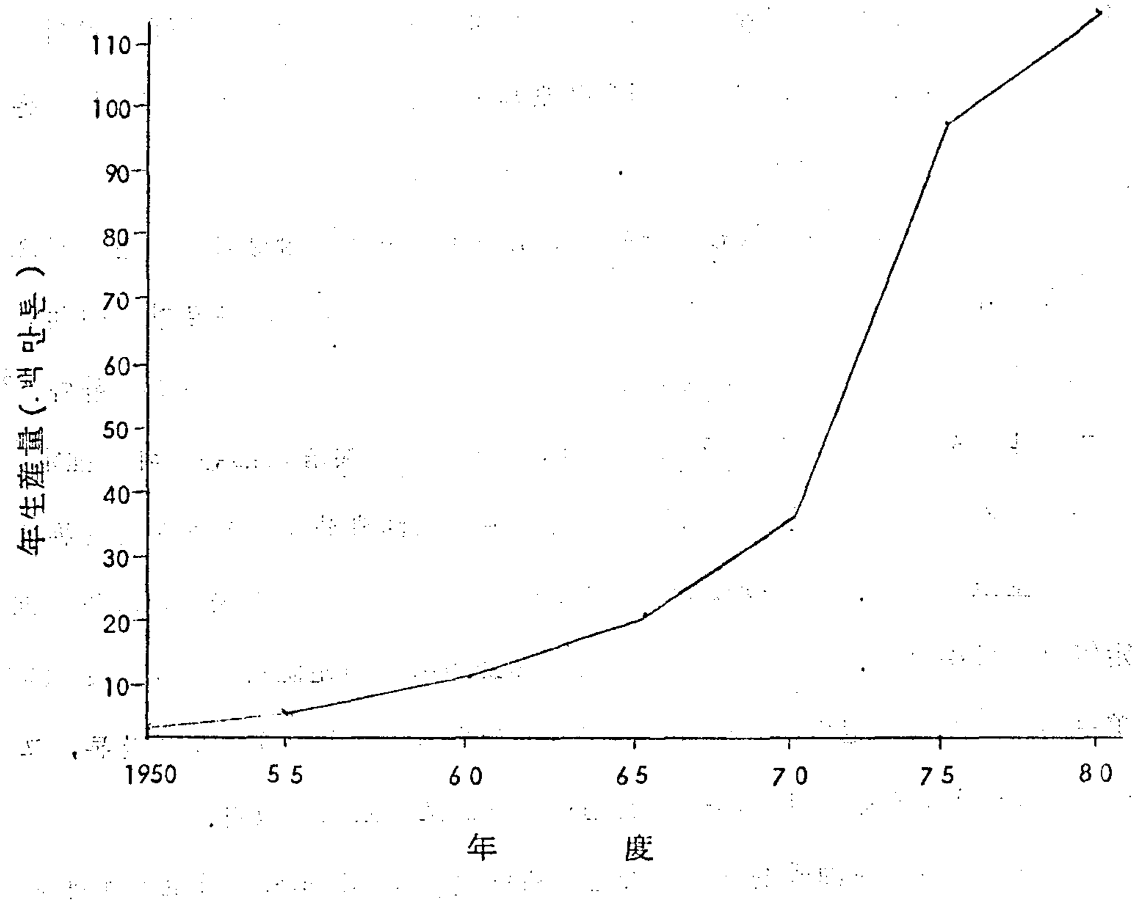
그후 蘇聯과의 紛爭이 惡化되고 60년대 중반부터 文化革命이라는 政治的 소용돌이를 치루면서 油田發見작업은 주춤했으나 이러한 渦中에서도 59年 7月에 大慶油田을 발견했고 78年末 現在 大慶에서만 생산된 原油가 23억배럴에 달하고 있다. 60年에는 中共에서 大慶다음으로 큰 勝利油田이 발견되었고 64年에는 「다강」油田이 그리고 64年에는 渤海만 근처의 「판산」油田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61년대 初부터 70년대 중반까지 中共의 原油생산은 年平均 24.6퍼센트라는 놀라운 伸張率을 나타냈고 이것을 생산량으로 따지면 中共이 石油생산량을 공식발표하기 시작한 63년에는 年產 6백20만톤(4천8백만 배럴)이던 것이 70년에는 2천만톤으로 뛰었고 74년에는 6천5백만톤, 75年에는 7천5백만톤, 76年에는 8천5백만톤, 77年에는 8천7백만톤, 그리고 78年에는 1억톤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14] (도표 2參考)

四) 中共의 石油生産 展望과 問題点

中共의 石油生産 展望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 推計가 다르다. 1974年에 中共을 방문한 바 있는 日中石油輸入委員会会長 「유따로 하세가와」에 의하면 中共은 1980年에 4억톤의 原油를

도표 2. 中共의 原油生産추세



※ 이도표는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 1978 에서 참조한 것임.

생산하게될 것이라고 한다. 다음해 日本海外貿易機構(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가 치밀한 조사끝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85年께 가야 4억4천만톤의 原油生產이 可能하다고 한다. 이 推定値는 1975年부터 78年 까지 中共의 原油생산증가율이 年平均 23퍼센트, 79년과 80年에는 20퍼센트, 그리고 81年부터 85년 까지는 16퍼센트라고 가정해서 산출되었다. 日本通商省의 推定도 비슷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1978年부터 88年까지 年平均 成長率을 11퍼센트로 잡아 88年에 4억5천톤의 原油생산을 예측하고 있다.[15)]

그러나 日本의 推定値는 다른 推定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美国中央情報部가 1975年 5月에 推定한 바에 따르면 中共의 原油생산은 1980年에 2억2천6백만톤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16)] 그러나 6개월 후인 1975年 11月에 美中共情報部는 이 推定値를 다시 下向조정하여 1980年의 中共原油생산을 1억6천만톤이라고 보고 있다. 英国政府의 推定値도 이러한 美中央情報部의 推定値와 비슷하다. 이에 비해 美国商務省의 推定値는 日本推定値와 美中共情報部 推定値의 중간치로서 1985年에 3억3천5백만톤, 그리고 1988年에는 4억톤을 上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中共의 原油생산의 전망은 내년인 1980年에 최고 4억톤 최저 1억6천만톤, 그리고 1985年에 최고 4억5천만톤, 최저 3억톤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8年에 中共의 原油생산이 1억톤을 조금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80年에는 1억6천만톤을 상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1985年 3억톤을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推定이 나오게 된다.

勿論 이러한 推定은 가까운 장래에 突発的인 事態, 예를 들면 대규모 近海油田이 발견된다든가 또는 그밖의 事態発展으로 인해 中共의 原油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국내소비의 급격한 증가나 국내생산의 不振으로 原油생산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輸出能力이 감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中共은 最近 国内原油소비량이 급격히 伸張하고 있다. 세계 석탄매장량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中共은 원래 국내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해 충당해 왔었다. 1957年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수요가 석탄에 의해 충족되었고 原油는 에너지수요의 5퍼센트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原油생산의 증가와 함께 原油의 国内생산도 급격히 신장했으며 1977年에는 에너지수요의 22퍼센트가 原油에 의해 충당되었다.[17] 日本海外貿易기구의 推定에 의하면 1985年에는 中共에너지수요의 48.2퍼센트가 石油에 의해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18] 만약 이 推定値가 正確한 것이라면 1982年의 경우 中共의 国内原油수요는 2억톤이 될 것이며 1985年에는 4억톤을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中共의 国内原油수요가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中共의 原油생산이 国内수요를 겨우 따라갈까 말까하는 지경이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原油생산을 급격히 증가하거나 또는 原油의 国内생산을 억제하고 증가하는 国内에너지수요를 석탄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国内에너지수요를 석탄으로 대치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석탄은 採掘技術上 막대한 비용이 들며 특히 中共의 탄광들이 대부분 이미 오래 전부터 採掘되기 시작해서 앞으로의 採掘이 막대한 자본의 投資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中共의 석탄생산지는 대부분 북부 또는 북동부에 위치하여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석탄은 현재의 산업구조상 대부분의 공장기업체가 石油나 電力使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함께 漸增하는 에너지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적당한 측면이 있다.

현재 中共政府는 석탄개발에 상당한 投資를 하는 한편 原油생산에 더욱 중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것은 四個近代化計劃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막대한 外貨導入을 原油輸出로 充当하기 위해서는 国内에너지수요를 석탄으로 충당하는 동시에 原油생산을 증가시키는 両面작전이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中共의 에너지문제를 가장 철저히 분석한 사람중에 하나인 세릭 해리슨에 의하면 中共은 석탄생산의 증가율을 앞으로 年平均 4퍼센트로 잡고 있다고 한다.[19] 이것은 현재의 증가율인 6퍼센트선을 훨씬 下廻하는 것으로 에너지개발에 필요한 資本投資의 대부분이 原油개발에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준다.

美国商務省이 실시한 中共의 石油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주관

한 중국계 미국인 경제학자 창·추연박사에 의하면 1985년까지 4억톤의 原油생산을 위해 필요한 총자본투자액은 약 45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20] 이것은 中共이 앞으로 매년 적어도 6~7억달러 규모의 자본투자를 原油개발생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투자액이 原油생산계획을 上向조정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971年부터 75년까지의 5개년 동안 中共은 총자본투자의 3퍼센트 정도를 原油개발에 투입했으며 앞으로 85년까지는 적어도 6퍼센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약 国民総生産値가 3천억달러가 넘는 中共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일년에 6~7억달러의 자본투자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中共이 近海油田개발에 着手한 이상 原油개발에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共의 内陸原油매장량(Onshore oil reserves)에 관해서도 일정한 定説이 없다. 中共당국이 内陸原油매장량을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推定은 中国의 地質学的 구조나 또는 지금까지의 생산실적등을 根拠로 산출되고 있다.

中共의 内陸原油매장량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推定한 사람은 美国人 지질학자 마이어호프였다. 소련정부의 고문으로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中国大陸에 관한 자료를 入手할 수 있었던 그는 採掘이 가능한 中共의 内陸原油매장량이 적어도 27억톤이 넘을 것이라고 推定했다.[21] 그러나 그의 推定値는 그후 다른 학자

五) 中共 近海 石油 매장량

中共 近海 石油매장량에 관해서도 定說이 없으며 油田地質学上 가능한 여러 推定方法에 따라 매장량에 대한 推定値도 多様하다.

中共 近海와 黃海, 東支那海 및 南支那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측정 탐사활동을 벌린 최초의 인물은 에머리였다. 2차대전 때 미국해군의 対潜水艦작전을 위해 아시아의 海底탐사작전을 벌려 이 지역에 대해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원래가 海洋学者인 그는 日本人 히로시·니이노와 1961年 공동탐사작업을 벌린후 中国近海에 대규모의 石油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발표는 에머리가 갖고 있던 미국해군의 정보와 戰中에 日本海軍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에머리나 니이노가 직접 海底탐사작업을 벌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中国近海에 대규모의 石油매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에머리·니이노보고서가 최초였다..

그후 1967年 소련측 자료를 입수,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규모이긴 하지만 대륙붕의 地質표본을 검사한 에머리와 니이노는 東支那海, 특히 유구열도近海에 대규모 油田발견 가능성을 지적했고 東支那海가 세계의 近海地域中 石油産出의 가능성이 가장 많으면서도 탐사작업이 가장 적은 곳이라고 지적,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23]

다음해인 1968年에는 유엔의 산하기관인 「아시아 近海地域의

鉱物資源 共同탐사를 위한 調整委員会」와 美国海軍海洋局의 후원을 받은 에머리가 日本, 韓国 및 自由中国의 地質学者들로 일련의 조사단을 구성, 이 지역에 대해 7천4백50마일에 달하는 地層図와 地電場図를 작성,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24)]

「台湾과 日本 사이의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石油매장량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역은 또한 정치적 군사적 요인때문에 아직 試錐되지 않은 대규모 대륙붕 중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제2의 石油매장가능지역으로 黄海를 지적하고 특히 한국 領海 부근에 집결되어 있는 1개 지역과 中国領海 부근의 2개 지역을 가장 有力한 産油가능지역으로 꼽았다.

그후 에모리의 推定을 둘러싸고 甲論乙駁이 있었으나 黄海와 東支那海, 특히 台湾과 유구열도를 연결하는 지역, 그리고 台湾과 海南를 잇는 南支那海 일대에 대규모 油田발견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 같다. 石油매장량의 推定은 해당 정부와 租鉱権교섭을 벌리고 있는 大石油会社들이 가능하면 石油매장량을 적게 推定함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교섭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는것이 더욱 용이하지 않다.

不正確한 채로 몇가지 推定値를 소개하면 앞서 소개한 마이어호프가 東支那海의 石油매장량을 17억톤, 台湾해협을 포함한 南支那

海의 石油매장량을 11억톤, 그리고 黃海와 渤海만 近海의 石油 매장량을 7억5천만톤 정도, 그래서 도합 4억톤 내외로 推定하고 있다.[25)]

그의 推定値는 소련의 石油전문가들이나 놀웨이의 海洋학자인 안 오라프·윌룸스, 그리고 大石油会社의 전문가들의 推定値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日本측 전문가들은 마이어호프의 推定値가 너무 낮다고 믿고 있으며 渤海만에서만 해도 1백억톤 가량의 石油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国際石油交易会社의 社長인 이지조 기무라에 의하면 中共관리들은 渤海만의 石油매장량이 80억톤이라고 推定하고 있으며 日本의 石油会社대표들을 인솔하고 中国을 방문한바 있는 이데미쯔 고산의 총지배인 다께히고 도미나가는 渤海만에 매장돼있는 採掘이 가능한 石油가 50억 내지 1백억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6)]

또한 1969年에 실시한 日本政府의 測量報告에 의하면 센가구 주위의 東支那 海一部에만 해도 1백50만톤의 石油가 매장되어 있다고 推定되고 있다.[27)]

六. 中共의 近海油田開發 現況

中共이 近海油田開発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50年代 말부터였다. 1958年에 中共의 대표적인 海洋学者인 친·윤·산이 渤海만과 黃海 및 東支那海에서 실시한 海洋資源에 관한 調査結果를 59年 「海洋과 湖水」라는 잡지에 발표했고 2年 뒤인 1960年에는 上海에서 발간되는 「科学画報」가 친·윤·산의 보고를 보다 자세히 보도하면서 『中國을 둘러싸고 있는 海洋은 세계에서 가장 希貫한 大陸棚』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中國의 内海인 渤海만이 水深이 수십미터 밖에 되지 않아 探査나 採掘作業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主張했다.[28]

中共의 近海油田探査開発 作業은 그 後에도 継続되어 61年에는 上海 近海에 대한 地質調査가 있었고 62年에는 渤海만에 대한 調査가 한차례 더 행해졌다. 이러한 몇차례에 걸친 近海地質探査 作業의 결과 63年에 친·윤·산은 상당히 방대한 報告書를 다시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渤海湾과 黃海가 水深이 200피트 밖에 되지 않아 즉각적인 石油開発의 可能性이 많다는 점과 이에 비해 東支那海는 水深이 곳에 따라 600피트나 되기 때문에 당장 開発이나 採調作業을 벌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結論지웠다.[29] 이 보고서는 東支那海와 黃海 및 渤海만의 地質構造에 대한 상세한 資料를 담고 있으며 에머리와 니이노가 1962年에 발표한 이 地域의 石油埋蔵量에 관한 보고서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친·윤·

산은 에머리와 니이노의 調査가 많은 지질학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渤海와 黃海 및 東支那海에 매장되어 있을 石油가 에머리와 니이노의 推定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산의 보고서는 中共이 近海油田開発에 놀라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調査活動을 벌써 60年代 初부터 展開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中共近海에 대한 外國의 探査活動에도 中共当局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中共은 또한 이미 1958年에 이탈리아의 國営石油会社(ENI)를 創設한 石油問題의 세계적 전문가인 앤리코, 마테이를 초청에 2억달러에 달하는 近海油田探査를 包含한 石油探査装備의 구입에 동의했었다.[30] 이것은 마테이가 62年 비행기 추락사고로 死亡하므로서 유산되고 말았지만 中共은 그밖에도 60年代 初에 루마니아와 프랑스 등을 통해 石油探査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다.[31]

60年代 後半에 中共이 어느 정도의 近海油田作業을 벌렸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中共은 이미 이당시 30隻 가량의 海洋調査船을 보유하고 있었고 1965年에는 프랑스의 기술원조 아래 空気電場을 이용하여 渤海만에 대한 海底測量을 실시했고 그 後에도 外國의 도움없이 『空気銃』의 方法을 사용하여 渤海만 일부와 黃海에 대한 独自的인 測量作業을 벌렸다고 알려져 있다.[32]

中共은 또한 60年代 初부터 試錐機械의 國內生産을 서둘러 왔다. 처음에는 주로 루마니아의 試錐機械를 輸入하여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을 択했으나 머지 않아 루마니아産 試錐機械의 결점이 발견되어 65年부터 日本의 技術에 依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67年에는 中共의 技術者들은 日本에서 輸入한 技術과 部品을 바탕으로 中共 최초의 搾孔機을 제작하는데 성공했다.[33] 이 搾孔機는 油田技術上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 水深 1백피트 이내의 近海에서 깊이 1.2마일의 試錐孔을 팔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계는 주로 渤海만 近海油田開発에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기계로 1968年 가을 中共은 渤海만 南北 近海에서 油田을 발견했으며 곧 시험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69年에는 中共은 日本에서 보다 기술상 정교한 搾孔機인 『自龍』을 1천1백만달러에 구입했고 72年에는 9百万달러의 대금을 치루고 日本의 미쯔비시로 부터 中古搾孔機(jack-uprig)인 『후지 1号』을 구입, 다음 해 4月23日 天津港 15마일 지점의 海上에서 정식 試錐作業에 들어갔다.

中共의 搾孔機製作技術은 日本의 技術도움에 힘입어 상당히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여 1974年 12月 『渤海 1号』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67年에 제작된 搾孔機은 사실 日本에서 原型을 그대로 輸入하여 中共이 必要한 変型을 加한 것이여서 『渤海 1号』야 말로 순수한 中共 技術과 資本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搾孔機이

였다.

『渤海 1号』는 最大水深 180피트에서 작업할 수 있는, 美國이나 日本의 搾孔機에 비하면, 기술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한 것으로 수로 大連과 天津 사이의 近海에서 活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中共은 그 後에도 搾孔機의 國內生産을 계속해 왔으며 1974年에는 搾孔船 「칸탄 1号」를 제작했다. 또한 1977年에는 싱가폴의 『로빈·로』造船会社로 부터 高性能의 搾孔機(jack-up rig) 2대를 구입, 『南海 1号』와 『南海 2号』라 命名했다.

1978年 9月 現在 中共이 보유하고 있는 近海搾孔機(jack-up rig) 또는 搾孔船(drillship)은 모두 10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渤海만의 近海뿐 아니라 中國大陸쪽의 黃海와 南支那海 일부에서 작업중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中共의 近海油田開発技術은 비교적 水深이 낮은 渤海만과 그 밖의 黃海 一部地域에서 独自的인 開発을 추진할 수 있으나 水深이 깊은 東支那海나 南支那海에서는 独自的 開発의 能力이 아직은 없다고 판단된다. 日本의 中共石油問題專門家들은 中共이 멀지 않은 장래에 東支那海에서 独自的 開発能力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으나 水深이 600피트 이상이나 되며 태풍이 잦은 이 海域에서의 採掘作業은 단순한 搾孔機建設의 問題뿐만 아니라 콤퓨터등 그밖의 精密機械工学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다.

中共이 深海에서 独自的인 油田開発의 能力을 갖추느냐 하는 문

<도표 3> 아시아의 近海搾孔機 (rigs)

國家名	近海搾孔機 数字
오스트랄리아	3
부르네이	5
中共	10
印度	4
인도네시아	11
日本	4
말레지아	9
뉴질랜드	1
필리핀	1
쏘련	2
대만	1
合計	49

註 1) 이 資料는 Petroleum News SEA에서 引用한 것임.

2) 近海搾孔機의 数字는 1978年 9月 現在임.

제는 黃海와 東支那海 一部를 除外한 현재 領海紛争이 예상되는 地域이 대부분 水深이 상당히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中共이 近海油田에서 실제 얼마의 原油를 生産하고 있는지는 역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68年 중반기에 渤海만에서 試錐한 이래 12평방마일 크기의 海底油田을 발견했으며 1976年 9月의 新華社 보도에 의하면 『渤海만에서 数個의 大型 油田을 발견했다』고 한다.[35] 中共과 接触이 많은 어느 노르웨이 석유 전문가에 의하면 中共은 1976年 현재 渤海만에 20개 정도의 試錐油田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해리슨 같은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試錐油田이 있을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36] 해리슨에 의하면 中共은 2개의 바즈-型(barge-type) 搾孔機(rig)과 搾孔船(drillship) 1隻, 6개의 잭·앞(jack-up), 그리고 1隻의 카타마란型 搾孔船(katamaran drillship), 도합 10개의 搾孔機 또는 船舶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타마란型 搾孔船과 1개의 잭·앞(jack-up)이 南支那海의 水深이 비교적 얕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는 渤海만 부근에서 작업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37]

中共은 1977年 중반기 현재 2隻의 카타마란型 搾孔船과 4개의 잭·앞(jack-up)을 건조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78년 말까지는 이들이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현재 中共에서는 天津市政府가 渤海만 近海油田開発作業을 責任지

고 있으며 黃海 및 東支那海의 北部는 山東省政府가, 東支那海의 南部는 上海市政府가, 그리고 南支那海는 広東省政府가 각각 一次的인 責任을 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38]

1977년에 건조중이던 잭·앞(jack-up) 4개 가운데 적어도 2개는 山東省政府에 배당되었다는 사실은 中共이 黃海와 東支那海 北部의 開発을 서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한 上海에 6개의 油田探査선용 독(dock)이 새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東支那海 南쪽에도 머지않아 본격적인 開発作業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다.[39]

또한 中共은 1975年부터 日本의 수미토모会社를 비롯한 여러 곳으로 부터 水深이 깊은 곳에서 油田開発作業을 할 수 있는 各種 機械들을 구입하고 있어 深海油田開発의 準備를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라는 인상이 짙으며 따라서 近海油田開発을 둘러싼 地域紛争은 장차 상당히 심각한 東北亜의 국제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展望된다.[40]

渤海만과 黃海 一部를 제외하고는 中共이 近海油田에서 石油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1974年 이래 青道와 上海를 잇는 쪽의 東支那海와 통킹만 부근과 海南島 부근 그리고 파라셀(南沙列島)의 南支那海에서 活発한 探査活動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試錐作業이 시작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 지역에서도 石油生産이 예상되고 있다.

英國의 石油專門家들에 의하면 1980年에 近海油田에서 생산되는

石油가 적어도 2천1백만톤에 달할 것이라 하며 놀웨이의 석유전문가인 안·오라프·월룸스는 2천8백20만톤이상이 생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41] 월룸스는 또한 1985年에 7천4백만톤 이상의 近海石油生産을 예측하고 있다.[42]

월룸스는 中共이 외국으로 부터 近海油田開発을 위한 장비도입을 급속히 늘리는 경우 近海油田에서 生産되는 석유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만약 1978年까지 中共이 近海搾孔機 (rig) 3대를 더 구입하는 경우 1980年의 中共의 近海石油生産은 4천3백만톤으로 증가하며 1985년에는 1억5천4백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수장하고 있다.[42]

만약 中共이 1985年이나 적어도 1990年까지 年産 4억톤의 石油를 생산하려면 적어도 近海油田에서 年産 2억톤 이상의 석유가 생산되어야 한다. 東北部의 内陸油田에서 1990年 까지 최대한으로 1억톤의 석유가 생산될 것이며 현재 개발중인 西北部에서 9천톤 정도의 석유가 생산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1990年 까지 渤海 近海의 油田에서 1억3천만톤이 생산되고 그밖의 近海油田에서 8천만톤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해리슨은 주장하고 있다.[43]

七) 中共의 近海油田開発과 台湾

自由中國은 1966年 이후 近海油田開発에 着手, 台湾과 中國本土 및 日本의 西南部에 이르는 방대한 東支那海의 석유산출의 可能性이 가장 많은 곳에 11개의 租鉱区域을 設置하고 6개의 미국석유회사들과 提携, 開発作業에 나섰다.[44]

自由中國이 近海油田開発을 서두른 것은 経済的 理由보다 오히려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近海油田開発에 미국석유회사회비들을 끌어들이므로서 台湾에 대한 미국의 投資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台湾에 대한 미국의 支持를 확보하자는 계산이었다. 勿論 1975年의 경우 8억 5천만달러에 육박한 原油輸入을 國内 石油開発로 代置하려는 経済的 고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였지만 만약 近海에서 油田이 발견되지 않드라도 미국으로 부터 政治的 支持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近海油田開発計劃을 促進했다.

그러나 租鉱権을 얻은 美國石油会社들이 미국정부의 強力한 반대로 租鉱計劃을 취소함으로서 현재는 近海油田開発計劃이 사실상 白紙化 했다.

66년에 自由中國政府가 처음 租鉱区域을 설치하고 近海油田開発에 나설 때만해도 미국과 中共間에는 國交正常化의 조짐이 거의 없었고 中共은 오히려 文化革命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므로서 近海油田開発에 별다른 관심을 표명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大石油会社들이 石油産出의 展望이 밝은 이곳

의 租鉱權에 깊은 관심을 규명하고 제 각기의 정치적 줄을 대어 自由中國政府에 接近했었다.

그러나 租鉱權에 대한 交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文化革命이 끝났고 租鉱協定에 체결된 1970年 9月에는 벌써 미국과 中共의 관계가 상당히 변모하고 있었다.

自由中國이 設定한 租鉱区域은 도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형식상으로는 中國本土의 近海를 包含하고 있었지만 실지로는 本土의 沿岸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設置되었고 가장 정치적으로 紛争可能性이 높은 台湾海峽에서는 本土와 台湾과의 中間線(median line)의 안쪽으로 策定되었다. 그러나 自由中國이 策定한 租鉱区域은 도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日本이 設定한 石油開発租鉱区域과 상당한 부분이 重復되고 있다.

台湾에서 日本의 九州南部에 이르는 이른바 오키나와海構의 방대한 지역은 센가꾸列島을 包含하고 있으며 이 列島을 包含하여 日本이 設置한 租鉱区域은 自由中國의 그것과 70% 이상이 重復되고 있다. 그래서 台湾에서 가장 가까운 海域에 租鉱權을 얻은 걸프石油会社가 센가꾸列島 근처에서 探査作業을 벌리다가 日本自衛隊 소속 함정들에 의해 쫓겨난 일이 있었다. 自由中國政府와 台湾近海의 租鉱權을 獲得한 미국石油会社들은 日本의 大石油会社, 특히 自由中國 租鉱区域과 重復되는 日本区域에 租鉱權을 獲得한 日本石油와 帝國石油와의 合作을 추진했으나 中共의 政治的 反応을 우려한 日本政府의 圧力과 台湾의 政治的 장래에 대해 不安해 하는

도표 4 : 台湾近海의 租鉱区域 制定 및 그 現況

(※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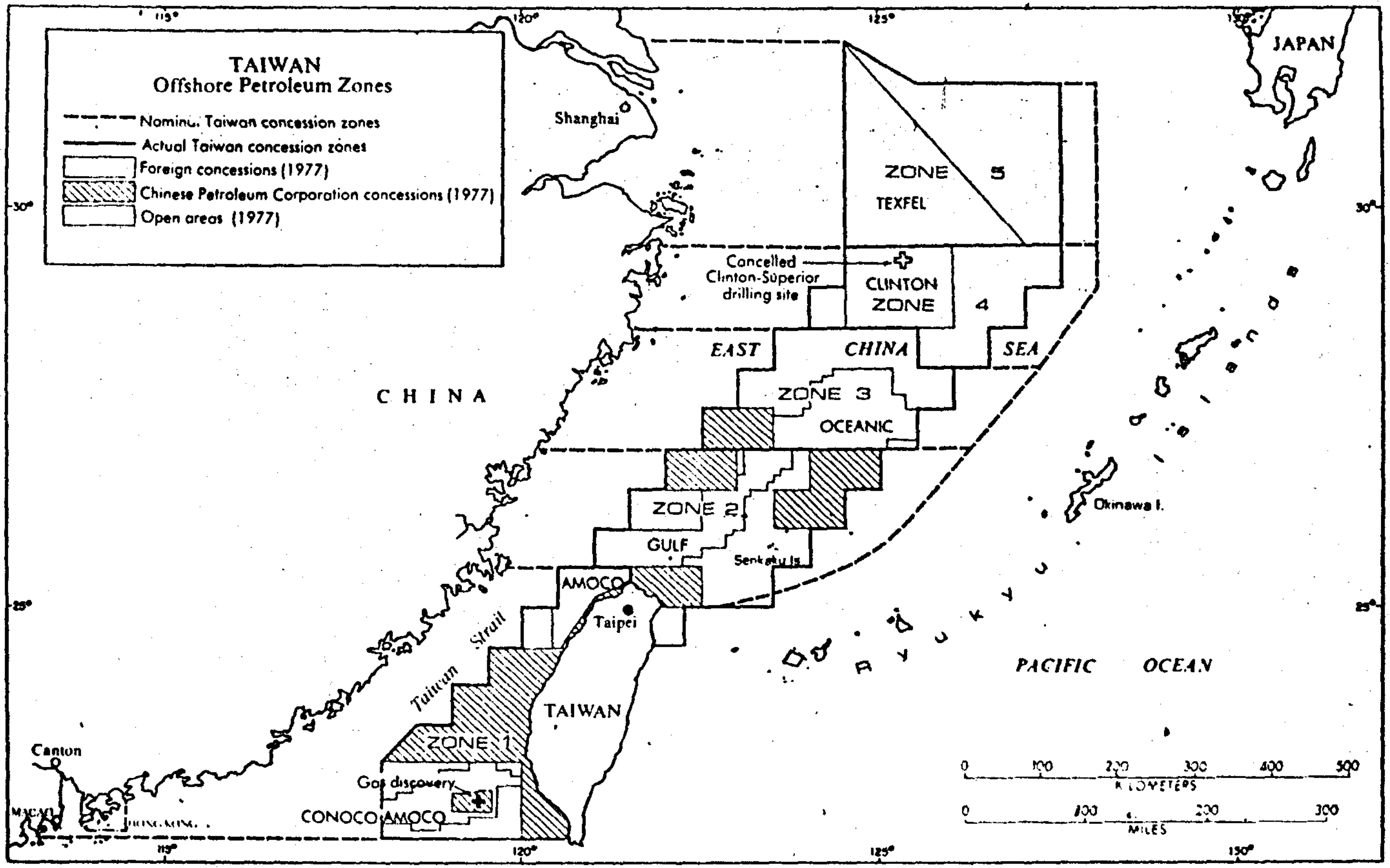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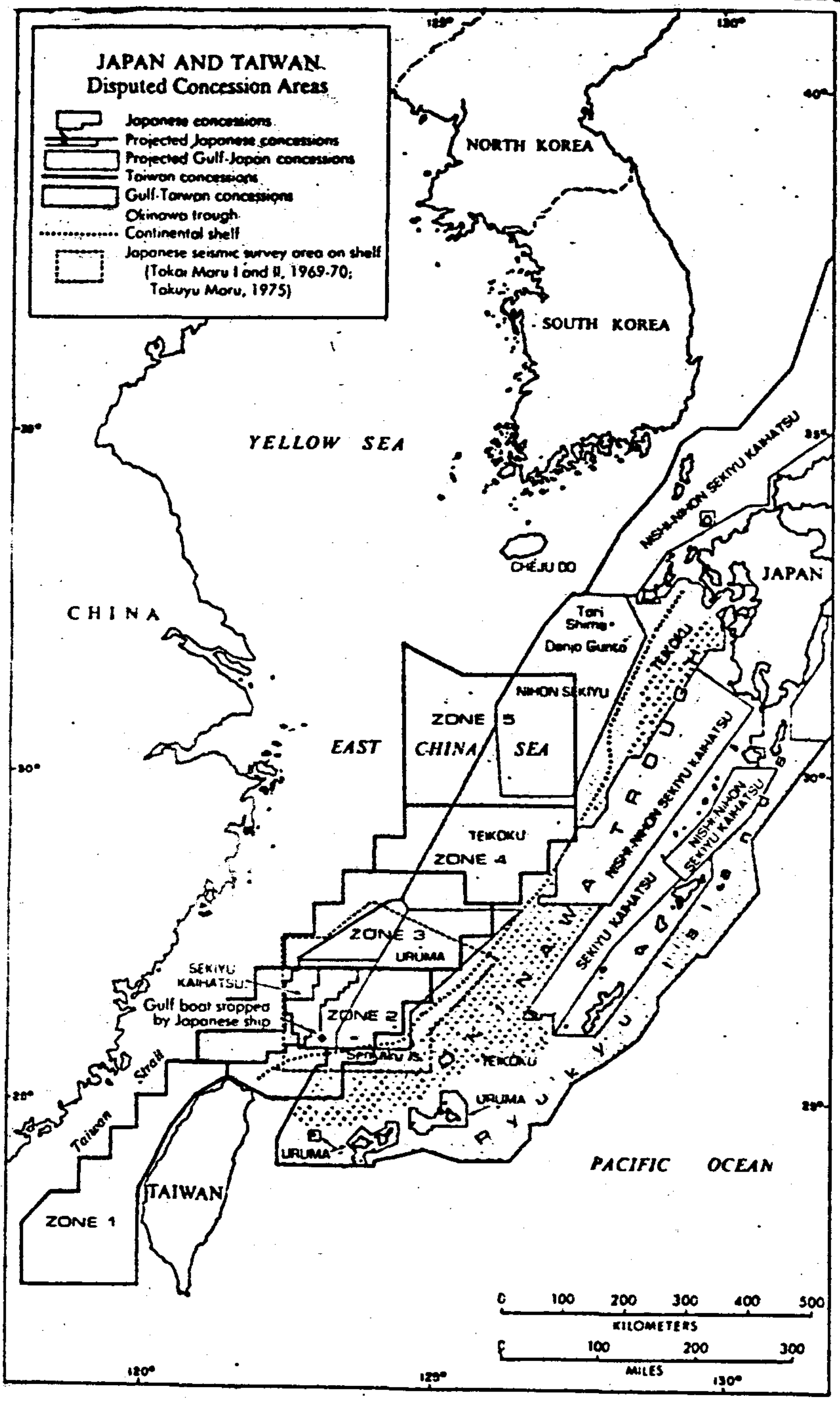


도표 5 : 日本과 台湾의 領海権 紛争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日本石油会社들 때문에 流産되고 말었다.

원래 自由中國政府로 부터 近海租鉱權을 獲得한 美國石油会社는 걸프(gulf)와 아마코(Amaco)를 비롯해서 크린톤(Clinton)과 텍스펠(Texfel) 등이였다. 이중 걸프와 아마코가 가장 큰 편이고 크린톤과 텍스펠은 어느 정도 産油의 可能性이 확인되면 다른 더 큰 석유회사들과 合作해서 본격적인 産油作業을 벌리는 일종의 『와이드·캩』(wild cat)会社들이였다.

台湾近海에 아주가까이 위치해서 정치적으로도 中共과의 紛争可能性이 가장 적으며 지질학적 調査에 의해 産油의 可能性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소란자위区域에 租鉱權을 獲得한 걸프는 70年 초부터 본격적인 探査作業에 나섰고 같은 해 11月에는 최고급 군사기밀에 속하는 電子装置와 航海機械 및 海底探査装備를 갖춘 걸프회사 소속 석유探査船인 「걸프랙스」(Gulf rex)号를 台湾近海에 출동, 探査作業을 벌렸다.

「걸프랙스」号의 출동은 미국정부에 심각한 政治的 軍事的 問題를 제기했다. 최고급의 군사기밀 장치를 장비한 「걸프랙스」号가 만약 中共 함정으로 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미第七艦隊가 이를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군사적 문제와 그러한 군사적 대결이 당시 진행중이던 中共과의 정치적 交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問題였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국무성과 국방성 및 白堊舘 대표들이 수차례 会同한 끝에 70年 12月 『만약 「걸프랙스」号가 他國의 함

勿論 中共石油에 대한 日本의 관심은 対蘇関係 등 政治的 고려를 제외하고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側面에 있지만 石油資源輸入源의의 多元化나 独自的 石油資源開発에의 展望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日本의 中共에 대한 原油輸出은 지난 78年 1月에 체결된 日・中民間貿易 8個年協定에 1982年 까지의 輸出量이 明示되어 있을뿐 그밖에 자세한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 協定에 의하면 日本은 中共으로 부터 78年부터 82年까지 原油輸入을 점차 증가시켜 82年에는 1천 5백만톤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45) 勿論 이것은 1973年 日本과 소聯사이에 시베리아開発에 관한 交渉이 한창일 때 中共이 1980年에 2천 5백만톤의 原油를 日本에 수출하겠다고 제의한 것에 비하면 大幅的으로 감소된 수량이지만 日本과 中共間의 급증하는 経済協力関係에서 原油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1973年에 中共의 対日輸出의 4.3%에 불과했던 原油는 다음해 32.9%로 올라고 伸張勢를 보였고 76年에는 41.3%가 되었다. 일부 석유전문가에 의하면 1985年에 中共의 対日本 石油輸出은 4~5천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해 日本의 石油需要(推定)의 6분의 1에 가까운 日本의 対中共石油 依存度가 놀라운 규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46)

이와같이 日本의 中共原油輸入이 급증하는 데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앞서 지적한 日本의 原油輸入多元化政策의 반영이라는 점 이외에도 日本政府는 中共石油輸入을 西方側 大石油会社들과의 原油価格協商의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다. 日本에 대해 原油供給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西方側 大石油会社들은 原油価格에 대한 独占的 決定을 해 왔으며 日本政府는 中共石油輸入을 西方側 大石油会社들의 이러한 政策에 대한 圧力手段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日本과 中共間의 貿易은 日本의 심각한 出超現象에 의해 特徵지워져 왔으며 日本에 대한 中共原油輸出의 증가는 이러한 양국간의 貿易逆調現象의 是正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째, 中共石油의 対日輸出 増加는 日本의 石油需要를 充足시키는 동시에 石油輸入源의 多元化라는 日本政府의 政策目標에 부응함으로써 独自的인 石油供給源을 찾기 위해 近海油田開発計劃에 박차를 가할지도 모를 日本石油業界들을 무마, 日本의 近海油田開発을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中共을 包含한 隣接國家와의 紛争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中共産 原油는 日本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中共産 原油가 왁스質이 높은 重油라는 점이다. 현재 日本의 精油業界는 대부분 中東産 原油나 인도네시아의 「미나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重油類의 中共産 原油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勿論 여기에는 莫大한 資本投資가 뒤따라야 한다. 작년 日·中民間貿易協定의

체결을 둘러싸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이 것으로서 日本이 中共産 石油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日本이 独自的인 近海油田開発作業을 본격적으로 着手한 것은 1971年께 였다. 그 前에도 日本沿岸 근처에서 소규모의 油田開発 作業이 있긴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고 外國石油会社들과 合作으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近海油田開発作業을 벌렸으나 失敗에 그치고 말았다.

71年부터 76年까지 日本의 石油会社들은 1억달러 이상을 投資하면서 日本海에서 41개의 試錐孔을 왔으나 7백 50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교적 적은 油田을 1개 발견했을 뿐이다. 73年에 조반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제성이 있는 油田을 발견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 油田의 水深이 500피트가 넘어 생산작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되었다.[47)]

1975年에 개최된 日本에너지対策会議는 1985年의 에너지수요의 輸入石油依存度를 63%(73年에는 77.4%)로 줄이기로 目標를 定하고 近海油田開発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近海油田開発計劃을 담당하고 있는 通商省의 資源 및 에너지庁은 75年부터 近海油田開発에 대한 政府의 融資를 실시하여 이해 1억1천5백만달러를 할당했고 다음 해에는 이것을 약 2억달러 水準에 까지 끌어 올렸다.

1976年末 現在 日本石油開発会社를 비롯하여 4개의 石油会社가

日本 近海에서 油田開発作業을 벌리고 있다고 알려졌다.[48]

日本의 近海油田探査技術은 상당히 先進水準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水深 3,000 피트 이상에서 石油探査作業을 벌릴 수 있는 搾孔機(rig)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49]

68年 에머리와 니이노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日内에서는 몇몇 石油会社들이 센가구列島와 오끼나와 近海의 海域에서 지질조사 및 試錐作業을 수차례 벌렸으나 中共과의 領海権紛争을 우려한 日本政府의 태도때문에 구체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九) 海洋法 紛争에 対한 中共의 態度

近海油田開発과 관련된 海洋法에 대해 中共은 暖晩한 태도로 始終一慣하고 있다. 1958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대륙붕에 관한 유엔会議의 決議가 200미터 水深 또는 그 밖의 採掘活動이 可能한 지역에서의 관할 領海國의 排他的인 採掘權을 인정하고 隣接國과의 사이에 海幅이 좁은 경우에는 中間線의 原則이 적용된다고 규명하고 있으나 中共은 이 決議案에 署名하지 않았고 黃海와 東支那海의 構造上 특수성을 이용, 自然 延張論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대륙붕의 自然延長論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領海나 專管水域이 정확히 어디인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대륙붕에 관한 中共의 태도는 상당히 曖昧한 점이 많다.

1970年에 韓國政府와 台湾이 近海油田開発을 위해 租鉱区域을 設定, 발표했을 때나 같은 해 日本이 센가꾸列島에 대한 所有權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도 中共은 强力한 항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항의는 막연히 『台湾주위와 센가꾸列島 및 南支那海列島의 海底資源과 水深이 낮은 中國의 다른 海域에서의 資源』이 中國의 것이며 다른 국가들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주장했을 뿐 정확히 中國의 領海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전혀 言及이 없다.51)

또한 中共은 南美國家들이 주장하고 있는 200마일의 経済水域을 완성하고 있으면서도 200마일이 中共이 주장하고 있는 領海의 全

部인지에 대해서는 言及을 않고 있다.[52]

1972年 4月에 있었던 유엔의 대륙붕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中共은 『浅海에서의 資源』開発権을 주장했지만 浅海의 뜻이 대륙붕의 自然延長論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아마도 曖昧한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후일 近海資源의 開発에 관한 협상에서 裁量権을 남겨놓겠다는게 中共의 의도인 것 같다.

다음해인 1973年 봄에 개최되었던 海洋法에 관한 会議에서 中共은 은 역시 200마일의 経済水域을 지지하고 나왔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건을 달고 있다.[53]

대륙붕이란 육지의 자연연장이라는 原則에 입각해서 沿岸國은 各自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領海나 経済水域 밖에서 専管 대륙붕의 限界를 정할 권리를 保有한다. 그러한 대륙붕의 最大限界는 해당국가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黃海나 東支那海의 경우 대륙붕이 海岸線으로 부터 200마일을 훨씬 넘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中共의 이러한 주장은 中共이 黃海나 東支那海 全域에 대해 開発権을 주장할지 도 모른다는 可能性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이러한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는 일면 해당 沿海國家들 간에 협의에 의해서 대륙붕의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므로서 관계 국가들 사이에 협상의 여지를 남게 놓고 있다.

1974年 2月 韓日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中共은 자연연장論을 내세워 이 협정에 강경히 항의하는 동시에 有関國과의

協議를 강조하므로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54] 그러나 中共은 近海油田의 공동개발이나 대륙붕한계설정의 협상에 임할 그들 자신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曖昧한 태도를 취했고 그후의 유엔이 주관한 대륙붕에 관한 회의에서도 비슷한 曖昧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十) 結　　語

中共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近海油田開発을 서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石油를 생산하고 있는 内地의 大慶, 勝利 또는 大港油田들이 東北部에 위치하고 있어 소聯의 軍事的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内地 油田의 개발이 可能한 곳도 티벧이나 蒙古 또는 신장성 부근에 집중되어 있어 역시 소聯의 군사적 위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華國鋒과 鄧小平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四個近代化計劃은 近海油田開発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日本과의 貿易에서 原油輸出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것은 더욱 分明해진다.

中共의 近海油田開発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黃海나 東支那海의 일부 그리고 南支那海의 일부가 水深이 낮고 또 隣接國과의 거리가 짧아 近海油田開発을 둘러싼 地域紛争의 可能性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현재 中共은 近海油田開発의 技術이 미숙하고 특히 깊이 300미터 이상의 水深에서 開発活動을 벌릴 技術的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華國鋒과 鄧小平政權이 强力히 추진하고 있는 油田開発近代化 사업을 머지않아 中共으로 하여금 深海開発의 能力을 갖추게 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된다. 77年 이후 中共은 西方側, 특히 미국과 日本 등지에서 많은 近海油田開発裝備를 구입했으며 美中國交正常化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加速시켜 中共의 深海

油田開発能力은 예상되고 빨리 急進展할 可能性이 짙어졌다.

지금까지 中共이 대륙붕개발에 대해 曖昧한 태도를 취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中共의 近海油田開発能力이 향상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계산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黃海나 韓日共同開発이 추진되고 있는 第七鉱区가 있는 제주도 南쪽의 東支那海 일부는 水深이 낮아 海洋法上 曖昧한 점이 없지 않으며 韓半島를 대표한다는 北韓의 法的 虛構 때문에 中共의 태도는 더욱 강경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대륙붕개발 문제는 단순한 法的 経済的 또는 技術上의 問題가 아니라 南北 分断의 現実이 反映되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中共의 近海油田開発이 장차 더욱 活発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紛争의 可能性이 높아질 것이 展望된다면 앞으로의 한국의 対策은 무엇인가?

현재의 東北亜의 力関係에 비추어 紛争予想地域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나 또는 第三國의 石油会社에게 租鉱権을 부여해서 油田開発活動을 벌린다는 것은 中共과의 紛争을 초래하게 될 것 같다. 黃海의 第二鉱区에서 美걸프会社가 油田開発作業을 하던도중 中共의 강경한 圧力과 미국의 間接的인 간여로 無為에 그친 사건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近海油田開発計劃을 서둘고 있는 中共의 현재의 사정을 고려하면 장차 한국이 紛争予想地域에서 油田開発作業을 벌릴 경우 中共의 反応은 더욱 강경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한국은 紛争予想의 近海에서 油田開発을 위한 関係國家들의 共同委員会 같은 것을 구성하자고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共同開発委員会는 韓國과 日本 및 中共을 包含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北韓을 包含시킬 수도 있다. 北韓의 参与는 그 実現性이 의문이지만 中共이 共同開発委員会에 参与할 수 있는 可能性을 높여줄 것이다.

北韓이나 中共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韓國이 近海油田을 開発하는 경우 이것이 韓國経済発展에 큰 기여를 하므로서 南北韓間의 경제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共同委員会에 北韓과 中共이 参与하는 경우 이러한 우려가 무마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中共, 北韓, 日本 및 韓國으로 구성되는 東北亜 近海油田 共同開発委員会(가칭)가 中共이나 北韓의 반대로 失敗하는 경우 그 代案으로 유엔이나 그 산하기관(ECAFE 등)이 주관할 수도 있다.

어쨌든 中共의 近代化計劃를 고려하면 近海油田開発을 둘러싼 中共과 韓國과의 紛争은 예상외로 빠른 시일내로 現実化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対策이 시급하다 하겠다.

도표 6 : 中共의 大陸棚 主張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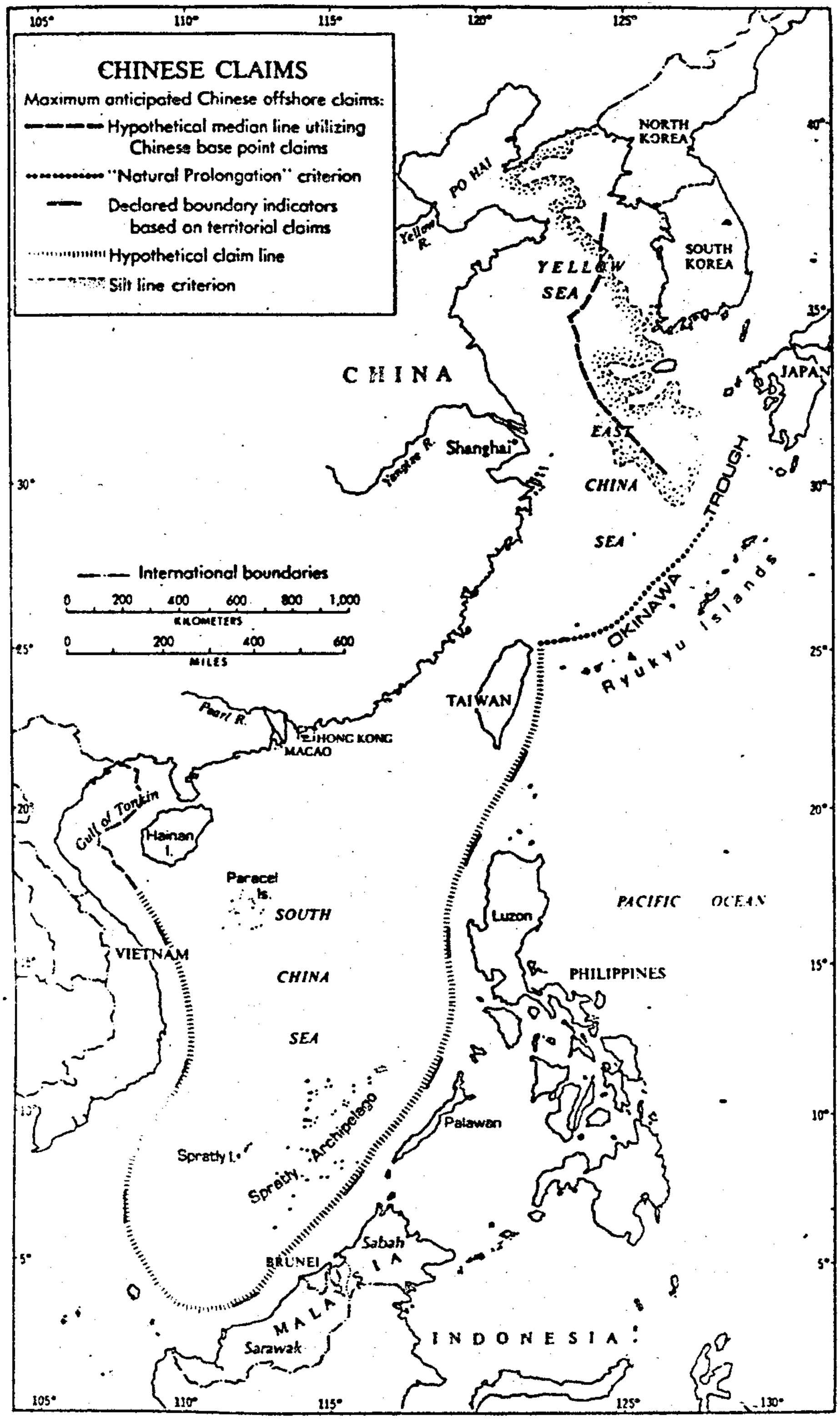


도표 7 : 東北亜의 近海油田 埋蔵 可能 地質分布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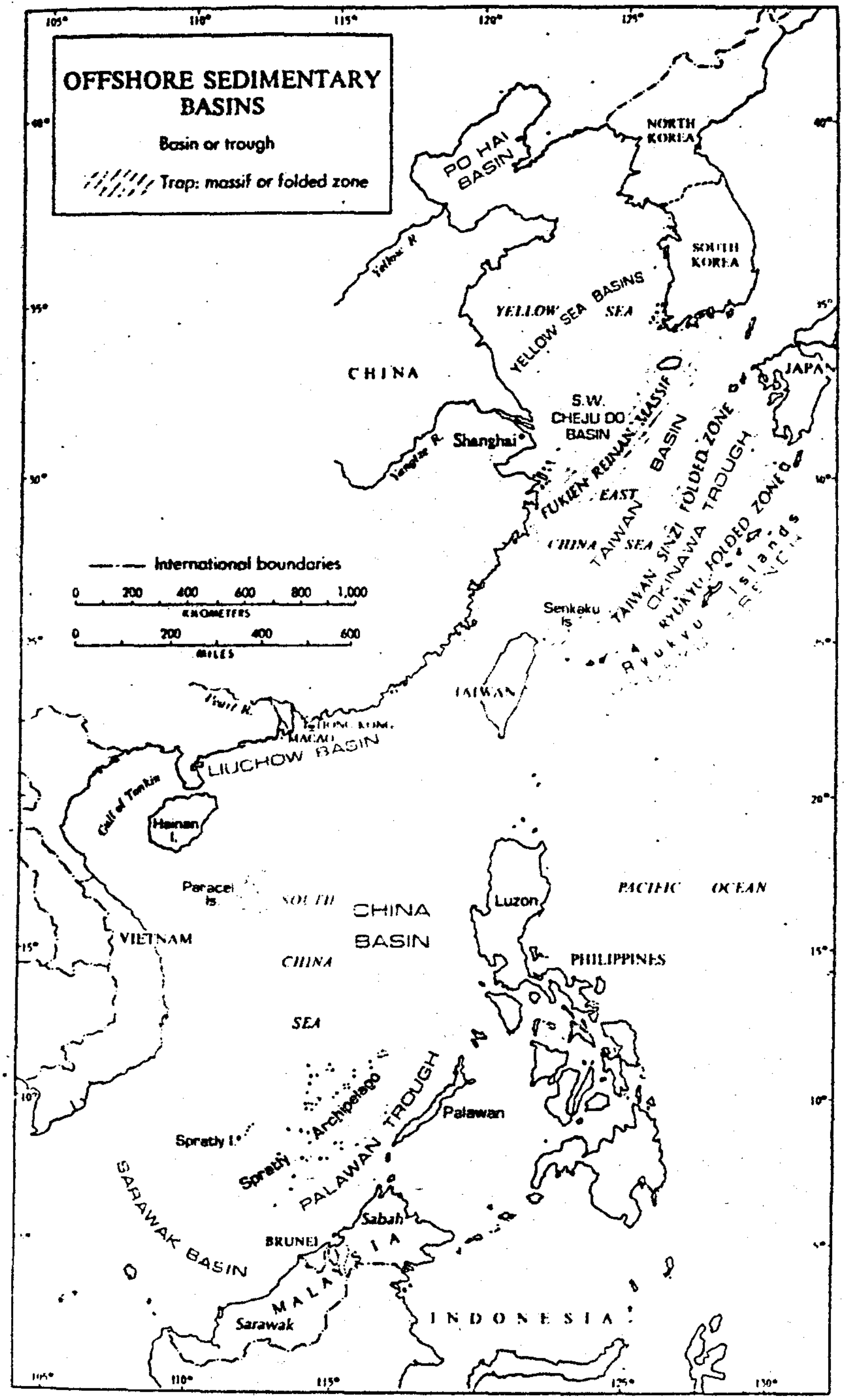


도표 8 : 黃海와 東支那海의 石油 埋藏 可能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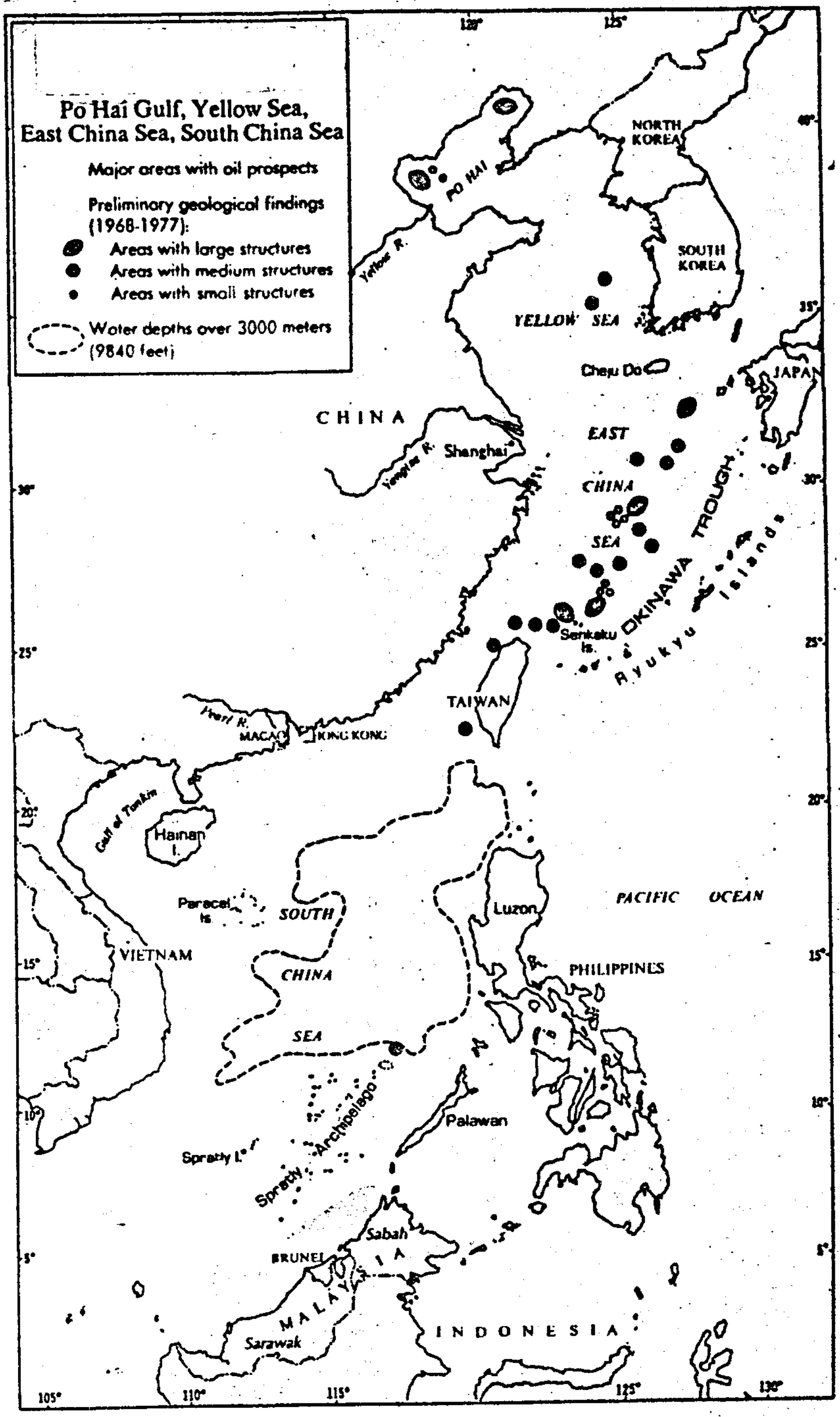


도표 9：韓国의　近海油田開発　租鉱区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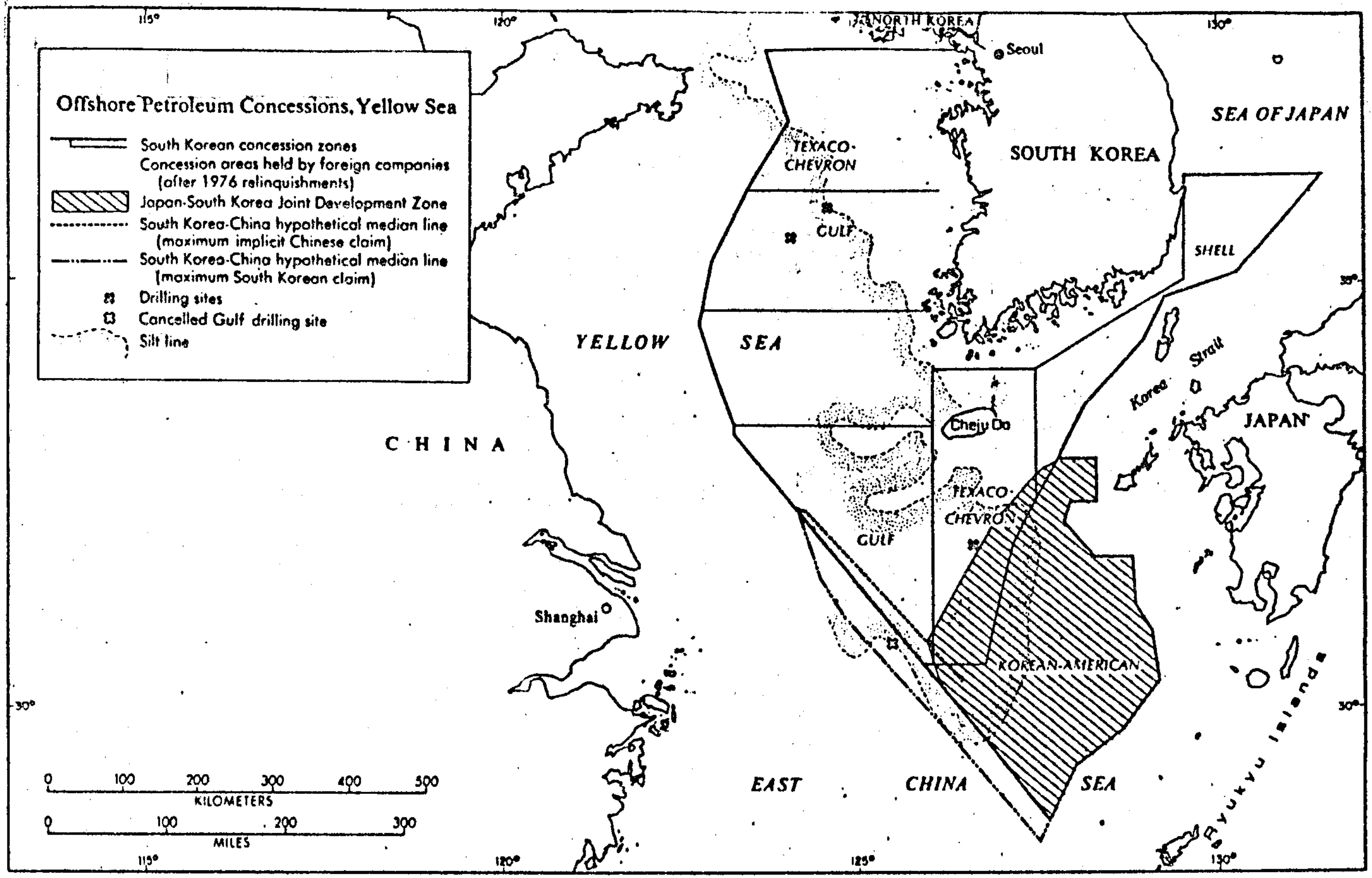


도표 10 : 南支那海의 石油開発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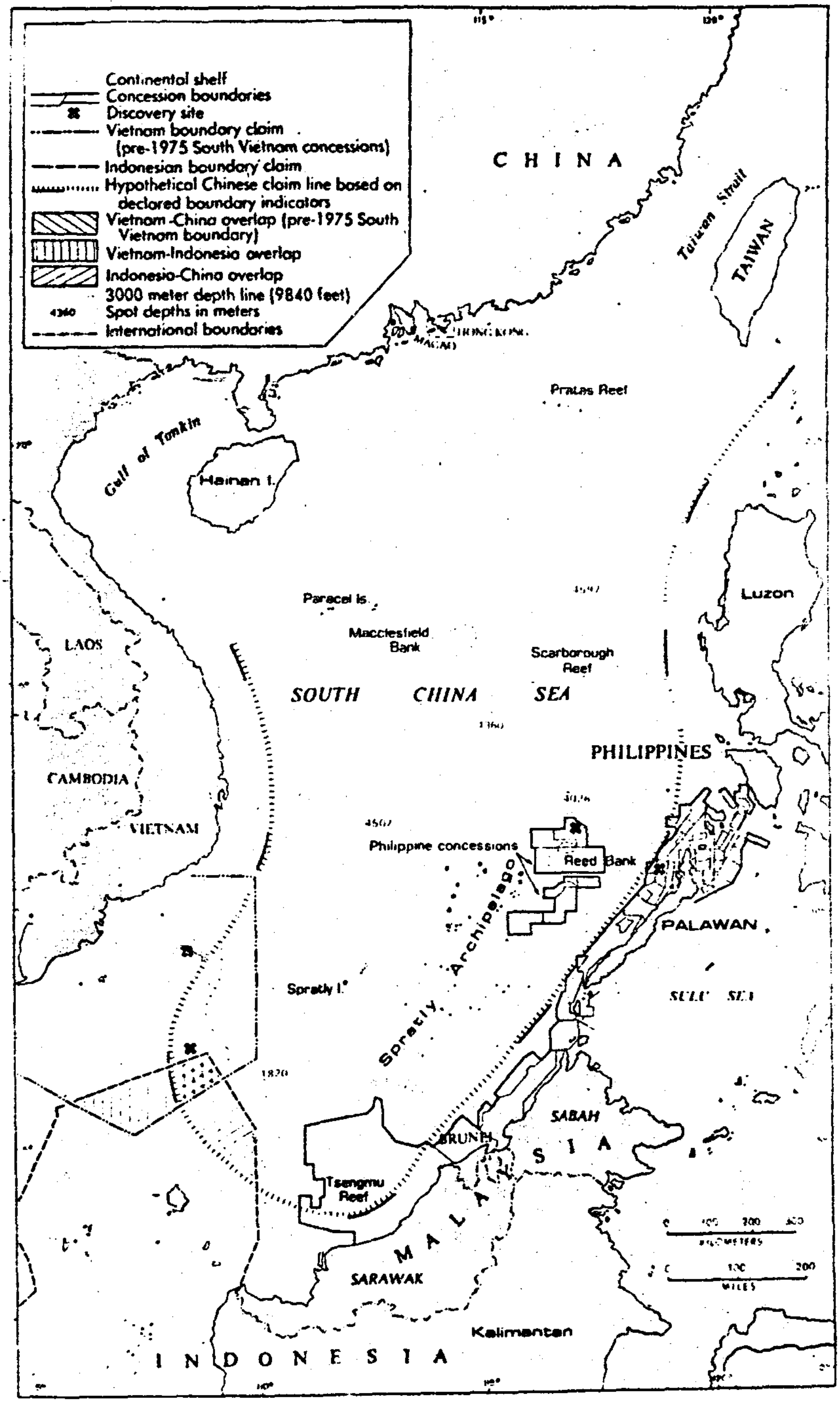


도표 11 : 台湾南部의 石油開発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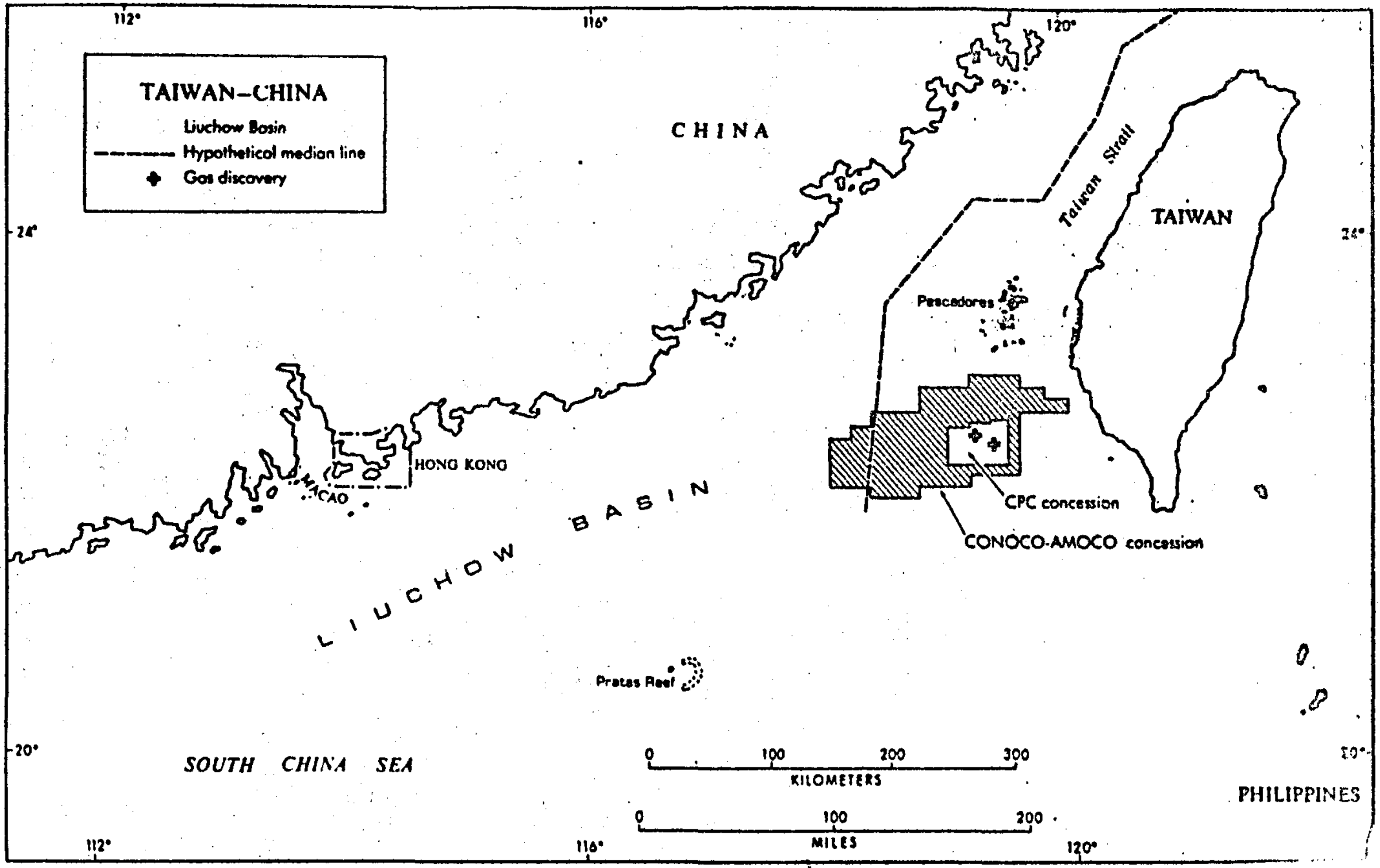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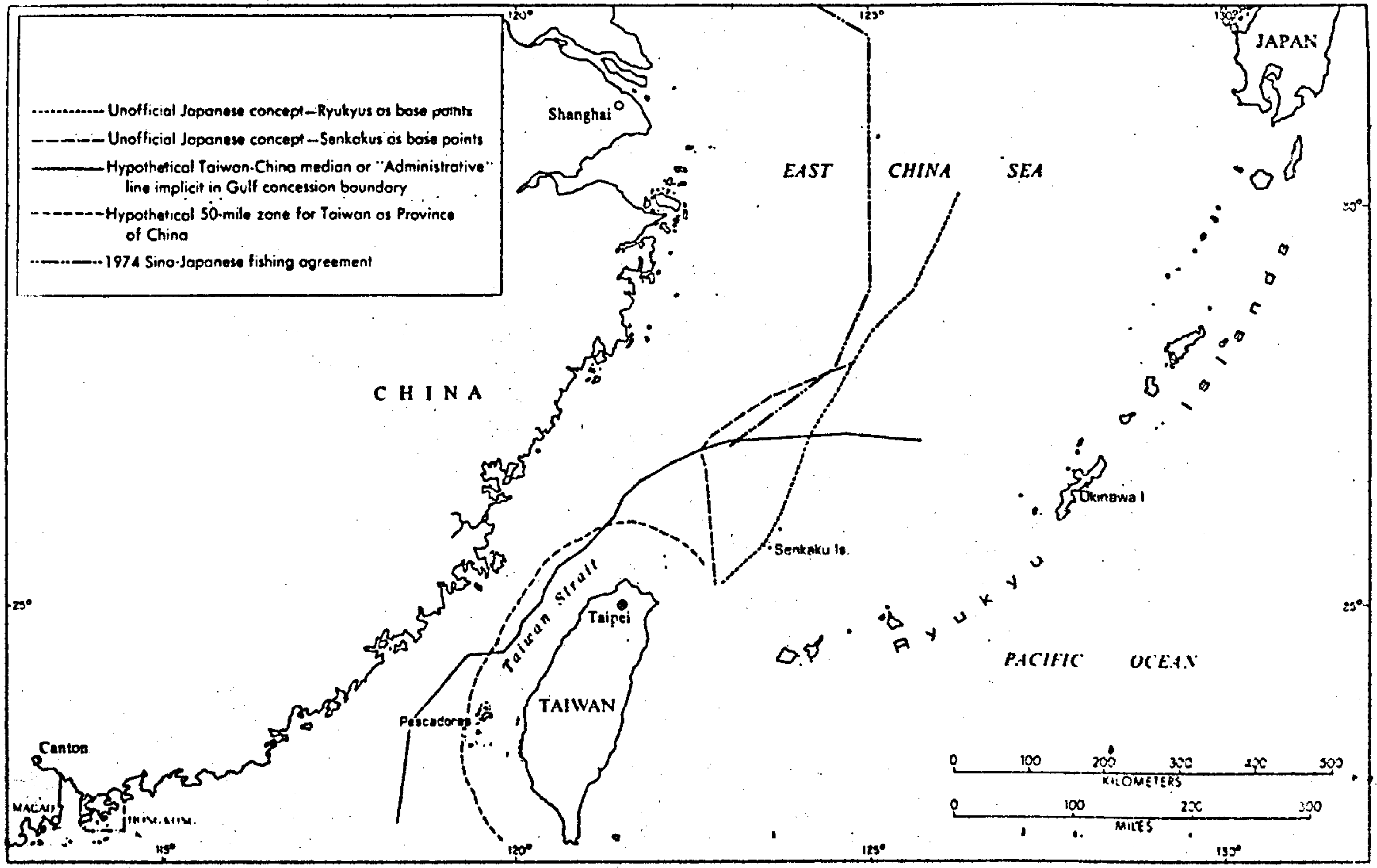


도표 12 : 台灣近海의 東支那海에 있어서의 中共의 領海(中間線기준)



— 註 —

1. Selig S. Harrison, China, Oil and Asia-conflict ahead?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7), p. ix.
2. Ibid., p.x.
3. Ibid.
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29, 1978, pp. 32-34.
5. Ibid., pp. 32-34.
6. Ibid.
7. Ibid.
8. Ibid.
9. Ibid
10. Asia Yearbook, 197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ong Kong, 1979).
11. Chinese Economy Post Mao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1978).
12. Asia Yearbook, 1979, p. 177.
13. World Petroleum Encyclopedia, pp. 413-44.
14. Ibid.
15.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 19.
16. Ibid.
17. Ibid., p. 15.

18. Ibid., p. 12.

19. Ibid., p. 21.

20. C.Y. Cheng, China's Petroleum Industry: Output growth and Export Potential (New York: Praeger, 1976).

21. A.A. Meyerhoff, "China's Petroleum Potential," World Petroleum Report, 1975, p. 21.

22. Booby A. Willioms, "The Petroleum Industry in China," (Unpublished paper, March 1976), p. 11: also, China: A Reassessment of its Economy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1975).

23. CCOP Technical Report, vol. 1, UN, ECAFE (Bangkok, June 1968); quoted by Horrison in China, Oil and Asia, p. 46.

24. CCOP Technical Bulletin, May 1969, p. 41.

25. World Petroleum Report, 1975, p. 21.

26.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 43.

27. Ibid.

28. Chin Yun-shan 論文은 Translations on Communist China, no. 97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50252), April 1970, pp. 12-36에 全文이 번역되어 있음.

29. Chin Yun-Shan, "Initial Study of the Relief and Bottom Sediment of the Continental shell of the East China Sea," 海洋与湖水 1963, 5:35, quoted by Harrison in China, Oil and Asia, p. 279.

30.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 60.

31. Ibid.

32. Ibid., pp. 60-61.

33. Ibid., p. 62.

34. Ibid..

35. Ibid., p. 82.

36. Ibid.

37. Ibid.

38. Ibid., p. 83.

39. Colina MacDougall, "China Exports port Facilities," Financial Times, Jan. 13, 1976, p. 4., quoted by Harrison, China, Oil and Asia.

40. 中共이 近海油田開発을 積極的으로 拡大해서 深海油田開発까지 準備하고 있다는 사실은 陸地에서 近海油田開発 作業場에 보급품을 운반할 헬리콥터 4대를 지난 1976年에 구입했으며 그 후 추가로 15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 商談을 벌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40. Petroleum Economist, London, February 1976, p. 50,

Table II 参照.

41. Jan Olaf-Willums, "China's offshore Oil: application of a Framework for Evaluating Oil and Gas potertials order Uncertairty," Ph. D. dislevtation, MIT, 1975, p. 158.

42. Ibid.

43.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 86.

44. 여기에 인용된 資料는 대부분 Harrison의 China, Oil Asia를 参考한 것임.

45. 1978年 1月에 締結한 日中民間貿易協定에 規定된 中共의 対日 石油輸出量은 다음과 같다.

年 度	数量 (萬噸)
1978	700
1979	760
1980	800
1981	950
1982	1,500

46. 日本의 일부 石油專門家들은 日本이 궁극적으로 全体 石油輸入의 50퍼센트를 中共에 依存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 統商省의 專門家들은 이를 20퍼센트로 잡고 있다.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162.

47.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 169.

48.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 170.

49. Ibid., p. 172.

50. Ibid., p. 175-181.

51. Peking Review, December 11, 1970, p. 15-16.

52. Peking Review, November 27, 1970, p. 7.

53. Harrison China, Oil and Asia, p. 216.

54. Ibid., p. 217.

東北亜의 四強関係와 그 展望

The Four-Power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and its Prospect

研究執筆責任： 金 宗 輝

（略歴） 美国콜럼비아大学院 碩士

및 同大学院 博士過程 修了

現在 国防大学院 安保問題研究所 副所長

目 次

序 言 ……………………………………………… 511
第1章 4強関係의 特徴 ……………………………………………… 514
(1) 対話・交流의 拡大 ……………………………………………… 514
(2) 힘의 隔差 ……………………………………………… 521
(3) 拡大・変質된 相互依存, 相互牽制 및 相互
競争関係의 展開 ……………………………………………… 525
(4) 美・日間 同盟関係의 持続 ……………………………………………… 528
(5) 中・蘇対立의 持続 ……………………………………………… 531
(6) 日本의 中・蘇接近의 限界性 ……………………………………………… 534
第2章 4強関係의 形態와 秩序 ……………………………………………… 537
(1) 形 態 ……………………………………………… 537
(2) 秩 序 ……………………………………………… 539
第3章 4強関係의 問題点과 展望 ……………………………………………… 543
(1) 美国의 力量과 意志 ……………………………………………… 543
(2) 中共의 将来 ……………………………………………… 544
(3) 日本의 将来 ……………………………………………… 545
(4) 蘇聯의 極東에서의 軍事的 進出努力의 劃期的 増大 ……………… 547
(5) 局地戦의 勃発 ……………………………………………… 549
第4章 4強関係와 韓半島 ……………………………………………… 550

序　　　言

第2次 世界大戰後 展開된 東西間의 冷戰期를 흔히 兩極化의 時代라고 呼称한다면, 1960 年代는 多元化의 時代가 展開되었고 1970 年代에 접어 들어서는 5角体制로 移行되었다고 指摘되고 있다.

戰後 西方諸国의 安全은 한마디로 美国의 軍事力에 의해 維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은 美国을 主軸으로 한 諸 多者 및 双務軍事同盟에서 従属的 役割만을 担当하였다. 또 이 期間에 있어서는 「라인」江의 奇蹟이나 日本経済의 躍進이 나타나기 以前이었기 때문에, 自由諸国経済의 支撑 乃至 発展은 「마샬」援助를 비롯한 美国의 各種支援이 그 原動力이 되었다. 이와 같이 西方諸国의 力量은 至極히 限定되었을 뿐만 아니라 蘇聯의 威脅과 圧力은 強力하게 作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国家들은 不可避하게 美国의 힘에 依存하였고 또 「워싱톤」의 領導力에 順従하였다고 할 수 있다. 共産圏의 状況 또한 이와 類似하였다. 東欧諸国은 蘇聯進駐軍의 強圧下에서 忠実한 衛星国家로서만 存在할 수 있었고 中国大陸의 赤化에 成功한 中共도 蘇聯의 支援으로 軍事·経済面에서 近代化를 서두르려 함으로써 이들 諸国은 「모스크바」中心의 支配体制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1960 年代에 접어들면서, 非同盟中心을 指向하는 新生独立諸国들은 第3世界를 形成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모스

크바」를 各各 求心点 乃至 頂点으로 삼았던 両大陣営内에서도 큰 変化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世界는 両極化의 時代에서 多元化의 時代로 転移되게 되었다. 이의 가장 큰 要因으로는 韓国戦争으로 그 絶頂에 到達되었던 冷戦의 解氷을 들 수 있다. 戦略核戦力의 相互抑制作用으로 強大国은 相対方에 대하여 政治目的達成을 위해 軍事力을 使用할 수 없다는 現実的 与件에 直面하게 되었고 冷戦의 主要因이었던 蘇聯이 「흐루시초프」支配下에서 平和共存路線을 指向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2 年의 「쿠바」에서의 「미사일」危機를 分水嶺으로 美·蘇間에는 共存関係가 発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東西関係의 変質은 各陣営内 構成諸国의 美国 및 蘇聯에 대한 軍事的 依存性의 相対的 低下를 가져왔다. 그 뿐만 아니라 各構成国家들의 経済復興과 建設은 経済的으로도 過去와는 훨씬 덜 美国과 蘇聯을 必要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状況은 「드골」의 仏蘭西 그리고 蘇聯에 対抗하는 中共의 抬頭를 가져옴으로써 美·蘇의 陣営内에서의 政治的 領導力은 減少되었고 陣営의 団結도 顕著하게 解弛되게 되었다.

1960 年代의 多元化現象은 1970 年代에 접어들면서 5極化로 深化·拡大되었다.[1] 即 世界에는 美国, 蘇聯, 西欧, 中共 및 日本으로 構成되는 다섯개의 힘의 中心体를 中心으로 5角体制(Pentagonal System)이 展開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中 蘇聯과 中共은 対外経済関係가 微弱하거나 経済力이 水準以下이어서, 美国, 西欧, 日本間의 3角의 経済関係가 있고, 또 西欧와 日本은 域外의

政治·軍事関係에는 関心이 없거나 또 이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政治·軍事力量이 不足하기 때문에 美国, 蘇聯 및 中共間의 3角의 政治·軍事関係가 展開되고 있다.

이와 같은 5角関係를 亜細亜, 特히 東北亜地域에 投影하게 되면, 4強의 関係로 나타나게 된다. 本研究는 이러한 美国, 蘇聯, 中共 및 日本으로 形成되는 4強의 東北亜에 있어서의 関係가 将来 어떻게 展開될 것으로 予想되며, 이에 따라 韓半島 特히 韓国의 将来에는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되는가를 検討하려는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第1章에서는 現在의 4強関係가 지니고 있는 特徴을 亜細亜의 状況에 力点을 두고 集中的으로 分析하였고, 第2章에서는 이러한 結果로서 나타나는 4強関係의 形態와 秩序를 提示하였다. 그러면 現在 展開되고 있는 4強関係가 維持될 것인가, 또 萬一 変化가 일어난다면, 어떠한 要因의 作用으로 어떠한 形態와 秩序를 示顕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第3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第4章에서는 위의 分析結果를 土台로 韓国安保의 将来를 생각해 보았다.

研究의 範囲上, 비록 4強関係와 적지 않은 関係가 있다고 하더라도 東北亜以外의 状況에 대한 論及은 可及的 回避하였고, 面数의 制約으로 双務関係는 別途의 章을 設定하여 集中的으로 다루는 方式을 回避하고 4強関係의 綜合的 分析의 一環으로만 取扱하였다. 또 本研究는 4強間 「게임」의 全般的 흐름에 力点을 두었기 때문에 具体的인 状況이나 数字提示가 不可避하게 疏忽해졌음을 序頭에 指摘해 둔다.

第1章 4強關係의 特徵

戦後에도 美国, 蘇聯, 中共, 日本의 4大国은 存在하였지만 4大国関係에 대한 論及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論議는 美・中共和解가 成立된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4強関係의 成立과 展開를 可能케 한 諸要件으로는 美・蘇共存体制의 発展, 孤立・封鎖・包囲를 基本으로 삼았던 美国의 対共観이 共存・交流・変質誘導로 変質되었다는 事実, 美・蘇共存体制成立以後에도 強硬一辺倒를 치닫던 美国의 中共政策이 一大転換을 일으켜 北京政権과 劇的인 和解를 模索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日本의 中・蘇와의 交流 및 国交樹立이 可能해겼다는 状況의 展開, 美国의 越南에서의 苦戦의 結果로서 나타난 「닉슨・닥트린」과 亜細亜에서의 現状維持의 追求, 中・蘇対立을 利用하려한 「키신저」의 勢力均衡政策의 胎動, 経済力을 바탕으로한 日本의 国際舞台로의 進出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諸要件의 分析을 省略하고, 오늘날 展開되고 있는 4強関係의 特徵을 検討해 보기로 한다.

(1) 対話・交流의 拡大

번저 생각할 수 있는것은 이들 4強間의 対話, 交流를 包含한 諸関係의 拡大이다. 理論的으로 볼 때, 4強関係는 美・蘇, 美・中共, 美・日, 中・蘇, 日・中共, 日・蘇라는 6辺의 関係의 成立이 可

能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1950年代와 60年代에 걸쳐, 4強間에는 2辺의 関係밖에는 存在하지 않았다. 即 1950年代에 있어서는, 安保関係와 経済協力関係를 中心으로한 美·日関係와 軍事同盟 및 「이데올로기」面에서의 協力関係를 基盤으로한 中·蘇関係밖에는 存在하지 않았다.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冷戦時代에서 激烈한 対立関係를 示顕하였던 美·蘇関係는 1956年 2月 蘇聯共産党 第20次党大会에서 表明된 平和共存路線을 契機로 또 特히 1962年 10月 「쿠바」에서의 「미사일」危機를 分水嶺으로 本格的인 共存関係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직도 両国間에는 「이데올로기」 価値観, 利益, 目標面에서의 本質的인 合意는 없다. 그러나 「워싱턴」이나 「모스크바」는 共히 熱核戦争의 回避를 模索하게 되었고, 核拡散禁止, 戦略武器制限等 몇몇 重要案件에 合意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経済文化面에서의 交流를 増大시키고 있다. 그러나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表面化된 中·蘇紛争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異見의 次元을 벗어나 国家的 対立関係로 発展되고 있다. 両国은 같은 共産国家이고 法的으로는 同盟関係에 있지만, 双方은 이제 激烈한 対立関係와 軍事的 衝突마저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1960年代에 있어서도, 美·蘇 및 美·日이라는 두개의 関係만이 成立·展開되고 있었다.

4半世紀에 걸친 絶縁과 対立을 清算한 劇的인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과 그 所産으로 発表된 1972年 3月의 上海共同声明을 契機로 和解하였고 1979年 1月 正式으로 国交를 樹立하였다.

1950 年代에 있어서 美国은 中共의 存在마저 認定하지 않으려 하였음에 反하여, 中共은 1954 年의 「제네바」会談等을 통하여 어려운 台湾問題는 뒤로 미루고 손쉬운 経済 및 文化交流라도 着手하자고 提議하였었다. 1960 年代에 접어들어 美国의 「케네디」行政府는 1950 年代의 中共의 立場과 類似한 態度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中共側이 台湾問題의 解決이 모든 問題에 先行되어 解決되어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웠었다. 1960 年代後半에 있어서 美国은 越南戦争에 그리고 中共은 文化大革命에 没頭됨으로써 双方間의 関係改善은 論議될 수가 없었다.[2] 그러면 4強関係의 理解의 前提가 되는 美·中共和解要因을 簡單히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美国側 動機를 検討해 보면, 그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키신저」의 勢力均衡政策이다. 中·蘇対立이 表面化되니 激烈化된 以後에도, 美国은 共産威脅을 單一体制에서 오는 威脅으로 対応하려 하였고, 蘇聯 및 東欧諸国과의 共存関係를 模索하면서도 中共에 대한 敵対視政策을 継続하였다. 越南에서의 苦戦을 契機로 世界, 特히 亜細亜에 있어서의 役割과 寄与를 縮小調整하지 않을 수 없는 状況 속에서 蘇聯을 牽制하기 위해 中共을 利用한다는 勢力均衡의 原理를 導入하려는 構想이 하나의 動機가 되어 美国은 中共과의 和解를 模索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美国은 中国問題에 있어 国際的으로 孤立될 수는 없었다. 1949 年 中共政権이 樹立되자 英国의 労動党政権은 재빨리 中共과 修交하였고 그 後 大部分의 中立諸国이 中共과 国交를 맺었으나,

西方諸国은 美国을 意識하여 政治的 関係만은 締結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 年代末과 1970 年代初로 부터 始作된 北京「러쉬」는 「캐나다」, 仏蘭西, 伊太利, 西独等 美国과 緊密한 紐帯関係에 있는 大部分의 西方諸国의 中共과의 修交를 가져 왔다. 美国으로서는 中共孤立化政策을 더 以上 強行할 수도 없게 되었고 이 問題에 있어 오히려 孤立되어 간다는 認識이 中共과의 和解模索의 또 하나의 要因으로 作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中共評価의 変化에 있다. 韓国戦에서의 交戦経験과 中共의 核武装을 根拠로 하여, 美国은 中共을 亜細亜에서의 最大威脅으로 看做하여 왔다. 그러나 文化大革命의 清算過程에서 穏健派가 得勢하여 対外的으로 冒険을 敢行하려는 徴候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経済的으로도 個人当 GNP 300 弗前後의 後進国이며, 또 軍事的으로도 海外에서 現代戦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지 못하였고 核戦力도 美本土에 대한 威脅이 되지 못한다는 새로운 그리고 変質된 中共評価를 하게 되었다. 即 中共은 潜在的인 強大国일지는 모르지만 美国과 美国의 重要利益에 대한 現在에 있어서의 威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経済的 考慮도 作用되었다고 볼 수 있다. 美国의 国際収支는 毎年 莫大한 赤字를 示顕하고 있는 가운데 西欧 및 日本만이 進出하고 있는 潜在的으로 莫大한 中共市場은 美国으로서도 魅力的인 存在였을 것이다.

다섯번째는 変質된 対共観과 関聯하여 中共의 変化를 誘導하고

이에 対備한다는 것이다. 積極的인 対話는 相互理解에 寄与할 수 있으며 交流의 拡大는 비록 限定的일지는 모르지만 依存性마저 提高시킬 수 있다는 論理에서 美国은 東欧圏과의 関係를 拡充시켜 왔다. 이러한 構想을 中共에도 適用한다는 것은 当然한 論理이며 毛沢東死亡後라는 長期的으로 展開될 수 있는 状況에 対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理由는 亜細亜에서의 現状維持政策과 関聯하여 考慮될 수 있다. 美国의 越南戦의 国内的 餘波로 海外, 特히 亜細亜에서 担当하여온 軍事的 役割을 減縮시키지 않을 수 없는 状況에 놓여 있었다. 非美国化도 特히 東南亜에서는 現実的으로 期待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軍事同盟의 創設 또한 不可能한 状態였으며 日本의 増大된 役割遂行도 日本 스스로의 態度와 域内諸国의 反応으로 보아 俱現될 수 없는 方案이였다. 이러한 状況 속에서, 美国은 亜細亜의 現状維持의 破壊要因인 諸共産勢力의 背景 乃至 支援国이 되고 있는 中共과의 現状維持를 위한 合意 乃至 諒解成立에 注力한다는 것은 意味있는 政策이라고 判断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中共도 다음 몇가지의 動機에 따라 美国과의 和解를 模索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中,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는 中·蘇対立을 들 수 있다. 蘇聯과의 対立이 国家的인 対立으로 拡大된 가운데, 蘇聯이 中共을 겨냥한 通常 및 核戦力을 画期的으로 強化시키고 있다는 現実을 中共은 外面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수리」江에서와 그리고 그 後에 있었던 一連의 蘇聯과의 軍事衝突은 蘇聯으로부터의 軍事威脅이 当面한 最大의 威脅이라는 것을 中共側으로 하여금 実感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中共은 비록 核武器를 保有하기에 이르렀지만 現実的으로 蘇聯의 軍事力과 対決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状況 속에서 中共은 또 하나의 巨大한 勢力인 美国과의 対立을 継続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北京政権은, 亜細亜에서 軍事的으로 後退를 하고 있고 中共과의 和解를 提議하고 있는 美国이 蘇聯보다 現実的인 威脅이 되지 않는다는 判断 아래, 最小限 両面의 敵中 美国과 和解를 하고 可能하다면 美国의 힘을 利用하여 蘇聯을 牽制하겠다는 構想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美国의 亜細亜로부터의 軍事後退에 따른 中共의 美国評価가 変質되였을 것이라는 点을 指摘할 수 있다.

세번째는 文革을 整理한 中共権力闘争過程에서 穏健派가 実権을 掌握하기에 이르렀다는 事実을 들 수 있다. 이들의 穏健対外路線은 美国과의 和解를 政治的으로 可能하게 만들었고, 또 이들의 国内経済建設構想은 美国을 包含한 西方諸国과의 経済・技術導入의 拡大를 必要로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即 美国으로부터의 資本財・技術의 拡大導入은 「워싱턴」과의 和解가 先行되야 하였으며, 西方諸国, 特히 日本과의 経済協力増進도 美国과의 和解가 前提로 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台湾問題의 長期的인 政治的 解決試図에 있었다. 中共

은 台湾解放을 내세워 왔지만, 蘇聯과 対立되고 있는 가운데 微弱한 海空軍力, 特히 限定된 空輸 및 上陸能力으로 強力한 台湾의 軍事力을 制圧한다는 것은 現実的으로 어렵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더우기 美·台間의 相互防衛条約이 健在하고 第7艦隊가 台湾海峡을 航海하는 限, 中共의 台湾征服은 実質的으로 不可能하다. 따라서 北京은 台湾의 最大의 政治的 支持国이며 軍事·経済的인 支援国인 美国과의 和解·修交를 통하여 台湾을 政治的으로 孤立시키게 되면 언젠가는 台湾을 政治的으로 併合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가장 現実的인 政策이라고 判断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日本의 潜在的 威脅에 대한 考慮가 作用하였다고 할 수 있다. 事実 北京에서의 美·中共頂上会談이 開催되기 以前에는 中共은 日本의 軍国主義再抬頭를 機会있을 때마다 激烈히 非難하여 왔다. 経済潜在力으로 보아 日本의 中共을 意識한 本格的인 再武装이나 또는 日本의 蘇聯接近은 中共으로서도 至極히 深刻한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 따라서 中共은 日本을 政治的으로 懐柔시키려 하였고 또 経済建設을 위한 経済協力의 拡大를 期待하고 있었지만, 日本의 北京接近은 美·中共和解가 成立되어야 可能하다는 것을 中共은 잘 認識하고 있었을 것이다. 即 中共은 「워싱턴」을 経由하여 東京으로의 接近을 試図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日本과의 関係에서도 그러하였지만, 中共의 国際舞台로의 進出도 事実上 美国과의 関係改善이 이룩되어야 本格化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配慮도 北京의 美国과의 和解決定의 한 要因으로 影響을

미쳤다고 評価할 수 있을 것이다.

1972 年의 美·中共和解는 日本 田中政権의 中共과의 修交를 가져왔고 日本의 「모스크바」와의 関係増進을 가져왔다. (日本의 中·蘇와의 関係는 後에 詳述) 따라서 4強間의 最悪의 関係로 存続되고 있는 中·蘇関係를 除外한 美·蘇, 美·日, 美·中共, 日·蘇, 日·中共関係라는 5辺의 関係가 成立·展開됨으로써 4強間에는 対話, 交流의 関係가 拡充되었다.

(2) 힘의 隔差

4強의 힘은 例를 들어 韓国과는 比較되지 않을 程度로 強力한 力量을 지닌 強大国들이다. 그러나 美国, 蘇聯, 中共, 日本의 政治, 経済, 軍事力을 比較·分析해 보면, 4強間에는 相当한 힘의 隔差가 存在하고 있다는 現実을 否定할 수 없다.

4強中 美国 및 蘇聯만이 文字 그대로의 超大強国이다. 両国은 汎世界的으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政治大国이고, 各各 世界에서 GNP 1, 2位(1977 年 美国의 GNP는 1兆 8,900 億弗, 蘇聯은 5,160 億「루블」[3])를 자랑하는 厖大한 経済力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国家도 匹敵할 수 없는 圧倒的인 通常 및 核戦力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과 日本의 境遇는 美国 및 蘇聯의 力量 보다는 훨씬 뒤지고 있다. 먼저 中共을 検討해 보기로 한다. 中共의 政

治的 影響이 西欧, 中東·「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 어느 程度나 波及되느냐하는 問題는 많은 論乱을 惹起시킬 수 있겠지만, 「유엔」安保理事会의 常任理事国으로서 地位 또 亜細亜에서 行使할 수 있는 発言権을 考慮할 때, 中共은 政治大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経済 및 軍事分野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3,000 ~ 3,500 億弗로 推算되고 있는 中共의 GNP는 巨大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人当 GNP가 300弗을 前後하고 있다는 現実을 考慮할 때 中共의 経済를 美·蘇·日의 그것과 比較할 수는 없다. 따라서 老大한 人口, 資源等을 考慮하여 中共의 経済가 潜在的으로 発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経済大国으로 区分될 수는 없다.

軍事力部門도 마찬가지다. 中共의 核戦力은 30 ~ 40 基의 CSS II IRBM, 30 ~ 40 基의 CSS I MRBM 및 80 台의 Tu-16 爆撃機로 構成되어 있으며, ICBM을 開発中에 있다. 이러한 中共의 戦略核能力은 蘇聯에 대하여 若干의 威脅을 될 수 있지만 美国을 攻撃할 程度의 것은 아니다. 即 美·蘇는 共히 中共에 대하여 第1撃力과 第2撃力을 保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中共은 両超大強国에 대하여 第2撃力에 近接된 戦力을 確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通常戦力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数的으로 総兵力 430萬의 中共軍은 老大하다. 地上軍은 360餘萬의 兵力을 갖추고 있고, 海軍과 空軍은 各各 30萬과 40萬의 兵力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5,000 台의 空軍機는 大部分 旧型이며 MIG 21 은 飛行不能이라는 現実的 状況을 놓고 볼 때, 中共은 強大国과 対敵하여 現代戦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中共軍이 持久戦論을 戦略으로 採択·維持하고 있는 理由는 한마디로 例들어 蘇聯에 現代戦으로 対抗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勿論 中共은 韓半島 및 印支半島와 같이 陸続된 地域에서는 相当한 戦力을 発揮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海外에서의 現代戦遂行能力은 없기 때문에 美·蘇와 比較해서 軍事大国이라고는 할 수 없다.[4)]

1977 年에 있어 世界 第3位인 6,770 億弗의 GNP를 자랑하고 있는 日本은 確実히 経済大国이다. 그러나 이는 戦後의 日本이 뚜렷한 対外政策이나 国防政策의 提示나 役割의 担当없이 輸出第1主義를 執念있게 追求해 온 結果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周辺強大国과 域内国家들도 日本의 이러한 役割遂行을 反対해온 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自意半 他意半"의 結果를 좀 더 具体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対内的 与件, 이 中에서도 日本의 国内政治와 関聯하여 問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強力하고도 새로운 対外政策과 役割의 模索은 堅固한 国内政治基盤에 立脚되어야 한다. 그러나 執権党인 自民党의 衆議院選挙에서의 得票率은 1958 年의 58 %에서 下降趨勢를 거듭하여 이제는 50 %를 下廻하고 있다. 現在로 自民党政府가 単独 執権하고 있는 것은 野党의 乱立, 大選挙区制, 自民党公薦政策의 成功等에 따른 것이

며, 1980 年에는 民社党 또는 公明党과의 聯立政権의 構成이 不可避할 것이라는 観測까지 나돌고 있는 実情이다. 이와 같은 状況下에서 日本이 새롭고도 強力한 対外的 姿勢를 追求하기 어렵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또 하나의 国内的 要件으로는 現実에 大体的으로 満足하고 있는 輿論動向을 들 수 있다. 日本新聞의 諸輿論調査에 의하면, 対外問題에 대한 関心은 比較的 低調하다. 即 日本国民은 一般的으로 日本経済를 世界 第3으로 끌어올린 現路線의 劃期的 修正이 구태여 必要한가라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対外的으로 볼 때, 美·蘇·中共과 같은 強大国들은 勿論 周辺域内諸国은 日本의 国際舞台로의 再登場을 바라고 있지 않다. 美国은 日本의 域内諸国에 대한 経済協力과 防衛寄与의 漸増을 바라고 있지만, 本格的인 再武装을 包含한 日本의 積極的인 対外的 役割의 担当을 反対하고 있다. 日本의 軍国主義再抬頭를 非難하여 왔던 中共은 国交正常化後 美·日安保協力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日本의 自衛隊와 駐日美軍에 대한 肯定的 発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中共의 態度도 蘇聯을 牽制하기 위해 日本이 美国政策의 테두리 内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前提로 한 것이지 日本의 独自的이고도 積極的인 対外的 役割遂行을 賛成해서 나온 態度는 아니다. 蘇聯도 日本이 強力하지는 않지만 反蘇的인 性向을 若干 示顕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의 対外的 役割担当에는 積極 反対하는 態度를 一貫해 오고 있다.

軍事的으로 볼때, 日本의 自衛力은 漸増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비

록 GNP 의 1 %未満의 防衛支出만으로도 世界 第9位의 軍事費使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4強中 唯一한 非核国家인 日本이 GNP 의 0.9 %와 政府予算의 6 %를 国防費에 投入하여 総兵力 24萬을 維持하면서 軍事大国의 役割을 担当한다는 것은 成立도 되지 않는 말이다. 日本政府도 防衛白書에서 非核中級의 軍事力保有를 目標로 設定하고 있으며, 対内外的 与件 또한 日本으로 하여금 現状況下에서 対外的 軍事的 役割을 事実上 排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4強間의 力量의 差異는 至極히 顕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美国, 蘇聯, 中共 및 日本이 強大国으로 看做되고 4強으로서 国際政治上 「게임」을 展開할 수 있는 것은 現代軍事力이 갖는 意味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即, 「키신저」가 指摘한 바와 같이 "現代의 軍事力은 너무나도 巨大化되었기 때문에 그 累積的 効果는 적지 않게 消失되었다" 5) 라고 할 수 있다. 両超大強国은 核抑制力의 相互作用으로 政治目標達成을 위한 軍事力의 直接的인 使用은 不可避하게 制約되고, 이와는 相対的으로 政治的 그리고 経済的 手段의 重要性이 加重됨으로써 오늘날의 4強関係의 特徴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拡大·変質된 相互依存, 相互牽制 및 相互競争関係의 展開

冷戦時代의 依存, 牽制 및 競争関係는 1960 年代에 表面化된 中·蘇対立으로 若干 複雑化된 様相을 示顕하였지만 基本的으로는

東西両陣営의 線에 따라 展開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依存関係에 있어, 日本은 美国에 그리고 中共은 蘇聯에 政治, 経済 및 軍事的으로 依存関係를 맺어 왔다. 勿論, 이미 指摘된 바와 같이 激烈한 対立関係로 中·蘇間의 依存関係는 中継되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4強의 依存関係는 至極히 複雑하게 엇갈려 展開되고 있다. 政治的으로 같은 美·日間의 緊密한 依存関係가 있고 그 濃度는 흐리지만 蘇聯의 進出을 막자는 美·日·中共間의 依存関係가 提起되기 始作하고 있다.

経済的으로 冷戦時代에는 日本의 美国에 대한 그리고 中共의 蘇聯에 대한 依存関係가 存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美·日間에는 緊密한 相互依存的인 関係가 展開되고 있고, 美·中共 및 日·中共間의 経済依存関係도 深化徵候를 엿보이고 있으며, 美·蘇 그리고 日·蘇間은 依存関係로까지 発展되지는 않았지만 協力関係가 胎動되고 있다.

軍事面에 있어, 美·日間의 依存関係는 継続 存続되어 오고 있지만, 이에 追加하여 새로운 美·中共間의 依存関係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美国의 立場에서 보면, 中·蘇国境地帯에 配備된 40個師団의 蘇聯軍의 相当数는 中·蘇対立関係가 없었더라면 欧洲에 配備되어 있을 兵力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볼 때, 美国은 中共軍의 도움으로 NATO配備軍事力을 現在 水準보다 훨씬 더 強化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中共은 蘇聯의 軍事的 威脅下에 놓여 있다. 蘇聯이 中共에 先制攻撃을 하지 않는 理由는 短期戦

에는 勝算이 있지만 広大한 国土와 10億人口를 갖고 있는 中共을 占領·支配한다는 것은 不可能하고 中共이 비록 微弱하지만 戦略核의 能力을 保有하기에 이르렀다는 点을 들 수 있지만, 또 하나의 重要한 理由는 中共과 和解한 美国 軍事力의 牽制를 받고 있다는 点이다. 이렇게 볼 때, 美·中共間은 同盟이나 軍事的 協力関係에 있지 않으면서도 相互 軍事依存의 関係를 갖기 始作하였다고 評価할 수 있다.

冷戦体制下에서 陣営間에 展開되었던 牽制도 이제는 時間, 空間 및 案件에 따라 形成되는 相互牽制를 나타내고 있다. 蘇聯의 亜細亜進出은 美国, 日本 및 中共이 提携하여 牽制하고 日本의 核武装·軍国化는 残餘 3強이 共同으로 対処하게 된다. 韓半島에 있어서는 中·蘇가 北韓을, 美·日이 韓国을 支援하는 立場에서 牽制関係가 展開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面에서 본다면 4強中 어느 한나라가 支配的인 勢力으로 登場하는 것이나 現秩序를 破壊하는 것을 나머지 3個国이 牽制하는 作用을 나타내는 것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競争関係 또한 마찬가지이다. 即 冷戦期의 陣営間의 競争関係는 多様하고 複雑한 4強関係로 変化되었다. 政治的으로는 美·蘇間, 中·蘇間의 競争関係가 展開되고 있는가 하면, 経済的으로는 美·日間 그리고 中共 및 蘇聯의 対美·日의 協力拡大를 模索하고 또 美国과 日本은 中·蘇市場을 囲繞한 競合을 벌이고 있다. 軍事面에 있어서도, 美国 및 蘇聯間의 軍備競争이 持続되고 있으며, 中·

蘇対立에 따른 競争도 併行하여 推進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主로 陣営間의 対立을 基本으로 展開되었던 冷戦体制下에서의 美国, 蘇聯, 中共 및 日本間의 依存, 牽制 및 競争의 関係는 対話, 接触, 交流의 拡大에 따른 새로운 相互依存, 相互牽制, 相互競争을 様相을 示顕하고 있다.

(4) 美·日間 同盟関係의 持続

政治·軍事的에서 볼 때, 日本은 아직도 積極的인 役割을 遂行하지 못하고 있지만 強力한 経済力을 바탕으로 強大国으로 浮上하여 対美自主性을 漸次 模索하기 始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経済面에서는 때로는 熾烈한 競争関係를 示顕하여 "経済戦争" 까지 論及되고 있는 実情이다. 한편, 美国도 「닉슨」大統領時代에 中共과의 和解問題等을 日本에 事前通告조차 하지 않아 「닉슨·쇽크」를 일으킨 바 있으며, 日本의 強力한 政治·軍事的 役割担当에는 否定的 態度를 보여 왔다.

그러나 美国과 日本은 相互間의 必要性에 立脚하여 同盟関係를 持続시킬 것으로 評価되고 있다. 먼저 美国이 日本을 必要로 하는 要件부터 考察해 보기로 한다. 그 첫째는 日本이 지니고 있는 老大한 経済力이다. 美国은 日本과의 経済協力関係를 重要視하고 있으며 国際通貨, 世界景気, 貿易面에서 両国은 西欧와도 密接히 連結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美国, 西欧, 日本을 連結하는 3角委

員会의 構想自体로 봐도 이러한 日本의 経済力에 대한 認識에서 出発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日本이 占하고 있는 地政学的 位置에 대한 考慮이다. 美国은 蘇聯이라는 大陸勢力의 太平洋으로의 進出을 沮止하기 願하고 있으며, 韓国을 除外하고는 亜細亜大陸에서 事実上 拠点을 喪失한 状況에서 日本은 防波堤로서 至極히 重要視하고 있다. 特히 「블라디보스톡」에 基地를 둔 蘇聯 極東艦隊의 大洋進出은 日本周辺의 4個海峡의 通過를 必要로 하기 때문에 日本의 重要性은 더욱 増大되고 있다.

세번째는 日本의 将来進路와 関聯된 考慮이다.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現在 日本은 国内政治上의 問題도 重要한 作用要因의 하나가 되어 対外的 役割을 積極的으로 模索하지 않은채 大体로 美国의 路線을 뒤따르고 있다. 例컨대 日本의 対中共修交도 美·中共和解가 없었으면 現実的으로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美国이 日本에 安保協力関係의 断切等을 包含한 巨大한 衝撃을 加할 境遇, 日本의 選択은 다음 세가지 中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核武装을 包含한 本格的인 再軍備를 통한 独自路線, 非武装中立, 그리고 中共 또는 蘇聯과의 接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바, 그 어떤 選択도 美国으로서는 至極히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美国은 이러한 論理에 따라 日本을 重視하고 日本과의 同盟関係를 維持하려 継続 努力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으로서도 美国과 同盟 및 諸協力関係의 維持는 至極히 緊要

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軍事的 要件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GNP 의 3.4%와 日本防衛費의 거의 2.5倍를 使用하고 있는 西独이 美国과의 軍事同盟을 前提로 하지 않은 国防이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状況인데, 日本이 独自的으로 自衛를 模索한다는 것은 現実的으로나 理性的으로 생각할 수 없는 問題이다. 또 이를 実現시키려 할 때, 国内外的으로 予想되는 反撥과 激烈한 反対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 日本의 地理的 位置, 面積, 人口集中은 核戦力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太平洋은 勿論 印度洋까지도 SLBN 을 配備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데, 이에 所要되는 資金, 技術, 期間은 日本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状況 속에서 美国과의 軍事紐帯는 가장 安全하고, 값싸고, 確実한 安全保障策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日本이 重視하고 있는 経済面에서도 美国은 至極히 重要하다. 現在 美国은 日本의 交易의 約 30%를 占하고 있는데, 予見할 수 있는 将来에 있어 이와 같은 日本의 対美経済依存度가 顕著히 減少된다든가 中共 또는 蘇聯市場이 美国과 比較된다는 状況을 想定하기 어려운 実情이다.

日本의 対美自主性은 相対的으로 볼 때 漸次 提高될 것이다. 日本의 政治·軍事的 発言権도 漸次 上昇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美国과 日本은 서로를 必要로 하고 있기 때문에 美·日軍事同盟関係는 維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中・蘇対立의 持続

1960 年代初에 表面化된 中・蘇対立은 이제 初期의 理念紛争의 次元을 넘어서 이제는 国境에서의 大規模 軍事衝突마저 惹起케 하는 国家的, 民族的 対立関係로까지 悪化되어 展開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새삼스럽게 中・蘇対立의 要因과 争点을 検討할 必要는 없으며, 4強関係의 将来를 생각함에 있어 核心的인 課題는 中・蘇関係가 将来 어떠한 形態를 보이게 될 것이냐 하는데에 있다. 이는 中・蘇戦争, 現対立状況의 持続, 限定的 和解, 그리고 同盟関係로의 復帰라는 네가지 状況으로 나누어 検討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中・蘇戦争의 可能性이다. 中・蘇間의 軍事均衡을 보건대, 蘇聯은 文字 그대로의 超大強国임에 反하여 中共은 비록 核保有国이지만 蘇聯과 現代戦을 遂行할 能力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모스크바」의 観点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蘇聯은 核先制攻撃으로 中共의 核報復能力을 거의 完破할 수 있고 保存한 圧倒的인 航空力, 機動力, 火力 그리고 海軍力을 動員하여 初戦에 勝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蘇聯이 広大한 面積과 10億의 人口를 갖고 있는 中共을 占領・支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蘇聯으로서 두번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点은 中共이 核武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蘇聯은 対中共 第1撃力을 確保하고 있기 때문에 先制攻撃으로 中共의 核戦力을 거의 完破할

수 있다. 또 中共은 「우랄」山脈以西地域을 広範하고 正確하게 攻擊할 能力을 保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모스크바」로서는 中共의 核戰力을 考慮対象에서 除外할 수 없으며, 「시베리아」의 重要 中心地가 相当한 被害를 받게 된다는 것을 覚悟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의 状況은 美国과 中共과의 関係가 70年代以前과 같이 対立状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諸分野에서의 協力·交流·依存의 関係가 深化되고 있다는 点이다. 美国과의 対立이 基本的으로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中共과 全面戰을 遂行한다는 것은 蘇聯으로서는 큰 冒険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中共의 立場도 한마디로 戰争은 할 수 없다. 軍事的으로 너무나도 劣勢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国内的인 現代化를 위해 全力投球하고 있는 状況下에서 全面戰이란 自殺行為나 다름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中·蘇戰争은 予期치 못한 国境衝突이 걷잡을 수 없이 拡大되고 双方의 指導者들이 理性을 完全히 잃는다는 그 可能性이 至極히 稀薄한 状況을 除外하고는 想定하기 어렵다.

또 다른 極端的 状況은 蘇聯 및 中共이 同盟関係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元来 接境한 強大国間의 関係가 友好関係를 長期間 維持해온 歷史的 前例는 거의 없으며, 再論할바도 없이 中·蘇間의 対立関係는 너무나도 感情化되어 있고 또 너무나도 深刻하다. 그뿐만 아니라 中共은 이제 美国을 威脅対象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美国을 비롯한 西方諸国의 協力을 통하여 自国의 安全을 講

究하고 現代化를 꾀한다는 基本方向을 設定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蘇聯과의 同盟은 커녕 和解조차도 切実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 状況 속에서 「모스크바」·北京間의 同盟関係로의 復帰는 想定하기 亦是 至極히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의 可能性은 限定的인 和解에 있다. 蘇聯은 中·蘇対立이 「모스크바」로서는 너무나도 不利한 美国의 勢力均衡政策의 立案·推進을 可能케하고 있고, 国境問題를 欧洲에서와 같이 現状確定짓고 싶으며, 危険한 全面戦誘発을 防止해야겠다는 뜻에서 最近 数年間 中共과의 和解를 模索해 왔다. 한편 中共이 美国과 日本에 대한 協商高地確保가 必要하다고 決定하든가 蘇聯의 軍事威脅은 現在까지 感知해온 바와 같이 深刻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情勢의 再評価를 하게 되면, 中·蘇間의 限定的 「데땅뜨」는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中·長期的으로 이러한 状況이 現実化될 可能性은 있지만, 現在의 中·蘇対立様相과 中共指導層의 態度로 보아 이것이 短期的으로 実現될 徵候는 엿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国家関係의 現実的 現実化와 같은 中·蘇対立의 限定的 緩和 乃至 改善은 中·長期的으로 可能할는지 모르지만, 現在의 両共産強大国間의 対立은 現状대로 持続될 公算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日本의 中·蘇接近의 限界性

田中政権의 対中共修交와 福田政府의 友好条約締結과 経済協力拡大決定은 日本의 中共接近可能性에 관한 論議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最近은 小康化되었지만, 日本의 蘇聯交流의 活潑化와 「시베리아」開発参与의 論議는 東京의 「모스크바」接近憂慮를 提起케 한 바 있다. 그러나 日本의 中共 및 蘇聯과의 接近에는 다음에서 指摘되는 諸制約의 作用으로 限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対蘇接近의 可能性을 検討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美国과의 軍事同盟과 諸紐帯와 協力을 必要로 하고 있는 日本은 美国의 反撥과 이에 따른 損害를 보면서까지 蘇聯에 接近할 수는 없다. 둘째로, 中·蘇가 激烈히 対立되고 있는 状況下에서 蘇聯을 選択할 境遇, 中共의 反撥은 必至의 事実이며 中共市場을 잃게 된다. 세째로, 蘇聯의 軍事的 威脅이 있는 状況下에서의 「모스크바」로의 接近은 現実的으로 不可能하다. 네째로, 「시베리아」開発에의 参与 等의 経済協力関係의 拡大를 期待할 수 있겠지만, 蘇聯과의 交流가 美国市場을 代替할 수는 없다. 다섯째로, 日本輿論은 中共의 境遇와는 달리 反蘇的이다. 여섯째로, 蘇聯과의 接近을 위해서는 現在 蘇聯이 中共과의 国境問題를 意識하여 완강한 態度를 堅持하고 있는 "北方領土"問題의 解決과 같은 힘겨운 難題解決이 先行되어야 한다. 끝으로, 体制 및 理念의 差異를 指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諸制約의 作用으로 日本의 対蘇接近을 現実的으로 期待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日本의 中共接近에도 많은 制約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美国의 中共과의 和解가 日本의 対中共交流拡大의 틀을 提供해 주고 있고, 日本輿論의 反応은 蘇聯의 대해서보다 훨씬 好意的이며, 中共 또한 日本의 資本·技術을 必要로 할 뿐만 아니라 対蘇牽制를 위해서 日本의 対美協力(安保条約, 駐日美軍 및 基地)과 自衛隊戦力의 漸増을 支持하고 있는 実情이다. 그러나 中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内外的 制約이 作用된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蘇聯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美国이 反対하는 形態와 程度의 北京接近은 「워싱턴」의 反撥을 提起케 할 것이라는 点이다. 두번째 亦是, 中·蘇対立이 持続하는 限 그리고 日本 그리고 美国의 対蘇関係가 現在보다 훨씬 悪化하지 않는 限, 日本은 現実的으로 「모스크바」에 接近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로, 10億의 人口를 가진 中共市場은 매력적인 存在이지만, 中共의 資金不足, 中共의 強大国으로의 登場에 대한 憂慮, 中共이 一方的으로 日本의 資本·技術만을 導入할 것이라고 期待할 수 없다는 現実 그리고 美国市場을 代替할 수는 決코 없다는 現実을 감안할 때, 経済的으로도 中共接近에는 限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는 「센가꾸」列島를 囲繞한 潜在的인 領土紛争이다. 오늘날 中共은 이 問題를 크게 問題삼고 있지 않지만, 萬一 이 海域에서 油徴이 決定的으로 発見되면 中共의 態度는 現在대로 持続되리라고 期待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섯번째는 長期的인 競争関係의 展開可能性이다.

経済를 主軸으로 対外的으로 進出하고 있는 日本과 政治를 主武器로 対外関係를 展開하고 있는 中共은 将来 亜細亜에서의 強者로 君臨하기 위한 競合関係를 갖게 될 수 있다고 予見할 수 있다. 끝으로는 両国間의 体制 및 理念의 差異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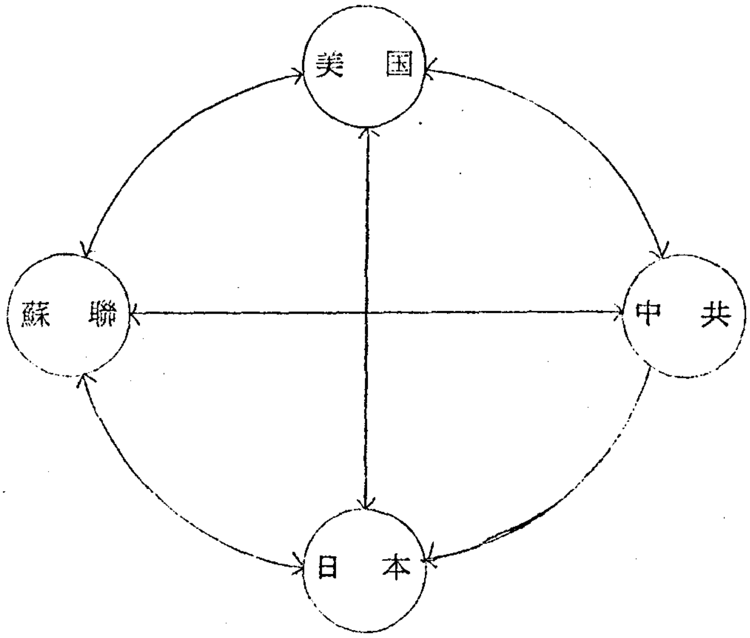
오늘날 日本은 蘇聯에 比해서는 中共에 若干 傾斜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考察한 諸制約의 作用으로 日本이 中共이나 蘇聯에 美国을 제처놓고 接近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은 美国이 "許容"하는 範囲内에서 中共 및 蘇聯에 대하여 美国과 같은 그러나 그 程度는 작은 勢力均衡政策을 模索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妥当하다고 하겠다.

第 2 章　4 強關係의　形態와　秩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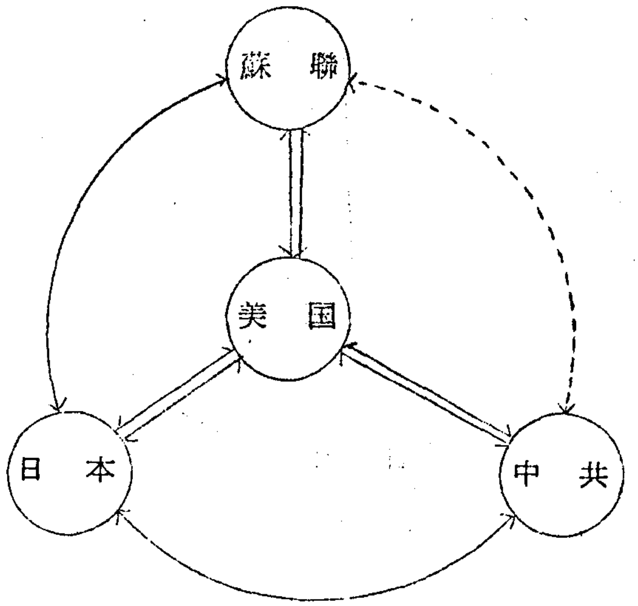
前章에서 指摘한 오늘날의 4 強関係의 特徵은 現在 展開되고 있는 4 強関係의 形態와 秩序의 테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形　態

4 強間의 対話, 交流, 接触, 協力의 程度가 同等한 水準에서 展開되고 있고, 4 強의 力量이 類似한 程度이고, 相互間의 牽制, 依存 및 競争様相이 均衡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4 強間에 緊密한 同盟이나 激烈한 対立関係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仮定하면, 4 強関係는 다음 図表에서 볼 수 있는 形態를 示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現実은 第1章에서 論及한대로 이다. 美国은 美·蘇支配体制, 戰略武器, 亜細亜地域外의 重要政治問題에 관하여 蘇聯과 協力하고 協商하여 때로는 競争하고 対立하고 있다. 美国은 中共과 亜細亜의 政治問題는 中共과 協議하려 하고 있으며, 日本과는 軍事協力과 経済交流問題를 盟邦関係에서 같이 協調하여 다루려 하고 있다. 即 美国은 4者共同의 「게임」보다는 蘇聯, 中共 및 日本과 分野, 地域, 機能에 따른 協議 및 協力関係를 展開해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中共 및 日本의 力量制約, 中·蘇対立, 美·日軍事同盟 그리고 日本의 対中共 및 蘇聯接近의 限界性의 作用으로 現実的으로 可能하고 実際로 그렇게 펼쳐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美国은 越南戰의 介入과 「닉슨·닥트린」의 宣布를 契機로 亜細亜·太平洋地域에서의 寄与와 役割을 縮小·調整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事実上 다음 図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有利한 立場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2) 秩 序

이러한 形態下에서 展開되는 秩序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4強의 秩序를 한마디로 要約하여 表現한다면 平和共存과 現狀維持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秩序가 具体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4強間의 戰爭勃発可能性이 顕著히 減少되었다는 点을 들 수 있다. 第2次 世界大戰이 終了된 以来, 韓国戰争을 비롯한 局地戰의 勃発에도 不拘하고 強大国間의 戰争이 없었던 것은 基本的으로 美·蘇間의 核抑制力이 相互作用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冷戰期에 있어 美国을 中心으로 한 西方勢力과 蘇聯을 頂点으로한 共産圈間의 軍事衝突의 可能性은 때로는 深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例로 「쿠바」에서의 「미사일」危機를 들 수 있다. 그러나 美·蘇共存関係의 展開로 超大強国間의 熱核戰争의 可能性은 顕著히 減少되었고, 美·中共和解와 修交로 越南戰時 示唆되었던 美·中共軍事対決도 거의 排除할 수 있게 되었고 中·蘇軍事衝突 또한 稀薄하게 됨으로써, 이제 4強間의 戰争可能性은 相当히 低下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4強中 어떤 한 国家가 支配的인 勢力으로 또 現在의 均衡을 打破하려는 勢力으로 登場하는 것을 排除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可能性에 대해서 從前에는 單独 또 陣営의 勢力으로 対処되었다. 即 蘇聯 또는 共産勢力의 試図에서 美国自体 또는

日本의 協力을 얻은 美国의 努力으로 対応되었다. 그러나 例컨대 蘇聯이 亜細亜에서 支配的인 勢力이 되려는 徵候가 露骨化되면 美国, 中共 및 日本이 提携할 것이고 日本이 核軍備를 갖추고 独自的 勢力으로 登場하려하면, 美国, 蘇聯, 中共이 共同으로 牽制하려 할 것이다.

세번째는 4強은 政治目的達成을 위해 直接的인 軍事行動을 抑制할 것이라는 点이다. 強大国의 直接的인 軍事力 投入은 秩序破壞乃至 強大国間의 軍事衝突의 可能性을 増大시킬 뿐만 아니라 現代戦이 所要로 하는 莫大한 天文学的인 犠牲과 負担을 覚悟하지 않으면 안될 実情이다. 또 美国은 亜細亜에서 特히 地上戦介入을 回避한다는 것을 基本方向으로 設定하고 있고, 日本은 戦争에 介入할 能力도 갖추고 있지 않고 介入할 状況에 놓여 있지도 않다. 中共은 当分間 対内中心의 政策을 模索할 것이며, 蘇聯은 美国과의 衝突 또는 美・日・中共의 軍事提携를 憂慮하여 慎重히 하지 않을 수 없는 実情이다. 따라서 4強은 自体의 基本利益이 明白히 侵害되었다고 判断하여 이 以上의 後退가 不可能하다고 여겨질 境遇와 公約対象을 除外하고는 直接的인 軍事行動을 抑制하려 할 것이다.

네번째로, 4強은 直接的인 軍事介入은 回避하지만 間接的인 支援은 継続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国의 対韓, 対台湾支援, 蘇聯의 対北傀, 対越盟支援, 中共의 対北傀, 対「크메르」支援, 그리고 日本의 対韓支援이 그 例라고 할 수 있다.

다섯번째로, 4強은 共存과 現状維持의 秩序를 基本的으로 受諾하고 있지만 明白한 勢力空白이 造成되어 他의 抵抗을 받을 可能性이 적다고 判断할 境遇는 間接的인 軍事手段 또는 餘他의 政治手段으로 勢力拡張을 試図할 수 있다. 即 「앙골라」式을 意味한다. 例들어 美国이 対韓, 対台湾公約을 포기하였다고 判明될 경우, 蘇聯은 北傀를 支援하여 韓国을, 또 中共은 直接的으로 台湾을 掌握하려 試図될는지도 모른다.

여섯째로, 戦争의 危険性 및 負担이 主된 要因으로 作用하여 4強은 利益의 守護·伸張과 目的達成을 위하여 軍事的 手段보다는 政治 그리고 経済的 方法을 보다 많이 活用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는 欧洲秩序에 比해서는 安定性이 欠如될 것이라는 点이다. 4強間의 対話, 交流, 接触, 依存의 関係는 継続 그리고 漸進的으로 拡大될 것이겠지만 4強이 같이 会同하는 形態로 까지 発展되려면 아직 相当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基本的으로는 世界, 欧洲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特히 4強関係가 展開되는 東北亜에서의 状況展開는 基本懸案을 相当期間 解決하지 못할 것이다. 더우기 韓国, 台湾, 印支問題와 같이 4強自体의 問題가 아닌 案件은 本格的인 論議와 解決에는 더욱 많은 時間을 要함으로써 相対的인 秩序의 不安定状況은 継続 免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덟번째는 脱「이데올로기」的 現象이 加速化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世界 그 어느 地域에서든지 「이데올로기」의 妥協이나 価

値観의 一致가 自由 및 共産国家間에 이루어진다고 予想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中·蘇対立의 深刻性, 経済的 手段의 重要性의 加重, 日本의 経済中心的인 思考, 中共의 加速되어가는 変質로 4強関係에 있어서는 例들어 欧洲에서 보다 脱「이데올로기」現象이 보다 顕著하게 抬頭될 것이라고 展望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強関係는 비록 不安定하고 複雑한 様相을 엿보일는지는 모르지만 漸次 共存과 現状維持의 方向으로 転移되는 秩序를 나타내고 있다.

第3章　4強關係의 問題点과 展望

平和共存과 現状維持라는 테두리 속에서 不安定과 流動性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4強関係는 몇가지의 深刻한 秩序破壞 乃至 秩序変革의 要因을 안고 있다. 이러한 諸問題点을 展望을 곁들여 検討해 보기로 한다.

(1) 美国의 力量과 意志

戰後 亜細亜地域에서의 共産勢力의 膨張 및 侵略을 抑制·沮止함에 있어 決定的 寄与와 役割을 해온 美国은 越南에서의 苦戰을 契機로 中·蘇対立等의 状況을 利用하여 勢力均衡의 方式으로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려하고 있다. 오늘날 4強関係에 있어서의 状況的 特徵은 이의 短期的 維持를 可能케 하고 있으나, 美国의 힘과 意志의 뒷바침이 없는 限, 現在의 不安定한 均衡은 再編成될 수 있다. 即 韓半島 및 台湾에서의 軍事的 衝突이 勃発할 수 있고 또 蘇聯의 圧力이 加重될 境遇 日本과 中共은 美国을 信頼할 수 없다고 判断하여 方向転換을 試図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欧洲에서만 大規模 軍事介入을 한다는 前提下에서 1.5 戰略을 採択하였고 越南戰에 대한 反作用과 「데땅뜨」에 대한 過度한 期待에 立脚하여, 美国은 実質的인 軍備減縮과 特히 亜細亜·太平洋地域으로부터의 軍事的 後退를 継続하여 왔다. 그러나 蘇聯의 継続

되는 軍備增強에 따른 「데땅뜨」에 대한 懷疑深化, 越南戰에 따른 反作用心理의 緩和, 亜細亜情勢의 再評価等의 影響으로 美国은 다시 漸次的으로 国防費支出을 增大시키고 駐韓美地上軍撤收決定으로 象徵되는 亜細亜로부터의 後退를 再検討하기 始作한듯 하다. 따라서 1970年代中盤만 하더라도 深刻한 問題로 提起되기 始作하였던 美国의 힘과 意志와 関聯된 問題点은 解消展望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

(2) 中共의 将来

中共이 果然 現在와 같이 国内的 現代化에 力点을 두고 美・日의 西方勢力과 協力을 增大시켜 나간다는 方向을 継続 維持하겠느냐라는 疑問은 深刻한 問題였다. 그러나, 周恩来에 의해 着手된 作業이 華・鄧路線에 의해 継承됨으로써, 毛沢東死亡에 따른 政策上의 修正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거의 確実視되고 있는 現体制의 執権이 継続되는 限, 中共의 方向転換은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中共의 将来와 関聯된 또 하나의 問題点은 中共이 国内的으로 安定되고 現代化되면 다시 冒険的이고 膨脹的인 政策을 模索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疑問이다. 中共의 国内事情은 文化大革命을 거의 完全히 整理한 것이 確実하나 中共의 経済的 後進性과 軍現代化의 遅延으로 다시 露骨的인 侵略路線을 追求한다는 것은 短期的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더우기 中共은 北으로부터의 軍事威脅을 考慮해야 하며, 蘇聯의 牽制와 現代化의 推進을 위해 美国과 日本의 協力을 必要로 하고 있는 状況下에서 現在의 4強関係를 破壊를 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세번째로는 蘇聯과의 和解可能性이다. 中·蘇間의 限定的인 「데땅뜨」関係의 発展은 可能하나 中·蘇間의 基本的 対立이 解消될 展望은 当分間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限定的 和解가 成立된다고 하더라도 現在의 4強関係에 根本的인 変化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但只 台湾에 대한 威脅이 若干 増大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毛沢東死亡後의 中共의 将来에 따른 不安은 華·鄧体制의 確立과 周路線의 보다 積極的인 推進으로 相当히 減少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日本의 将来

現在 展開되고 있는 4強秩序는 日本의 変化에 따라 変質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은 오늘날 経済為主의 対外政策을 模索하면서 政治·軍事的 役割은 美国의 政策테두리内에서 消極的으로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変化可能性은 4強関係의 将来와 関聯하여 問題点으로 提起될 수 있다.

첫째는 日本 国内政治와 関聯된 事項이다. 主要 西方国家中 伊

太利(伊太利 共産党도 表面的으로는 執権하면 継続 NATO에 残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를 除外한다면 日本같이 与野의 安保政策의 根本的 差異를 보이고 있는 国家는 없다. 社会党과 共産党은 自衛隊와 美·日安保体制를 否定하고 있으며, 公明党과 民社党도 이에 대한 많은 批判을 加하고 있다. 이와 関聯하여 볼 때, 執権自民党의 弱勢는 日本의 将来에 많은 問題를 提起할 것으로 展望된다. 1958年에 58%의 得票率을 올린 自民党은 그 後의 総選에서 継続 下降된 得票趨勢를 엿보임으로써 1980年代에도 果然 現執権体制가 持続될 것이냐라는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勿論 다음 選挙에서 自民党이 単独執権에 失敗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境遇, 民社党 또는 公明党과 聯立政府를 構成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輿論은 本格的인 再武装은 反対하고 있으나 自衛隊의 存在와 漸進的 質的 強化와 美·日安保体制 및 美軍駐屯을 現実로 受諾하고 있다. 따라서 自民党이 衆議院議席의 過半数占拠에 失敗한다고 하더라도 現在의 対外政策과 自衛力維持에는 큰 支障을 招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美·日安保協力関係의 断切에 따른 4強関係의 変化可能性이다. 美国은 日本과의 紐帯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고 過去와 같은 "衝撃"을 日本에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日本도 現在 美国과의 軍事協力의 維持를 바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状況下에서는 이러한 同盟関係가 終熄된다고 보여진다. 그 첫째로는 現在로서는 予見되지 않은 社会党의 執権에 따른 変化이다.

둘째는 美国에 의한 日本에 대한 経済的 衝撃으로 日本은 自体軍事力 및 武器産業建設을 통하여 意思貫撤과 経済的 突破口를 模索하게 되는 状況이다. 세번째는 北傀南侵에 의한 韓国戦争再発 또는 蘇聯의 劃期的인 極東配備軍事力増強과 같은 状況이 展開되는 가운데 美国의 軍事的 後退가 継続됨으로써 日本이 美国을 거의 信頼하지 않게 되는 境遇이다. 이러한 諸状況의 일어날 可能性은 全的으로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可能性은 相当히 稀薄하기 때문에 4強関係에 있어서의 深刻한 問題点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 蘇聯의 極東에서의 軍事的 進出努力의 劃期的 増大

通常戦力을 基準으로 할 때, 蘇聯은 軍事力의 約 3分之 1을 極東地域에 配備하고 있으며, 비록 그 優先順位는 낮으나 蘇聯 極東軍은 継続 増強되고 있다. 이러한 戦力이 劃期的으로 強化되어 日本의 海上補給路를 威脅하고, 中共에 대한 軍事的 圧力을 加重하게 되고 또 美国의 海外進出, 通商, 海外基地, 海軍을 크게 威脅하게 되는 状況은 予見될 수 있다. 이러한 状況에 併行하여 全般的인 美・蘇関係가 悪化될 때, 4大国関係는 크게 変化하여 美・日・中間의 提携関係가 発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美国의 亜細亜・太平洋配備 軍事力과 日本의 軍備는 顕著하게 強化되는 現象을 보이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状況은 至極히 그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써 蘇·北韓間의 軍事協力関係의 強化이다. 蘇聯은 美·中共修交와 美·日의 中共과의 経済 및 餘他分野에서의 協力関係拡大를 美·日·中間의 軍事協力의 徵候로 速断하고 東北亜에서의 拠点確保와 西方에 대한 圧力加重의 一環으로 그 동안 疏遠하였던 北傀와의 接近을 模索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한편, 中共의 "変節"에 失望한 平壌은 中共이 提供하지 못하는 軍事 및 経済援助의 確保를 위하여 「모스크바」로의 傾斜를 서두르게 될 可能性이 濃厚하다. 이렇게 될 때, 韓半島의 緊張은 다시 高潮되어 美·日, 特히 美国의 亜細亜·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軍事力配備政策에는 큰 変化가 오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強化된 軍事力과 北韓 및 印支半島에 있어서의 軍事的 拠点을 바탕으로, 蘇聯의 亜細亜地域全般 그리고 特히 東北亜에서의 各種 圧力을 加重시키고 緊張의 高潮化를 통해 美·日·中의 妥協的 態度 乃至 屈服을 誘導하는데에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 形態의 蘇聯의 軍事的 圧力増大는 美·中·日 協力強化, 美国의 亜細亜配備軍事力의 強化, 日本의 自衛能力向上 및 中共의 軍現代化努力의 促進을 誘導함으로써 4強関係에 큰 変化를 가져 올 것이다.

(5) 局地戦의 勃発

4強과 関聯시켜 본다면, 세개의 局地戦을 想定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中共의 台湾攻撃이다. 中共이 이를 断行하려면 蘇聯과 和解해야 되고, 軍의 現代化를 이룩해야 하고 美国과의 関係悪化를 覚悟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可能性은, 特히 中共의 現線에 비추어 보아, 稀薄하지만, 이러한 事態는 美·中共関係의 悪化와 이에 따른 日·中共関係의 逆転을 가져 올 것이다.

두번째는 印支共産国家間의 戦争이다. 蘇聯의 支援을 받은 越盟은 中共이 支持하는 「캄보디아」를 손에 넣는데 成功한 듯하다. 現状況에서 将来를 予見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事態는 中共의 対蘇 및 対越盟関係의 悪化를 가져 올 것이다. 또 中共은 直接的인 軍事介入을 하지 않겠지만 越盟侵攻에 反対하는 親中共 「크메르」勢力에 대한 支援을 할 것으로 予想케 하고 있다. 이는 또 美·中共紐帯強化를 위한 또 하나의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세번째는 韓国戦争의 再発에 있다. 蘇聯의 支援에 의한 北傀의 全面南侵은 美·日軍事協力의 強化, 美国의 対亜細亜西太平洋配備 軍事力의 増強 그리고 日本 再武装의 促進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戦争은 印支半島에서의 戦争持続을 除外하고는 모두 그 可能性이 높지 않지만, 위에서 言及한 状況의 展開를 가져 옴으로써 4強関係에 変化를 招来할 수 있을 것이다.

第 4 章　4 强關係와　韓半島

1972 年　2 月의　北京에서의　劇的인　美・中共頂上会談을　契機로 本格的으로　胎動된　4 強関係는　前章에서　検討한　諸問題点의　作用으로　不安定과　流動的인　潜在要因을　안고　있으나　大体的으로　現秩序를　中心으로　維持・展開될것이　予想되고　있다.　勿論　現段階에서는 予見하기　어려운　状況을　問題点으로서　提示・考察하였지만, 蘇聯의 積極的인　進出努力과　特히　美・中共修交에　따른　美・日・中共의　3 国提携体制의　可能性에　対備한　「모스크바」의　北韓接近　및　極東配備　軍事力의　増強과　같은　状況의　展開는　그　潜在的　可能性을　深刻히　検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現在까지의　4 強関係는　4 大国의　関係에　焦点을　두고　考察됨으로서　韓半島의　状況의　包含한　直接的으로　4 強과　関聯되지　않는　諸問題는　不可避하게　抑制되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4 強関係의　展開에　따른　韓半島의　将来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의　問題는　4 強의　現状維持秩序와　聯関하여　생각할　수　있다. 4 強의　中心的인　秩序가　現状維持라고　指摘되었다.　그리고　이　秩序를　具体的으로　살펴　보면, 한　勢力의　支配的　位置占拠의　反对, 直接的　軍事介入의　反对, 戦争回避等의　要件이　成立・展開된다고　評価하였다.　韓半島는　4 強自体를　除外한다면　적어도　東亜細亜에　있어서는　4 強의　緊要한　利益과　重要関心対象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秩序는　韓半島에　適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意味하느냐가 問題가 된다. 첫째로, 現状維持, 即 韓半島에서의 現状維持는 分断状態의 維持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을 短期的으로 생각할 수 없고, 韓半島에서 한 勢力이 支配的 位置를 차지하게 되는것을 願치 않으며, 戰争危險과 負担을 생각하여 戰争을 反対한다고 前提한다면, 現段階와 現状況下에서의 韓半島의 分断状況은 적어도 4強의 基本秩序와 基本意図가 作用되는 限 그대로 維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이 秩序는 4強의 不統一政策을 要求함으로서, 4強은 韓国統一을 現実的으로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이 아무리 全民族의 念願하는 最高 그리고 至上의 課題라고 하더라도 現実的으로 그리고 短期的으로 達成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不統一과 関聯된 問題이다. 現状維持는 統一에 대해서는 否定的 作用을 하지만 이를 戰争抑制와 平和維持의 側面과 次元에서 본다면 肯定的인 作用을 한다. 4強은 韓半島서의 戰争이 勃発되던 또 그 結果로 어느 한 勢力이 支配的인 勢力으로 登場되면 現状況 보다 못한 여러가지의 不利한 状況이 展開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即 強大国間의 熱核戰争으로의 拡大可能性이 提起되며, 戰争이 局地戰으로 制限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政治的 그리고 財政的 負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日本의 軍国化問題는 残餘 3強을 憂慮케 할 것이며, 中·蘇의 立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赤化된 韓半島가 相対方에 傾斜되면 現在

보다 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中共으로서는 美·日과의 関係悪化와 負担에 따른 現代化의 遅延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結局 이와 같은 状況은 4強으로 하여금, 特히 韓美安保体制가 堅固한 以上 韓半島에서의 戦争을 願치 않토록하여 平和維持로의 肯定的 作用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4強의 統制力, 特히 中·蘇의 対北傀統制力의 減少 및 制限에 따른 不安定 要因이다. 中·蘇가 同盟関係를 維持하면서 現在의 共存路線을 追求하고 있다면, 「모스크바」와 北京은 金日成의 侵略政策에 制動을 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蘇対立이 現水準에서 継続되는 限, 中共 및 蘇聯은 競争的(総量에 있어서는 限定的)인 対北傀支持 및 支援을 統制力도 行使하지 못하는 가운데 提供하게 될 것이다. 政治的 支持는 南北対話再開, 交叉承認, 「유엔」同時加入等 現在 韓国이 推進하고 있는 統一政策에는 沮害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또 軍事的 支援은 北傀의 武力統一政策을 結果的으로 뒷바침해주는 셈이 될 것이다.

네번째는 이미 指摘된 北傀·蘇聯의 接近 可能性이다. 現在까지의 北傀의 政策과 現在의 北京으로 傾斜된 北傀의 態度로 보아, 平壤政権이 單時日内에 「모스크바」에 接近된다고 断言하기는 어렵다. 또 平壤은 여러가지의 이미 指摘된 与件을 감안하여 中·蘇 어느 一方에 密着하려하지는 않으려 努力할 것이다. 그러나 北京의 変質에 대한 失望, 蘇聯의 経済 및 軍事援助의 必要性, 「모스크바」의 北韓接近必要性에 대한 意識増大는 確実히 平壤·「모스크

바」의 接近을 갖어 올 수 있다. 이는 北傀의 戰力增強의 契機를 갖어 올 뿐만 아니라 美·中·日接近을 憂慮한 「모스크바」의 反撥로 現存 4強秩序를 勿論 韓半島情勢의 큰 変化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将来와 関聯된 韓国의 選択이다. 美軍撤収를 비롯한 美国의 韓国에서의 役割 및 寄与의 減少, 韓国의 経済 및 軍事分野에 있어서의 自主力量의 増大는 韓国의 自主性의 提高를 促進할 것이다. 北傀의 境遇에 있어서도 特히 中·蘇対立으로 北傀의 自主性의 相対的으로 高潮되고 있다. 그러나 4強秩序는 韓半島将来의 変化(現状維持와 関聯하여)의 試図를 現実的으로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 또 共産政権인 中共과 蘇聯의 関係模索을 企図할 수도 없다. 政治·軍事的 役割을 拒否하고 拒否当하고 있는 日本과의 軍事的 関係의 成立을 期待할 수도 없다. 따라서 北傀의 変質이 없는 限(根本的인 変化는 事実上 期待할 수 없다), 安保와 関聯된 韓国의 選択의 통과 幅은 基本的으로 制限되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東北亜秩序에 따르는 이데올로기 變化의 展望

The Prospect of the Ideological change following the Order change in the Northeast Asia

研究執筆責任： 崔 相 竜

（略歴） 서울大 文理大 外交学科卒業 및
同 大学院 碩士
日本 東京大 政治学博士
現在 中央大 法政大 政治外交学科助教授

目 次

1. 문제의 설정 559

2. 전후동북아질서변동의 요인 561

1) 미·소냉전의 붕괴 561

2) 중·소의 이념분쟁 564

3) 일·중조약과 미·중국교 567

3. 80년대 동북아질서의 전망 575

1) 4強과 남북한의 국력 — 1985년의 추정상황 575

2) 体制이데올로기의 변화 — 「収斂論」의 의미와 한계 581

4. 한반도 냉전구조와 그 전망 594

1. 문제의 설정

제2차세계대전후 35년, 그동안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는 놀라우리만큼 변모했고 앞으로도 그 변화의 현실은 우리의 인식능력을 훨씬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정치현실의 변화와 우리의 인식능력간의 거리를 좁혀보려는 조그만 시도의 하나로 전후 동북아질서변화의 요인과 의미를 밝히고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서 금후 80년대의 동북아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질서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6개의 주요행동자인 미·일·중·소 4強과 남북한의 상호관련적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인식론이나 지식사회학상의 범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원리와 성격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자유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등의 体制이데올로기와 민족이나 국가의 개성과 이익을 목표가치로 하는 민족주의 등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이데올로기를 문제삼을 경우도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내용보다 국가간의 힘(power) 관계의 변모과정에 따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를 권력정치의 外皮로 단순화해 버릴수도 없지만, 힘(권력)의 계기를 배제한 이데올로기론은, 적어도 전후국제정치의 분석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힘은 정치권력일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정치를 권력정치(power politics)라고 파악할 경우의 힘이며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2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제2차대전후 동북아질서변동의 요인의 분석이다. 여기서는 중·소·북한 対 미·일·남한이라는 냉전구조가, 힘과 이데올로기의 양면에서 다원화되기 시작하여, 50년대 말부터 세계적 규모로 민족주의의 분출현상이 나타나고, 60년대 이래의 중·소 이념분쟁과 70년대의 일·중조약과 미·중국교로 완전히 붕괴해버린 과정을 설명했다.

둘째 80년대 동북아질서의 전망이다. 여기서는 1985년을 기준으로 하여본 동북아 4대강국과 남북한의 힘관계를 전망한 다음, 동북아냉전구조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상호변모과정을 収斂論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끝으로 냉전에서 데탕트로 이행한 동북아 4강속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장래를 전망할 때, 한국이 일차적으로 선택한 정치적 이념은 体制이데올로기의 両極化에로의 편입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정착을 통한 남북한의 선의의 경쟁이나 통합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임을 밝혔다.

2. 전후동북아질서변동의 요인

1) 미·소냉전의 붕괴

제 2 차세계대전후의 미·소냉전은 힘의 대립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다.

물론 힘과 이데올로기의 2중대립의 성격을 띤 「国際的内戦」[1]은, 16, 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이나 18세기말 프랑스 혁명후에 전개된 나포레옹제국과 윈체제의 대립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역사적인 선례에 비하여 제 2 차대전후의 미·소냉전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① 군사력의 세계적(global)인 양극화였다는 점이다. 核병기와 미사일의 개발에 따라 동·서의 권력정치적 대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했던 것이다.

사실 소련은 1945년 후반부터 핵병기 개발을 시작했고 1949년 처음으로 핵을 보존하기 이전에도 강대한 육군만으로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국이었다. 이점이 바로 전후 냉전이 군사력의 국제적 両極化로 나타난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이를테면 17세기의 30년 전쟁때에는 카톨릭의 프랑스가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제후를 도와 같은 카톨릭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할수도 있었다. 또한 18세기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은 유럽대륙의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처음에는 혁명프랑스와 나폴레

옹제국의 혁명적 침략전쟁에 반대했고 다음에는 대륙의 반혁명 간섭전쟁을 반대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그러나 전후 미·소냉전에 의한 군사력의 양극화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정화되어 각국의 정치권력이 이 두개의 극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이다.

② 이데올로기의 전체적(Total) 조직화라는 점이다. 적어도 명분으로는 미·소가 같이 인류의 해방을 이념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대접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정확히 말하면 미국식 민주주의만이 세계를 구제할 수 있다고 했고 소련은 공산주의만이 인류해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다같이 전체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메시아니즘이었던 것이다.[2)]

그런데 군사력의 세계적인 양극화의 과정에서는 애당초부터 중대한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다.

미·소간의 "힘"의 양극화는 다른 동맹국과의 사이에서 군사력의 압도적인 차이 다시 말하면 핵병기가 존재함으로써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흔히 「핵의 역설」이라고 말하듯이 핵병기는 그 파괴력 때문에 군사동맹도 결코 방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정책의 수단인 전쟁이 열핵병기의 등장으로 이미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몇번이고 죽일 수

있는 핵병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소 2대국이 가장 심각한 파괴의 위험속에 있는 역설적이면서도, 그러나 확실한 사실을 미·소 쌍방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적인 측면에서 냉전의 부정적 요인이 점점 증대해감에 따라 군사동맹의 내부관계도 점점 붕괴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미·소의 핵의 보호가 방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못하는 조건하에서는 동맹의 조직화가 긴밀할수록 미·소의 대국주의에 대한 동맹내 여러나라의 민족주의적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동맹내 긴장은 이를테면 미·불간이나 중·소간에서처럼 동맹의 약체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드골이 워싱턴으로부터 독립하고 중·소대립이 격화되고 그리고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구한 것은 군사블록의 붕괴를 결정적으로 했으며 1972년 미·중화해에 이어 1978년 8월의 일·중평화우호조약, 1979년 1월의 미·중국교 정상화는 전후냉전구조의 종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또 군사블록의 이완내지 붕괴는 동맹제국의 민족주의로 나타났고 이 민족주의는 동·서 진영 내부로 부터 이데올로기의 다원화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사회주의제국의 민족주의를 공인(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 공산화될 가능성이 없고 심지어 국내에서 공산당을 탄압하고있는 아시아·아프리카제국에 대해서도 경제원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도 미주내 라틴아메리카제국의 민족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국의 반공정책에 동조하지 않은 나라를 무조

건 적으로 간주한 이데올로기의 일원적 조직화를 수정하고 비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다원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한 반공정책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로콤뮤니즘과 국제정치변동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있는 제 3세계의 민족주의는 동·서간의 힘과 이데올로기의 다원화에 따른 하나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소의 이념분쟁

중·소대립은 20세기 후반의 세계최대사건의 하나이다. 이것은 이른바 자본주의체제에 대립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의미할뿐만 아니라 종래의 획일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의 분열을 의미하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대립을 토대로 하는 전후냉전구조가 변화하여 평화공존의 길을 터놓은 점에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소대립의 분석은 그 복잡한 성격, 자료상의 제한때문에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3] 어떤 사람은 중·소대립의 역사적 경과를 서술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중·소양국의 해석에 촛점을 둠으로써,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소대립의 근본원인을 양국의 국가이익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제각기 중·소대립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금후 80년대의 중·소대립을 전망함에 있어서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범위내에서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 및 이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차이를 열거해 보고자 한다.

① 중공은 농민 특히 빈농을 혁명과 근대화의 주체로 한 점이다. 역사상 농민은 생산노동의 주체이지 정치의 주체가 되질 못했다.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농민반란이 있었지만 농민이 혁명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그리고 중공의 경우 혁명의 근거지도 농촌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를 주체로 하여 도시에서 성공한 러시아 혁명과는 다르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농민에 대한 이미지는 이론적인 관점의 차이라기보다 중공과 소련의 역사적 특성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② 민족의 독립, 해방에 대한 관점 또는 力点의 차이이다. 소련은 국제공산주의를 자국의 국가이익의 도구로 했으며 중공은 처음부터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였다. 다시말하면 소련은 공산주의의 국제적 보편성을 주장했고 중공은 공산주의의 민족적 특수성을 주장했다. 유고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가 소련과 대립한것처럼 중공은 소련의 국제공산주의의 신화에 도전하여 민족주의와 결합한 공산주의를 국제적으로 확대했다. 오늘날 제3세계 제국에 대한 영향력, 경쟁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중·소의 기본적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③ 소련은 레닌이래 고도의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온데 대해서 중공은 분권적 사회주의 이미지를 중시하여 관료의 주도가 아닌 민중의 참가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에드가 스노우」와 회견

한 모택동은 모든 것을 북경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국의 분권적 연방제도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④ 이른바 인민내부의 모순과 영구혁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스탈린은 1930 년대에 혁명후의 소련에 농민과 푸로레타리아 계급의 차이는 존속하나 대립은 없다는 공식적인 教義를 제시했다. 모택동은 이른바 인민내부의 모순, 즉 일등계급내부의 모순, 농민계급내부의 모순, 労農両계급간의 모순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구혁명에 대해서도, 소련의 경우는 一国의 사회경제구조의 영속적 변혁을 나타내거나 타국에 대한 혁명의 확대 전파를 의미한 것이었다. 중공의 경우 영구혁명은 하부구조의 변혁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자기변혁으로서의 문화혁명을 중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혁이 완료되면 혁명은 완성된다는, 종래의 유물사관의 명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오늘날 제 3 세계 사회주의국가들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면에서 소련에 기울어지는 나라가 적지않지만, 정치적 이념의 면에서 중공에의 경사가 현저한 것은, 중국사회주의 ① ② 의 특징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제국내에서의 각종 신좌익 사상이나 운동이 모택동사상을 하나의 範型으로 하고 있음은 ③ ④ 의 특징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 같으며 이 경우 모택동사상에의 경도는 거의 예외없이 미국형 거대자본주의와 소련형 거대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일중조약과 미중국교

가. 일중조약

일·중조약은 前文에서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1972 년의 일·중공동성명을 확인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의 유지,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공존의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10 년, 이후 자동 연장하기로 되어있다.[4]

문제의 핵심은 「反覇權」조항이다. 중공측은 조약체결을 위한 회담이래 이 「反覇權」을 조약본문에 명기할 것을 주장해왔고 일본측에서는 중·소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反覇權」이 「反蘇」로 받아들여질 것을 고려하여 조약에 명기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일본이 공동성명에 「反覇權」을 내세우면서 조약 본문에의 삽입에 반대한 것은 정책의도의 표명인 공동성명과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조약과는 별개라는 관점에서 였다. 「田中」 「三木」 내각을 거쳐 「福田」내각이 성립한 후 「反覇權」조항의 明文化방침으로 전환한후도 「反覇權」이 공동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것이다.

일·중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중심내용은 제 2 조에 反覇權을 규정함으로써 중공측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제 4 조에 제 3 국조항을 독립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 2 조는 「兩締約国은 공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이나 타지역에서 覇

權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覇權을 확립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나 국가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할 것을 표명한다」로 되어 있고, 제 4 조는 「이 조약은 제 3 국과의 관계에 관한 各締約国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일·중조약은 조문상으로 보면 중공의 反覇權조항과 일본의 제 3 국 조항의 타협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국내정치상의 필요의 산불이며 이 조약으로 중공은 소련覇權主義 반대의 포위망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커다란 정치적 이익을 얻었고 일본은 중공시장을 겨냥한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임에 틀림없다.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후 일본의 각 정당은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민당은 신뢰와 이해의 표현이라고 했고 사회당은 마음으로부터 환영한다고 했다. 공명당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라고 칭찬하고 민사당은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자유클럽은 「両国의 우호를 不動하게」 「社会民主連合」은 「중공의 발전에 협력을」 그리고 가장 미온적이었던 공산당까지도 「군사동맹화에는 반대」라는 표현으로 약간의 유보를 두면서도 「일·중조약의 체결은 自明의 과제」라고 했다.

물론 자민당의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① 이 조약의 체제가 다른 국가내의 조약이란 점이다. 중공은 공산국가로서 「3 개의 세계론」이라는 세계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主敵소련과 대결하기 위해서 전략실현상의 수단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었을뿐, 혁명의 궁극목표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反蘇의 중공과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도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全方位外交」의 일본과는 同床異夢이 되지 않을 수 없다.

② 일·중조약을 계기로 하여 일본은 미·소·중의 대국게임의 와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테면 소련은 일·중조약의 내용이 어떻든 일본의 反蘇동맹에 가담했다고 볼것이다. 그래서尖閣列島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체결된 일·중조약을 구실삼아 북방영토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日·蘇협력조약의 체결을 요구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향상, 일본의 역할분담의 기대, 안보무임승차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일·중조약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일본의 財界다.

일본의 財界는 일·중조약체결 과정에서 중공의 경제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의 조짐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것 같다.

① 借款의 도입이다. 1978년 7월 일본 三井그룹의 訪中단에 대하여 李先念副首相은 「내년이후 일본등으로부터 借款을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李副首相의 발언은 외국으로 부터의 경제원조, 借款投資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종래의 自力更生의 이념을 크게 수정한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② 生産分与(Production Sharing) 방식의 채용이다. 이것은 해외로부터 자금·기술을 도입하여 返済할때는 생산한 현물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소련 東欧諸国이 西方측과의 경제협력을 할때 쓰고

있는 방법이다. 중공도 최근 국내의 석유 석탄등을 개발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일본에 이 방식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③ 委託加工무역에의 진출이다. 일본등지에서 원자료 제조설비의 공급과 기술지도를 받아 국내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發注国에 再수출하는 무역형태로, 금후 중공은 이러한 위탁가공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대외정책의 변경은 「4개의 근대화」를 지상명제로 하는 중공내부의 사정에 유래한 것이나 일본의 재계는 중공의 이러한 정책을 서방측에 대한 중공의 협조자세로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년간의 일·중무역도 21억3천8백만$로 반기별로서는 과거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일·중조약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중경제관계에 있어서 금후의 문제점은 ① 일본국내기업의 과잉경쟁이다. 중공측의 단일의 안건에 대해서 일본측의 복수의 기업이 경쟁하게 될것인데 일본의 재계로서는 지금까지 많은 조사비·인재를 투입하여 왔기때문에 간단히 商談을 포기할 리가 없고 중공측으로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읽고 있기때문에 지난날 시베리아개발붐 당시 일본측의 과잉경쟁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을 이롭게 한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② 欧美와의 경합문제이다. 중공은 지난 4월 欧州共同体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李強 対外무역상 谷牧 副首相을 서독과 프랑스 영국에 파견하여 무기구입을 포함, 석유·석탄개발등의 대형商談을 진행하고 있

다. 이를테면 석유화학분야의 경우 上海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북경에서는 欧州와 일본이 半半, 遼陽에서는 欧州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미국도 브레진스키 대통령보좌관의 訪中을 계기로 하여 경제분야에서 본격적인 対中共 협력자세를 내세우고 우주개발에서 원자력 컴퓨터산업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절충을 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구라파 각국은 対소련 군사전략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중공이 세계최대 최후의 시장이라는 경제적 견지에서 중공에 경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있고 중공은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가지고 일·중조약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있다.

中共의 人民日報, 1978 년 13 일, 14 일의 홍콩의 中共系紙는 일제히 「中国의 의도는 받아들여졌고 이로써 소련의 覇権主義는 저지되었다」는 논조였다. 중공의 의도란 6 년동안 일관해서 주장해온(소련의) 覇権主義 반대규정의 삽입이다. 이들 신문의 논조는 「일본의 요망으로 제 3 국조항을 넣긴 했지만 이것은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중공의 의도와는 조금도 反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大公報도 같은 해 14 일의 사설에서 「조약의 정신은 反패권주의에 있다. 소련은 세계적 패권을 노리고 베트남은 지역적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중공의 기본입장은 反패권조항만 들어가면 조약체결을 결행하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있었던것 같다. 중공측의 극적양보는 사실상 "名"을 양보하고 "実"을 관철시킨 중공외교의 성공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중공은 일견 크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나 「4 개의 근대화」의

실현을 서두르는 중공으로서는 일본의 경제력에 기대하여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제협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저 했고, 反패권조항을 넣은 조약은 주요국가와의 사이에는 처음이며 중공으로서는 13년만의 이 조약이 금후 그들의 대외정책전개를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 된다고 판단했음이 틀림없다.

중공이 反패권조항을 고집한 의도는 명백히 対蘇전략상의 고려 때문이다. 소련을 사회제국주의로 규정하는 중공의 입장에서 対蘇 포위망에 일본을 끌어넣으려고 하는것이 조약체결의 최대 목표였다.

나. 미·중국교

1979년 1월 1일의 미·중국교수립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제2차대전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규정했던 이른바 얄타·포츠담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 미·중관계는 이 얄타·포츠담 체제에 내재하고 있던 협조와 대립의 곡절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얄타협정에서 약속된 1945년의 中·蘇友好同盟条約이 그후 중공에 계승되는 형태로 1950년에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둘러싸고 스탈린과 모택동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中国의 喪失」로 단정했고, 드디어 한국전쟁을 거쳐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미·중대결의 도식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70 년대초의 미·중접근은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위의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이 1980 년에는 30 년의 기한을 끝맺음으로써 문자그대로 얄타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

둘째, 미·중국교가 수립된 1979 년의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은 70 년대초 미·중접근 당시의 그것과는 그 성격이 달라졌다. 닉슨의 중공방문은 데탕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1979 년의 미·중국교수립은 긴장완화의 도식에서만 전망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미·중국교수립은 미·중 2 國간의 역사적 현안처리의 영역을 넘어 금후 국제정치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다.

미·중국교수립에 큰 역할을 한 브레진스키 미대통령보좌관은 1978 년 5 월 방중했을 때 「미·중 양국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평화에 공헌하고 제국주의의 기도를 방지할수가 있다」 (5 월 10 일 북경 환영회에서의 인사) 고 하고 있다. 이 발언의 문맥에서 보면 미국은 제국주의가 아님은 두말할것도 없고 소련만을 제국주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중공에 대한 인식도 브레진스키 보좌관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것 같다.

한편 중공측으로서는 「 4 大近代化」 라는 국가목표를 세워 세계전략으로서의 反覇權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일·중 다음에 미·중 국교를 긴급과제로 한 것은 이해하기 쉽다.

일·중평화우호조약 교섭당시 중공당국이 일본측에 발언한 바에 따르면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1979 년 4 월까지 폐기통고할지 모른다.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은 「기간만료 1 년전까지 체약국의 일방이 폐기의 희망을 표명하지 않을 때는 5 년간 연장된다」(同조약 6 조) 이 조약이 1950 년 2 월 14 일에 조인되어 같은 해 4 월 11 일에 중·소양국에 의해 비준되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큰 역사적인 전환점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중공측의 종래의 주장대로 이 중·소조약이 폐기된다면 중공과 소련은 명실공히 적대국이 되어 소련의 중공공격에 대한 국제법상의 구속은 일체 해제되기 때문에, 중공의 일본 및 미국에의 경사는 더욱 증대할 것이다.

3 · 80년대 동북아질서의 전망

1) 4강과 남북한의 국력 - 1985 년의 추정상황[5)]

가. 미 국

인구는 2억3천만, GNP 는 2조2천7백억弗로 계속 소·中·日의 GNP 합계보다 더 큰 국민총생산을 유지할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9,682 弗 군사비 지출은 1,363 억弗 규모가 되어 계속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미·소는 다같이 양국간의 군사력균형이 세계평화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 년대에도 SALT 교섭의 추진과 함께 세력균형정책에 수반되는 군비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대소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미·중관계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소련군의 급속한 증강으로 日本의 본격적인 재무장이 거론되고 소련의 대중공무력침공설이 떠돌아 미국이 중공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결정속에서 미국의 태평양함대 강화 미극동군의 강화 여론이 점증하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비 규모로는 여력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륙을 버리고 물러나 해양동맹(Ocean alliance) 체제로 방위지역을 축소할 것인지 적극개입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지워야 할 중대한 국면에 집하게 될 것이다.

나. 소 련

1985 년의 소련은 인구 2억8천만 GNP 1조764억弗, 1인당소득 3,861弗의 상태가 될 것이며 군사비는 1,500억이라는 방대한 규모가 될 것이다.

소련의 현 지도부는 이미 바뀌어 60대의 젊은 새 지도자가 출현하여 세계적 규모에서 적극적인 패권주의를 모색할 것이다. 늘어난 고등교육인구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사회구조는 후기산업시대로 들어서는데 비해 국민소득 3,800弗선에 머물러 있는 괴리현상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저항이 많아 점차 정치체제는 경직화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소련 지도부는 이러한 국내적 문제를 극복하는 수단의 하나로도 대외정책에서 더욱 강경로선을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 중 공

인구 10억을 넘어서게될 중공은 4대근대화로선 추진을 위해 계속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西方측의 자본, 기술과 함께 광범한 문화접촉으로 「실용주의로선」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기정질서로 굳어져가고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좀 성장했으나 원래 산업화 기반이 약해 크게 눈에 띄는 성장은 못이룰 것이다. GNP는 계획대로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4,880억弗, 즉 日本의 半수준에 달할 것이며 1인당 소득은 647弗정도 (1977년의 한국수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경제력을 가지고도 중공은 당면한 소련과의 대결을 의식하여 군사비는 590억弗정도(일본의 7배)를 쓰게 될 것이다.

등소평체제는 완전히 자리잡을 것이며 새로운 전문관료들이 지도부에 많이 참여하여 이데올로기보다는 実益에 따라 정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로선은 더 확대되면 소련과의 화해의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 중공의 向背는 계속 주목의 대상이 될것이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미국과도 이미 이룩한 국교를 토대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일본 또는 미국과 정치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소간에는 이념뿐만아니라 국경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립은 단기에 전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고 80년대에도 조정된 갈등(Controled Conflict)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 일 본

일본의 지위는 계속 커가는 경제력 때문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일본은 1985년에도 계속 미·일방위소약을 근간으로 하는 친미정책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국이 되기를 스스로 피할 것이다. 일본은 1985년에 인구 1억2천6백만, GNP는 8,555억弗, 1인당소득도 6,811弗로 완전한 선진국이 될 것이며 사회내부 구조에도 공업화 후기현상이 만연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정치가 극우나 극좌로 치우칠 가능성은 배제된다. 자민당이 단독

또는 小聯合 정권의 형태로 계속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떠한 정권이라도 의회민주주의 기본틀은 유지될 것이다.

일본은 계속 非核3원칙, 全方位外交를 유지할 것이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소련의 시베리아개발 중공의 자원개발에도 깊이 참여할 것이고 북한과의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의 극동군 증강에 자극받아 강력한 거부능력과 해상통로 확보를 위해 해공군을 급속히 강화할 것이며 군사비도 GNP의 1%가 넘는 86억弗을 쓸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가 넘는 150억弗선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해군은 対潜능력과 해상통로 확보를 위해 잠수함 구축함 및 헬리콥터 모함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방공망강화를 위해 F-15기를 주축으로 하는 강력한 공군부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마. 북 한

북한은 1985년에 인구 2천만이 넘을 것이고 GNP는 119억弗 1인당소득은 581弗 수준이 될 것이며 군사비는 GNP의 약 13%에 해당하는 15억弗을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현대화된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소련 또는 중공의 원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일단 중공과 가까워 질 것이나 소련이 이미 軍援을 주고있고 또한 羅津 이북지역에 강력한 극동군을 배치하고 있어 反

蘇행위는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펴서 소련의 압력을 견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한국과의 공존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미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이라는 두가지의 상반되는 상황을 조화하는 묘안을 찾아내야 될 것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계속 정치안정은 유지할 것이다. 김일성이 아직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이미 75세를 넘게되어 승계문제를 둘러싼 투쟁이 지도층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만일 1985년전에 김일성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새지도부가 들어선다해도 당장에 정치적 경직성이 풀릴것 같지는 않으며 남북한평화공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바. 한 국

1985년의 한국은 여러모로 국력이 신장되어 자신감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나 주변정세변화와 국내사회구조 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국은 1985년에 인구 4천1백4십만, GNP 515억弗 1인당 소득 1,244弗로 중진국수준에 접어들 것이며 군사비는 GNP의 5~6% 수준에 해당하는 약 26억弗을 쓰게 될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한국도 현대화한 상당수준의 陸戰능력과 防空능력

연안방위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나 외부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군원(FMS) 등에 의해 F-16기, M-60 금전차, 디젤형 잠수함 등을 갖추게 될 것이며 상당수준에 오른 방위산업에 의해 각종 통신 수송장비를 스스로 확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소련의 극동군전력증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 중공과 북한의 협조체제 전개에 관심을 높일 것이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나 미국으로 부터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自主度를 확보할 것이다.

한국은 안보 및 통상의 필요에 의해 중공 및 소련 및 기타 공산국과 관계개선을 하려 노력할 것이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한국의 가장 큰 대외관심사의 하나는 수출시장확보문제다. 미국, 서구등의 수입규제강화로 공업제품의 시장이 좁아짐과 아울러 중공 등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시장문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란등지에서 시작된 소련의 대리전쟁 때문에 미묘한 정치적 사상문제가 얽혀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될 것이다. 현재의 추산으로 1985년의 대외수출은 1975년 弗로 약 300억弗 상당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1985년의 국내정치 상황은 극히 예견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헌정질서가 그때도 계속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20∼24세 인구중 고등교육인구(대학)가 1975년의

10 %에서 약 21 %로 증가하여 1970 년~1973 년경의 일본수준으로 될 것이고 또한 非農林水産 인구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사회가 될 것인데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늘어난 도시지식인과 도시근로자들의 욕구를 정부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할 것이므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추계에 의하면 소득분배에서 상위 20 %/하위 20 % 소득비가 1976 년의 6.7 에서 1985 년경에는 약 10 정도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대적 빈곤문제는 계속 남을 것이라 전망된다.

2) 体制이데올로기의 변화—収斂論의 의미와 한계—

東·西両体制의 収斂論은 시대환경이나 논자의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나 기본적으로는 경제이론의 카테고리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변화를 보면 장차 양경제체제사이에 相異点이 점차 줄고 類似点이 많아져 궁극적으로는 양경제체제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収斂論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収斂된 장래의 세계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体制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줄어들거나 소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로스토우(W.W Rostow)의 「경제성장단계설」[6] 도 일종의 수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생산력 향상의 결과 소련이 고도대중소비시대에 도달하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다. 물론 로스토우의 이론은 反공산주의선언이라는 부제가 붙을 정도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것이긴 하지만 「收斂」된 사회의 모델로 고도대중소비사회를 설정한 것은 퍽 시사적이며 그후 틴버겐(J. Tinbergen)이나 갈브레이스(J.K. Galbraith) 등의 수렴론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 틴버겐(J. Tinbergen)의 收斂論

틴버겐은 그의 저서 「과거의 敎訓」[7] 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경제체제는 과거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그 약점을 극복하고 있고 점차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대체로 아래와 같은 요지의 收斂論을 전개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양경제체제는 아직도 公共부분의 크기, 생산결정에 있어서의 자유도, 경제계획, 가격, 저축, 투자계획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양경제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공산주의 경제에서 생긴 변화로서는 ① 전문적 기업관리자에 대한 인식의 증대, ② 노동생산성에 토대를 둔 임금정책의 도입, ③ 화폐지표에 의한 경제계획의 입안 즉 가격과 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 ④ 이윤에 대한 재인식, ⑤ 생산 목적으로서의 소비의 강조, ⑥ 경제계획에 있어서의 수학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 자본주의경제체제에 있어서는 ① 公共부문의 확대, ② 국가歲入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증대, ③ 제한적 자유경쟁, ④ 기업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통제의 증대, ⑤ 시장통제의 증대, ⑥ 계획의 역할 증대, ⑦ 지역발전계획의 채용, ⑧ 임금·가격 통제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양체제에 발생한 변화와 당면과제를 분석함으로써 틴버겐은 두체제간에는 특히 ① 생산결정과 계획에 있어서의 分權化(=非中央集權化)라는 점에서 수렴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② 소유형태의 면에서도 특히 서방측에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유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틴버겐은 그의 수렴이론을 국제정치에 적용시켜, 양체제간에 보다 좋은 사회경제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면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양체제의 수렴으로 동서간의 공존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전문화, 화폐, 이자 등의 가치지표의 역할증대 등은 자본주의 경제로 부터 배운 것이며,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국가부문의 확대,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간섭의 강화, 자유경쟁에 대한 제한, 소득재분배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의 상승, 계획화의 발전 등은 사회주의체제로 부터

배운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收斂경향은 양체제가 국민의 최대복지를 추구하기위한 最適의 조건을 지향하는 한 당연한 추세이며, 또한 이 收斂을 통하여 전면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나. 갈부레이스의 收斂論

그에 의하면 「소련경제가 시장경제로 복귀한 형태로 소련경제체제와 자본주의경제가 수렴하는 경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경제나 소련경제는 이미 시장경제를 졸업하고 있고, 현실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양측이 다같이 기업권력의 증대를 수반하면서 같은 형태의 계획화를 향하여 수렴하는, 중요한 경향이다.」[8] 소비자가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산업국가」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大法人기업 (Mature Corporation) 이다.

「Technostructure」[9] 를 모체로 하여 방대한 자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 大法人기업은 가격을 제정하여 자기의 생산량에 대한 수요를 보상하려고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국가는 계획경제의 사회이며 여기서는 시장경제의 기능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西側의 收斂理論에 대하여 東側 특히 소련의 논단에서는 1967 년경부터 학술논문이나 평론의 형태로 反論이 나왔는데,[10] 그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은 「부테게리」의 논문 「両経済体制의 收斂理論」[11] 이다. 그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西측 「收斂論」者들은 양체제간에 유사한 기술적 경제적 과

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양체제의 접근, 유사로 결론짓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비록 기술이 동일한 성격을 띤다하더라도 생산관계의 형태는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자본주의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경제적 제관계를 사회적 본질에서 추상화하여 기술에 귀일시켜버리는데 수렴이론의 기본적인 오류가 있다. 즉 부테게리의 반론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된 경제체제를 어디까지나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갈브레이스가 문제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술의 영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同質의 고도한 기술에 의한 인공위성발사의 성공도 이에 이르는 생산관계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체제의 접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광범한 간섭은 현대자본주의에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수렴론자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며 인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회주의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양체제의 기본적 차이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이며 생산수단의 자본가적 소유와 이윤추구때문에 부르죠아국가의 경제적 역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③ 양체제의 수렴을 양체제의 평화공존의 불가결한 조건 및 기초로 보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맑스주의 평화공존에 대한 접근은 양체제의 대립을 인식하고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

가의 평화적 관계의 유지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④ 수렴이론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새롭고 가장 精緻한 형태이다. 수렴이론의 지지자들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구제하려고 한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의 양립을 지향하려 한다. 인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일종의 雜種의 방향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등.

또한 수렴이론에 대한 소련측의 반론은 소련의 정치지도자에게도 보이는데 소련 당내의 이론가 「데미체프」는 1968년 6월20일 「프라우다」에 게재된 「현대에 있어서의 사회과학의 발전과 이데올로기 활동의 강화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수렴이론을 부르죠아 푸로파간다로 규정하고 이른바 사회주의국가 내부의 반대자나 유로콤뮤니즘의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이른바 「인간적 사회주의」를 내부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기초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은폐하는 사명을 가진 術語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수렴이론은 국가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현상을 해소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저한 몇몇 서방 경제학자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은 별로 없다. 다만 소련의 熱核物理学者 「사하로프」가 「진보 평화공존 및 知的 자유에 관한 고찰」[12)]이라는 논문에서 東·西간 특히 미·소간의 수렴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양체제간의 수렴을 다음과 같은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제 1 단계 (1960 ~ 1980) 사회주의諸国에 있어서 스탈린주의자 모택동일파와 좌익레닌주의적 공산주의자와 현실주의적 세력간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격화함으로써 국제적 국내적 그리고 당내부의 이데올로기상의 균열이 심화할 것이다.

소련 및 여타의 사회주의제국에서 이러한 변화과정은 격심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일으켜 결국 평화공존정책 민주주의의 강화 및 경제개혁의 확대를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의 이데올로기상의 승리를 초래할 것이다.

제 2 단계 (1972 ~ 1985)

미국 및 여타의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발전과 평화공존에 대한 강한 사회주의제국 및 국내의 진보세력으로부터의 압력으로 부르죠아계급의 개혁주의적 좌익이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적 좌익은 사회주의와의 화해계획 즉 세계적 규모의 사회적 진보, 평화공존, 사회주의와의 협력을 실시하여 소유형태의 변경을 실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텔리겐챠의 역할의 증대 인종차별과 군국주의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

제 3 단계 (1972 ~ 1990)

미·소는 서로가 相異点을 극복하여 남북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선진제국의 소득세의 20%가 이를 위해 쓰여지며 거대한 비료공장 원자력관계 설비가 개발도상국에 건설되고 해양자원이 대규모로 사용되어 공업화가 실시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軍縮이 진행될 것

이다.

제 4 단계 (1980 ~ 2000)

사회면에서 양체제의 수렴의 결과 사회구조의 차이가 감소되고 知的 자유, 과학 및 경제발전이 촉진되어 세계정부의 창설, 국가간의 모순이 해결될 것이다. 또한 核의 분야에서는 결정적인 진보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하로프는 수렴이론의 전문가도 아니며 세계정부가 창설되어 수렴이 완료한다고 보고 있는 그의 중·장기적 전망은 희망적 관측이상을 넘지 못한다. 다만 그의 입장에는 몇가지 흥미있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① 갈브레이스는 기술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전문화한 경제기구에 대한 당원의 발언력이 극도로 저하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하로프는 제 1 단계의 「현실주의자의 이데올로기상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아마 중공에 있어서의 「등소평」의 승리는 그 일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② 제 2 단계에 있어서, 사하로프는 자본주의국의 개혁주의적 좌파에 의한 「소유형태의 변경」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같은 사하로프의 관점은 오늘날 西側諸国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좌익의 脱급진화(deradicalization)와 우익의 자기개혁(self-reform) 현상과 관련해서 보면 퍽 示唆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西側의 收斂論이나 이에 대한 東側의 반론을 토대로 해보면, 금후도 자본주의체제는 현대사회가 도전을 받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불 정부의 개입이나 계획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정책선택의 확대경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도 내·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색체가 강한 정책선택의 경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80 년대에 들어가서도 양체제의 접근경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어디까지나 양체제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향이며, 결코 체제의 기본원리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 2 차대전후 30 여년간의 경험에서 보면 양체제는 다같이 산업화에 의해 파생된 문제에 대하여 유효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에 있어서도, 西측의 미국, 일본, 한국은 각기 자국내부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국에 있어서의 비능률, 자유의 억압, 관료주의 등의 약점을 비판함으로써 자국의 체제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고 있고, 소련, 중공, 북한은 자국내부의 문제해결능력을 결여한 채, 자본주의에 따르는 失業, 인플레, 불황등의 약점을 비판함으로써 자국의 체제이데올로기

인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금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체제가 도전을 받게 될 문제는 경제체제의 유효성 뿐만아니라 정치나 문화 등 다원적 체제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보람, 행동의 인센티브, 정치권력의 문제, 가치관 규범등의 문제에 대하여 양체제는 어떤 형태로든 답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東측의 체제이데올로기의 변화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혁명주의에서 실용주의로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공이다.

중공이 지금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지상명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20세기말까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大近代化」를 성취하여 자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실용주의」파는 이 근대화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四人組」에 대한 비판,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文革」당시 타부시되었던 정책을 정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이를테면 ① 엘리트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② 기업에서의 경영관리의 강화, ③ 물질적 자극의 채용, ④ 전문가나 지식계급의 역할 중시, ⑤ 과학기술의 연구추진, ⑥ 선진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 ⑦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과의 합작[13] 등

주지하다시피 중공수립이전의 혁명의 과제는 ① 제국주의 열강과 중국민족간의 모순, ② 중국내부에 있어서의 관료자본주의와 인민대중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新민주주의 혁명

의 과제였다. 중공은 그후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했다. 맑스는 역사발전과정을 노예제사회에서,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로 이행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중공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겪지않고 사회주의 사회로 진행했다. 현재 중공이 무엇보다 결여하고 있는것은 기간산업에 있어서의 생산력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다시말하면 중공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공이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사회의 성과를 내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모택동의 神格化와 「無誤謬論」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보면 모택동의 죽음은 곧 최고가치의 상실을 의미하나 「実事求是」의 실용주의파의 입장에 서게되면 모택동사상도 실제의 상황에 맞지않으면 생명력을 잃고만다.[14)]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정권수립후 「建国의 父」가 생존해 있을때는 혁명주의가 우세하기 마련이지만, 그 혁명의 父가 사망한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実用主義노선을 밟게된다. 스탈린사후의 소련이 그랬듯이, 모택동 사후의 중공도 예외일 수 없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모택동사상에 내재해 있던 여러가지 요소, 이를테면 혁명주체로서의 농민의 중시, 민속주의와의 결합에 의한 사회주의의 다양화, 관료적 중앙집권주의 비판 등이 모택동 사후에 開花한것은 사회주의 혁명정권의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며, 반드시 실용주의자 등소평의 리더쉽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중공의 內政 및 외교에 있어서의 혁명주의와 실용주의의 共存, 전자의 후자에로의 移行, 내지 循環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혁명정권의 역사적 경험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다만 나라마다 역사적 특성 사회적 조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발현형태가 다를 뿐이다.

80 년대를 전망할 때 이와같은 사회주의체제의 변용과정은 북한에 있어서도 중대한 外压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중공, 쿠바, 베트남등의 토착혁명정관과는 달리 북한은 제 2 차 세계대전후 소련군의 점령으로 강제된 이른바 「占領共産主義」로 출발했고, 아직도 冷戰型分断国의 상황을 지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解氷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중공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실용주의 현실외교노선이 침체와 진전의 곡선을 그리면서 결국 북한에도 받아들여질 것이며 김일성 사후에는 이른바 「父」개념으로 표현되는 열광주의적 개인숭배와 신격화도 반드시 비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西측의 주요행동자인 미국, 일본, 한국의 자본주의체제는, 아래와 같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혁명에 의한 붕괴가 아니고 부단한 자기개혁(self-reform)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① 자본주의사회는 산업혁명이래 부단히 생산력을 증대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성취했다.

② 실제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성취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한 예는 거의없다.

③ 사상의 영역에서도 자본주의 의회민주주의사회는 노예제사회나 봉건제 그리고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도달할 수 없었던 「個權」의 신장을 가져왔고, 자유는 아직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향유하기 어려운 최고의 가치임에 틀림없다.

④ 실제로 전후사의 경험에서 보면 자본주의 국가간의 대립보다 사회주의 국가간의 대립이 더욱 심각하다.

4 · 한반도의 냉전구조와 그 전망

전후 미·소양극화체제는 세계제국에 엄격한 양자택일을 강요했던 것이다. 각국은 두개의 이데올로기를 어느 하나를 그리고 두개의 군사블록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 중립은 없다고 주장한 점에서 미·소가 일치했다.

미·소가 2개의 군사블록 사이에 중립을 용인한 것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였다.

제2차세계대전후의 동서냉전은 국가간의 「힘」의 대립과 국내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이중구조를 그 특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요소와 국내상황이 밀접 불가분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에의 대처방법이나 동·서냉전과 국내정치와의 연계형태는 나라에 따라 달랐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개의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냉전이 순수히 대외관계의 문제에 한정된 경우다. 무엇보다도 냉전의 당사자인 미·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군사블록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냉전이란 미·소쌍방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국으로부터 자국에 가해지는 外圧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미·소의 대립이 2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공산주의혁명의 가능성이 있다던가 소련이

자유주의 자본주의화 한다는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압력은 아니었다. 미·소의 정치지도자는 각기 자국체제의 내부붕괴를 우려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주변이나 동맹국이 상대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한 이데올로기의 도전에 못이겨 내부붕괴하는 것을 두려워 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고 함은 실질적으로는 미·소 이외의 지역에서의 체제의 대립을 의미했던 것이다.

둘째, 어느 국가의 체제의 변화가 국제냉전의 일방의 진영에 편입된 경우이다. 이 유형에는 다시 2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국제냉전이 그 나라의 국내정치에 철저히 반영됨으로써 그 국가냉전의 일방의 당사로 되는 경우로 동구 소련위성국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어느 국가의 국내정치에서 일어난 변혁이 그 나라의 대외관계에 까지 반영됨으로써 그 나라가 냉전의 일방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인데 토착혁명으로 체제를 변혁한 중공이나 쿠바가 「東」의 블록에 편입된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동구와 같이 외부 압력에 의해 공산화된 나라거나 중공 쿠바와 같이 토착혁명에 의해 공산화된 나라거나 간에 일정한 기간 국내체제의 변혁이 완료된 후에 그 나라가 전체로서의 냉전의 일방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세째, 어느 나라가 국제냉전의 상황에 있으면서 그 국가안에서도 냉전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국제냉전이 국내정치의 구조

적 분열로 나타난다. 특히 국제냉전과 국내냉전의 복합이 가장 철저히 나타난 경우는 한국, 독일, 베트남 등의 분단국가였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후 냉전사의 경험에서 보면 세째 유형의 제국 즉 冷戰型分斷国이 언제나 문제지역이었으며 특히 한반도는 지금도 국제긴장의 요람이 되고 있다.

첫째와 둘째 유형의 냉전체제는 1950 년대의 비동맹주의를 표방하는 제 3 세계의 등장, 1960 년대의 미·소의 평화공존, 동구내의 민족주의의 등장, 중·소대립의 격화 등으로 서서히 해소되어 70 년대에 들어와 일·중조약, 미·중국교로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세째 유형의 냉전체제에 있어서도 서독과 동독은 사실상, "1 민족 2 국가"로 정착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도 공산화 통일의 형태로 일단락을 보았다. 한반도의 경우는 그간 한국측의 현실외교의 성과로 독일형에의 환경조성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불변한 통일혁명전략과 그것에 바탕을 둔 만성적인 심리전, 게릴라전 때문에 베트남형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는 독일형과 베트남형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전후 동서냉전체제의 최초의 희생이면서 최후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미지수의 지역으로 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데탕트를 위한 위대한 실

험이 될것이며 그 결과가 통일이든 진정한 평화공존이든간에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필자는 ① 미·소데땅트, 중·소이념분쟁, 일·중조약 및 미·중국교를 중심으로 전후동북아 냉전구조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힘의 양극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획일적 내용이 점차 다원화 함으로써 体制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이익을 앞세운 민족주의의 분출현상이 나타났음을 설명했다. ② 80년대의 동북아 4強과 남북한의 힘관계 및 그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전망하고, 금후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정치이념을 민족주의로 파악했다.

왜냐하면 전후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보면 민족주의는 금후도 세계정치에서 개별국가의 행동을 규제하는 常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류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있어서 유효한 세계정부가 달성되지 않고, 많은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명제대로 ① 국제정치의 기본양상이 이데올로기의 알력보다 힘과 힘의 투쟁관계라는 점, ②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주체가 아직도 민족국가인 점, 그리고 ③ 그 민족국가의 정책목표가 국가이익이라고 한다면,[15] 힘의 정치로 전개되는 국제환경속에서 개개 민족국가의 정치적 결정의 이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는 결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금후 동북아의 4強도 体制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시켜 각기 자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경제 노

선에 상응하는 민족주의(大国主義)를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대외정책의 전제로 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대세속에서 한국은 민족주의의 형성을 저해해온 냉전구조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금후 중·장기적으로 보아, 한국이 대세를 先取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한국이 선택해야할 정치노선에 심각한 혼미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강대국의 数만큼의 寄生세력으로 변신하여 힘이나 이데올로기의 양면에서 4분5열됨으로써 韓末의 정치상황을 방불케하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은 아래와같은 몇가지 상황판단을 전제로 하여 민족의 이익에 토대를 둔 민족주의를 어떤 형태로든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① 장래에 예상될 수 있는 주변강대국간의 데탕트나 이념상의 혼미에 따라 1/3 세기에 걸친 경직된 양극체제가 이완, 붕괴되는 과정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을 이념적 초석은 남북한 다같이 민족주의 일 것이다.

② 민족통일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은 금후 날이 갈수록 이데올로기적인 갈등보다 체제간의 권력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적용범위가 남북한을 포

함한 한반도가 되지 못하고 민족주의의 상징을 선취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경쟁의 시대가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⑶ 통일을 전제로 하지않는 한반도의 민족주의의 논의는 공허하다. 그러나 동서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또 가까운 장래에 그 냉전의 질곡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통일의 실현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정치적 결정을 하나씩 상호 선택해 나가는 길뿐이다.

현실정치의 세계에서는 최선(best)보다는 덜 나쁜것(less evil)과 보다 좋은것(more better)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통일을 지금 당장 문제삼지 않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필요항목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편의상 "내셔날 미니멈의 확충"[16] 이라고 불러본다.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내셔날 미니멈의 확충은 평화공존을 평화통일로 이어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것이다.

(註)

1) 국제적 내전의 의미에 관해서는, Sigmund Neumann, " The International Civil War " World Politics, Vol. 1. No. 3. April 1947, p.333 참조.

2) 전후 동·서냉전을 힘과 이데올로기의 양계기에서 파악한 논문으로는, 岩波講座 現代6所収 坂本義和 " 冷戦の政治的条件, " pp. 91 ~ 95 : Norman A. Graebner, ed., A Conflict of Ideology and Power, Heath Company, 1976. pp.77 ~ 96: Zbigniew Brzezinski, "Conmunist Ideology, Key to Soviet Policy 등 참조.

3) 중·소대립에 대한 서방측의 이론적 연구로는, H. Sherman, Radical Political Economy, N.Y., 1972, R. Garandy, Marxisme du XX^{e} siecle, Paris, 1969, G. Martinet, Les cinq Communismes. Paris, 1971, A. Werth, Russia: Hopes and Fears, 1969, P.M. Sweezy, Socialism, N.Y., 1949, E.H. Carr, 1917: Before and After, London, 1969, L. Deutscher, The Unfinished Revolution. 1917-1967, London, 1967, D.S. Zagoria, Sino-Soviet Conflict, Princeton u.p., 1962. 등 참조.

4) 朝日新聞 1978년 10월23일 「日·中平和友好条約全文」

5) 「1985년의 추정상황」은 국토통일원·정책기획실의 주관하에 李相禹교수가 편집, 대표집필한 「統一戰略開発 人間模擬実験状況資料」(SIMOKU-78-II) 가운데 pp.17-24를 실은 것이다. 模擬実験役割담당자는 安清市, 朴庸玉교수(美国), 崔昌潤교수(蘇聯), 安秉俊교수(中共), 金学俊교수(北韓), 金達中교수(韓国) 등이며 필자(崔相竜)는 日本을 담당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모의실험(simulation)을 위한 추정상황이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는 전혀 부정확한 예측이 포함될 수도 있다.

6)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1960, pp.4-16 참조

7) J. Tinbergen, Lessons from the Past, 1963.

8) 現代経済理論の エッセンス－ケインズ以後の 20 大理論 「J.K. Galbraith の理論」 pp.278-279.

9) Technostructure는 갈부레이스 경제이론의 주요개념으로서 과학기술자 경영자등의 집단이 풍부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메카니즘을 말한다. 갈부레이스는 이 Technostructure가 大法人 기업이 주역이 되는 「새로운 산업사회」에서는 株主를 위한 利潤極大化에 봉사하지 않고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안전한 수익을 확보한다고 본다.

10) 소련의 대표적인 경제잡지 「経済의 諸問題」(1967년8월)

「世界経済와 国際関係」(1968년1월)와 「푸라우다」(1969년1월6일)에 나타난 반론은 주로 틴버겐과 갈부레이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 이 논문의 번역, 소개는 岡山奇久彦 「緊張緩和外交」 日本国際問題研究所 1971. pp.112-113 에 의존했다.

12) 岡山奇久彦 위의 책 pp.126-128. 참조.

13) 「光明日報」 1978년11월15일 姚文元의 新編歷史劇 「海瑞罷官」 評에 대한 評, 「人民日報 1978년11월15일 「実事求是」에 관한 評論, 同年 11월19일자 壁新聞의 「天安門事件의 誤謬」등 참조.

14) 1978년 11월 21일 壁新聞 「民主的権利拡大의 要求」 同 11월22일 壁新聞 「故毛主席의 神格化 否定」등 참조.

15) H.J. Morgenthan, "Politics among Nation," 1966 이나 J. Frankl1, "National Interest," Macmillan, 1970 등에 나타난 권력과 국가이익에 관한 논의를 필자나름데로 정식화 해본 것임.

16) 내셔날·미니멈(national minimum)은 필자가 민족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 사항을 총괄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임.